

끝내 살리라 2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증보판

CONTENTS

- 2_ 발간사·격려사
- 16_ 화보
- 33_ 열사자료
 - 34_ 이승만정권 (한국전쟁~1960)
 - 42_ 박정희정권 (1961~1979)
 - 110_ 전두환정권 (1980~1987)
 - 266_ 노태우정권 (1988~1992)
- 492_ 색인 I

목차

CONTENTS

- 4_ 김영삼정권 (1993~1997)
- 160_ 신자유주의 시기 (김대중정권~)
- 305_ 열사·희생자 관련 논문
 - 306_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간 사람들 (김학철)
 - 371_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현황과 과제 (이영제)
 - 394_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현황과 과제 (문종석)
 - 406_ 추모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부)
- 411_ 유형분석 및 통계표
 - 412_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414_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 416_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 417_ 참고문헌
 - 418_ 의문사 및 과거청산 관련 학술지 및 논문 목록
 - 419_ 열사·희생자 자료집 목록
- 424_ 열사묘역도
 - 425_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 안내도
 - 426_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 428_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 430_ 천안 풍산 공원묘역 안내도
 - 431_ 대구 현대1공원묘역 안내도
- 432_ 추모연대·회원단체·부문단체 주소록
- 436_ 편집후기
- 438_ 색인 II

목차

김영삼정권

1993~1997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이양되었다는 점과 자신의 오랜 야당 시절 경력을 내세워 밀실야합을 통한 3당 합당의 부도덕성과 변절을 감추려고 했다. 1993년 집권초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일부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곧 자신들의 치부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한편 경제 회복과 안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슈 아래 단기적인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임금을 억제하며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노사협조주의를 유포하는 정책을 폈다. 한국노총-경총간의 임금합의를 통한 임금억제 등을 공기업에 먼저 관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다. 1994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시발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고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노동자 투쟁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적용, 3자 개입 적용, 손배가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편다'는 기초하에 노동법 개악을 시도했다. 결국 1996년 12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정치총파업을 벌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성사된 정치파업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1998년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에 출마시켜 민주노동당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허울 아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고 OECD에 가입했다. 이어 외국 제품이 한국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조치들을

완화했고, '자본 자유화'에 조응하는 정책을 폈으며, 2004년부터 쌀 수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 민중들은 쌀수입개방문제를 중심으로 우르과이라운드를 격렬히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신농정'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빚을 전가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도 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농민들에게는 폭력 진압과 구속으로 대응했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김영삼 정권 초기 '어떠한 우방도 민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김영삼 발언에 탄력을 받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김일석 주석 사망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후 조문파동과 주사파발언, 그리고 연세대 사태 등으로 정권의 반통일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반면 우르과이라운드와 OECD가입은 국내 재벌들의 이해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 개방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 작업들이 시작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외침이 무색하게 1997년 초부터 한보, 대농, 진로 등이 연이어 부도를 냈다.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금융자본의 팽창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자 민중은 고용불안과 생활파탄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운갑 (당시 29세)



경남 사천에 안장

1964년 11월 26일	출생
1983년 2월 10일	진주상고 졸업
1988년 1월 25일	삼미특수강 입사
1990년	노조 4대 대의원 활동
1991년 8월	4대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1992년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수 투쟁 전개
1993년 1월 25일	병상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중 암 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 노동조합을 위해 헌신하다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동지는 '88년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90년 4대 대의원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다. 4대 집행부의 총무부장 역임 시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 '91년 비상대책위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온몸으로 투쟁하여 노동조합을 사수하였다.

당시 임파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로 혼자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감옥에 간 동지들을 먼저 걱정했던 동지였다. '92년 임금동결 거부, 인원감축 반대 파업투쟁 시 암 말기 진단을 받고도 자기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투쟁하다 운명하였다.

동지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운명한 님을 추모하며 삼미특수강 동지들은 비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동지에 대한 투쟁정신을 기리고 있다.

님이시여!

적현벌 하늘에 올린 그날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생사의 순간에도 민주의 화신으로 의연했던

님의 모습은 생명이요, 불꽃이요, 삶의 지표입니다.

자본과 독재의 불의와 부정에 타협없이

뜨거운 삶을 살아오신 님의 발자국을

우리의 심장과 뇌리마다 아로새겨 두렵니다.

이제,

님의 넋은 민주의 불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가슴속에 영원하리!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 비문 (정운갑 추모사업회 세움) -

채희돈 (당시 30세)



화 장

1963년 2월 19일	충북 진천 출생
1989년~1990년	인천 남일금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1991년~1992년	노조 교육부장으로 활동
1992년 12월~1993년 2월 20일	남일금속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1993년 2월 20일	새벽 6시경 과로가 겹쳐 뇌경색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일찍이 헌신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변혁은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 노동자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진짜 노동자이다.

동지는 부도라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회사 정상화와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기꺼이 비대위 위원으로 나서는 헌신성을 발휘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다. 규칙적인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낮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물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주위 동료들을 격려하고, 밤에는 주변 동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엄습해 오는 겨울 추위와 싸우며 현장규찰임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당연히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짜증은 커녕, 오히려 주위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진짜 노동자의 표상이었다.

2월 20일 힘겨운 주간 활동을 마치고 야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것이 동지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 버렸다. 당시 동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뇌의 기능이 30%이상 정지되고 있었으며, 뇌의 기능 정지 속도가 빨라지면서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동지는 한 많은 노동자의 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찬란한 노동해방의 꿈을 살아있는 동료들의 과제로 남긴 채 끝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동지의 사인은 고인이 일반인보다 선천적으로 약한 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가 겹쳐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나타났고, 부인과 두 아들, 동료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동지의 시신은 화장되어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다.

정영삼 (당시 37세)



경북 영일 대송면 남성1동에 안장

1956년 2월 12일	경북 영일 출생
1972년~1976년	영일중, 포항고 졸업
1983년	공주사대 미술교육과 졸업, 안동중 부임
1987년	안동교사협의회 부회장
1989년 8월	안동 복수여중에서 해임, 전교조 안동지회 부지회장
1990년 이후	안동지회에서 단양지회로 진출하여 활동
1993년 4월 14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6년 경북 영일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내고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7년 공주사대 미술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79년 군 복무 후 복학하여 '律 문학회' 동인 활동을 하였다. '80년 광주항쟁 직전에 학내 민주화 투쟁 단식 농성단 활동 등 학내민주화에 적극 활동하였다. '83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교사의 길을 걸었다. 첫 부임지 안동중학교, 복수여중에서 근무하였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교직원노동조합 운동에 투신하였다. '87년 전교련 안동교사협의회 부회장을 맡는 등 활동하면서도 '89년 첫 시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를 간행하는 등 왕성한 문학활동으로 전인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복수여중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전교조 단양지회 상근활동을 하면서 단양지역 문학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전념하다가 '93년 4월 14일 단양중, 매포중, 단양국민학교 현장방문을 하고 단양지회모임 후, 늦게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93년 4월 14일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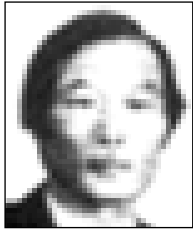
동지는 생전에 시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슬픈눈」을 발표하였고, 유고집은 「성냥개비에 관한 추억」,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이 출간되었다.

동지가 해고시절 복수여중 개학날 등교투쟁을 전개할 때 육성회 회원들에게 떠밀려 교문을 나오게 되었고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때 조서를 거부하려고 자신의 지문을 물어뜯으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동지에게 경찰은 “그래 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동지가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계란이다	너희는 누구 어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나처럼
나만 박살난다는	온몸으로 박살나도록
바로 그 생계란이다.	으깨져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사람들아	바위 같은 큰 적 앞에
부끄러워하라.	온몸으로 피투성이로
내 앞에서	내장까지 흘러 내리며
부끄러워하라.	싸워 본 적이 있는가.

- '절규3 나는 계란이다' 중에서 -

정영부 (당시 49세)



진주 나동 공원묘지에 안장

1945년 5월 18일	마산 출생 경남공고, 동아대공대 졸업 경남공고, 진주대동기계공고 근무 경남 수필문학회 부회장
1989년	진주대동기계공고 해직 전교조 초대 진주지회장, 서부경남국민연합준비위원장 진주신문 창간논설위원
1990년	제1회 전교조 '참교사상' 수상
1993년 5월 13일	지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45년 5월 18일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서 아버지 정갑성씨와 어머니 안갑주 여사의 사이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합성동은 여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다니며 소먹이고 풀 베며 자라 마산동중학교를 거쳐 부산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마치고 동아대학 전기과에 입학, ROTC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중위로 제대하였다.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진주직업훈련원에 잠시 근무하다가 진주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에 10년 남짓 근무하면서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 당할 때까지 기술 인력양성에 혼신의 정열을 쏟았다.

동지는 경남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경남수필문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87년 교사협의회부터 교육운동을 시작해 '89년 전교조 진주지회 초대지회장, 서부경남연합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부도덕한 권력의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던 중 결정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었다.

이런 중에도 동지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건전한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느껴 「진주신문」의 창간준비위원, 편집위원, 논설위원으로 일하였고 운명할 때까지 감사로 활동했다. 동지는 '90년 전교조에서 주는 '참교사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병환 중에도 기르던 사슴우리에 가서 사슴들과 어울리는 등 운명하기 하루 전에도 사슴들에 대해 말하였다.

사슴을 닮은 동지는 '93년 5월 13일 18시 30분 진주시 칠암동 경상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파란만장한 삶과 못다 이룬 꿈을 뒤로 하며 운명하였다.

동지는 수필집 「슬픔이 피어나는 언어의 배경」을 발표하였다.

조경천 (당시 48세)



인천 시립 공동묘지에 안장

1945년 7월 29일	평양 출생
1963년	고등학교 중퇴 후 공장생활 시작
1981년	한양합판 입사
1988년 5월	한양합판 노동조합 설립에 중추적 역할 담당
1990년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
1991년 7월 1일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일하던 중 해고
1992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으로 승소
1993년 4월	고법에서도 승소했으나 회사측 복직 거부
1993년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45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때 어머니와 단신 월남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노동자가 되었다. '70년대부터 인천지역에서 노동생활을 시작하여 '81년 한양합판 보일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해고될때까지 10년동안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10년 동안 무결근으로 모범 사원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88년 한양합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역으로 나서 초대 부위원장을 맡는 등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심을 다하였다.

'91년, 동지는 전 조합원에게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회계감사로서 감사보고를 하였는데 회사는 감사보고가 불법집회라면서 정직을 시키고 해고의 빌미를 찾고 있었다. '91년 관례적으로 인정되었던 야근근무 중 심야휴식을 문제삼아 근무자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지를 해고시켰다. 10년동안 보일러실 먼지와 유해가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던 동지는 부당해고에 맞서 출근투쟁과 법적인 소송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일용노동자로 지방을 돌아다녀야 했다.

'93년 4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과, '해고된 자는 1심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 복직시킨다' 라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채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임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표를 강요하였다.

지병인 심근경색은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었지만 수술비용이 없어 미루다가 '비록 회사에서 일하다 몸이 상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아 수술하여 건강을 되찾겠다' 는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같은 해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인천지역 해고동지 협의회에서 '98년 추모문집 「해고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를 발간하였다.

고정자 (나이미상)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8년	원진레이온 입사 후 처리 정련과에서 15년간 근무
1991년	직업병 증세 발견
1993년 5월 21일	직업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8년 원진레이온 정련과에 입사하였는데, 장기간 근무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고 우울증세와 함께 성격변화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과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으로 유명한 사업장이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매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었다가, '91년 원진레이온 전·현직 노동자 1,500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한 가지만 직업병으로 발견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직업병이었고 법률적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1년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직업병 증세인 정신분열로 자살하게 되었다.

사망 이틀 후 노동부는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치 않음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박미경 (당시 26세)



화 장

- 1967년 6월 대구 출생
- 1985년 2월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9년 2월 대구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
재학시절 영남대 노래패 <예사가락>에서 활동
- 1989년 8월 대구 심인중학교 영어강사로 근무
- 1991년 2월 부당해고
- 1993년 2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학생부장으로 활동
- 1993년 6월 26일 오후 4시 20분경 약 2개월간 암으로 투병하다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7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대구경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5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재학시절 민중가요 노래패 '예사가락' 에서 활동하며 참교육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87년 6월 항쟁 때 문예패를 이끌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89년 2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면서 잠시 학원강사를 하다가 그해 8월 대구 심인중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참교육을 실천하였다.

'91년 2월 심인중학교 영어교사 공개 채용시 최고의 점수를 받고도 채용되지 못했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진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93년 2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학생부장으로 상근을 시작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참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지는 항상 해맑은 모습으로 지친 동지들의 어깨를 풀어주고 삶의 노래로 다시 동지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항상 앞장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93년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4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온나라걷기대회' 비디오 촬영도 열성적으로 활동하였으나 '93년 6월 26일 오후 4시 20분경 26세의 젊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동지의 유해는 화장을 하여 언젠가 동지들과 함께 다녀온 팔공산 수태골 양지바른 계곡 위에 안개비와 함께 흩뿌려졌다.

동지는 생전에 노래패 '예사가락' 에서 '하얀언덕에' (박미경 작사, 작곡)를 만들었고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94년 추모집 「그 고운 노랫소리 우리 가슴에 남아」를 발간하였다.

제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빛살 던지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씻어내리는 눈물 삼킬수록
 그대 입가에 더욱 투명한 웃음 일렁입니다.
 그 웃음은 폭 맑게 흐르는 물살과도 같고
 푸르른 보리잎같이 청정하기만 한데
 당신은 남아 울부짖는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이여, 그대 앞에 타는 불꽃이여, 눈물이여 중에서 -

서영호 (당시 31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2년 3월 1일	출생
1981년	우석고등학교 졸업
1986년 11월 21일	현대자동차 입사
1989년	소위원 가입
1990년	4.28 연대투쟁시 선봉대 활동
1991년	소위원 활동, 노민주(노조민주화추진사업회) 사업부 3대 집행부 정책연구부장 교양지 '단결과 전진' 편집위원
1992년 1월 21일	경찰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 중 차량사고로 해성병원 입원
1993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경남 울주군 언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언양에서 생활하다가 울산 우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6년 11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다. 약덕 자본가와 그들을 비호 지지하는 독재자들의 야만적인 횡포성에 맞서 노동자 의식을 키웠다. '88년 소속 선거구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항상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면서 노동조합 민주화에 앞장서 왔다. '90년 4.28연대 투쟁시 선봉대로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진격하는 경찰병력에 맞서 현대자동차 정문과 구정문을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경찰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가두투쟁에 항상 선봉에 섰다. 또한 '90년 말부터 교양지 '단결과 전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91년 3대 집행부 정책연구부장을 맡았다. '91년 12월말 성과분배정의실현 상여금 투쟁을 벌이고 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를 정권과 현대재벌은 물리력을 이용하여 짓누르려 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여론에서는 경찰투입이 임박했음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다.

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투쟁의 파고는 다소 경직되었으나, 상용 5공장 조합원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작업장을 사수한다는 결의로 뭉쳐 있었다. 동지도 정문을 사수하는 책임자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92년 1월 19일 공권력 투입설이 여론을 통하여 선전되면서 긴장감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당시 현장에는 500여명의 사수대만 남아 있었으나 12,000명의 경찰병력이 회사의 담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동지는 즉각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차량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 소속 조합원이 운전하던 브레이크와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 차량이 동지와 충돌하게 되었다. 칠혹 같은 밤에 브레이크와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였다.

동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520여일 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93년 7월 1일 끝내 운명하였다.

김주리 (당시 29세)



화 장

- 1964년 2월 전남 목포 출생
- 1982년 이화여대 정외과 입학
- 1989년 우진상사, 진영물상입사
- 1992년 해고자들과 함께 '미모사' 설립
- 1993년 7월 미모사 근무 중 화상,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며 현실의 모순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미싱을 배워 노동현장에 취업하였다.

그는 부평 공단의 우진상사와 진영물상 등 주변 봉제공장에서 활동하다 해고당한 후 동료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다.

동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지의 모든 것을 바쳤던 '미모사'는 가장 긴 시간을 일하면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았으나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봉제공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하고, 스스로 주인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생산 공동체였다.

그러나, 동지는 '미모사' 에서 작업 중 불의의 화재를 당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동지들의 품을 떠나고 말았다.

임혜란 (당시 28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5년 4월 17일	서울 출생
1984년	숭의여고 졸업 고려대 가정교육학과 입학, 고대 기독교학생회 동아리 활동
1988년	운동 위해 중퇴, 인천 링크시스템 입사
1989년	대한 트랜스(주) 입사,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1990년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해고당함 업무방해 혐의로 6개월간 옥고
1991년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노동 선교문화원 창립 선교문화원 '땀방울산악회' 간사로 활동
1992년 9월 17일	백혈병으로 입원, 투병활동
1993년 9월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서울출생으로 숭의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가정교육학과에 입학하여 고대기독교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88년 대학교를 중퇴한 이후 인천 링크시스템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89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구로1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트랜스(주)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6개월 간의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출소 이후 동지는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노동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하였고, 문화원 '땀방울산악회' 간사로 활동하던 중 백혈병으로 '92년 9월경부터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여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동지는 '93년 9월 9일 꽃다운 나이에 신촌 세브란병원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길옥화 (당시 32세)



1962년 8월 29일	출생
1985년	서울대 졸업
1985년 3월	중화중 임용. 평교사협 활동
1989년 3월 1일	신양중 전출
1989년 8월 17일	전교결성관련 해직
1989년~1993년	서울시 동북부지회 편집위원. 해직이후 참교육 활동
1993년 6월 24일	정부 선탈퇴 후선별 복직방침발표, 이에 심한 거부감과 모욕감으로 고민
1993년 9월 26일	춘천에서 투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후 '85년 중화중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89년 3월 1일 부터 서울 신양중학교 국어담당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전교협'이 임의단체로서 한계를 절감하고 조직 형태를 노동조합으로 바꾸게 되자 '89년 6월 16일 신양중학교 학생부실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양중학교 분회결성'에 참여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해직을 당하였다.

동지는 해직 이후에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참교육실현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 서울동북부지회에서 지회보 「올푸름」의 편집위원으로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93년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해직교사 복직방침이 발표되었고 동지는 이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모욕감으로 고민하였으며 당시 동료교사에게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는 아이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저히 굴욕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전교조 탈퇴각서 시한 이틀 전인 '93년 9월 26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소재 삼익아파트 13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의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한 선(先) 전교조 탈퇴, 후(後) 선별복직 방침에 그 원인이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온 몸으로 맞서 싸웠던 동지의 삶은 참교육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최 응 (당시 2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4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 출생
1983년	강릉고 졸업, 서강대 물리학과 입학 동아리 '탈' 연구회 가입 활동
1986년	노동운동을 위해 인천으로 이전
1987년	경동산업 입사, 풍물패 활동 및 디딤돌 소모임 활동
1989년	경동산업 해고, 인해협에서 간사
1990년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실무 간사
1992년	인천민중연합 노동자위원회 활동
1993년	인천민중연합 부설 우리노동상담실 노사부장
1993년 10월 26일	신혼여행 중 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3년 강릉고를 졸업하고, 그해 서강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교내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동지는 장구장단을 맞추는 '탈'에 가입하였다. '84년 교내 경찰이 살아지면서 동지는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84년 영등포에서 노동절 가두투쟁으로 붙잡혀 혼방이 되는 등 적극적인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다. '86년 말 역사에 대한 진보의 희망을 노동자계급에서 발견한 동지는 병역을 거부하고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준비하였다. '87년 극심한 산업재해로 1년에 잘린 손가락만 한 가마씩 나온다는 경동산업에 입사, 풍물패 활동과 민주파 모임인 '디딤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당시 '유현상'이라는 가명으로 현장 활동을 하였는데, 서강대에서 풍물패 활동을 하였던 경험과 '미키마우스'라는 불리웠던 밝은 미소와 얼굴 덕분에 경동산업의 노동조합 민주화 조직인 '디딤돌'과 풍물패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던 동지는 회사측의 탄압으로 '89년 봄,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 그러나 회사는 동지에 대한 해고에 그치지 않고, 디딤돌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였고,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디딤돌 회장단에 대한 징계회부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디딤돌 회원들과 조합원들의 농성으로 결국에는 두 명의 동지가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지는 '90년 초까지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 실무자로 근무하며 복직투쟁을 전개하였고, '90년초 인천민중교육연구소와 '92년 인천민중연합 상담실 실무자로 근무하였으며, 병역징집 거부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방문조차도 커다란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이후 결혼식을 올리며 노동자의 삶을 결의하던 동지는 신혼여행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를 당하여 운명하고 말았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함께하는 최응」을 1997년 발간하였다.

윤성씨!	당신이 생각했던 노동해방과
나의 가까운 동지가 될 수 있었던	혁명의 길을 제가 걸어갑니다.
당신을 대하고 보니	나에비있어 보이지 않는 동지로
저는 그동안에 가졌던 안타까움이	용기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용기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 이동희의 「함께하는 최응」중에서 -

박성호 (당시 43세)



공주 인근 선산에 안장

1952년 5월 24일	출생
1986년 1월 27일	과학기술원 입사
1993년	과기원 유전공학연구소 4대 노조위원장
1993년 12월 16일	출근 중 불의의 교통사고
25일	충남대병원에서 끝내 운명
27일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장으로 장례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2년 5월 24일 공주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마치고, '86년 1월에 과학기술원에 입사하였다. '87년 7.8.9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노조 건설이 시작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민주노조건설, 과학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가해지는 과학기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분쇄와 과학기술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다.

동지는 '87년 12월 9일 과학기술원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과학자가 아닌 과학기술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자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88년 4월 16일 유전학연구소지부노동조합을 건설하고, 2대 위원장을 맡아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 건설에 매진하였다.

또한 업종별 연대단체인 업종회의대전충남 활동과 대전지역 연대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연대하였다. 과학기술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면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하던 동지는 '93년 과학기술원 기관분리로 유전공학연구소가 분리 독립되면서 노동조합도 자동 분리되어 과기원 유전공학연구소 4대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동지는 '93년 12월 16일 출근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동지는 과학기술노동운동의 제1세대로서 과학기술노동운동의 못 다한 한과, 한국과학기술의 민주적 발전을 보지 못한 채 25일 운명하였다.

김성윤 (당시 62세)



백 제

1932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출생
1971년	택시업계에 입사
1980년 7월	상호운수주식회사 입사
1986년 12월~1992년	12월 상호운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고문
1994년 1월 24일	오전 5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 를 작성하고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32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71년부터 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노동자로서 살아갔고, '80년에는 상호운수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86년 말부터 '92년 말까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과 노동조합 고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동지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 법제화', '사납금제의 철폐와 완전월급제 실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를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93년 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 법제화' 가 보류되면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마지막 투쟁의 방법으로 자본과 정권에 항거하여 '94년 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 라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동지의 자결 이후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 법제화' 가 이루어졌으나 자본과 정권은 개악하여 시행시기를 3년내지 5년이후로 유보시키고 그해 10월 '97년 9월 1일부터 시행기로 규정하였다. 현재 '05년 현재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택시업계는 도급과 다른 방식으로 장부 조작을 통하여 전액관리제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다.

...볼초 김성윤은 1971년 7월부터 택시기사로 입문하여 현재는 상호운수 기사로 만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에도 단 한번도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급주 급 잡기로 오직 가정에만 성실하게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역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시기사들의 생계보장을 약속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5, 6공을 통한 위정자들의 뇌살종은 식언으로 끝났고, 우리 택시기사들의 오직 하나뿐인 희망을 송두리 채 뽑아갔습니다. ... 오전, 오후 2부제 운행으로 1부 운전사인 오전반은 정제된 차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받은 보수는 기본급 302,090+승무수당 46,800+야간수당 47,260 = 396,150, 일금 396,15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은 각 회사마다 회사 실정이 어렵다고 맨투맨 공작으로 규정에도 없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격차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2,300원씩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교통관 속에서 헤메다가 임금이 미달되면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 살기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급료가 고작 삼십구만육천백오십원이라면 이는 주거비도 안되는 돈입니다. 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자녀교육은 무엇으로 시키며 후생비는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하략)

- '94년 동지가 자결하면서 남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중에서 -

김상옥 (당시 33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1년 1월 7일	서울 출생
1980년	서강대 문과대 입학
1983년	서강대 민주화 시위 주도로 구속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의 대중모임 '대나무' 에서 활동
1986년	구로 동일기업 노조설립 투쟁으로 구속
1988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편집위원
1990년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노동분과 국제분과 연구원
1991년	서강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1992년~1993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홍보부장
1994년 2월 19일	위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9년 10.26사태와 12.12 군사쿠데타, 그리고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강대 1학년을 맞이하였다. 점차 현실에 눈을 뜨게 되어, 동문선배의 권유로 향린교회 대학부 모임에 참가하면서 사회모순과 지식인의 역할 등이 담겨있는 책들을 접하게 되었고, 2학년 때는 씨클 '江'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운동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지는 졸업정원제, 강제징집 등의 문제와 광주학살의 책임을 물으며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던 당시에 학내 시위에 가담하면서 '요주의 운동권'으로 찍혔다. 4학년에 들어 영장을 받았으나, 군 입대를 하루 앞둔 3월 24일 인문사회관 3층 난관에 올라서서 '학우여'를 연발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83년 12월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정책으로 인해 '유화국면'이 조성되고 석방된 학생들이 복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동지는 복학조치가 정권의 기만술책이라고 보고 복학을 거부한 채 노동운동을 찾아 농약 냄새가 지독한 농약을 포장하는 공장에 취직하였고, 그후에는 구로와 시흥의 소규모 공장을 돌면서 노동자 생활을 계속하였다.

'84년부터 노동운동이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으로 발전해나가자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이 지도하는 '대나무'라는 조직에 참가하여 구로지역의 가두시위와 현장지원 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인천의 5.3시위가 있기 직전인 4월에 구로에 있는 '동일기업'에 입사하여 6월에 노조결성을 주도하다가 두 번째 구속을 당하였고, '87년 6월 항쟁이 불붙던 시기에 출소하여 실 틈 없이 거리로 나가 시위 물결에 합류했다.

이후 양평동에 위치한 플라스틱 공단 내 종이박스를 만드는 한 회사에 입사한 동지는 '88년 6월경 공장이 파산직전에 이르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기관지 「민주노동」을 발간하는 일을 도우면서 영등포·구로지역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에 참가하는 한편, 11월에는 문래동에 위치한 소규모 철공장에 취업했다. 그러나 '90년 1월 공장에서 무거운 철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공장에 다닐 수 없게 되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에 나가 제3세계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제문제를 연구했다. 그리고 '90년 가을에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 참가하여 노동분과를 이끌었고, '91년부터 '한노련'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동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중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못 다 이룬 꿈을 남긴 채 운명하고 말았다.

최성묵 (당시 49세)



- 1945년 11월 14일 안성 출생
- 1969년 양성중학교 입학, 평화버스에 입사
- 1985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농성 참가
- 1986년 평택 시외버스인 서울여객입사, 노조대의원으로 활동
- 1990년 성호여객입사, 노조대의원, 노사의원, 상집위원 활동
- 1994년 3월 11일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탄압에 맞서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9년 평화버스에 입사하여 운수노동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85년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농성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86년 서울여객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지는 '90년에는 평택시에 있는 성호여객에 입사하여 동료기사들의 억울한 사정과 회사 측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위원, 상집위원 등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93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동지가 속한 '한솔회'에서 위원장 출마하여 3표차이로 떨어졌으나 선전하였다. 이후 회사는 위기의식으로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던 11명을 면직하거나 사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동지는 '94년 3월 11일 회사 측의 이러한 부당해고와 근로조건에 항의하러 갔다가 회사 전무와 동반 분신하여 결국 운명하였다.

동지의 분신 이후 경찰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사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술에 만취하여 평소 감정을 갖고 있던 회사 간부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방화살인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맞서 인근의 민족민주단체와 노동운동단체들이 '최성묵열사 사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지의 명예회복,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중시, 유가족 보상 등을 요구하며 힘찬투쟁을 전개하였다. 한 달 이상 전개한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해 4월 15일 '평택·안성·아산지역 노동조합대표자 연대회'를 결성하고 5.1 집회를 평택역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동지의 분신은 억눌린 평택·안성·아산지역의 노동자들을 일깨우고 민주노조 연대체를 건설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성호여객 방화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두 가지 사실에 비애를 느꼈다.

첫째, 아직도 '분신'으로 항거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현실이 이땅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사회의 전근대적 인맥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맥이 가진자에게는 출세의 지름길이 되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암적인 요소가 됐다는 점이다.”

- 황훈영 기자 「주간 시민의 신문」, 3월 31일 제 40호 '기자의 눈' 일부 -

김낙성 (당시 39세)



금촌 기독교원묘지에 안장

1955년 12월 3일	충북 음성 출생
1975년 12월 19일	용산공업고등학교 통신과 졸업
1991년 5월	한국통신노조 개혁모임에 참가
1992년 4월	서울지방본부 대의원 피선
1992년 7월	서울지역 '노민주' 결성
1993년 3월	조합집행부의 징계기도에 맞서 저지 투쟁 전개
1993년 11월	'전국노민주' 결성
1993년 12월	복지후퇴 및 직선제사수 투쟁위원회 결성
1994년 4월 17일	백혈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미아전화국 창동분국 시절 기독교 '신우회' 활동 등을 통한 성실함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91년 4월의 대의원 선거에서 어용지부장을 제치고 선출되었다.

'91년 봄 한국통신은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합작하여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던 때였다. '82년 노조가 창립된 이래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조합원위에 군림하여 노동조합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이용해왔던 소수 어용세력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들은 사측과 결탁하여 '91년 11월 11일 데이콤과의 국제전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체신부의 부당간섭에 항의하던 22명의 동지들을 해고 등 중징계하는 등 민주노조의 싸움 아예 없애려 기도하였다. 또한 창동 반장이던 박문형 동지도 해고를 당하자 동지는 농성에 적극 가담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동지는 어려울 때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통신은 '93, '94년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어용산별 노조를 만들려는 공작을 펴는가 하면, 어용위원장, 지부장 임기를 3년 연장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 이에 동지는 한국통신 측과 어용노조 양측의 반민주적 음모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에 헌신하였다.

동지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도 부모님 걱정하신다고 집에 알리지 않고 상을 당한 동료 집에 가서 함께 밤을 새우며 위로하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했다.

동지는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동지들을 뒷받침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의지가 부족하여 뒤로 처지는 동지가 있으면 며칠 밤을 대화해서라도 동지를 다시 투쟁의 대열에 끌어올리곤 하였는데 '94년 4월 17일 백혈병으로 운명하고 말았다.

“동지를 한마디로 집약하여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가 스스럼없이 “헌신적인 자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지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진정한 노동운동가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나는 반드시 일어나라라」를 '96년 발간하였다.

임종호 (당시 30세)



화 장

- 1964년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출생
- 1982년 동양기계 입사(현 통일)
- 1983년 창원기계공고 졸업
- 1987년~1988년 정당방위대 활동
- 1988년 노동조합 15년차 대의원
- 1989년 금성사 창원대로 가두투쟁으로 1차 구속
- 1991년 1년 6개월의 실형만기로 석방. 노동조합 18년차 대의원
-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해 굴뚝농성을 벌이다 2차 구속, 징역조정법과 업무방해로
실형 10월, 재판도중 법정 모독죄로 3년 실형 선고
- 1994년 9월 18일 진주교도소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부모형제는 버려도 조합 활동과 동지들은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던 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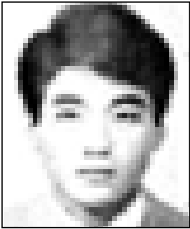
동지는 '89년 6월 금성사 창원대로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수배, 구속되었고 '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굴뚝 투쟁을 벌이다 또다시 구속되었다. 2차 구속된 상태에서 동지는 재판 도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항의, 느슨하게 풀어진 수갑을 풀어 재판장에게 던져 법정모독죄로 3년의 실형을 추가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계속되는 고난의 실형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동지들에 대한 끈긋한 사랑을 잃지 않고 힘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독방 수형생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94년 8월 진주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그 해 9월 18일 독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 교도소에서는 자살로 발표했으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엔 투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조직보존논리로 그 것을 합리화시켜버린 것 같군요. 그러나 싸워야 할 시기임에도 투쟁을 피해나가려는 잔패로 무사안일 함속에 보이는 것은 스스로 무기력함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어요. 이제 자신감을 되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소. 때는 바야흐로 새 봄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눈앞에 있소. 새 봄에 새싹이 피어오르듯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구려. 다시 태어나야 할 민주노조. 찬란한 꽃봉우리를 맺기 위해 뿌려져야 할 씨앗과 같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를 해보구려...’

- 청주교도소에서 1994.1.11 -

양봉수 (당시 29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7년 4월	전남 무안 출생
1986년 2월	목포 덕인고 졸업
1990년 10월	현대 자동차 입사(의장 2부)
1991년	소위원 활동, 저시급 동지회 2공장 대표
1992년 2월	성과분배투쟁 관련으로 해고, 1993년 1월 원직 복직
1994년	의장2부 소위원회 부의장, 8대 대의원 당선
1995년 2월	의장2부 신차 투입관련 회사 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맞서 라인 정지 건으로 두 번째 해고
1995년 5월 12일	공동소위원회연합 2기 출범식 참석을 위해 정문 진입시 경비들의 폭력적인 저지에 항거하며 본관정문 앞에서 분신
1995년 6월 13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31일간 사투 끝에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강직한 품성으로, 동료와 노동조합에 대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91년 말 노조의 성과분배 요구투쟁에 회사 측은 노조 없애기 작전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동지는 1차 부당해고 되었다가 '93년에 복직되었다. 복직 후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동지는 작업강도 조정을 위해 같은 사업부 대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회사 측은 신차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면서 작업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대의원사이에 협상이 계속되어 '신차 투입은 대의원들과 합의한 후 실시 한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생산현장에 신차를 투입하였고, 동지는 담당 대의원으로서 회사 측의 노사합의 파기에 강력히 항의하며, 신차를 투입한 생산 라인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를 이유로 동지는 해고당하였고, 경남지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 측은 법적인 소송에 계류 중일 때는 조합원이 아니라 볼 수 없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으로 노사협상장에 들어와 있는 동지를 경비 20여명을 동원하여 정문 밖에 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고, 정문출입을 저지하였다.

'95년 5월 12일, 동지는 그날도 공동소위원회 연합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 해고자 4명과 함께 회사 앞에 갔으나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법과 단체협약마저 무시하고, 계속되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온몸에 신나를 붓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저지하였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동지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병상에서도 동지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살고 싶다. 현장조합원을 사랑한다.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며 투쟁의 의지로 살고자 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스물아홉의 생을 마감하였다.

박삼훈 (당시 40세)



경북 영덕에 안장

1955년	경북 영덕군 출생
1968년	경북 영덕 축산국교 졸업
1971년	영해 중학교 졸업
1982년	대우조선 입사, 특수선 생산1부 근무
1995년 6월 21일	회사의 노동통제 관리방식에 따른 노동탄압에 분개 분신후 투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5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유년시절과 중학교를 마치고 '82년 대우조선 특수선 생산1부에서 줄곧 근무해왔다. 평소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이어서 동료들과 벽이 없이 밝게 살아온 평범한 노동자였다. 동지는 노동조합에 간부를 맡아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평조합원으로서 집회참석과 노조행동지침을 충실히 수행해온 열성조합원이었다.

대우조선은 '90년 이후 노동조합 집회 등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관리라인을 총동원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었다. 회사는 신경영 전략으로 현장의 노동통제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 감독하는 인간말살 정책을 펴왔으며 단체교섭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회사 측의 살벌한 노동통제와 노무관리아래 노동자들은 호봉 하나, 잔업특근 하나에 동료와 경쟁하고 눈치보며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했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참석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다. 회사 측의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동지는 '95년 6월 21일, 12시 20분경 특수선 본관 사무실 옥상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후 투신하였다.

동지는 노조간부도 아닌 평범한 조합원으로 인간의 기본권리까지도 박탈하는 숨막히는 현장분위기를 인간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받쳐 저항하였다. 분신투신 후 대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12시 58분 끝내 운명하였다.

이 놈의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치솟는 물가를 따라 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투하면 집회 참석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으니까?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올 임금 100% 쟁취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여 각성하라
 앞서간 노동동지 뒤를 따라갑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기필코 승리하기 바랍니다.

- 1995년 6월 21 분신헌전 유서 중에서 -

이민호 (당시 30세)



충주 시립공원묘지에 안장

1965년	충주 출생
	서울 상경 후 인쇄 노동자로 근무
1991년	서울 인쇄노조 쟁의부장, 대의원 활동
1993년	베아산업 취업
1994년	임금인상 투쟁 과정에서 해고당함
1994년 8월	삼영화학 청주공장 입사
1995년 7월 2일	야간작업 중 사고 당함
7월 3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5년 충주의 전형적인 농가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80년대 서울로 올라와 줄곧 인쇄 노동자로 살아왔다.

그는 '91년에는 서울 인쇄노조 쟁의부장과 대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였고, 사회당 추진위 성동지부 회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서노협 선봉대 활동도 하였다. '93년 고향인 충주에서 베아산업에 취업하여 이듬해 '94년 임금인상 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이후 동지는 '94년 8월 삼영화학 청주공장에 입사하여 생산5과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삼영화학노조는 회사 측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였고, 그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현장 내 활동을 조직했다. 그러던 '95년 7월 2일 야간에 기계를 분리해서 점검하던 중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도의 전신화상으로 인한 호흡기와 폐가 타버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같은 해 7월 3일 8시 운명하였다

동지의 짧은 삶은 모범적인 노동운동가의 삶이었다.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갔으며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주위의 동료들을 항상 잘 챙겨나가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아직도 그를 만났던 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서전근 (나이미상)



1995년 9월 4일 철도청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항거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5년 9월 4일에는 철도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던 동지를 철도청에서 노동탄압을 위해 오지로 전출을 보내려 하였다. 동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인 철도노동자 민주화 운동에서 자신이 굴복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철도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동지들이 줄줄이 오지 전출을 받게 되어 수십 년에 걸친 어룡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에 이를 결사적으로 막고자 한 것이다.

동지는 끝없이 길게 뻗어 있는 은빛 레일을 보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 억압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일해야 하는 동료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대전 철도 공작장에서 분신한 후 한 점 불꽃이 되어 산화해 갔다.

결국 동지는 철도 노동자들의 인간된 삶과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쳤던 것이다.

조수원 (당시 28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7년	강원도 태백 출생
1986년	대우정밀공업에 병역특례로 입사
1991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해고
1993년	마포 민주당사에서 38일간의 단식투쟁
1995년 12월 15일	민주당 서울시 지부에서 목을 매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86년 경남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주)에 입사하여 병역특례 노동자로 열성적으로 일하였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던 이후 대우정밀노동조합에 민주노조가 건설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러자 회사는 병역특례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남겨져 있던 동지를 포함한 병역특례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91년 6월 18일 해고 후 병역특례 해고자들은 7월 15일 첫 상경투쟁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상경투쟁결과 방위산업체에서 민주노조 구심을 튼튼히 세우는 병역악법 개정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3년 7월 17일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이후 동지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기나긴 수배 생활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94년 2월 전해투 선전국장을 맡으면서 '94년 4월 1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해제와 원상회복을 위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병역특위 구성은 특례보충역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38일 동안의 단식농성 등을 벌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시작하였다.

병역특위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조직하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원상회복과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과 탄원서 발송을 하기로 하고 박형규 목사, 송월주 스님, 이세중 변호사, 서경석 사무총장 등 500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탄원서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든 탄원서가 병무청으로 이첩되었고 병무청은 행정조치 불가라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계속되는 투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자본과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거와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 진영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며 동지는 '95년 12월 15일 목을 맴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동지의 처절한 죽음과 호소에 대우정밀노동조합과 민주노동진영 노동자들은 열사의 뜻을 기리며 가열찬 총파업투쟁 등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대우정밀의 병역특례해고노동자들의 병역문제와 해고자 복직투쟁은 승리하고야 말았다.

김시자 (당시 3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1년 10월 8일	전북 김제 출생
1984년 2월	경기 간호전문대 졸업
1984년 3월	한전부속병원 입사
1989년 3월	전력노조 한일병원 지부위원장 피선
1993년 3월	위원장 재선
1996년 1월 13일	어용노조의 노동탄압에 항거하여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4년 2월 경기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84년 한전부속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87년 7,8,9 노동자 대 투쟁을 거치면서 이 땅의 소외 받던 노동자들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으나 한국전력노조는 3중 간선제의 철옹성으로 어용을 유지하였다.

동지는 '89년 한국전력 한일병원지부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용노조 퇴진, 노조간부정년연장 무효와 등 한국전력노조 민주화에 앞장서왔다. 작지만 단아한 용모에 언제나 순박한 웃음을 띤 동지는 노동조합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해 나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리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갔던 노동자였다.

어용노조 집행부는 '96년 1월 7일 '규약위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내걸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출석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1월 12일 오후 2시경, 경주 보문단지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전력노조 54차 중앙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김시자 동지와 오경호 동지(광주전력지부 위원장) 2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할 예정이었다.

어용노조 집행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직전, 동지는 변론을 통해 “징계는 부당하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노조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말을 남긴 채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동지는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불덩어리가 되어 회의장 안으로 뛰어 들어 부당함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였다. 분신 후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96년 1월 13일 새벽 3시 4분에 운명하였다.

'전력노조가 변해야만 한전과 한일병원이 변한다는 생각에서 분신을 결심하게 됐다. 그동안 많은 농성, 대회장 점거 등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항상 그 결과는 최태일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같은 위원장이, 선출된 위원장인 나를 징계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도 동조하는 위원장들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노조가 하루속히 변하기를 바란다. 양심대로 생활하는 조합원은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리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 노조는 아무리 법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 가족 특히 어머니한테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가족 모두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 1996년 1월 12일 유언 -

김왕찬 (당시 42세)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묘소에 안장

- 1955년 6월 22일 제주 출생
- 1974년 11월 9일 한국통신 제주전화국 입사
- 1991년 4월 11일 제주고산전화국 노조지부장
- 1994년 5월 30일 한국통신 노동조합 본사직할본부 위원장
노조사무실이 서울(KT본사)로 이전함에 따라 독신으로 노동조합 활동
- 1996년 3월 23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74년 11월 한국통신 제주 전화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1년 4월 제주고산전화국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94년 5월 30일 한국통신 노동조합 본사직할본부 위원장이 되었으나 노조사무실이 서울(KT본사)로 이전되자 독신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다가 '96년 3월 23일 운명하였다.

유구영 (당시 3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7년	출생
1978년	청주고등학교 졸업
1981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한국신학대학원 입학
1988년	영등포 기계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1990년	대한 중전기 분회장
1993년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정책실장
1995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정책부국장
1996년 5월 2일	새벽 2시 25분경 동지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8년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였고 대학에서 유신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81년 졸업과 동시에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82년, 노동자의 삶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82년 보성금속, K.C 전기에 근무하면서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살고자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했으며, 힘겨운 현장생활의 와중에서도 청주직업훈련원 전기과를 야간으로 이수하였다.

그로부터 죽음의 병마와 싸우기까지 동지는 오직 노동자의 총체적 해방을 향한 투쟁의 한 길을 걸어왔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교육간사, 영등포 기계공단노동조합 사무국장, 대한중전기 분회장을 거치는 동안 동지는 한번도 노동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늘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있었다. '90년부터 2년여 동안 맡았던 서노협 선봉대장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 역시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부인 신윤복 동지는 몸을 돌보지 않고 이랜드 투쟁에 매달리던 동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지는 특히 노조운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인 섬유와 유통, 영세사업장의 조직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무국장을 지낸 영등포 기계공단노조는 공단 내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로 구성된 지역노조였다.

한편 서노협 전임을 비롯해 직업적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는 동안 동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세 명의 가족을 거느린 동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전부였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부족하나마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한 '첫 월급'을 그는 병상에서 받았다.

간암 중기의 하늘이 무너지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밤에도 동지는 민주노총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이면서 동지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을 새벽 4시까지 정리했다.

동지가 민주노총의 정책기획국 부국장으로 활동하며 꿈에도 염원하는 민주노총 건설이 실현되고, 자신의 땀이 댄 그 조직이 이제 막 새롭게 활동을 펼치려던 참이었던 '96년 5월 2일,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지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 2시 25분경, 아직 채 못 피운 서른아홉살의 짧은 생애로 운명하였다.

오용철 (당시 40세)



철원 목련공원에 안장

- 1956년 1월 27일 출생
- 1975년 성남고등학교 졸업
- 1984년 제1회 6급 공채 합격
- 1988년 5월 서울 개봉전화국 발령
- 1988년 어용노조 퇴진을 위한 '전민현' 건설
- 1988년~1991년 어용퇴진위원장 직선제 관철을 위해 전국적인 '노민주' 활동
- 1991년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 결성
- 1991년 11월 전남 여수무선전신국 강제발령
- 1995년 민주노조 활동으로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 1996년 6월 1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8년 5월 서울 개봉전화국에 발령을 받아 어용노조 퇴진을 위한 '전민현'을 건설하고 '91년까지 어용퇴진, 위원장 직선제 관철을 위해 전국적인 '노민주' 활동을 하였다.

또한 '91년에는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 결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95년 민주노조 활동으로 구속 수감된 적도 있는 동지는 '96년 6월 1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박문곤 (당시 33세)



경남 고성군 상리 이화공원묘역에 안장

1963년 12월 28일 통영 비진도 출생
 한산 중학교 졸업
 김해 고등학교 졸업
 경상대 사범대 과학교육과 졸업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재직

1996년 11월 10일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전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일찍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여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고, 경상대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후에는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 평소 호방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게 늘 참교육 실천과 전교조 활동에 앞장섰다.

그러던 중 '96년 11월 10일 동지는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며칠전 동료선생님께 내일 모레가 수진이 돌인데 수진이 돌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대회장 안에는 40만의 교사와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1997년 전교조 합법화 원년'이라는 글씨가 창공에서 나부끼고, 노동악법 철폐를 결의하는 힘찬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렇게 노동자 대회를 잘 치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동지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차안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쏟아낸 피로 얼룩졌고, 밖에는 손목, 뼈 토막, 뭉개진 살이 널려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동지와 류타원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참교육이 꽃피는 합법화 시대를 끝내 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박문곤 선생님과 류타원양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교조 세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제도교육을 받았습지만, 이후의 전교조 선생님들과 교정에 불들고자 절규한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천에 이번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여 많은 분들에게 '기필코 실현해야 할' 더욱 큰 소명감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황승하 드림

- '96 노동자 대회 서구 경남 지역 참가자 교통사고 대책위원회 신문 중에서 -

홍장길 (당시 59세)



- 1939년 7월 8일 경남 밀양군 하남읍 백산리 출생
 밀양수산 동명중학교 졸업
 파월장병으로 지원하여 맹호 26연대 복무
- 1973년 연희교통(현재 국민캡) 입사
- 1992년 노동조합 상임위원 재임
- 1994년 노동조합 고문으로 선임 활동
- 1997년 5월 31일 국민 캡 휴게실에서 음독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밀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의 굴레를 벗고자 박정희 정권의 인력 수출정책인 파월장병이라는 미명하에 월남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택시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92년부터는 노동조합 상임위원으로 '94년에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선임되어 민주노조활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 캡 허준도 사장은 택시 사업주의 이윤창출을 위해 현대판 노예제도를 도입하여 무사고 10년에 개인택시 영업권이라는 제도에 올라미를 씌워 족쇄를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는 듯이 자본가 속성의 마각을 드러내듯이 회사를 분할매각하고 사람을 택시의 부품처럼 끼워 팔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동지는 '97년 5월 31일 “회사의 분할매각 완전철회!”를 외치며, 24년 8개월이라는 한 많은 ‘국민캡’ 노동자 생활과 60년 인생을 뒤로 한 채 택시 자본가에게 죽음으로서 항거하며 지난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

동지는 평소 가슴이 여리고 눈물이 많았다. 그것은 언제나 분노의 눈물이었다. 투쟁을 하는 동안 밤늦게 동료들과 술을 한잔 마시면 흔히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는 죽을끼다. 내 이제 이 나이에 가면 어디로 갈끼고. 여기는 내 청춘을 다 바친 직장이다. 나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다 여기서 뼈를 묻을끼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결국 동지는 평소의 말대로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 뼈까지 바치고 정든 직장과 동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히 떠난 것이다.

‘내 시체를 집에 옮기지 말 것. 국민캡 마당에 빈소를 치릴 것. 그리고 부산시장 문정수, 허준도 톨 마너 우종수가 나를 짓밟고 나를 죽였다.’

민주노총 그리고 국민캡 조합 동지 여러분
복수해 주기 바란다’

- 1997년 5월 유서 -

박기호 (나이미상)



- 1993년 대전보건전문대 사무자동화과 입학
- 1993년 흥사단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 1993년 여름농활 중 물에 빠진 동지를 구하다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3년 대전 보건전문대에 사무자동화과에 입학한 동지는 입학과 함께 흥사단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1학년 신입생으로 처음 참가한 “우르과이 라운드 저지, 쌀수입 개방 반대, 민족 농업 사수”의 구호 아래 충남 논산 양촌리에서 가진 여름농활에서 물에 빠진 고진광수 동지를 구하려다가 함께 사고를 당하였다.

진광수 (나이미상)



- 1993년 대전전문대 조경과 입학
- 1993년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 역임
- 1993년 여름농활 중 익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3년 대전 전문대 조경학과에 입학한 동지는 사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 속에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우르과이 라운드 저지, 쌀수입개방반대, 민족농업사수”의 구호를 들고 충남 논산 양촌리에서 여름농활을 수행하던 중 마지막 날 불우의 사고로 양촌리 저수지에서 익사하여 운명하였다.

이경동 (당시 24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9년 10월 24일	전남 여천군 출생
1989년	순천고등학교 졸업 광주교대 윤리과 입학, 교육동아리 '아히스람' 참여
1990년	동아리 연합회 간부 활동
1990년 10월	교원 종합대책안 반대투쟁 시 직격 최루탄으로 다리골절 부상
1991년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으로 활동
1992년	4학년 과 대의원으로 활동, 북한이해 분과장 역임
1992년 11월	광주전남 교사 청년회 간사로 활동
1993년 9월 8일	분신 항거
1993년 9월 9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해왔던 동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때로는 누구 못지않게 활발하게 생활했으며, 자치공간의 청소를 도맡아 할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였다.

책임감이 강했고, 자기 자신보다는 동기나 후배들을 먼저 챙기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적어 그들의 삶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임용고시 철폐 투쟁기간 동안 모든 학우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보다 항상 깨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며 다짐했다. 동지는 교원 종합대책안 반대투쟁 시 직격 최루탄으로 다리골절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91년에는 총학생회에서 사회부 차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4학년 과 대의원 활동과 광주전남 교사 청년회 간사로도 활동하였다. 분신하기 일주일 전의 생활을 살펴보면 동지가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동아리 방에서 책을 정리하며 동기와 후배들이 갖고 싶어 하는 책들을 나누어 주었고, 부모님과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는가 하면 5일 일요일 오전에는 망월동에 참배를 다녀왔다. 오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6일 아침 일찍 광주에 올라와서 동기와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7일 저녁에는 10여명의 동기들에게 안부전화와 더불어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며 격려했다. 이렇듯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의지를 재차 다져가며 죽음을 준비하였다. 8일 12시 45분경 음악관 뒤편에서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기만적인 김영삼 정권을 반대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민들레 투혼으로」를 '93년 9월 20일 발행하였다.

열사여 고이 잠드소서!

머저 가신 열사들의 무덤 앞에서

다짐하신 그대의 말씀

산자의 따름으로 외침으로

이어가겠노라고!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겠노라고!

열사여! 해방의 민들레로

부활하소서

- 하나되기 1949년 9월 13일 아히스람 후배가

경동이형을 보내며 -

한상용 (당시 23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0년	전남 해남 출생
1983년	광주 효덕초등학교 졸업
1986년	광주 북성중학교 졸업
1989년	광주일고 졸업
	목포 해양대학교 입학
	목포 해양대학교의 군대식 교육에 반대하여 입학 한달여만에 자퇴
1990년	광주교대 사회교육과 입학. 노래패 '에루얼씨' 가입
	교원종합대책안 분쇄를 위한 1학년 대책위장
1992년	사회교육과 제5대 학생회장
1993년	동아리 ESF 가입
	초등 교육 개혁과 교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4학년 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1993년 11월 10일	분신하여 투신 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우리들의 삶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했다. 참된 삶과 주어진 삶에 항상 고민하며 참교육을 갈망하는 예비교사로서 잘못되어가고 있는 초등교육을 바로 잡고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쟁했다.

동지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90년 광주교대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교원종합대책안 분쇄를 위한 1학년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92년에는 사회교육과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교원종합대책안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동지는 '93년 초등 교육 개혁과 교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4학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금식을 하고 임용고시 반대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은 종이학을 접는 등 계속적인 투쟁을 하다가 '93년 11월 10일 10시경에 분신하여 전신 3도 화상과 내출혈로 전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운명하였다.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육의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똑똑하고 바른 일꾼들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 공동체를 지켜내고 더욱더 아름답게 꾸꾸고자 합니다. 사랑을 알고 체험해야 사랑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야만이 교육이 올바로 서고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서 나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도움으로 우리 소망을 담아 학을 접었습니다. 항시 우리네 소망 잃지 말고 힘있게 살어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못한 꿈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1,400 학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생활할 것입니다.

11월 10일 한상용 올림

-유서 중에서-

이창환 (당시 23세)



익산 팔봉공원에 안장

1971년 9월 7일	출생
1990년	이리 황동고 졸업. 전북 산업대 경제학과 입학
1991년	전북 산업대 경상대 사회부장 산업대 개혁안 철폐를 위한 투쟁부국장
1992년	노래패 '휘파람' 창설
1993년	전북 산업대 8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1994년 1월 27일	겨울 농활 수행 중 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0년 전북 산업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91년 경상대 사회부장과 산업대 개혁안 철폐를 위한 투쟁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93년에는 8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평소 편안한 성격에 매우 성실하여 친구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었고 평소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바쁜 학교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아버님의 교회일을 도와드리기도 하였다.

동지는 '94년 1월 옥구군 회현면으로 후배 4명과 겨울농활을 수행하러 갔다. 그러던 중 27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농민 아저씨가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 정책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쌀 투쟁의 희망을 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배들은 밤늦게까지 동지가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고 아저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동지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뇌진탕으로 사망하였거나 실신하여 동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차가운 물에

손 적시기를 싫어하는 겨울날 이른 아침

사랑하는 후배 동료들을 위해

쌀을 씻으며 호호 불던 차가운 손이

이제는 온몸으로 번져버려

차갑게 언 땅으로 가는구려.

쌀이 개방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며

쌀 개방만큼은 우리 손으로 막아야 한다며

강의실로, 거리로, 농촌으로 뛰어다니던

형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쌀 개방만이 우리 주위를 감싸는 구려

- 「민주학생故 이창환 열사의 뜻따라 쌀수입개방을 결사저지합니다」 유인물 -

신건수 (당시 24세)



화 장

1970년 7월 7일	서울 출생
1989년 2월	서울 송문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서울 송실대학교 기계공학과 입학
1990년 8월	송실대 가톨릭 학생회 제17대 회장
1991년 6월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제6대 남부지구장
1994년 5월 2일	부산 노동절 집회 참석 후 상경도중 의문의 죽음

동지의 삶과 죽음

'89년 송실대에 입학한 동지는 '90년 가톨릭 학생회 제17대 회장을 지냈으며 91년에는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제6대 남부지구장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당시 사노맹 합법화 특위에 참여하여 사노맹 합법화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94년 5월 1일 부산 노동절 집회에 동료 1명과 참석하여 사노맹 관련 유인물 1만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막차 통일호 기차를 타고 상경하였다. 입석으로 기차를 타서 빈자리를 찾아 동료와 헤어진 후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동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아침 8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사체를 확인하라는 전화 연락이 왔다.

동지는 수색역 근처 군사기지 안 모래무지 위에서 가로로 누운채 머리와 다리에 바퀴 자국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조사는 피곤하여 길에서 잠을 자다가 당한 단순교통사고로 정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시신이 인적이 드문 작업장 모래언덕에 낮은 쪽으로 머리를 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자세와 위치, 사고위치 환경과 사노맹 조직원의 철저한 자기관리 등을 보아 의문이 생긴다.

둘째, 사고운전자와 최초목격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 점과 목격시 점과 사건시간이 10분이라는 점이 더욱 의심이 되고 있다.

셋째, 유류품에서 사노맹 유인물과 기차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옷이 찢어져 있는점, 그리고 주변을 탐문수색하지 않고, 경찰이 공의를 대동하여 사건현장에 나타난 점 우연보다 준비된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당시 안기부와 사노맹은 조직의 운명을 걸고 각각 조사검거와 민주화와 노동해방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사노맹 유인물을 뿌렸기 때문에 안기부의 추적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 되고 있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 신건수(분도) 추모자료집」 ('94년 6월 19일)을 발행하였다. 추모곡으로는 「그대 가는가」(소문혁 시, 곡)이 있다.

오원택 (당시 21세)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 1974년 전남 장성 출생
- 1992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입학
- 1993년 관광경영학과 연대사업부장, 관광경영학과 부학생회장 (2학기)
- 1993년 9월 21일 경기대철대 부상, 입원
- 1994년 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
- 1995년 1월 군입대
- 1995년 3월 17일 군복무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2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모범적이고 현신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다. 2학년때는 혼자서 6개의 학생회 각 단위 부서 연석회의를 참가하고 매일 학생회실에서 살다시피하면서 미제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속에서도 진실된 삶을 살아 나가려고 노력하였고, 학우대중을 만나 이야기하며 학우와 함께 조국을 생각하는 청년이었다.

그러다 공대 이전 운운하면서 폐쇄하려던 사학비리 주변 손종국과 모리배로 대변되는 재단에서 사주한 유도부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다 '95년초 입대한 후 운명하였는데 부대측의 발표는 부대내의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숨졌다고 하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땅에 미제의 그림자가 건혀지지 않았기에
 미제를 몰아내기 위해 투쟁이 내 어깨에
 지워져 있기에 학우대중들이 존재하기에
 나와 함께 투쟁의 한길로 가야할 학우들이 있기에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에 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속에서도 내 삶을 구가하고 잘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학우대중을 만나 이야기하며 술을 구가한다.
 一九九四년 五月 二二일 날적이 중에서

-故 오원택 추모비 비문-

육지희 (당시 24세)



화 장

1971년 음력 5월 18일	출생
1990년	이사벨여고 졸업
1990년	동래여자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입학
1991년	동래여자 전문대학 총학생회장 부산지역전문대학 총학생회 협의회 부의장
1991년	민주화 투쟁과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제적
1992년	부산지역 전문대학 총학생회협의회 사무국장
1993년	부산지역 전문대학 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장
1994년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전문대정책
1995년 9월 30일	위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1년 동래여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자신이 학우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학우들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학교당국의 비민주적이고 부정비리로 가득 찬 허위를 알게 되고, 시대의 중심에서 청년학생의 역할과 도리를 찾게 되었다.

또한 다른 동지들이 전문대 운동이 어렵다고 힘들어 할 때 전문대운동의 가능성과 전문대 학우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열찬 활동을 전개해 왔다. '91년 5월 9일 김영삼이 3당 야합으로 민자당을 창당한 것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모아 전대협이 제기한 동맹휴업에 대하여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제기하고 동지들을 규합해 동래여전(현 동부산대학)에서 처음으로 성사시킨 일은 동지의 학우들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동지는 끼니를 거르고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닌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운동한다고 집나온 후배에게 자신의 차비를 다 털어주고 집까지 걸어갈 정도로 동지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위암 때문에 고통 받으면서도 동지들에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늘 자기 혁신 속에서 동지들에게 밝은 미소와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동지의 삶은 부전협-부울전협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공적과 깊은 자국을 남겼다. 동지는 민주화투쟁과 학원자주화투쟁 과정에서 제적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부산지역 전문대학총학생회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95년 9월 30일 위암으로 운명하였다.

장현구 (당시 2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9년	서울 출생
1989년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입학
1990년	카톨릭 학생회 회장, 제1대 공대 학생회 홍보부장
1991년	제2대 공대 학생회 제 1기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장
1992년 11월	제9대 총학생회 제 1기 학원자주화 추진 위원장 대통령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중 폭력 연행후 고문수사 당함
1993년 2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출소
1993년 3월	부정입시관련 비상학생총회 중 교수, 직원에 의한 집단 구타당함
1993년 4월	이후 정신과 입원 치료(이후 5차례에 걸친 입, 퇴원 과정에서 3차례 자살 기도)
1995년 12월 4일	서울 송파동 송파 사거리에서 분신(전신 80%, 부분 3도 화상)
1995년 12월 14일	10일 간의 투병 끝에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9년 경원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입학 후 사회의 민주화, 대학의 민주화와 부정비리척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13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혼란과, 재단이 바뀌면서 기업화된 학원 운영, 이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 각종 비리와 부정, 특히 부정 입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불과 3달 전인 '92년 11월이었다. 동지는 이러한 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중지부름 찍고 진정 이 나라 백년지대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연한 자세로 당시 경원대학교 제9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하였다. 학내민주화와 더불어 '92년 대선에서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을 하다가 경찰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수사를 받고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학내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학교 당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고소, 고발로 같이 활동하던 몇몇 간부들과 같이 성남 경찰서에 고발당하였다.

스승으로서 가져야할 일말의 양심도 저버리고 제자를 고소, 고발한 교수들에게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갈등하던 동지는 얼마 후 구속 영장도 없이 잠복 중이던 성남 경찰서 소속 전담반 형사들과 10여명의 정사복 경찰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당시 성남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은 직무를 남용하여 48시간 이상 구금하였고 가혹행위 등 고문수사를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다. 재판에서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수감 3개월만에 석방되었으나 '93년 3월 부정입시관련 비상학생총회 중 교수, 직원에 의한 집단 구타를 당하여 육체적·정식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고, 결국 '95년 12월 4일 온몸으로 학내민주화를 위한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노수석 (당시 20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광주대등고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법대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폭력 진압에 의해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광주출생으로 '9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대 풍물패 천둥 활동에 참여하였다.

동지는 '96년 3월 29일 종로5가에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로 열린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후 경찰에 쫓겨 달아나던 중 을지로 5가 인쇄골목에 있는 대현문화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두었다.

종로 5가에서 5시 35분경부터 시작된 이날 시위는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내세운 "대선자금 공개", "등록금 인상저지" 등의 구호는 전 국민적인 호응과 공감을 받고 있었고 학생들은 돌이나 화염병을 전혀 들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초반부터 강경진압으로 일관했고 시위대열이 형성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쫓겨 다니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대열 내부에까지 백골단이 들어와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패고, 352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당했다.

이날 가장 많은 연행과 구타가 자행된 을지로 5가 천지호텔 주변 인쇄골목 앞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연행당하는 학생들을 일부 구해내기도 했다.

당시 동지도 그 장소에서 피신 차 들어간 인쇄소 안에서 의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결국 운명하게 되었다. 동지의 시신에서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진철원 (당시 20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1976년 1월 4일 서울 출생
- 1995년 2월 대원고등학교 졸업
- 1995년 3월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입학, 민족사 연구회 '한얼' 활동 시작
- 1995년 8월 잠시 동아리 활동 중단
- 1995년 12월 장현구 선배의 사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다시 활동 시작
- 1996년 4월 6일 밤 9시 30분 경 총여학생회실에서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5년 대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 입학하였다. 이후 동아리 민족사 연구회 '한얼'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원대는 '91년 최원영 재단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고질적인 사학비리와 '95년 108명 제적 등 무리한 학생 징계, 고발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는데, '95년 12월 4일 분신 운명하고 장현구 동지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이 4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원대는 학교당국에 대한 고 장현구 동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비롯한 6명이 제적, 8명이 무기정학, 2명이 유기정학을 당하는 한편 7명의 학우들에 대한 고발 및 공권력 투입으로 '95년 총학생회장 백승규(무역90)학우가 구속을 당하고 나머지 6명의 학우들은 수배상태에 놓여있었다. 경원 7천학우들은 울분에 차 있었고 동지는 주변선배와 동기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했다.

'96년 4월 6일 동아리 회원들과 그간 진행되어온 장현구 열사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고교선배(고 장현구 동지)의 분신사망과 동아리, 학과의 선배들이 제적, 고발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최원영 재단의 살인적 학원운영에 항거, 총여학생회실에서 분신, 운명하였다.

심장이 펄펄 끓어오를 때,
 양심이 꿈들 거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나는 나서지 못하고 비겁자처럼 놀고 있다.

-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100일째 쓴 글 1996년 3월 22일 -

권희정 (당시 23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3년 5월	서울 출생
1992년 3월	성신여대 사범대 국민윤리교육과 입학 제 14대 대선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1993년	불교학생회 회장, 시사토론 소모임 '물결' 결성
1995년	사범대 학술부장 활동
1996년 2월	총학생회 정책국장 활동
1996년 4월 7일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한 재단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 및 총장실 점거 농성 중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성신여대에 입학한 후 불교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그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다.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동지들이 힘들어할 때도 무엇보다 동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는 선배로서, 일꾼으로서, 동지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로부터의 결의, 결사라는 말을 온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지들에게 따뜻한 사람, 그러나 진짜 분노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지가 총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던 '96년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예결산 안 공개', '등록금 소위원회 재개' 등을 요구하며, 학원자주화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그 당시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었던 동지는 총학생회장과 함께 학원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로 학교 측이 즉각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동지는 단식 도중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감기까지 걸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급기야 4월 7일 새벽 1시경 고대 안암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밤 11시 30분경 갑작스런 심근염으로 운명하였다. 단식으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감기바이러스가 심근염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러나 동지의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영삼 정권의 반교육적 행태와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싸늘한 냉소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한 학교당국의 비교육적인 횡포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성신여대 학생들은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마침내 총장으로부터 동지의 죽음에 대한 공개사과를 받아냈으며, 학생들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

황혜인 (당시 20세)



강원 고성 선산에 안장

1976년	강원도 고성 출생
1995년 2월	속초여고 졸업
1995년 3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입학
	동아리 행소문화회 가입
1996년	동아리연합회 선전부장
1996년 4월 16일	오후 12시 30분 노동해방을 염원하며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5년 11월 이후 문민정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많은 동지들이 산화해갔다. 어용노조의 희생자 김시자 동지, 살인철거의 희생자 신연숙 동지, 병역특례해고자 조수원 동지, 살인철거 공권력의 폭력 희생자 이덕인 동지,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장현구 동지, 대선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 요구 중 살해당한 노수석 동지, 사학재단에 맞서 싸우다 분신한 경원대 진철원 동지, 등록금투쟁 후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권희정 동지.

동지는 동아리연합회 선전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알려내고자 열심히 활동하였고, 이들의 죽음이 투쟁으로 힘있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동지들의 죽음을 강고한 투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동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으로 '96년 4월 16일 분신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언론은 동지의 죽음을 총선패배에 대한 비판자살과 개인적인 고민으로부터 돌출되어진 비판자살로 보도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지의 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의 민중탄압에 맞서 노동해방, 민중해방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살아남은 이들에게 절규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바쳐 산화해 간 것이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혜인을 보내며...」를 '96년 5월 15일 발행하였다.

부모님의 얼굴 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간다.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노동해방을 위해
 정권타도를 위해
 자본가 타도를 위해
 이세상의 편혁을 위해
 투쟁하기만을
 난 지금 바랄뿐이다...
 이제...
 그 실천을 동지들이 해주길...

-유서 중에서 열사 수첩에서 발췌-

오영권 (당시 20세)



여수 시립모지에 안장

1976년	여수 출생
1992년	여수고등학교 입학
1995년	여수 수산대 식품공학과 입학, '청경' 교지편집국 활동
1995년 6월 13일	여순총협 연합투쟁 중 직격탄에 왼쪽 눈 실명, 휴학
1996년 4월 19일	교지 편집국 학술부장 4.19집회를 마치고 국동캠퍼스에서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이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5년 여수 수산대 식품공학과에 입학하여 교지 편집국 '청경' 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1학년이면서도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동지는 학과나 교지편집국 생활에서 보여 주었듯이 매우 모범적이었다. 착하고 고집이 좀 센 편이었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주변이 없지만, 떠들떠들 거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신념을 좀처럼 굽히지 않으려고 하였다. '95년 여순총협 연합투쟁 중 경찰이 쏜 직격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후에도 교지 활동에 열성을 보일 정도로 굳은 신념의 소유자였다.

동지가 휴학한 후 복학해 교지 학술부장으로 활동하던 '96년 들어 노수석 동지가 사망하였고, 진철원, 황혜인 동지가 분신하였다. 이같은 동지들의 극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민주세력과 민중에 대한 탄압은 여전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지의 고민은 깊어 갔다. 분신한 동지들이 동지와 같은 '95학번이라는 것도 동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결국 동지는 앞서간 동지들의 뒤를 이어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96년 4월 19일 집회를 마치고 국동캠퍼스에서 분신하여 운명하였다.

동지가 남긴 유서에는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동학 (당시 23세)



대구 현대공원묘역에 안장

1973년 3월 21일	경남 합천 출생
1991년	경남 거창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단지' 회장 거창지역 고등학교 동아리연합 활동
1992년 3월	대구공전 전자계산과 입학
1993년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1996년	대구공전 총동아리 연합회 조직국장으로 활동
1996년 5월 6일	학생자치권 보장 투쟁 중 학교측의 학생자치권 탄압과 기만적 작태에 분노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학생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불이 붙어 전신 3도 90%화상을 입음
1996년 5월 8일	24번째 생일날 남은 동지들이 못다한 투쟁들을 다 할 것을 믿으며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2년 3월 대구공전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동아리연합회 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범식 및 군사독재 청산 촉구 집회 등에 참석하였고, '93년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전문대 재단 비리',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 등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전문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93년에서 '95년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95년 가을 복학하여 활발히 활동하였고, '96년 경 동아리연합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대 학원자주화학교', 학생자치권, 학내 비리문제 등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였다. '96년 5월 6일 학생과 사무실에서 학생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며 학생과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화사고가 일어나 병원에서 치료 중 5월 8일 운명하였다.

동지의 유가족은 학생과장을 살인, 학장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달서경찰서는 '96년 6월 17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였다고 수사를 종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학생과장과 실랑이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몸에 불이 붙은 후 학생과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학생과 사무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와 현장실지조사 실시결과 학생과장의 과실 치사 혐의점을 발견하였다.

정인택 (당시 28세)



1968년 1월 13일	출생
1986년	연세대 전자공학과 입학
1987년	호헌조치 이후 학내외에서 벌어진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위한 집회 참여 공명선거감시단원 활동, 투·개표시 충북지역 참관인 활동
1988년 1월 7일	아파트 앞에서 두부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
1996년 6월 6일	9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6년 연세대에 입학하여 '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학내외에서 벌어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위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공명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87년 대선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였고, 투·개표시 충북지역 참관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88년 1월 7일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다 귀가하는 길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아파트 앞에서 두부를 심하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수술 등 9년간 투병하다 '96년 6월 6일 운명하였다.

당시 경찰은 동지가 자신의 아파트 입구 화단에서 한 쪽 다리가 화단 모서리의 철근 구조물에 걸려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일어나 자기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족들이 구타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여 경찰은 수사를 미제처리하였다. 동지는 사고 직후 뇌수술을 받고, 이후 4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운명하였다.

이후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운동 등에 열심히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당시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고, 또한 경찰이나 안기부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의견만을 확인하였다.

김하영 (당시 21세)



화 장

- 1975년 10월 4일 대구 출생
- 1994년 2월 대구 원화여고 졸업
- 1994년 3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입학
- 1994년 문화인류학과 학회지 <사람> 편집위원
- 1995년 문화인류학과 학회지 <사람> 편집장
-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기획부장
- 한총련 출범식 새내기 문예단 생활 주체
- 영남대 5월 투쟁본부 산하 오월 학살자 처벌투쟁 선봉대원
- 96통일문과대 여학생회장 출마
- 1996년 영남대학교 29대 총학생회 정책2부장
-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투쟁 주체
- 1996년 8월 범민족대회 참가도중 뇌사
- 1996년 9월 9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75년 대구에서 출생한 동지는 영남대학교에 입학해 문화인류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 활동 등을 하면서 활발하고 열정적인 대학시절을 보냈다.

다소 고집이 세고 악착스러워 가끔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충고를 받기도 했던 동지였지만 일에 대한 욕심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그 열정적인 품성으로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앓아온 기관지 천식으로 조금만 뛰거나 피곤해도 그날 저녁 꼭 병원으로 실려 가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런 몸도 동지의 통일에 대한 의지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95년 학회지 「사람」 편집장을 지냈으며 영남대 오월 투쟁본부 산하 오월학살자 처벌투쟁 선봉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쟁의 신심을 다져갔다.

'96년 8월 13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선후배 50여명과 상경 길에 올랐다. 출발 당일까지 사람들을 만나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하며 열정적으로 대회를 준비하던 동지는 그날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로 나섰다. 대회장인 연세대가 원천봉쇄가 되어 동국대로 장소를 옮겨 숙소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를 덮고 하루 밤을 보낸 동지의 몸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대회장 진입을 위해 모두 연세대로 떠났지만 동지는 시위도중 다친 몇몇 동지들과 동국대에 남아있었다. 동지는 14일 오후 5시 총학생회와의 통화에서 “몸이 안좋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원천봉쇄로 많은 사람들이 연세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통화한 후 바로 약간의 간식을 먹는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뇌사상태로 쓰러져 결국 9월 9일 21세의 꽃다운 나이로 조국통일의 희망새가 되어 날아갔다.

숨이 막힐 정도로 쏟아지던 최루탄 연막 속에서
 제가 들었던 깃발은
 천북도 용공도 좌경도 아니었습니다.
 분단조국이 철책을 뛰어넘어 비상하고 싶은
 어머니, 딸의 날개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죽어서야
 제가 가보지 못한 땅, 분계선 너머 임진강 건너
 나와 다들 바 없는 똑 같은 사람들, 형제들 사는
 북녘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 추모시 「어머니 사랑합니다」 중에서 -

이상희 (당시 27세)



- 1969년 8월 출생
- 1988년 3월 경원대 독문과 입학
- 1990년 동아리 활동과 학생운동에 참여
- 1990년 11월 시위도중 화염병 소지 혐의로 연행 고문당한 후 구속 됨
- 1991년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 보임
-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워하고 정신적 치료도 받음
- 1996년 12월 11일 치료중 투신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8년 경원대 독문과에 입학하여 동아리에 가입하여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3학년때인 '90년 11월 3일 경원대학교내에서 용성총련이 주최한 학생의 날과 보안사 안기부 분쇄투쟁 결의대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거리 시위 중 화염병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게 된다. 경찰에 연행되어 동료들의 이름을 댈 것을 강요받으며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던 동지는 '91년 100일만에 석방되었으나 우울증등의 정신장애를 앓게 된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를 조사했던 경찰들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잡혀가면 어떻하느냐 등 출소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되풀이되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96년 12월 11일 경희대 건물에서 스스로 투신 운명하였다.

한상근 (당시 2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1년	전북 김제 출생
1991년	대한체육과학대 (현 용인대)격기학과 입학
1994년	복학, 농촌문제연구회 '흙사랑' 활동
1995년	용인대 9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996년	동아리 '흙사랑' 회장, 총학생회 정책국장 일본의 독도망언 항의차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중 일본 대사관 넘어감. 이에 불구속 처리됨
1997년	용인대 11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형찬 대책위에서 15일동안 농성단 활동 용인대 학자추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소위원회 위원
1997년 2월 10일	새벽 4시 30분 분신
1997년 2월 13일	12시 15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평소 “나는 조국과 연애하고 조국과 결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의협심이 강해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96년 일본의 독도 망언이후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시 홀연 대사관 담을 넘어 한국 청년의 기개를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12월 경희대 김형찬 학우가 안기부 요원에 의해 불법연행 당해 경기도 대공 분실에서 분신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대책위 농성단에서 15일 이상 활동을 하였고 날치기 노동 약법, 안기부법 철회 투쟁에 항상 앞장서기도 하였다.

동지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밤낮없이 뛰어다녔고 '97년 용인대가 '대학종합평가' 를 받게 됨에 따라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산하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우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학교당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월 10일 새벽 4시 30분경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분신을 기도했다. 동지는 병원 이송 중에도 동료 학우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달라! 괜찮으니 너무 걱정마라!”를 계속적으로 외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뚜렷한 유서나 구호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동지의 숭고한 조국사랑, 학원사랑, 민중사랑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었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문집 「애국학생 한상근」을 '99년 발간하였다. 추모곡으로 「승리의 눈물」(글 이은주, 곡 정용두)이 있다.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무척 망설이다

대답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참된 삶이란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다.

정의로운 삶 바로 나의 심장에

묻힌 양심 깨내어 불의를 깨기 위한 삶이다.

또한 실천이다.

- 열사가 남글 글 중에서 일부 「애국학생 한상근」 서문 -

류재을 (당시 20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1977년 11월 광주 출생
- 1990년 광주 장산 초등학교 졸업
- 1993년 광주 복성중학교 졸업
- 1996년 광주 광일 고등학교 졸업
- 1996년 조선대 행정학과 입학
과소모임 지방자치제 연구반 활동
- 1997년 지방자치제 연구회 분과장
- 1997년 3월 20일 시위 도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6년 조선대 행정학과에 입학해 과소모임인 지방자치제 연구반 활동을 하였고, 이듬해 연구회 분과장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김영삼 정부의 총체적인 부정, 부패, 부도덕, 폭력성에 입각한 반민족 반민주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남총련 주최로 '97년 3월 20일 오후 2시에 조선대 학교 108극장에서 열린 개강선포식에 참가하였다.

전경과 학생의 대치 중 녹두대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동지가 97학번 후배에게 깃발을 넘긴 후 맨 앞에서 전경과 대치하여 투석전을 전개하던 중, 시커먼 물체에 맞고 주춤거리며 뒤로 몇 발자국을 물러서다가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조선대 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경 결국 운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망원인에 대해 병원과 경찰 측은 심장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했고 동지의 시신은 2개월 여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후 한총련은 '시위도중 사망 시인할 것.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사인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 도청 노제를 비롯한 모든 장례행렬을 보장할 것. 검문, 원천봉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 전개했고 경찰 측은 시신에 대한 부검 없이는 장례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례식을 방해 해왔다.

결국 동지는 사망한 지 64일 만에 부모와 친지, 조선대 학우 7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되었다.

김준배 (당시 27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0년	전남 장흥 출생
1989년	광주대학교 금융학과 입학
1992년	광주대학교 투쟁국장
1993년	남총련 투쟁국원
1994년	광주총협 투쟁국장
1995년	한총련 투쟁국장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1997년 9월 16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9년 광주대학교 금융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하여, '91년에는 소위 강경대 장례투쟁을 비롯하여 5.18 민주항쟁 정신계승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위한 운동을 하였다. '92년에는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사회부장, 투쟁국장을 하면서 노태우 정권퇴진, 민자당 해체, 민주정부 수립, 간첩단 조작 안기부 해체 투쟁을 하였고, '93년에는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투쟁국원 활동을 하면서 5.6공 군부독재 잔재 청산과 민주대개혁 실현, 쌀수입개방 반대운동에 참가하였다.

'94년에는 광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투쟁국장을 맡아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쌀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95년에는 한총련 투쟁국원으로 활동하면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을 주도하였다. '96년에는 김영삼정권 대선자금 공개, 참민주주의 쟁취, 국민기본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97년에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악법철폐, 김영삼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만 학도 총투표를 통한 총궐기,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등의 투쟁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은신 중, 9월 15일 전남도경 형사기동대의 검거를 피하다가 경찰검거작전 중 광주 소재 아파트 화단 앞에서 운명하였다.

당시 경찰은 '97년 9월 15일 청암아파트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남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25명은 밤 11시경 도착한 후 1시간 가량 잠복 근무하다 검거에 나섰고, 동지는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와이어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 화단으로 떨어졌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후송, 응급치료하였으나, 16일 밤 12시 33분경 추락에 의한 간우엽 손상 및 과다 출혈 사망으로 결론짓고 내사종결하였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장 ○○○는 경사 특진을 위해 동지의 후배 ○○○를 프락치로 고용, 1,500만원 상당의 금액과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에 후배 ○○○는 자신의 집으로 동지를 유인하였다. 또한 ○○○검사는 ○○○의 프락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인은 니죄로 구속하는 등 법원을 기망한 직권남용 행위와, 경비실 부근에 있던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은 화단에 떨어진 동지를 발견하고 “여기 있다”고 외치면서 넘어져 있는 동지를 여러 차례 발로 밟고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가격하여 죽였음을 밝혀냈다.

이형관 (당시 2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3년	경기도 성남 출생
1992년	인천 제물포고 졸업, 군산대 수학과 입학
1994년	군산대신문 편집장
	14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전북지부장
1995년~1996년	전대기련 전북지부 집행부, 하이텔 전대기련 동우회 사립
1996년~1997년	전대기련 중앙집행위원
1997년 9월 21일	대학언론 탄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광대로 가던 도중 쓰러져 19일간 혼수상태였다가 뇌출혈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군산대 신문사에서 대학언론운동을 펼치던 동지는 크게 화내는 일이 없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동지였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을 불태울 줄 알았던 동지는 '94년 체계조차 잡혀있지 않는 전대기련 전북지부 지부장을 맡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전북지구를 일궈 나갔다. 나아가 96년부터는 전대기련 중앙집행위 활동을 하면서 대학언론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학교 측에서 자행하는 대학언론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동지는 '97년 9월 1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양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학언론탄압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원광대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긴급히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동지에게 출발 직전 손이 떨리고 말이 더듬거리는 뇌졸중 초기 증세가 나타났으나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강남터미널로 출발했다. 그러나 동지는 새벽 7시 강남터미널 경부선 승차장 쪽 보도블럭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쓰러진 지 19일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지는 9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에 운명하고 말았다.

작건 크건 간에 아름다운 것을 찾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동지는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사람만은, 동지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해왔던 동지. 그러기에 후배기자들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했으며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후배기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달려가다 죽음을 맞이한 동지.

동지는 그 짧은 생애, 그토록 염원하던 자주 민주 통일과 참언론의 실현을 위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청춘을 불사르다 생을 마쳤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추모문집 「푸른바다」를 '89년 9월 20일 발간하였다.

최신애 (당시 28세)



- 1990년 배재대 유아교육과 입학
- 1991년 7대 총여학생회 학술부차장
- 1992년 8대 총여학생회 회장
- 1993년 배재대 교육생활주체역임
- 1994년 배재대 졸업
- 1995년 중앙대 유아교육대학원입학
- 1996년 범민족대회 참가 중 백혈병 증세
- 1998년 1월 투병생활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0년 배재대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91년 7대 총여학생회 학술 부차장을 맡았고 이듬해 '92년 8대 총여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93년 총학생회 교육생활 주체를 맡았다. 동지는 '96년 중앙대 유아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96년 범민족대회 참가 중에 백혈병 증세로 병원에 갔으나, 이미 말기증세였다. 동지는 굳건한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98년 1월 운명하였다.

권두영 (당시 63세)



1929년 9월 2일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
1965년~1978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경제연구실장 및 소장
1990년~1992년	미국시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두차례 방북
1991년	뉴욕에서 '코리아영세중립화추진본부' 를 결성 민중당 고문 등의 진보정당 활동
1992년 8월 28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되어 서울구치소 수감
1993년 1월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65년부터 '78년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노동경제연구실장 및 소장을 맡아 노동·농민운동 지도자를 육성하였다. 평소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91년 뉴욕에서 '코리아영세중립화추진본부' 를 결성하는 등 통일운동을 하며, 민중당 고문 등의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90년, '92년 2회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사관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92년 8월 28일 오전 7시 45분경 동지를 불법 연행하여 8월 30일 오후 10시까지 64시간동안 불법구금하였고, 그 시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행사를 막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93년 1월 14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구치소 화장실창문 창살에 내복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안양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운명하였다.

황인철 (당시 53세)



경기도 안성 천주교공원묘지에 안장

1940년 1월 24일	충남 대덕 출생
1961년 10월	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2년 2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81년	'전국자폐아부모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1989년	경실련 공동대표
1990년	민변 대표간사 직장암 진단을 받음
1991년	윤석양 사건 변론
1992년	'계명복지회' 회장
1993년 1월 20일	지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유신 시대 이래 20년 가까이 권력의 폭압과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해 온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변호사'라는 개념조차 없던 불모의 시대인 박정희 유신정권 아래서 민청학련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건의 변호를 맡았는데, 주로 70, 80년대 시국사건으로서 민청학련 사건, 지학순주교사건, 김지하 반공법위반사건, 3.1구국선언사건, 동아·조선투위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한승헌필화사건, 동일방직노조사건, 이영희, 백낙청 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YH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원풍모방사건, 강원대 성조기 방화사건, 오송희 간첩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서울미문화원사건, 건국대사건, 부천시 성고문사건, 박종철 사건, 문익환 목사 및 임수경, 문규현 방북사건, 윤석양 사건 등 관계하지 않은 중요 시국 사건이 없을 정도였다.

또 자신을 포함한 제 1세대 인권 변호사들과 암울한 시대인 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보낸 젊고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함께 조직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결성과정에서도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산파역을 하였다. 그러던 '93년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지학순 (당시 72세)



제천 배론성지 천주교 성지자 묘역에 안장

1921년 9월 9일	평남 중화군에서 태어남
1950년 2월	서울 성신대학(현 가톨릭대 신학대) 편입
1952년 12월 15일	사제 서품
1965년 3월 22일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
1969년 10월 5일	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 주교
1971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이사장
1972년 4월 10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명예회장
1973년 6월	한국노동교육협회의 회장이 됨. 70년대 노동운동 지원
1974년 7월 6일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
1974년 7월 23일	양심선언 발표
1974년 8월 12일	긴급조치 1, 4호 위반, 민청학련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형 선고
1975년 2월 17일	226일만에 구속집행정지로 출감
1985년 9월 20~23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일원으로 평양 방문, 동생 만남
1993년 3월 12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가톨릭 신자였던 부모님에 의해 어려서 세례를 받고, 이후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던 중 '65년 처음 창설된 강원도 원주의 초대 교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동지는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교회안에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신용협동조합 설립, 진광학교선립, 가톨릭 기숙사 운영과 교육원 운영을 통한 협동적 삶과 직업훈련 교육을 하였다. 황지에 노동회관을 만들고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 농민회를 조직하여 노동자와 농민들이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협동사업을 조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개발을 하며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소리에 귀기울이는 활동을 하였다.

김지하의 구속과 전태일 동지의 분신은 동지로 하여금 사목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71년 설립에 참여했던 원주문화방송의 부정이 드러난 후 민중들의 어려운 삶이 정권의 가공할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있음을 지적하며 10월 5일 원주를 중심으로 부정부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운동은 전국 천주교와 종교단체 시민단체에까지 번져 나가게 된다.

이후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역 이사장으로 추대되어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활동을 하며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종교 및 사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동지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박정희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다.

'74년 7월 6일, 중앙정부 요원에 강제 연행되어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구속된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에서는 정의평화와 지주교를 위한 미사와 기도회가 열린다. 건강때문에 7월 11일 연금상태로 풀려난 이후에도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양심선언 성명서를 발표하며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동지의 구속이후 사제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 사제단이 만들어져 이후 시국선언 등 독재정권에 맞선 활동들을 하며 인혁당사건, 동아일보 언론탄압, 70년대 현장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석방이후 동지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정의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였는데 '76년 3월 통일을 위한 민주구국선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김지하 구출위원회 결성과 석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79년 10월 박정희 암살 이후 동지는 군사정권에 대한 투쟁방식을 변화시켜 민중의 삶의 질을 돌보는 사목활동을 하다가 '93년 72세를 일기로 강남성모병원에서 운명하였다.

성순희 (당시 5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38년 9월	부산 영도 출생
1955년	부산여중, 남성여중, 새한중학교 졸업
1958년	부산 남여상 졸업
1959년 3월 1일	손병선씨와 결혼
1960년	4월혁명때 앞장선 남편이 5.16 쿠데타 이후 투옥되자 생선장사를 하며 남편 옥바라지를 함
1989년 10월	큰딸 민옥이 해직되자 전교조 교사가족회 서울지역회장, 전국 부회장 맡음
1992년 9월 26일	남편이 안기부에 연행후 기나긴 수배생활을 시작
1993년 7월 7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1993년 8월 15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삶과 죽음은 그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4.19 때부터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손병선 선생과 민주화, 노동운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세 딸의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살아온 동지의 고난과 역경의 삶은 이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어머니상이다.

손병선씨는 학생 시절인 4.19 때부터 오로지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었고, 동지 역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운동의 대열에서 벗어나보지 않았다.

성장한 그들의 세 딸 역시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다. 두 분은 우리를 지켜만 봐 달라”며 각자의 역할을 찾았고 그들은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통일가족’이 되었다. 큰 딸 민옥은 교육현장에서, 둘째 민영은 민중당 등을 오가며 셋째 딸 민아는 노동현장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해왔다.

’93년 손병선씨는 대남방송을 듣고 간첩 이선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민영씨는 아버지를 도와 대남방송을 청취 기록했다는 이유로 7년형 선고, 그리고 동지 역시 남편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배령이 떨어졌다.

9개월여의 수배생활 끝에 사경의 몸으로 동지가 세브란스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치료시기를 넘겼다.

남편이 연행되기 전날, 남편과 함께 당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의사뇌진탕을 입은 상태였다. 게다가 예전에 받은 췌장염 수술 후유증까지 남아 있었다. 이미 온몸은 심한 황달상태, 병명은 패혈증이 겹친 담도암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미안하다”

가까스로 이어가는 그 한마디. 죽음이 눈앞까지 와 있는데도 질기게 버티다 그 끝에 이르러서야 응급실을 찾은 동지의 첫마디였다. 그런 몸을 한 동지가 근 열달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묻고 대답할 건강상태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옥 안의 남편과 자식생각에 모질고 지독스럽게 버티고 견뎌냈을 것이라는 추측 외엔 별 도리가 없다.

김영자 (당시 50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44년 3월 2일	충남 출생
1963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입학
1966년	대학 졸업후 정읍농림고등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
1969년 3월	상계동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원에 농사 시작
1975년	지역탁아소인 '윈터 어린이집' 운영
1977년~1978년	'가톨릭농촌여성회' 초대회장
1986년	성남민주화운동연합 여성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1989년	경기도 여성농민위원회 총무
1990년	'큰우리 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
1993년 3월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
1993년 9월 11일	오전 9시 30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6년 서울대 농대 농가정학과를 졸업한 뒤 정읍농고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쓰다가 '69년 대학시절부터 고민해온 고된 농사일과 봉건적 억압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농민의 권익향상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상계동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원에 농사를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동지는 농업을 살리고 예비농업인의 실습터이자 농업기술지도소, 나아가 예비농민들의 어머니로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시작하였다. '75년 지역에서 지역탁아소와 어머니 자치활동으로 작은 공동체의 모범을 만들었고, '77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톨릭농촌여성회' 설립에 산파역할을 했으며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기능여회는 '85년 가톨릭여성농민회로 성장하였고 동지는 다시 회장을 맡아 열성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후 동지는 성남에서 지역운동을 지도하여 각종 연합 단체의 공동대표로, '80년 민주화운동을 지도하였다. 이후 전국여성농민회 경기도 총무를 역임하였다. 노태우군사정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편이자 동지인 김준기 선생의 뒷바라지와 자녀교육 등으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90년 성남 '큰우리 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농촌운동과 생협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93년 동지는 갑작스런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93년 9월 11일 운명하였다.

동지는 자주적인 여성농민운동 조직의 건설과 지역운동의 대모로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25년간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평생을 여성농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살아왔으며, 운명하기 얼마전에도 그동안 모아온 여성농민운동사 자료정리와 여성농민회의 재정자립을 염려했다.

문익환 (당시 7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18년 6월 1일	만주 북간도 명동에서 아버지 문재린, 어머니 김신묵의 맏아들로 태어남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성명서를 초안하여 명동성당에서 발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동생(문동환), 아내, 아이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감
1977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25일간의 옥중단식(전주교도소)
1978년 10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폭로한 일로 형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1980년 5월 17일	'내란예비음모죄'로 연행되어 공주, 안양, 서울 등지에서 복역, 공주교도소에서 23간 단식
1985년 5월 20일	서울대 및 대구계명대 순회강연 중 '선동죄' 명목으로 수배되자 대구경찰서에 자진 출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목으로 기소되자 재판 거부. 1심에서 3년형을 받음
1988년 3월 7일	대통령 선거 실패를 책임지고 민통련 의장직 사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
3월 25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방북, 북한 조평통과 공동성명 발표
1991년 1월 5일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 강경대 열사 장례위원장 등의 활동으로 형집행정지 취소되어 재수감
1992년 1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1993년 8월 11월	제4차 범민족대회 대회장 '통일맛이 칠천만 거레모임' 운동 제창
1994년 1월 18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한마디로 암울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며 줄곧 재야 민주운동을 주도해 온 정신적 지주였다.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사회진출 후에도 평범한 목회자로서 신학대 강단에 섰던 동지가 유신정권의 압제에 분연히 맞서 민족민주운동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74년 10월 반유신 재야단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가하면서 부터였다.

'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을 주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첫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된 이후 삶의 절반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85년 3월 민주통일국민회의,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등 당시 재야단체를 통합한 민통련 발족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으로 활약했으며 '89년초 전민련의 출범 후에는 전민련 고문을 맡는 등 재야운동의 대부분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동지는 '89년 3월 통일문제를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방북하였다.

이 사건은 통일을 구두선처럼 외치면서 실제로는 탁상공론만 일삼았던 당시 정부 당국자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또한 민족의 통일의를 온 민족에게 호소하기 위한 의거였다.

동지는 이 사건으로 '9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돼 또 다시 수감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10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으나 '91년 6월 재수감돼 통산 6차례에 걸쳐 8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동지는 기회만 있으면 '분단 50년 이내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분단이 고착된다'며 통일운동에 남다른 집념을 보였다. '통일은 뻗어'라고 힘주어 외치던 동지는 유신의 압제에 분연히 맞서고 이후 치열한 반독재 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일관해 오신 민족의 큰별이었다.

이오순 (당시 68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26년	전남 광주 출생
1985년	막내 아들 송광영 동지 분신으로 운명
1989년	유가협 회원으로 활동
1991년	전국민주화 유가족 협의회(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부회장 역임 강경대 동지 치사경관 공판 도중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다가 1년6개월 수배생활
1993년	송광영 동지 묘역을 마석모란공원으로 이장
1994년 1월 2일	문익환목사 장례식에 참여하고 충격받음
1994년 1월 26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85년 경원대에 다니던 막내아들 송광영 동지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학원안정법 철폐하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분신하여 운명한 뒤 경원대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난 민주도 모른다요, 동지가 다 뭐다요, 우리 광영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있다요.”라고 말씀해 만인의 가슴을 울린 동지는 서울 기독교병원에서 화마와 싸우면서도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부르짖는 아들 광영과 조국의 어머니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여러 투쟁에서 동지는 '감동의 황색 가죽가방'으로 불리우며 백골단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91년에는 유가협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원 조직화에 앞장서다 강경대 동지 치사 경관 공판 도중 부당한 공판에 항의하다 법정 소란 혐의로 1년 6월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94년 문익환 목사님의 서거로 충격을 받고 “나 죽으면 광영이랑 문목사님 묻혀 계신 마석모란공원에 묻어주고, 꽃일랑 차라리 종이꽃으로 해줘. 문목사님처럼 많은 통일의 씨앗을 뿌리고 죽어야 하는데, '95년까지만 사셨어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결국 심장병으로 운명하여 마석모란공원에 목사님과 함께 묻혔다.

김순복 (당시 30세)



진주시 나동공원묘지에 안장

1965년	경남 통영 출생
1984년	경상대 사회학과 입학
1991년	경상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1993년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남도 연맹 간사
1994년 2월 1일	고 손구용 동지와 함께 서울 농민대회 참석 도중 함양군 형남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4년 2월 1일 “UR재협상, 국회비준거부,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하여 진양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아침 6시 25분경 서울로 출발하였다. 전농의 지침에 따라 도 방송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다. 이 방송차량을 손구용, 김순복 동지가 맡기로 하고, 진양군 농민회 본대 버스 뒤를 따라 손구용 동지가 운전하는 1톤 트럭이 진주에서 김천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산청군의 도로는 전날 내린 비와 눈으로 얼어 빙판길이었다. 두 동지가 탄 차량이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남효부락앞 S자형 커브지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언덕쪽으로 추락지점에서 느티나무(지름 약 30cm)와 충돌하여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즉사하였으며 손구용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다 저녁 8시 50분경에 운명하였다.

당시 전국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어민후계지중양연합회, 농민단체협의회 등 어느 지역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농민이라면 누구나 한 마음 한뜻으로 모였다. 농민들은 자식보다 소중히 여기는 농사일을 제쳐두고 오직 UR 재협상 쟁취, UR 국회비준 거부를 목표로 모인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아래, 진양군 농민회에서든 서울 대학로를 향해 진주를 떠났고 도중에 함양 근처 국도에서 예기치 않은 참변을 당하였다.

UR을 반대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열사의 죽음은 우연한 것도 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다. 열사의 죽음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손구용 (당시 29세)



진주시 나동공원묘지에 안장

1966년	경남 진양 출생
1985년	경상대 행정학과 입학
1991년	경상대 사회과학대 부학생회장
1991년	진양군 농촌활동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1993년	진양군 농민회 협동사업국 영업부장
1994년 2월 1일	새벽 고 김순복 동지와 함께 서울 농민대회 참석도중 함양군 형남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태.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4년 2월 1일 "UR재협상, 국회비준거부,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하여 진양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아침 6시 25분경 서울로 출발하였다. 전농의 지침에 따라 도 방송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다. 이 방송차량을 손구용, 김순복 동지가 맡기로 하고, 진양군 농민회 본대 버스 뒤를 따라 손구용 동지가 운전하는 1톤 트럭이 진주에서 김천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산청군의 도로는 전날 내린 비와 눈으로 얼어 빙판길이었다. 두 동지가 탄 차량이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남효부락앞 S자형 커브지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언덕쪽으로 추락지점에서 느티나무(지름 약 30cm)와 충돌하여 김순복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즉사하였으며 손구용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다 저녁 8시 50분경에 운명하였다.

당시 전국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어민후계지중양연합회, 농민단체협의회 등 어느 지역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농민이라면 누구나 한 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이다. 농민들은 자식보다 소중히 여기는 농사일을 제쳐두고 오직 UR 재협상 쟁취, UR 국회비준 거부를 목표로 모인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아래, 진양군 농민회에서 서울 대학로를 향해 진주를 떠났고 도중에 함양 근처 국도에서 예기치 않은 참변을 당하였다.

UR을 반대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열사의 죽음은 우연한 것도 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다. 열사의 죽음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김남주 (당시 48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4년	광주일고 입학 후 자퇴
1969년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 문리대 영문과 입학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련반대운동에 주도적 참여
1973년	반유신투쟁을 전개하다 투옥, 제적
1978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가입
1979년	'남민전' 조직원으로 활동 중 체포, 구속
1984년	첫시집 '진혼곡' 출간
1988년	9년 3개월 만에 석방
1994년 2월 13일	새벽 취장암으로 투병 중 운명
1994년 2월 16일	민족시인 고 김남주 선생 민주사회장으로 장례식 치름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우리에게 '8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동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입시위주 교육에 반대하여 자퇴를 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련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최초의 반유신헌법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다음해 2월에 다시 지하신문 「고발」을 제작하고서 동료 15명과 함께 체포돼 8개월여의 투옥을 경험했다.

학교에서 제적된 동지는 고향 해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진혼가', '갯터미' 등 시를 써 등단하였다. 이후 광주 최초의 사회과학서점 '카프카'를 열고, 다시 귀향해 후일 한국기독교농민회의 모체가 된 해남농민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한 황석영 등과 함께 민중문화연구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으로 투옥돼 9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한 동지는 길지 않은 평생을 반외세·반독재 투쟁에 헌신하였다. 동지가 감옥에서 우유곽이나 밭짓개용 휴지 등에 쓴 시들을 묶은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은 그 누구의 시보다도 '80년대 폭압적 현실의 한복판을 날카롭게 꿰뚫는 절창으로 애송되었다.

'88년 12월 석방된 뒤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및 한국민족 예술인 총연합 이사 등을 맡아 민족문화운동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던 중 오랜 감옥생활과 석방 뒤의 과로 등이 겹쳐 얻은 취장암으로 투병 끝에 운명하였다.

이제는 그 짐일랑 우리에게 내려놓고 편안히 가게
 가로질러 산을 넘고 물 건너 표표히 먼저 간 친구
 깨끗이 환하게 피면 우리에게 다시 오거나
 송화가루 온 산천에 펄펄 날리면
 눈 속의 샛붉은 매화처럼 다시 오거나
 해방동이 그대의 삶은 이 땅 반세기의 역사 그 자체
 분단의 철조망과 제국의 사슬이 걸힐 날 반드시 있으리
 자본에 의해 자본이 패퇴하는 날 반드시 있으리
 그때 다시 이 세상에 오거나 아픈 다리 바로 딛고 감은 눈 새로 뜨며
 그 잔잔한 소년의 미소로
 벗이여 남주여 나의 벗을 넘어 민주주의의 참다운 전사여

- 이시영의 추모시 중에서 -

이범영 (당시 40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5년	강원도 원성군 출생 서울중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76년 12월	유신반대 시위주도로 구속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선고받음
1979년 7월	형집행 정지로 출감 '전국 병역대책위원회'를 조직, 위원장으로 활동
19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집행국장
1988년	민청련 의장
1990년	전국 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의장
1992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1994년 8월 12일	담도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신 후 청년운동의 미래를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집행국장으로 활동 후 민청련과 한청협 의장을 역임하시고 '94년에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사상가도, 뛰어난 경제가도, 불세출의 지략가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천재의 광휘가 번뜩이는 타고난 글쟁이도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바 그는 마흔 해를 살다간 사람의 자연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장점과 동시에 많은 단점을 내보이며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수다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흔치 않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못한다. 그는 개인의 안일과 욕망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이 사회와 세계를 뒤바꾸고자 했던 혁명가, 운동가, 활동가였다.

끓는 피!

이것은 젊음의 권리이다.

젊음을 잃고, 장년·노년이 되면

젊은 때의 모든 동기와

이상을 잃고 안일무사에 빠진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신념대로

사는 사람도 많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죽을 때 무엇 아쉬움 없이

죽어야 한다. 욕심을 채우다 보이면

어찌 살았던 사람이랄 수 있을까?

들어 있는 한낱 잡초도 자기 한일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 1972년 10월 고 이범영 일기 중에서 -

최정환 (당시 36세)



용인 카톨릭모지에 안장

1959년	출생
1994년 6월	방배역 부근에서 테이프 노점상 시작
1994년 6월	노점단속으로 전치 8주 부상
1995년 3월 8일	9시 45분경 서초구청의 살인적인 노점상 단속에 분신으로 항거
1995년 3월 21일	새벽 1시 50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척수장애와 교통사고 중도장애를 가졌던 동지는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이었다.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가판을 달고 테이프 노점상을 시작하여 삶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초구청에서의 노점상 탄압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그러한 가운데 '95년 3월 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초구청의 살인적인 단속에 스피커와 밧데리통을 빼앗겨 당일 오후 9시 30분경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한 후 압수된 물품을 찾으려 했으나 심한 모멸감만 받고 좌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동지는 결국 9시 45분경에 분신하고 3월 21일에 운명하였다.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문민정부에서조차 장애인의 생존은 여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인가. 동지의 죽음은 400만 장애인을 포함한 이 땅 기층민중 모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태였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탈은 무수히 자행되어 왔다. 최소한의 생존수단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기관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가해와 폭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모든 곳에서 내몰린 이 땅의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강탈한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동지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강탈하려고 한 정부에 분신으로 항변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노점상이면 무조건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고 폭행하고, 부수는 현 정부가 고용한 단속반에 대해 아무 힘도 없는 이 땅의 장애인, 이 땅의 노점상을 대변해 몸을 불사른 것이다.

양주석 (당시 77세)



1918년 1월	충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출생
1932년	한산 보통학교 졸업
1953년 1월 2일	오덕교회 장로
1955년 12월 24일	금강교회 개척
1976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 부노회장
1983년 11월 11일	충남기독교 농민회 창립 초대회장
1984년 5월	강경 불량 토마토 종자 피해투쟁
1984년 6월	장항 제련소 공해피해 투쟁
1985년	한국기독교 농민회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
1986년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투쟁, 농가부채 탕감 투쟁
1988년 9월 21일	서천군 수세거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1989년 2월 13일	서천군 농민회 지도위원
1992년 9월	충남도연맹 창립 1주년 공로패 수상
1992년 11월 20일	한국기독교 농민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 수상
1995년 6월 3일	노환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18년 1월 충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에서 아버지 양순태씨와 어머니 함담옥씨 사이에서 7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모두 장로와 권사를 역임하는 등 집안이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한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7년 역시 기독교 신자인 이영례씨와 결혼 삼남 삼녀를 두었다.

동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충남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하며, 충남기독교 농민회 창립에 참여 초대회장을 지냈다. 농민회 활동을 하며 강경 불량 토마토 종자 피해투쟁과 장항제련소 공해피해투쟁,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 농가부채 탕감 투쟁 등을 통해 이 땅의 자주 농업을 지키며, 지역의 투쟁에 함께 하였다. '88년에는 서천군 수세거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올바른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투쟁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동지의 노력은 한국기독교 농민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평생을 농민으로 자주농업과 농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바쳤던 동지는 '95년 77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만년청년! 상록수!

우리는 생전에 당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일곱의 나이에 농민의 가난이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임을 깨달은 이후, 당신은 항상 문제의 현장 속에 계셨습니다. 강경의 불량 토마토 종자 피해보상, 장항 제련소의 공해피해 보상, 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 농가부채탕감, 농어촌의료보험 통합 등, 투쟁의 중심에서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를 부르며 농민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부당수세 폐지 투쟁 시에는 이지역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과로로 쓰러지면서까지 온 마을을 누비셨습니다. 내려한 농민들을 깨우치려고 백발을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논밭 길을 달리시던 당신의 숭고한 모습은, 2.13 여의도 농민대회의 합성과 함께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당신의 뜨거운 열정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투쟁으로 반동일 세력에 맞선 통일운동으로 땅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명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행여 결실을 견고 싶을 때, 실망에 빠질 때, 50리 밤길을 걸어 농민 집회에 참여하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생전에 소망하시던 농민 세상 우리들에게 말하고 편히쉬소서. 예수 부활 그날 농민들과 더불어 청년 양주석으로 부활하소서.

- 1996년 6월 3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서천군 농민회 일동 -

박헌채 (당시 61세)



천안 공원묘지에 안장

1934년 11월 3일	전남 화순군 출생
1947년	광주수창국민학교 졸업. 당시 독서회활동 시작,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실천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임. 광주서중에 입학, 전쟁발발까지 민애청 활동에 참가
1950년	전쟁 발발후 광주서중 학내조직활동에 전념하다가 같은 해 10월 입산
1952년 8월까지	빨치산 활동
1959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입학
1963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강사 시작, 인혁당사건으로 중단.
1964년	인혁당사건에 연루, 1965년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1967년	「한국산업의 지역적 편재와 불균형 발전의 요인분석」을 집필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민족경제론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평론, 논문을 발표함, 흥익대, 국민대, 우석대, 경희대, 충남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함
1978년	「민족경제론」을 출판 「민중과 경제」,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도 같은 해에 출판
1979년	「임동규간첩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복역함
1980년	「134인 지식인선언」에 참가, 5.18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으나 풀려남
1981년~1984년	「한국농업의 구상」, 「한국경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경제와 농업」,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등 4권의 저서를 매년 1권씩 출판
1985년	「창작과 비평」 제57호에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 이른바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의 단서를 제공함
1986년	「한국경제구조론」 출판
1989년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취임,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출판
1995년 8월 16일	9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약 2년간 투병하다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외세를 배제하고 민족자립 경제를 주창한 남한의 대표적 민족경제학자였으며, '70~'80년대 가혹한 민주화운동 탄압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가로, 빼어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며 많은 고난을 겪은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동지는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6살의 나이에 빨치산으로 입산했다가 '52년 8월 복부 관통상을 입고 하산, '55년 서울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로 있으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하에서 한국 국민경제의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온상지 역할을 하였다.

'64년 동지는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어 도예종 은닉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이후 두차례 복역과 구금을 당하였다.

동지의 민족경제론은 한국 자본주의가 종속의 길로 치달던 시기에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해 '70~'80년대 민주운동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였다.

이덕인 (당시 28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7년 12월	전남 신안군 출생
1995년 6월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1995년 11월 25일	노점 철거에 반대 망루 농성 중 지부연대 위해 이동
1995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철거 감시용 망루에서 농성중에 있던 이석근씨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로 인천 앞 바다에서 발견

동지의 삶과 죽음

신체장애라는 험겨운 신체 조건하에서도 노점생활로 기반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동지는 정권과 인천시 당국의 대책 없는 노점철거에 항거하여 투쟁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동지는 '95년 7월 인천시가 아암도에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이 지역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동지들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노점을 시작하였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아암도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회사를 고용, 경찰의 비호아래 1,500여명을 투입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수십명의 노점상들을 11월 24일 오전 7시 한겨울 추위에 내모는 철거를 집행하였다. 노점상들은 철거를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 10월경에 건설해 둔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을 쏟아 붓고 돌맹이를 던지면서 농성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외부와 단절되어 음식물의 반입이 차단 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추위가 밀어 닦쳤지만 대책없는 노점상 해산시도에 대해 하염없는 농성이 계속되었다.

11월 25일 저녁 동지는 고립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 소식을 알리고자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외부로 탈출을 결심한다. 동지는 동료와 함께 저녁 8시 45분경 탈출을 시도 먼저 망루를 내려오다, 동료는 경찰이 자신들을 발견하고 망루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여 동지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후 다시 망루위로 올라갔다. 이것이 동지의 마지막 생전모습이었다. 망루를 떠난 지 3일 뒤 11월 28일 오전 10시경 동지는 농성장 근처의 아암도 앞바다에서 극도의 허기 그리고 추위와 싸우면서 근근이 버티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밧줄이 다소 풀어지기는 했으나 두손이 포박된 상태로 묶여져 있었던 점, 얼굴 부위와 어깨 등의 좌상(피명든 상처)이 존재했던 점, 야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발견 시 벗겨진 상태였다는 사실 등 가족들과 지역 민주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200일에 가까운 장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 경찰은 영장도 없이 시신을 탈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부검을 하고 시신을 지키던 동지의 형은 연구소로 강제로 납치당해갔고 많은 부상과 연행당하기도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동지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신연숙 (나이미상)



- 1994년 12월 4일 수원2지구 세입자 대책위 결성
- 1995년 6월 18일 철거반대 고공농성을 위한 골리앗 설치
- 1996년 9월 5일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철거에 맞서 사수투쟁 승리
- 1996년 2월 5일 한국토지공사 철거강패와 공권력 동원하여 골리앗에 방화자행. 이 과정에서 불을 피하기 위해 신연숙 동지가 18미터 높이의 골리앗에서 뛰어내렸으나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죽음은 한국토지공사의 반민중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익을 위한다는 한국토지공사는 정치인들의 자금줄과 투기꾼들의 앞잡이 노릇을 도맡아 오며, 한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챙기는 허가받은 땅 투기꾼인 것이다. 그들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대상지역에 거주하던 원거주 주민들이 사업완료 후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그들의 허구적 논리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시서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여전히 견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철저한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과 한국토지공사의 반민중적 정책으로 인해 단 한 평의 삶의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한 수원2지구 철거민들은 '94년 12월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95년 골리앗을 설치하여 8월부터 150여일간 고공농성을 전개하며, 9월달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철거에 맞서 전국철거민연합회 동지들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수지2지구 철거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포기할리 없었다.

'96년 2월 5일 백골단 200여명과 철거강패 100여명이 골리앗에 기습적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골리앗 위에는 주민 4명과 학생 1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철거강패들과 백골단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골리앗에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골리앗에 불이 붙었다. 백골단과 철거강패들은 18M높이의 철탑이 화염에 휩싸인 채 5층 꼭대기 위에서 살려달라는 동지들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끄는커녕 포크레인과 쇠파이프, 해머 등으로 철거민들의 보금자리를 싹쓸이 철거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지의 투신은 두고 온 아이들을 위한 생존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지와 수원2지구 철거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던가. 그들은 단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순환식 개발에 근거하여, 가 이주단지 조성과 철거민들의 경제적 실정에 맞는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철거민들의 대다수 삶이 그렇듯이 동지도 세 아이와 남편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다. 그러한 동지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던 것이다.

문한영 (당시 77세)



수유리 도봉산묘지에 안장

1919년	원산 출생
1930년	10대의 노동자로 원산부두 노동자파업에 참가
1944년	'건국동맹' 원산지부 참여 일제패망 뒤 '건국준비위원회' 참여
1960년 4월	혁명 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 조직위원장
1980년	5.16 쿠데타로 투옥
1989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 재건에 힘씀
1996년 4월 18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일제의 조선강점 시기에 민족적 항거가 있었던 '19년 원산 부두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마쳤다. '30년대 10대 노동자로 원산부두노동자 파업에 참가하였고, '44년엔 항일운동체인 '건국동맹' 원산지부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일제패망 뒤 서울에서 여운형, 안재홍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이승만의 독재가 노골화되던 때 조운제, 김시현, 이종률, 유시태, 박영식씨 등과 함께 '민족건양회'에 참여하며 책임간사로 활동하였다.

'60년 4월 혁명 뒤에는 진보세력의 통일운동전선체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에서 조직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약을 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로 투옥되어 혁명재판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 3심 15년이 확정되었으나 '67년 12.25 특사로 나올 때까지 7년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군사정권시절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의연히 통일을 염원하며 '89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재건에 함께 하였고 공동의장을 맡기도 하였다.

동지는 바다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여유와 옳지 않은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가졌다. 배타적 주장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듣고 말없이 실천하였으며 당신의 행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서슴없이 스스로를 비판하며 옳은 길을 갔다.

그래서 동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은 평소에 동지와 뜻을 같이 했던 전국의 많은 동지들과 후배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단체 일꾼들과 동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소장학자들까지 모여 기동 잃은 슬픔으로 오열하였다.

김말룡 (당시 6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27년 2월 2일	출생
1945년 11월	조선기계제작소 노조 선전부장
1946년 8월	노사분쟁사건 관련, 구속
1954년 3월	이승만 대통령 유시위반사건 관련, 지명수배
1956년 10월	노총 자유당 기관단체 탈퇴운동 주도
1958년 3월	국학대학 경제학과 졸업(고려대학교에 합병)
1959년 10월	전국노동조합총협의회 의장
1961년 7월	박정희 대통령 비난사건 관련 구속
1967년 9월	전국연합 노조 위원장
1978년 2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1978년 10월	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 소장
1980년 5월	5.18 사건 관련 구속
1982년 2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1986년 6월	전국평신도협의회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국본부공동의장
1992년 4월	제14대 국회의원 (전국구)
1996년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6차례의 구속을 당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 특히 정치깡패들의 위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도 수없이 많으며, 5.16 쿠데타, 5.18 쿠데타와 같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구속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동지는 8차례에 걸친 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노동자 권리를 위해 초지일관 싸웠다. 자유당 치하인 50년대 말 노총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투쟁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였고, 4.19 혁명 이후에는 노총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가톨릭 노동상담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의 권리향상에 평생을 헌신한 명실상부한 '한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 이었다.

특히 14대 국회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는 전국 방방곡곡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을 모아왔다. 또한 '94년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은 동지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관행으로 넘어가고 말았을 사건으로 동지의 일관된 정의와 용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이었다.

동지는 그러던 중 '96년 10월 3일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운명하였다. 동지는 사망 전날 (10월 2일) 민주노총 투쟁본부 회의에서 밤 10시까지 각 단사 위원장들과 함께 노동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갖기도 하였다.

권운상 (당시 41세)



천안 풍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5년 12월 16일	충북 제천시 출생
1974년	국민대 입학
1975년	독재타도와 유신헌법 철폐운동으로 3개월의 옥고 치름
1976년	탄광광부, 재단사, 부산조선소 도장공 생활
1978년	한국노동평의회 사무국장, 통일사회당 노동국장
1980년	'미스유니버스타회장폭파음모' 사건으로 구속
1982년	2년 7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3년	홍사단 대학생아카데미 지도위원, 홍사단 소비자조합이사장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권부장
1988년	노동법률상담소 소장,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이사 평민당 구리시 지구당 위원장으로 제13대 국회의원 출마했으나 낙선
1988년~1994년	〈녹슬은 해방구〉, 〈붉은 산 검은강〉, 〈월악산〉 등 집필
1992년	제천시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입후보했으나 낙선
1996년 12월 26일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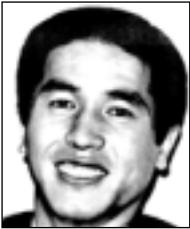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중경고등학교 2학년 시절 박정희독재타도 유인물을 배부하다 중앙정보부실로 끌려가는 등 일찍부터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75년 4월 국민대 법학과 재학시절 독재자 박정희타도와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국민대학교 전교생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 초부터 동지들과 함께 유신헌법철폐 및 박정희독재타도에 대한 제2차 시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76년 10월부터 탄광 광부, 재단사, 부산조선소 도장공으로 생활하면서 민주노조 건설운동에 참여하고, '78년 한국노동평의회 사무국장, 통일사회당 노동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80년에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항하다 미스유니버스 폭발물 음모사건으로 2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고, '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정치생활 규제를 당하였다.

'83년 홍사단 대학생아카데미 지도위원과 홍사단 소비자조합 이사장, '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권부장을 역임하였고, '88년 노동법률상담소 소장,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이사, 평민당 구리시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13대 국회의원 입후보했으나 애석하게 차점자로 낙선하였다.

'95년 10월 충주시 연수동 천주교회 연재식 신부님으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94년부터 서울 강남지점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받은 악독한 고문과 옥고생활에서 얻은 병의 후유증으로 남모르게 병마와 씨름하다가 간암이라는 병까지 덮쳐 '96년 12월 26일 43세의 젊은 나이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운명하였다.

민병일 (당시 3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8년 12월 2일	경기도 파주 출생
1989년~1994년	삼성재단 산하 중앙개발연구원에서 근무(노조발기인으로 활동)
1995년 9월 28일	구갈 철거민 대책위원회 입회
1996년 4월 6일	구갈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
1997년 2월 15일	노점단속으로 빼앗긴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했다가 경찰관들의 집단폭행으로 두개골이 으깨어진 뇌사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 끝내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의 명분 속에서 진행되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살던 동지는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야 한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5년부터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택철거로 인해 어려워져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점에서 닭꼬치장사를 해왔다. 그러던 '97년 2월 2일 관할 관청도 아닌 신갈파출소의 노점단속으로 동지는 장사도구를 빼앗겼고 그 장사도구를 되찾기 위해 경기 용인시 소재 신갈파출소에 찾아가았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8cm가량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곤봉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 동지는 심각한 외출혈로 인해 자꾸 부어오르는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위해 두개골을 열어 놓은 처참한 상태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게 하여 생명을 유지하던 중 끝내 운명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의경이 동지를 밀어서 다쳤다고 발표하였으나 정황이나 의사판단으로 보아서는 곤봉에 맞아 머리가 8cm함몰되었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교사행위' 이다.

집권과 더불어 지금까지 4년 동안 내내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기만극을 연출하더니 민생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통치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정적들 제거를 위한 모사나 궁리하고 있다. 노동법이나 안기부법의 날치기 개악에서도 보여주듯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오만과 독선은 안하무인, 앞 뒤 계획도 없는 정책남발과 지도의 철학이 없는 무지한 국정운영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부패한 권력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권력이나 공권력의 통제 불능의 직권남용을 낳아 생존권을 부르짖는 무고한 서민을 몽둥이로 머리통을 깨부수는 테러행위를 서슴없이 자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살인교사행위' 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용진 (당시 33세)



영광군 입석리에 안장

1964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출생
1977년 3월	영광실업기술중학교에 입학(비인가)
1979년	고입검정고시 합격
1980년	영광종합고등학교 입학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입학 '황토'라는 학생운동씨클에서 활동
1986년	고향 영광에서 군 복무
1988년	서울농대에 복학하면서 학내에 '우리농촌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
1989년	농민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 전국농민운동연합 간사로 일함
1990년 3월	평생동지 이태옥과 결혼 후 고향으로 삶의 터전 옮김
1990년 8월	영광군 농민회가 창설되면서 농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1993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정책실장
1996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고 논50마지기, 밭18마지기의 구입
1997년 2월 25일	영광군농민회 면지회 총회준비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4년 영광군 신하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비인가 학교인 영광기술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검정고시 합격 후 동지는 영광종합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83년 서울대 식품공학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교내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다.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동지는 도서관 너머로 시위현장을 지켜보고 하였다. 우연히 시위현장에서 넘어진 여학생을 주위에 사람들과 같이 건물로 피신시킨 것을 계기로 현실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내 '황토'라는 씨클에서 활동하였다. 2학년때 후배를 지도하고 각종시위 실무등을 하다가 '86년 고향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고향에서 맞이한 6월항쟁은 동지의 삶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 군복학 후 동지는 '우리농촌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89년 동지는 학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농민운동에 투신하기 위하여 전국농민운동연합 간사로 활동하였다. '90년 학생 때 농민관련 운동을 하다가 만난 평생 동지와 결혼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농민회 운동을 하였다. '90년 영광군 농민회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초대 사무국장으로 농민회 기틀을 다졌다. '92년 대규모로 벌어진 쌀 적재투쟁을 영광군에서 주도하면서 농민회의 안착화에 노력하였다. 동지는 항상 선두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수실 점거, 경찰서장 점거농성 등 이땅의 농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생산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93년 전남 도연맹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전국단위 대규모 농민투쟁을 기획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등 실 틈 없이 전개하였고, 동지는 '96년 다시 군단위로 돌아와 기초를 다졌다. 이즈음 난생 농민후계자가 되어 대출로 논 50마지기와 밭 18마지기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97년 2월 25일 영광군 농민회 면지회 총회준비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평생 동지의 결의 떠났다. 동지는 이땅의 농민해방의 불꽃으로 진정한 농민의 벗으로 삶을 살아온 이 땅의 진정한 농민운동가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문집 「녹두꽃으로 피어나리」를 '98년 발간하였다.

네 가슴 깊은 곳까지	양 어깨를 짓눌러도
칼바람으로 휘몰아치던	끈질기도
우루과이 래풍	끈질기도
WTO 안개 속에서도	여린 법씨의 새 눈은 뜨였나니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의 한계상황에서도	새봄은 오는알
분단된 산하 질곡의 역사가	- 입석리 산록에 잠든 용지에게 중에서 -
	「녹두꽃으로 피어나리」

권양섭 (당시 80세)



용미리 서울 시립묘지에 안장

1917년	경북 봉화군 출생
1943년	종형과 만주로 가서 종형의 항일 운동을 도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봉화 인민위원회 활동. 남로당 대구지역 대의원으로 선출
1948년	대구역에서 체포. 4년형 선고
1952년	석방
1972년	경북지역 통혁당 사건으로 검거. 부인과 3명의 아들, 여동생, 제수씨까지 체포
1993년 3월 6일	22년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7년 3월 18일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직장암으로 투병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전쟁 이전 남로당 대구지역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4년을 복역하고 이후 55살이던 '72년 2월 13일 큰아들 권낙기 선생등 일가족 모두가 함께 체포되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경상도 통혁당 사건, 일명 '유위화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동지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뒤 2심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부인은 1심에서 5년, 2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돼 만기 출소했다. 당시 25살이던 큰아들 권낙기 선생은 무기형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고 18살이던 둘째 권재기 선생은 소년수로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동지는 22년 만인 '93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직장암으로 '97년 운명하였다.

진태윤 (당시 77세)



완주군 서양면 해월리 70번지에 안장

- 1920년 2월 29일 함경남도 점평군 출생
- 1945년 해방을 맞아 조국건설사업에 헌신하며 민청활동을 함
- 1962년 통일 조국을 위한 사업에 함께 함. 그 뒤 남녘에 왔다가 체포됨
- 19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 확정, 26년간 옥고를 치름
- 1988년 12월 21일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조치로 출소
- 1997년 4월 2일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폐혈증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20년 함경남도 점평에서 출생한 동지는 해방을 맞아 민청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62년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체포되어 26년간 복역하였다. '88년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97년 폐혈증으로 운명하였다.

박순덕 (당시 34세)



화 장

- 1963년 2월 전북 정읍 출생
- 1985년 6월 김창수씨와 결혼, 슬하에 남매를 둔
- 1995년 2월 전농3동철거민 대책위 가입
- 1997년 7월 25일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 중 철거깡패들이 페타이어 등으로 방화를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자 질식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불길에 휩싸여 투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7년 7월 25일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전농3동에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 반대와 가수용 입주'를 요구하며 철제망루에서 한 달째 농성 중이던 10명의 철거민이 방화에 의해 철탑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18M 높이에서 뛰어내려 동지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온몸이 골절되고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하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선경건설과 재개발조합은 용역회사인 적준토건 소속 철거깡패 300여명을 동원하여 전투경찰 600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강제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깡패들은 오후가 지나면서 철탑망루 주위에 옷가지와 페타이어를 태워 유독성 연기를 뿜어내 두더지잡기라도 하듯 농성중인 철거민들의 질식을 기도하였다.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철제망루 밑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철탑망루를 뒤덮었다.

그런데 집단 방화범들은 방화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발생했다고 뒤집어 씌웠다.

당시 철제망루에 있었던 부상자들과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은 방화살인의 전모를 밝혀주고 있다. "페타이어를 밀어 넣고 불을 지르자 매캐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올라 왔습니다. 1층에는 취사용 LPG통도 있고 위험해서 내려가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다시 갑자기 불기둥이 철탑망루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당시 철거깡패들은 신나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우유통을 들고 다녔고 소주병을 들고 다니며 마셨습니다. 불이 꺼지자 페타이어에 신나를 끼얹은 것이 분명합니다. 1층 방벽을 뜯어 페타이어를 밀어넣어 불을 지르고 불이 꺼지자 신나까지 끼얹은 일련의 진행과정은 이번 방화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은 철탑망루를 향해 3번이나 최루탄을 난사하며 강제철거에 가세하였다. 놀라운 것은 1층 철제방벽을 뜯을 때도 한 차례 경찰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방화살인을 축소으폐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조작까지 기도하고 있다. 동지가 안치되어 있던 경희대병원과 전농동 방화살인 현장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고 피해자인 부상철거민들을 도리어 방화범으로 몰며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났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신자유주의 시기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 IMF 신자유주의 공세 그리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기치아래 출범하였다. IMF 책임이 한국의 천민자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자 민중에게 그대로 관철하려는 정책을 밀고 나갔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부실기업 퇴출 등의 조치로 행해졌으나 재벌개혁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오히려 일부 재벌의 강화를 가져왔다. 반면 노동시장 구조조정 칼날은 무서운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했지만 일방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이 민영화 대상에 들어갔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알짜배기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의 후퇴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결과 재벌은 살아났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시달려야 했다. 자본의 해외매각이 진행되면서 고용은 더욱 불안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필사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공안검사가 조폐공사노조 파업을 유도하기도 했고, 대우자동차노조, 롯데호텔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노동자 파업현장에 무자비한 폭력경찰을 동원했다.

IMF 체제 극복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에서 김대중 정권 부문별한 카드산업과 벤처산업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폈으나 결국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벤처산업의 거품이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으로 전가되었다. 즉 경기의 거품은 이후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빈익빈 부익부의 20대 80 사회를 고착화 시켰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보수야당 투쟁경력을 바탕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통일의 기초가 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기도 하였다.

노동자 민중의 진보진영에서는 오랜 숙원이던 진보정당이 속속 건설되었다. 청년진보당,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어 진보진영의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정당득표율 8.13% 획득, 제3당으로 도약하면서 의회진출의 교도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민주당은 노무현을 내세워 네티즌 조직 노사모와 돼지저금통으로 정권을 재창출하였다. 1980년대 인권변호사로, 5공청문회로 잘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해줄 것 같은 이미지와 당선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18대 총선정국으로 돌파하여 의회 과반수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곧 바로 폭로되었다. 비정규직문제, 손배가압류, 단체협상을 맺기 위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을 강요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WTO협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민간 부분은 물론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재창출과 엘리트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소위 4대입법(국가보안법철폐,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개정, 언론개혁법)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먼 보수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총10석으로 사상최초로 의회진출에 성공하였다. 소수로 시작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진영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파열을 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민중생존권 정책, 쌀개방반대 등을 쟁취하기 위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최대림 (당시 41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7년 12월 10일	경남 고성 출생
1975년	고성종합고등학교 졸업
1979년	군대 제대
1985년 1월 23일	대우조선입사, 수리선생산부 근무
1998년 2월 13일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 입법화에 반대하면서 건조 중이던 배위에서 분신, 투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8년 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가 합의되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에서 건조 중이던 유조선 갑판 위 25m위에서 분신 후 투신하여 운명하였다. 당시 대우조선은 IMF 경제체제를 이용해 '97년 말 성과금과 상여금을 뒤늦게 지불하고, 년차수당 체불과 토요일휴무중단 등의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조기작업과 한시간 일 더하기 등을 강요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노동통제와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해 왔다. 그리고 2월초에 김우중 회장이 조선소를 다녀간 후 2천5백명 가량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진 상황이었고 지원부서 인력이나 산재환자 등이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거라는 추측 또한 지배적이었다.

동지는 약 2개월 전에 지게차 운전 도중 안전사고를 냈다하여 보직을 박탈당하고, 타 부서로 보내지는 등의 조치를 당하고 있었다.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꼼꼼한 노동자였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던 동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벌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맞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을 저지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운명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탄압에 짓눌려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동지의 죽음은 경제위기속에서 끝없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1천만 노동자의 극단적인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과 재벌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IMF위기에 자성의 목소리는 커녕 또다시 과거와 같이 노동자들의 목조르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폭거에 대한 저항이었다.

조합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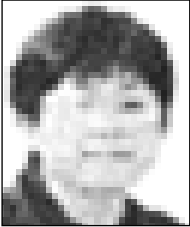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동참합시다. 전국 수백만 근로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 됩니다. 여러분, 이번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기업의 양도·합병·인수까지 포함하여 정리해고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법이 통과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 땅에 정직한 기업인은 얼마 없습니다.

약용하여 얼마나 괴롭힐지 상상해보십시오.

-대우조선 노동조합원 최대림-

최명아 (당시 3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3년 11월 10일	충북 음성 출생
1985년 2월	이화여대 행정학과 졸업
1985년	인천의 태성전자, 인우전기, 한미실업 등에 입사
1986년	인천글로벌리아 가구 입사
1989년	글로벌리아 가구 노동조합결성.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
1989년~1995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 조직부장으로 활동
1995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조직국 조직1부장.
1998년 2월 11일	진료차 서울대 병원에 갔다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짐
2월 24일	오후 1시경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든 동지는 인천의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설립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인천의 글로벌리아가구에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했는데 대학생 출신 활동가라고 회사에 알려졌음에도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로 오히려 노조 교육 부장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노조가 결성된 지 두 달 만에 공장이 모두 불에 타 더 이상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회사는 동지를 해고시켰고 이에 맞서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복직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 후 동지는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과 조직부장으로 활동했고 민주노총 조직부장으로 남다른 책임감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다. 특히 IMF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긴박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부터 부족한 인원으로 더욱 바쁘고 힘들게 활동하였다. 각종 집회와 농성을 준비하고 참석하였으며, 지도부와 함께 산하 노조들을 현장 순회하고 방문하였다. IMF 상황을 빌미로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자 이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동분서주하였다.

'98년 2월 4일에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조대표들과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피로가 극심하게 누적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두통과 가벼운 얼굴마비, 그리고 시력장애가 나타났으나, 그 뒤에도 2월 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2월 10일, 11일에도 정리하고 반대투쟁을 점검하기 위해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11월 오후에는 두통과 눈 증세가 악화되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되어 안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리고 13여일간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목숨을 이어가던 동지는 결국 2월 24일 오후 1시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사라지는 것은 없다」를 '98년 9월 23일 발간하였다.

우리 맘속에 너를 심어
 일년 사철 피는 꽃나무로 너는 자라리니
 꽃은 피고 지지만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는 한
 너는 지지 않는 꽃이러니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피어나리

- 「사라지는 것은 없다」 발간사 중에서 -

신길수 (당시 42세)



안산 시립공원묘지에 안장

1956년 12월 10일	부산 출생
1972년 3월	용산공업고등학교 졸업
1977년 3월	전엔지니어링 입사
1983년 9월	동아엔지니어링 입사
198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1990년 1월~1998년 1월	노조위원장 역임. 공익노력 부위원장 역임
1998년 5월 9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동아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8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공익노련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동아그룹 계열사였던 동아엔지니어링은 부채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위기 속에서 IMF가 본격화 된 이후 상여금 삭감과 임금체불 등을 하던 중 급기야 '98년 5월 9일 부도가 났다.

부도로 인해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직원들의 생계는 나날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동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5월 23일에는 노동자 종묘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5월 25일에 집을 나간 후 5월 27일 새벽, 집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지는 “퇴직금과 고용보존은 남은 생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주주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남은 나의 식구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생존문제는 너무 가벼이 다루지 말아주십시오. 전임위원장으로써 목숨을 던져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 합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동지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인 자살이 아니라 정권과 재벌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현실이며 시대의 아픔과 생존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해고 위협과 임금삭감, 체불이라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동지가 외쳤던 해고없는 세상, 퇴출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건설되어 노동자의 정치적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희망을 찾아가는 투쟁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확신합니다. 동지가 그리던 노동자 참세상은 우리의 멈추지 않는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투쟁이 고단한 모든 노동자들의 가슴을 쓸어주시고 그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동지의 넉넉한 웃음과 함께 노동자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 2주기 추도사 중에서 -

조현식 (당시 33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5년	서울 출생
1984년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입학
1990년	한국외국어대 학회연합 회장
1993년	경기도 광주 노동법률상담소 조직국장
1997년	경기도 광주 '일하는 사람들' 회장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하남광주연합' 사무국장
1998년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초대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정책위원
1998년 12월 25일 28일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화재 발생, 화상입음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대학 졸업 후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동지는 '97년 IMF사태로 극심한 실업의 고통에 처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지역에 건설일용노동조합의 깃발을 꽂고 초대위원장을 역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새벽 인력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과 조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조합원들과 함께 체불임금해결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조합원들의 먹고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중 마침내 산림청과의 협상에 성공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받았다.

12월 25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로 들떠 있던 당일, 조합간부들과 숲 가꾸기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던 중 사무실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무실에 있던 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불을 발견하고 풍물 연습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들을 덮쳤고 다른 두 동지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이 지장은 없었다.

병원에 입원 중 화기에 손상된 폐와 기관지가 부어 올라 호흡곤란과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동지의 손을 끌어 부여잡고 힘겹게 손가락으로 한자한자 써내려가며 “함께 있었던 동지들의 안부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강인한 삶에 의지를 표명하였던 동지! 3일째 되던 날 마지막 죽음을 예상하였던 동지가 팔뚝에 써 내려간 글씨는 “...동지들을 믿습니다!”였다.

건설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적 위기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동지의 삶은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어려운 동지와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옷 몇 가지와 몇 푼의 잔돈만을 유품으로 남길 만큼 자신의 소유에 무관심했던 헌신적인 삶 자체였다.

정성범 (당시 31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8년	충남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출생
1987년	명지대 전자공학과 입학
1989년	총학생회 학술부장 역임
1991년	경기민주주의학생연맹 위원
1992년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중앙조직국원 민중후보 백기완선거운동 본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1993년~1995년	전노협 총무부장
1997년	서산민주노동연구소,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 조사통계부장
1998년	명지대학교 복직(건강악화로 곧 휴학), 투병 생활
1999년 1월 30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7년 명지대학교에 입학하여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동지는 '89년 제17대 명지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6공정권의 공안정국 구성과 공안합수부의 공안통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펼쳤다.

이후 동지는 학내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조직하여 '명지대민주주의 학생연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경기민주주의학생연맹'과 '전국민주주의 학생연맹' (전민학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93년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9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동지는 '95년 전노협 총무부장으로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권익 보호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전노협은 공권력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고, 전노협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수배조치로 인한 동지의 활동은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 비합법활동과 전노협 상근활동을 해오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폐결핵을 앓게 되었으나 '95년 11월 민주노총 결성시까지 열정적인 활동을 하였다. 전노협 해체 후 '전노협 백서 발간위원회'에서 발간사업을 진행하던 중 군복무(공익근무)를 하게 된 동지는 공익근무중에도 '97년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 조사통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동지는 '98년 명지대학교 4학년에 복적하였으나 건강악화로 곧 휴학하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 '99년 1월 30일 새벽 운명하였다.

시신을 서울중앙병원에 기증하여 언론의 큰 관심이 되기도 하였다.

김윤수 (당시 40세)



마산 공원모지에 안장

1959년 9월 29일	출생
1983년 4월	대림자동차 조립과 입사
1988년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
1990년 3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0년 11월 21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 받음
1991년 4월 13일	만기출소
1999년 3월	복직투쟁 전개
1999년 3월 31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3년 4월 대림자동차 조립과에 입사하여 노동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삼엄한 현장통제 속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해오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은 '87년 전국적으로 불붙은 민주화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88년 민주노조가 건설되고 동지는 대의원과 총무부장을 맡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90년 2월, 창원경찰은 야간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짓밟고 동지를 비롯한 노조간부들에게 이적표현물소지죄 위반혐의를 적용시켜 수배 조치를 내렸고 동지는 '90년 3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회사는 '90년 11월 21일 동지에게 서면 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동지는 '91년 4월 13일 공주교도소 만기 출소 후 노동조합 대표권 투쟁, 총회 소집권 자투쟁, 민주노조 재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지들의 피땀한 투쟁을 자본과 독재정권은 가차없이 짓밟았고 동지를 비롯한 해고자들은 치욕과 생존의 고통을 감수하며 복직의 그날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동지는 '93년 12월 이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도 복직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대림노조는 '96년 60일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민주노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이에 동지는 '99년 3월부터 해고된 동지들과 힘을 모아 해고자복직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0여년의 해고자 생활은 동지가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3월 31일 새벽, 동지는 그토록 원하던 복직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한권의 책이라도 더 읽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우리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조직적... “다같이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합시다.”라는 관점은 지금 이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 1999년 3월 19일 새벽 출근 투쟁 유인물의 김윤수 인사글 중에서 -

배동복 (당시 3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1963년 5월 인천 출생
- 동인천중학교 졸업, 정석 고등학교 중퇴
- 1991년 롯데기공 입사, 풍물패 활동
- 1996년 8월 영창악기 입사
- 풍물패 '어울림' 창단, 초대 회장 역임
- 1999년 5월 17일 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인천 덕적도 섬에서 태어나 동인천 중학교 졸업하고 정석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양은을 만드는 공장을 다니면서 일찍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

동지는 '91년 초 '롯데기공'에 입사해 풍물과 인연을 맺고 관리자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다가 5년 8개월만에 롯데기공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96년 8월에 영창악기에 입사해 8대 집행부 초기에 '어울림' 풍물패를 만들어 초대 풍물패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노조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짜증한번 안내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생활하던 동지는 '99년 5월 17일, 퇴근길에 과속으로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치어 장파열로 인해 병원으로 실려 가던 중 목숨을 거두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동지의 노동조합 활동은 '아까운 사람'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고이 잠들었다.

“저임금 고된 노동, 정리해고의 고통이 없는 세상에 고이 잠드소서”

이상관 (당시 27세)



화 장

1972년	경남 사천 출생
1994년	창원 대우중공업 국민차 사업부 입사
1999년 2월 20일	산업재해 당함
1999년 6월 22일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72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동지는 '94년 창원 대우중공업 국민차 사업부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99년 2월 20일 산재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 공단은 제대로 몸 조차 가누지 못하는 동지를 통원조치 시키는가 하면 강제 퇴원 조치를 했다. 동지는 힘겹게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예전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인 줄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라며 육체적 고통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유서로 전하고 '99년 6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동지의 죽음이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와 형식적인 자문의 제도에 그 원인이 있었음에도 7월 15일 배포한 「해명서」에서 동지가 남긴 유서가 '유서의 일부부분으로 생각된다. 그 전체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지겠으나'라며, 마치 동지의 유족이 유서의 다른 내용을 숨기고 있거나 조작한 것처럼 쓰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 기자에게도 '유서가 원래는 3장이었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유서를 처음 발견한 동지의 이웃주민인 김청자(60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씨는 음독한 동지의 가족을 신고 나가는 앰브런스 소리를 듣고, 동지의 집으로 뛰어가 동지의 친척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찾다가 편지 봉투를 발견하였으며 "봉투를 열어보니 1장의 유서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유서를 가족이 볼 수 있도록 TV위에 올려놓고, 가족이 돌아온 후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다.

'99년 7월 7일, 산재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한 마창지역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사건이 알려지도록 7월 29일 유족과 공동대책위가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두 번의 농성장 침탈과 탄압 속에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등이 지속되었고 155일간 투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최경철 (당시 36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3년 3월 14일	경북 영천 출생
1986년 1월 16일	현대자동차 의장1부 입사
1990년~1991년	제4대, 제5대 대의원
1993년	제7대 대의원
1994년	제8대 소위원
1995년	제9대 대의원
1996년~1998년	제10대 소위원, 제11대 소위원, 제12대 소위원
1999년	노동조합 8대 집행부 조직1부장
1999년 8월 20일	노조신문 배포 중 생산차와의 충돌사고로 입원
8월 24일	오후 2시 53분경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8년 IM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38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였지만 277명의 동료들의 정리해고와 2000여명의 무급휴직자 발생을 막지 못했다. 현대 자본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현장에서의 노동탄압과 현장 통제에 고삐를 더욱 옥죄어 왔다. 사측의 가공할 만한 현장 탄압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퍼진 항시적인 고용불안은 현장조직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활동가들에게 현장 조직력을 복원·강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대두되었다. 동지 역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동지는 '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 근무하며 '90년대 4대 대의원 활동을 시작으로 현장 내 소위원 및 대의원을 역임하며 왕성한 현장활동을 하였다. 동지는 현대자동차 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조직1부장을 맡아 무너진 현장 조직력 복원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활동가였다.

동지는 생전에 하나된 힘과 통일된 행동,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야 함을 실천과제로 강조하며 노트에 “하나된 힘! 통일된 행동! 단결된 투쟁!, 승리! 99 입단투, 강화! 현장 조직력, 철폐! WIN21, 단축! 노동시간, 완성! 노조통합, 분쇄! 현장탄압, 건설! 산별노조, 확보! 고용안정”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렇듯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던 동지는 '99년 8월 20일 아침 입단투 승리를 위한 출근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노조신문을 차량에 실어 배포하던 중 생산차와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투병 5일째인 8월 24일 오후 3시경 운명하였다.

김종배 (당시 3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3년 3월	강원도 진부 출생
1982년 3월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입학
1983년 11월	한주기업 입사
1984년 9월	노동조합 결성, 사무국장 역임, 한주기업 해고, 불구속 기소 및 기소유예
1986년 7월	민민투 검거 때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1987년 7월	출소
9월	농심 입사
11월	해고
12월	뉴텍 입사
1988년 11월	해고
1990년 8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 활동
1991년 5월	박창수열사 옥중살해 진상규명 투쟁 중 구속
1992년 3월	출소
3월	전노협 복귀 후 조직·쟁의·총무·조사통계·정책국장 등 활동
1995년 12월	전노협 해산 후 '전노협 백서발간위원회' 팀장
1997년 5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회의 기획국장으로서 활동
12월	공공연맹 준비위, 공공연맹에서 정책국장·대회협력국장으로서 활동
1999년 3월	통합 공공연맹 교육국장으로서 활동
8월 27일	교육을 마치고 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2년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교생실습비 비리를 밝혀내는 투쟁, 전방입소거부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였다. 동지는 이후 '86년 7월 민민투 검거 때 징역을 살고 나와 '87년부터는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길지는 않았지만 여러 노동현장을 거쳐 '89년 YMCA 노동교육실에서 활동하였고 '90년부터 전노협 조직·쟁의·총무·조사통계·정책국 등에서 활동하였다.

동지는 전노협과 동지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치열한 현장 투쟁과정에서 '86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91년 5월에는 '박창수열사 옥중살해 진상규명' 투쟁으로 구속되기도 하였고, '97년에는 공공연맹준비위, 공공연맹에서 정책국장·대회협력국장, '99년 3월부터 통합 공공연맹에서 교육국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9년 8월 27일 불의의 사고로 동지들 곁을 떠났다.

동지는 한 번 일을 손에 잡으면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는데 '95년 12월 전노협해산이후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발간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동지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 동지는 짧은 생애동안 결코 빛나지 않는 곳은 자리를 지나오면서 사라질 뻔한 '80~'90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다시 피가 도는 생명력으로 되살린 사람이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황이 아무리 자신한테 불리해도,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살았던 사람.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

- 김종배 동지 4주기 추모집 「길그릇의 투박함으로」 '기억' 중에서 -

김명한 (당시 32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8년 6월 7일	경북 대구 출생
1986년	효성금속 노동조합 활동 시작
1988년	민중의당 당원
1989년	진보련 회원으로 활동
1990년	민중당 당원
1992년	(주)신흥 입사. 민중 대통령 선거 활동
1993년	신흥 판금반 대의원 역임
1993년	신흥 쟁의부장 역임. 민중정치연합 운영위원
1995년	신흥 제7대 부위원장 역임. 진보정치연합현장위원회 위원
1997년	민중 대통령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본부 활동
1999년	99임단투 파업투쟁 비상대책위 교육·선전국 활동
2000년	진보정치연합 회원. 민주노동당 당원. 신흥노동조합 사무국장
2000년 2월 29일	회사 출근버스에서 심장마비 발생
2000년 2월 29일	오전 11시경 운명

우리 노동자의 꺼지지 않는 꽃 등불!

박인애

그대, 보고싶다.
우리는 그대를 보낼 수 없다.
지하 사무실에서 그대를 처음 만난 날
혀가 짧아 말은 더듬으면서도
두 눈빛은 푸르게 살아있어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 때 첫 눈에 명한이는 틀림없는 놈
끝까지 함께 갈 동지
진국이라고 믿어버렸지
그대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지
그리고 노동자당을 만들겠노라고 말했지
그렇게 십 수년을 한자리에서
우직하게 꿩꿩 박혀 있으며
우리에게 쉽없이 말을 했지
때로는 그대의 말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내 말 좀 들어봐요." 외쳤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조직이 아니라고
노동조합이 가진 놈들의 손에 와해되고
조직이 저들의 폭력만행에 짓밟혔을 때에도
그대는 울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자본가와 맞서 싸우겠노라고
술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였다.
자본가 세상이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버렸으니
우리가 잘난 놈들의 세상을 바꾸자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한 번 바꿔보자고.

그대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던 때
불쑥 증명사진을 내밀고
씩- 웃으며 물었지
"자살 나왔지요?"
그 사진에서 그대는 이미 늙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다.
선배들을 조르면서 유세문을 봐 달라
연설을 들어 주라
과거의 선거 경험을 말해 달라
한 자락이라도 놓치면 질세라
밥 사가며, 술 사가며 경청했고
그렇게 8년 수고 헛되지 않아
마침내 자랑스런 노동조합 사무국장 되었을 때
기뻐하던 그대 얼굴이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그대를 보낼 수 없다.
노동운동의 산 증인 그대
아직 우리 세상이 오지 않았다.
다수의 노동 형제들이 굴욕의 삶을 살고 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오너라.
"우리 한 번 해봅시다. 됩니다. 돼요."
모두들 지쳐 있을 때에도 홀로 투사가 되어
지친 노동형제들
정신 번쩍 나게 만들었던 명한이
아직은 아니다.
그대가 노조 일을 하면서 술하게 고민하고
가슴아파했을 나날이 그려진다.
그래도 힘이 들면 마주잡은 그대의 손은
그대 마음처럼 언제나 넓고 따뜻했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그래서 그렇게 못 다한 그대 투쟁의 길을
출근 길 버스에서 저승으로 이어놓았나?
노동조합 일도 봐야 하고
노동자당도 만들어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는데

그래, 명한이!
그대는 지금 우리 가슴에 낙인처럼 생생히 박혔다.
그대는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대를 기억하마
우리 아이들이 그대를 기억하게 하마
여기,
노동운동에 목숨 걸고 영혼마저 불사른
한 젊은 전사가 살았노라고
부당한 자본주의 사회에 양심을 팔 수 없어
노동해방 전선의 전사가 된
한 노동자가 살았노라고.
그 이름 김명한
안산 신흥 노동조합 사무국장
진보 정치 연합 회원
민주 노동당 당원
우리는 결코 그대를 보내지 못한다.
그대 길을 걸으며 그대를 따르마
노동운동의 꽃 등불 김명한 동지여!
우리 노동자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노동해방, 인간해방, 평등의 새 세상으로
환히 불 밝히소서!

최진욱 (당시 2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1년 10월 26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출생
1994년	아주대학교 수학과 졸업
1993년 11월 1일	경기수원권선구의료보험조합 입사
1993년 12월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총연합 경기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가입
1996년	수원 권선지부 총무부장, 중앙운영위원
1997년~1998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경인본부 교육선전부장
1999년~현재	전국대의원
2000년 6월	경인지역본부지부 총무부장
2000년 8월 7일	11시 20분경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 참석위해 수원 화서 전철역에서 상경하면서, 깃대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낚시대를 점검하기 위해 펼치다 고압전류에 감전
2000년 8월 26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3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의료보험 조합에 입사하여 당시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총연합(의보총련) 경기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있던 지역노조는 의료보험 통합 투쟁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으나 갓 입사한 신입사원 임에도 동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 총무부장, 경기노조 중앙운영위원을 역임하여 노조활동을 벌였다.

의료보험통합 과정에서는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전국대의원으로서 통합투쟁의 선두에서 각 집회와 토론회·공청회 투쟁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으며 '00년 박태영 이사장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선봉에서 투쟁하였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 중이던 한여름,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 화서 전철역에서 상경하면서 깃대를 펼치던 중 감전으로 인해 20여일 병상투쟁을 마감하며 운명하였다. 그 후 박태영의 노조말살정책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공단을 만들기 위한 파렴치한 행각이었음이 밝혀졌다.

당당한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을 하던 중에 같은 의료보험 동지인 부인을 만나 1남 1녀를 두고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자 살아왔던 동지는 서른이라는 나이도 넘기지 못한 채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사로 남아있다.

동지여

왜 벌써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승리의 그 날

우리는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전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부디 편히 잠드소서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인본부 강화지부 일동 -

이옥순 (당시 47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4년	전북 정읍 출생
1973년 3월	원풍모방 입사
1982년 9월	해고, 집시법,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83년 석방
1985년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 부의장 선출 이후 의장직무대행으로 수배받음
1989년	여성 노동자 교육선교원 총무
1991년	장기수 출신인 권낙기 선생과 결혼.
1999년	통일을 여는 여성모임 '금강초롱' 회장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사무국장
2000년 5월	폐암 투병시작
6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외협력위원장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기념식 경축 방북대표단으로 참석
2001년 2월 23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열아홉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온 동지는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원풍모방에서 운동의 삶을 시작했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별노조 정책으로 어려웠던 일 등 고비마다 조합원들과 단결된 힘으로 원풍모방 노조를 지켜왔던 동지는 투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해고, 구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출소 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후 부의장으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하면서 3년여동안 수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91년, 38세의 늦은 나이에 장기수 권낙기 선생과 결혼하여 장기수 선생들의 든든한 벗이 되기도 했다. 무슨 일에선 열정을 다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동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8인 여성선언'을 위해 여러 동지들을 만나면서 뜻을 모아 '99년 통일을 여는 여성모임인 '금강초롱'을 묶어내고 통일운동을 시작하였으며,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70년대 노동운동기들의 힘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렇게 한 평생을 노동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동지는 원풍모방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마신 먼지와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한 결과로 폐암을 선고받게 되었다.

동지의 나이 마흔 일곱, 그러나 동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라며 정력적으로 전국연합 대외협력위원장 등 활동을 전개하다 '01년 2월 23일 운명하였다.

김순조 (당시 3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1965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출생
- 1985년 안양에서 현장생활 시작
- 1988년 삼양통상에서 노조민주화 투쟁과정으로 첫 해고를 당함
안양지역노동자회 활동 시작
- 1989년 한영알미늄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손가락 절단됨
- 1992년 안산한벗노동자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
안산지역 노동자산악회 '산을 찾는 사람들' 창립 발기인
안산지역 노동자 축구단 '해맞이' 창립발기인
- 1993년~1994년 우르과이라운드-WTO반대와 쌀 및 기초농수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 전개
94년부터 안산지역 노동자통일대 '한라' 대 현장분대장으로 범민족대회 참여
- 1994년 태양금속에서 세 번째 해고
- 1995년 창흥정밀 입사. 대의원과 부위원장 역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경기지역 노동자통일실천단 활동
- 2001년 5월 18일 임단투 승리를 위한 부서별 족구대회 준비를 위하여 족구장을 만들다
지게차에 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전남 구례군에서 태어나 스무살에 현장생활을 시작한 동지는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세상, 자주 민주 통일된 세상을 위해 짧은 생을 아낌없이 바쳤다.

삼양통상에서 노조민주화투쟁을 하다 해고를 당한 동지는 그 과정에서 만난 동지들과 함께 안양지역노동자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안산으로 이전하여 '안산 한벗 노동자회', 노동자 산악회 '산을 찾는 사람들', 안산지역 노동자 축구단 '해맞이' 등 안산지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통일투쟁에 앞장섰다. 동지는 이후 태양금속에서 세 번째 해고당한 뒤 창흥정밀에 입사하여 노조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다.

동지는 일상에서 항상 조용하였지만 굵은 일 마다않고, 투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늘 함께했다. 유창한 말솜씨와 해박한 이론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작은 시련 큰 난관을 더 큰 열정으로 바꿔낼 줄 알았던 동지였다. 세 번이나 되는 해고투쟁 속에서도 끈끈하게 동지를 일으켰던 것은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동지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어렵다고 흠어져도 늘 곁에 서있던 사람, 안 보인다 싶어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동지는 운동의 나사못이었다.

한쌍을 사람을 위하여 씩 없이 달려온 그대를 불러봅니다.
 순조형, 순조야, 순조 이놈의 자식이!
 무소유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노동자의 강단진 얼굴로
 치열하고 치밀하게
 굴종을 강요하는 현실과 투쟁하며
 오로지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중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해방을 위하여
 거침없고 거짓없이 살아왔던
 진달래같은 수수의 몸뚱아
 유채같은 눈부신 의식이
 실낱같은 희망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었던
 진짜 노동자를
 부르고 또 불러봅니다.

- 1주기 추모집 중에서 -

남광균 (당시 43세)



- 1959년 대전 출생
- 1978년 대전고 졸업, 목원대 음악과 입학
- 1985년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회원활동
- 1985년 목원대 학원자율화투쟁 중 학장폭행사건으로 무기정학
- 1986년 목원대 졸업
- 1986년 충남방적부설 예덕실고 음악교사
- 1987년 노동운동 배후조종으로 구속, 파면
- 1988년~1997년 충남교사협의회, 전교조충남지부 상근
- 1998년 대전여중 복직
- 2001년 7월 19일 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9년 대전에서 태어나 '78년 대전고를 졸업하고 목원대 음악과에 입학하였다. '85년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활동하다가 '85년 목원대 학원자율화투쟁 중 학장 폭행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86년 학교를 졸업하고 '86년 충남방적부설 예덕실고 음악교사로 부임하였다.

동지는 '87년 노동운동 배후 조정으로 구속 파면되었다. '88년부터 충남교사협의회와 전교조 충남지부 상근활동으로 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98년 대전여중에 복직하였으나 '01년 암으로 운명하였다.

안동근 (당시 41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1년 5월 18일	경북 대구 출생
1994년	인천 삼표레미콘 (구 경기레미콘) 근무
1994년 2월	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의회 결성 사무총장
	이후 7여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레미콘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과 조직사업 진행. 부실공사추방운동, 불량레미콘추방운동, 건설환경개선운동 등 레미콘관련 투쟁의 산 증인
2000년 9월 22일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설립주도.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사무처장
2000년10월	인천지역 레미콘노동조합 노조인정 및 운송단기 인상투쟁 주도
2001년 3월	부천 유진레미콘 투쟁 현장에서 회사가 사주한 용역 깡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인하대학병원에 입원
2001년 4월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
2001년 5월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진레미콘 사건) 병원에 재입원
2001년 6월	증상 악화로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 입원
2001년 9월 5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94년 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회를 결성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7여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레미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쉼 없는 투쟁과 조직사업을 벌였다.

동지는 건설기계(믹서트럭, 덤프트럭)에서 자동차로의 이관 저지투쟁, 레미콘 공장 내 주기장 인정, 완전개별(실명)로 개별보험 가입 허용, 레미콘 운반단가(사용료) 산출 등 셀 수 없이 많은 투쟁들을 벌여 레미콘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동지는 그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부실공사 추방 국민운동본부 설립을 추진했고 불량레미콘 추방운동과 건설환경개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 협회 회원 50여명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을 이수케 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추방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00년 9월,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동지는 인천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10월부터는 인천지역 레미콘노동자들의 노조인정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01년 4월부터 전국레미콘노동자 상경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부천 유진레미콘 투쟁현장에서 회사가 사주한 용역 깡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 사회자로 참석하기도 했던 동지는 증상악화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41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이동현 (당시 35세)



화 장

1966년 10월 15일	통영시 사랑면 돈지리 98-1번지 답포마을 출생
1991년	통영수산전문대학 해양토목학과를 졸업
1991년 5월 1일	충무시 건설과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딤
	10년 7개월 동안 고향 충무시와 통영시에서 공직생활
1995년	공영개발사업소로 옮겨 2년 5개월 동안 북신만,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담당
1997년 8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동안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150개의 도서개발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담당
1998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 수상
1999년 4월 1일	지방토목주사보로 승진하면서 용남면으로 전근
1999년 11월 1일	수해복구로 시장 표창 받음
2000년 1월 25일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업무 담당 근무 시작
2001년 6월 4일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부장
2001년 11월 14일	과로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6년 통영시 답포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91년 5월 1일 충무시 건설과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10년 7개월 동안 고향 충무시와 통영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다.

'95년 1월 1일 통영시 출범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공영개발사업소로 옮겨 2년 5개월동안 통영시의 중요한 사업이었던 북신만,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담당하였으며, '97년 8월 1일부터 2년 8개월 동안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150개의 도서개발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면서 도서낙도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온 정열을 바친 공적으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99년 7월에는 용남면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자 밤잠을 설치가면서 피해복구 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려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99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동지는 '01년 6월 4일부터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부장을 역임하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맑은 바 업무와 직장협의회 일로 밤늦도록 일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동료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동지는 11월 4일,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울집회를 마치고 귀가한 뒤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운명하였다.

유순조 (당시 52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0년	출생
1987년	이천전기 입사 노동자대투쟁에 참여,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친 해고와 복직
2002년 3월 8일	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오투기 유순조!

동지는 '50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10대에 노동을 시작, 20대에 참담한 노동현실에 눈을 뜨고 수많은 노동현장을 전전하다 '84년 이천전기에 입사하였다.

동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가 투옥되었고 3차에 걸친 해고를 투쟁으로 무력화시켰다. 그 후 '98년 금융위기 때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다 다시 투옥되었다. 저들의 해고와 투옥 등 모진 억압으로도 진실을 향한 동지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천전기 해고이후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동지. 자그마한 체구에 푸른 수의같은 작업복을 입고, 입가엔 늘 귀까지 걸리는 웃음을 짓던 동지. 동지의 말과 행동은 화려하고 분주하지 않았지만 그 환한 미소로 해고투쟁을 같이하는 동지들에게 늘 커다란 힘을 주었던 동지.

투쟁과 긴장으로 점철된 동지의 삶에 어느새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찾아들었고 처절한 투병 끝에 '02년 3월 8일 운명하였다.

“진실하고 참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굴리고 보듬어 보석보다 더 귀중한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 묘비명 -

김기욱 (당시 39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3년	출생
1987년 6월 23일	대우종합기계(전 대우중공업) 입사
1988년	노래패 노뚝다리 결성 및 3대, 9대, 11대 회장
1989년	대우중공업 11대 노조운영위원
1990년~1992년	대우중공업 12대 노동조합 회계감사
1993년~1995년	대우중공업 13대 노동조합 복지실장
1996년	인천지역 금속노동자 노래패연합 '철의 노동자' 결성 및 초대회장
1996년~1998년	대우중공업 14대 노동조합 복지실장
1999년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장회의 2대 회장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준) 운영위원
2000년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장회의 3대회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문화담당자연석회의 임시대표 전국노동문화일꾼 여름캠프 해방마을 촌장 제13회 인천노동문화제 공동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대우중공업 15대 노동조합 대의원 간암으로 판정, 투병생활 시작
2002년 4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대우종합기계(전 대우중공업)에 입사해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라는 존재가치를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 노동조합 간부로서 열성적인 활동을 해왔다.

동지는 '89년 '노뚝다리' 라는 사내 노동자 노래패를 결성하면서부터 노동문화운동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 노래패 활동은 차츰 단사에서만 머무는 활동을 넘어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연합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자본의 탄압과 공장 이전이라는 문제에 부딪치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지는 연합의 필요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갔다.

노동문화운동이 노조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영역이길 바랬던 인천 노동문화일꾼들의 노력으로 인천노동자 노래패 연대체계는 차츰 독자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동지는 '노뚝다리' 의 일원으로서, 인천 노동문화연대체계의 대표로서 활동했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인천의 노동문화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지의 업무는 늘 과중되어 있었다.

동지는 간암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기나긴 투병생활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중략) 요즘은 거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대우자동차 집회에 몇 번 참석을 하였더니 주변에서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난리가 아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을 만났더니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집회 참석한다며”라며 걱정 어린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집에서 아버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 또 시작이냐고....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더 건강해지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략)”

- 투병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 '우리가 기다리는 봄'을 준비하던

동지들에게 동지가 전한글 중에서 -

한경석 (당시 40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2년 1월 28일	충남 논산 출생
1988년	신광전자 노조 설립. 초대위원장
1989년	부천시지역 임금인상투쟁본부 본부장
1989년 4월 18일	집시법, 제3차 개입금지 등 악법으로 1차 구속
1989년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1대 의장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위원장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2대 의장 현대중공업 연대 총파업으로 2차 구속
1991년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3대 의장
1992년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4대 의장
1994년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6대 의장 아남 파업 지도로 불구속 기소
1995년	복직 투쟁 승소로 신광전자 복직
1999년 12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진단
2002년 2월 27일	민주노동당 부천원미갑지구당 지도위원, 후원회장
5월 21일	5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현재 부천시흥 민주노총의 모체인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8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투쟁적인 조직으로 일구고 사수했던 부천노동운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이자, 운동가였다.

민주노조운동이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던 '88년, 부천의 신광전자에 입사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힘쓰던 동지는 '89년 부천시지역의 임금인상투쟁을 주도하며 4.15 지역총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역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으로 동지는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고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역의 노동운동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지역의 투쟁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공권력의 투쟁에 맞서기 위해 밤을 새며 고민하고 활동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동지에게 무서운 병마가 찾아들었다.

동지가 백혈병이라는 중병에 걸렸을 때 부천시지역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는 동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투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34,097,230원이라는 투병기금을 모금하는 등 동지가 건강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러한 동지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동지는 결국 '02년 5월 21일 5시경 운명하였다.

‘(상략) 의장님이 '80년대 후반부터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투쟁하고, 조직했던 성과들이 분노협, 전노협으로 이어져 민주노총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천시지역 2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자리잡기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정권과 자본의 폭력앞에 천만노동자, 사천만 민중의 삶은 죽음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염원하며 투쟁하셨던 그 길, 험난하지만 늘 웃으며 너른 품으로, 4.15 총파업 정신으로 단결과 연대투쟁의 기풍을 만드셨던 의장님의 환한 웃음 그리며 부천시지역의 자랑스러운 노동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의 너털웃음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 2주기 추모제 추모글 중에서 -

천덕명 (당시 38세)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모역에 안장

1964년	경남 고성 출생
1984년	20살에 인천으로 상경, 합판공장에서 성실하게 근무
1993년	경인운수(전 영화교통) 입사
1994년	경인운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1996년	경인운수 노동조합 회계감사
2002년	월급제 쟁취를 위한 인천민주택시 총파업에 열성적 참여
2002년	경인운수 노동조합분회 대의원
2002년 11월 22일	사측의 무자비한 월급제 탄압에 맞서 월급제 사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경남 고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 일을 돕다가 스무 살에 인천으로 상경하여 합판공장에서 공장생활을 시작하였다.

'93년 경인운수의 전신인 영화교통에 입사한 동지는 명랑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주위에는 항상 사람으로 넘쳤고 그 중심에 있었다. 또한 입사 초부터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회계감사를 역임하며 노조간부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해 열성적으로 투쟁하였다.

특히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의 65일간의 총파업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긴 파업기간동안 동지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9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월급제를 무산시키고 동지의 활동을 탄압하고자 혈안이 되어 동지가 200만원이 넘게 임금을 하였음에도 50여만 원을 임금으로 계산하여 실제 3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부당한 불성실근무 제재와 임의적인 성과급 감산, 개인택시 경력을 축소 조작하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지에게 참석을 통보하였다. 평소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았던 동지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회사가 해도 너 무한다”, “회사를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된다”며 분개하였고 분신 3일전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있던 여러 명의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회사의 탄압에 맞서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연설하기도 하였다.

결국 동지는 개인택시 수령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새벽 0시 30분 경 회사 내의 차고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하여 운명하였다.

배달호 (당시50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3년 10월 14일	경남 김해시 출생
1981년 1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입사
1988년	두산중공업 노조 제2대 대의원, 93년 제7대 대의원
1995년	제10대 노사대책부장, 민영화 대책위원
1997년	제11대 대의원(제3지구대장), 민영화 대책위원
1998년	제12대 대의원, 파견대의원, 민영화 대책위원
1999년	제13대 대의원(제3지구대장), 운영위원
2001년	제15대 대의원, 파견대의원
2002년	교섭위원
2002년 7월 23일	두산중공업 파업투쟁으로 구속
2002년 9월 17일	출소. 집행유예(징역1년 2년 집행유예) 회사에 의해 재산과 임금 가압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음
2002년 12월 26일	현장에 복귀
2003년 1월 9일	분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자본을 살찌우려는 재벌의 노조탄압과 '효율성' 과 '경쟁력' 을 강조한 정부의 잘못된 공기업 사유화정책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동지의 죽음을 부른 사태는 두산 재벌이 '00년 한국중공업을 특혜의혹을 받아 가며 혈값에 인수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두산중공업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로부터 회사를 혈값에 인수받은 후 구조조정이란 이름 하에 1,124명을 명예퇴직으로 내쫓고, '02년 한해만 노조간부 89명 징계하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가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소(小)사장제, 용역 등으로 노동유연화정책을 펴고 사상초유의 단체협약 해지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조합원들의 성향을 한사람 한사람 분석해서 기준을 매겨놓고 가족까지 동원한 노조말살정책을 펴기도 했다. 한 마디로 악랄한 노동자탄압의 총체가 바로 두산중공업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지도 '02년 파업투쟁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측에 의해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당하고 있었다. 몇 달간 집에 생활비조차 가져가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지는 부당한 자본의 횡포와 정권의 묵인에 대해 항거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였다.

동지는 “두산의 노동조합 말살정책 분명히 드러나 있다. 얼마전 구속자 선고재판 어처구니 없이 실행 2년이라니 두산은 사법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정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 자의 법이 아닌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긴 채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살아남은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호루라기 불며 앞장서신 배달호 열사의 뜻을 따라 악랄한 두산과 더러운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을 결심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자본의 흑독한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절반의 승리로 열사를 보내지만, 더 이상 자기 몸을 불사르며 항거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내도록 산자들이 결심하고 또 다잡아야 합니다.

- '배달호 열사를 이제 우리의 가슴속에 묻습니다' 중에서(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

임영덕 (당시 41세)



진해시 천자봉 공원묘지에 안장

1962년 8월 24일	진해시 북부동 522번지 임정욱의 2남 1녀중 장남으로 출생
1988년 3월 16일	진해시 공무원 시작
2001년 12월 21일	창립시 진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부회장
2002년 7월 1일	공무원노조 진해시지부장
2002년 10월 17일	전간부 쫓기대회 참가(종묘공원 명동성당)
2002년 10월 26일	경남지역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지부장 식발투쟁
2002년 11월 4일~5일	연가투쟁시 과로로 인한 간경화로 쓰러져 입원 역 두달동안 투병
2003년 1월 25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2년 진해에서 태어나 '86년 진해시 공무원이 되었다. 평범한 공무원 생활생활에서 공식사회에 모순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건설을 결심하게 되었다. '01년 경남지역 시군구 단위에서 직장협의회가 건설되었고, 연합단체인 경남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경공련)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지는 전공노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공직생활 수행한 동지는 경공련 활동 등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다.

'01년 진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부회장과 '02년 7월 1일 공무원노조 진해시지부장을 맡으면서 공무원노조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 정부의 탄압에 조합원 총력투쟁, 식발투쟁, 연가투쟁 등 노조를 사수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02년 11월 4일~5일 연가투쟁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간 동지는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치열한 삶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건강을 돌 볼 시간이 없었다. 이후 동지는 두달 동안 투병하다가 '03년 1월 25일 운명하였다.

이성경 (당시 42세)



대구 현대공원에 안장

1961년	대구 출생
1984년	영남대학교 독문학과 졸업
1985년	서울 기독교여민회 활동
1988년	대구 우신직물 등 섬유공장에서 노동운동, 달구벌 교회활동
1988년	대구노동자협의회 활동
1992년	대구노운협 열린터 대표
1998년	전국노운협 총무부장
2000년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APWSL) 동북아지역 책임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설립추진위원
2002년 6월	대장암 판정 후 수련원 등에서 자연치료
2002년10월 3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구, 서울 등에서 치료
2003년 1월 28일	오전 7시 10분 경상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5년 대학을 졸업한 후 기독교 여성민우회 활동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하였으며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지켜보면서 종교단체활동의 한계를 넘어 대중적 노동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동지는 자신의 고향기도 한 대구지역의 섬유노조 건설과 섬유노동자들의 연대 조직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는데 '94년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에 항의하는 노동자시민 토론회를 조직하였고 공단지역을 순회하며 '군사독재 잔재 청산, 민주대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96년에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전면무효화'를 위한 전국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참여하였다. 또한 '97년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IMF협약 무효화, 나라경제 파탄주범 재벌해체, 민중생존권 쟁취'의 요구를 내걸고 정치실천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전국노동자 통일한마당과 범민족대회에 대구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를 주도하기도 하는 등 자주통일운동에도 앞장섰으며 또한 열린터의 풍물과 노래강습 등을 통해 노동자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켰다.

동지는 '88년부터 APWSL 한국위원회 책임자로서 활동했고, '00년부터는 동아시아지역 책임자로서 풀뿌리 국제노동자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동지는 '02년 대장암 판정 후 수련원 등에서 자연치료를 통한 치유노력을 계속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하던 중 42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하였다.

권오복 (당시 32세)



- 1972년 3월15일(음) 강원도 진부 출생
- 1991년 강릉고등학교 졸업
- 1991년 한림대 사회학과 입학
- 1991년 강릉에서 문예운동
- 2001년 8월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현장 조직가로 활동
- 2002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부장, 산안부장 활동
- 2002년 안산지역에 문예운동을 준비하고 노래패 '정면돌파' 성원으로 활동
- 2003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시흥지부장
- 2003년 2월 22일 지부 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72년 강원도 진부에서 출생한 동지는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림대 사회학과에 입학하였으며 강릉지역에서 문예운동을 하였다.

'01년 경기서부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동지는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현장 조직가로 활동하였고 조직부장, 산안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안산지역에서 문예운동을 준비하면서 노래패 '정면돌파' 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03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시흥지부장으로 활동하던 동지는 지부 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쳤다.

이성도 (당시 47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원에 안장

1957년 2월	경남 양산군 일광면 문동리 출생
1986년 7월	대우정밀 입사
1987년 8월	대우정밀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1987년~1989년	대우정밀노동조합 2대 위원장
1988년~1991년	영남지역 노조단체연석회의 대표
1991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중앙위원
1989년~1992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회 초대의장
1992년	영남지역노조협의회 의장
1993년~1994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지도위원
1995년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996년	부산노동자회 초대 의장
1998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00년	민주노동당 부산연제구 국회의원후보 박순보 선대본 집행위원장
2003년 4월 19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6년 7월 대우정밀에 입사하였다. '87년 6,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 민주화와 민주노조 건설로 매진하였다. 동지는 '87년 8월 대우정밀노동조합 초대위원장과 2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지는 '88년 영남지역 노조단체연석회의 대표 및 '89년 전노협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회 초대의장을 맡으면서 노태우 정권의 전노협 죽이기에 맞서 전노협을 사수하고 민주노총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동지는 '95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역임하였고, '98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중앙에서 상근하면서 조직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한 동지는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은 결국 노동자·민중이 정당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주노동당에 헌신하였다. 동지는 '00년 민주노동당 부산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박순보 선대본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동자들이 노동자후보에 투표하고 노동자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

항상 노동자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던 동지는 '03년 4월 19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였다.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말을 숨겼던 시절,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했던 시절, 이런 시절 당신은 당당하게 노동자계급임을 깨우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민주노조 깃발을 올리기 위해 작은 골방에서 밤을 새웠던 시절, 당신의 삶이 감옥이었던 시절, 그런 시절을 상기하면서 당신은 투사였고 배짱이 있는 노동자 선배였습니다. 우리들과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당신이 훌쩍 떠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생각해도 못다 이룬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마음편히 가십시오.

동지가 못다 이룬 과제는 산자들이 기필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동지를 보내면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 드림 -

박상준 (당시 34세)



화 장

2003년 4월 28일 운송노동자들의 고질적인 노동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 문제로 음독,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03년 4월 2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던 동지는 전근대적인 방식의 단단계 알선 등으로 운임의 절반이상을 화주와 알선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모순에 노출되어 있었다.

동지는 이렇게 고질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조건 아래에서 화물연대 동지들의 투쟁승리를 염원하며 음독하여 운명하였다.

동지 여러분!

또 한 명의 소중한 우리 동지가 우리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많고 설움 많은 이 더러운 세상 모든 고통 뒤로 한 채 영원히 못 올 길을 가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들과 4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만 남겨둔 채

34세의 박상준 동지가 우리들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이 다 그렇듯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는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의 동지도 우리들 곁에서 앓아갈 수 없다.

동지 여러분!

동지께서는 목숨 바쳐 우리 모두에게 절규합니다.

개별성을 버리고 힘찬 단결로 하나돼 달라고

이 더러운 세상 이제는 끝장내 달라고

동지 여러분!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정말로 끝장냅시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꿉시다

- 장례식 추모 글 -

최복남 (당시 43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0년 5월 8일	부산 출생
1998년	전국차주연합회 활동
2002년 6월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가입
2002년 10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해지회장
2003년 5월 7일	파업동참선전전 중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03년 5월 7일 서김해인터체인지에서 파업동참 선전전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동지는 5월 10일 전국화물노동자장으로 솔밭산에 안치됐다.

화물연대는 '02년 10월 특수고용직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모여 출범을 했다. 특수고용직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다단계알선으로 운임의 절반 이상을 화주와 운송알선업체에 빼앗겼다. 일주일에 사나흘씩 밖에서 자면서 장시간노동에 시달려도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과로와 낮은 수입, 부채와 죽음의 그림자 뿐이었다.

화물연대는 출범 다음해인 '03년 5월 2일 포항지부의 파업을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물류가 마비됐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연대 파업의 위력에 놀랐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전근대적인 물류체계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03년 5월 7일 파업지원과 동참을 호소하며 선전전을 전개하던 동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대정부 10요구안 쟁취를 내걸로 사실상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대정부교섭을 통해 많은 요구안을 쟁취하고 5월 15일 1차 파업을 끝냈다. 화물연대는 1차 파업 3개월 후에 노무현 정부가 노정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에 돈을 뿌려가며 복귀율을 조작하고, 대화와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강경탄압으로 치달았다. 화물연대 2차 파업은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결국 쓰린 패배를 경험했다. 많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지만, 화물연대 조직은 굳건히 살아있다.

김병진 (당시 50세)



천안 풍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3년 6월 8일	천안 입장면 출생
1973년 9월 10일	지방행정서기보로 고향에서 공직생활 시작
1999년 9월 1일	강동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서울시 최초의 직장협의회 건설
2001년 3월 19일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서공연) 대의원대회 서공연 대표로 선출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여
26일	구속
2002년 4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출범식, 본부장 옥중당선
2002년 5월 8일	보석 출소
2002년 9월 24일	제3차 강동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지부 출범식 주최
2002년 10월 26일	공무원조합법 철폐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서울본부 총력투쟁결의대회 주최
2003년 2월 11일	서울아산병원 입원 간암4기 판정
2003년 6월 4일	오전 9시 35분 30년간의 공직생활과 4년간의 공무원노조 활동을 마감하며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21세에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동지는 50여 년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얼룩져온 공무원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공무원노조운동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동지는 '99년 서울시 최초의 직장협의회인 강동구청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서공연 대표로 활동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후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된 조직을 위해 투쟁하다 '02년 마침내 깃발을 올리게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경찰에 연행, 구속된 동지는 동지들의 굳건한 신뢰 속에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 옥중 당선되었다. 동지는 출소 후 강동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지부 출범식을 주최하고 '공무원조합법 철폐'와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위한 서울본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주최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한 길만을 달려오던 동지는 간암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운명을 달리하였다.

동지가 청춘과 생을 바쳐 온 몸으로 실천하며 30여년 동안 한 길만을 내달려 온 길. 그 길은 굴종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부정부패로 찌든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굳은 신념과 희망에 다름 아니었다.

송석창 (당시 39세)



- 1964년 2월 전북 진안 출생
- 1989년 전주시 완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입사
- 1999년 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입
- 2003년 8월 4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03년 8월 4일 오후 8시경 동지는 근무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명확한 업무 기준도 없이 매월 3천건에서 4천건의 소득조정 업무와 납부예외를 공단으로부터 강요당하던 끝에 제도개선 의 절규를 남긴 채 산화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조정업무와 납부예외자에게 소득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업무(납부예외자 축소)도 같이 추진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02년 연말부터 단기실적평가를 새로 도입하였다. 단기실적평가로 인하여 지사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담당직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소득조정대상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한꺼번에 보험료를 상향하는 파행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은밀하게 압박하는 관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상당한 부담을 억누르며 전산에 공단이 권장하는 신고기준을 입력하면서 살아왔다.

동지는 이에 대해 양심상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나 해당지사장 등 몰지각한 관리자들은 '03년 1월에만도 4천여건, 6~7월에 3천여건의 소득조정을 실시한 동지에게 무려 5천여건의 대상건을 모두 소화하도록 실정경쟁을 강요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등 사지로 몰아대었다. 마침내는 극심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평소에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던 동지는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동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 땅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걱정하며 이 땅을 떠났다. 동지의 죽음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힘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투쟁수단이었던 것이다.

이현중 (당시 30세)



천안 풍산 공원묘역에 안장

1973년	거제도 출생
1991년	대구농고 졸업
1991년	세원물산 입사
1995년	세원정공 근무
2001년	세원테크 근무
2001년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설립 참여
2002년 8월 16일	공장진입 투쟁 중 구사대 폭력에 의해 두과골 함몰, 안면뼈 부러지는 중상 입음
2002년 12월	세원테크지회 문화체육부장 활동
2003년 5월	수술 부위에 암 발생
2003년 8월 26일	자택에서 사망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가 근무하던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는 '01년 10월 16일,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자마자 용역강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현장 밖으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들을 자행했다. 이에 세원테크지회 조합원은 끈질긴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내었다.

하지만 사측은 '02년 또다시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시도들을 진행하였다. 일명 '동남아프로젝트' 라는 계획 하에 물량을 이원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가 하면, '노조파괴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차근차근 그 수순을 진행하여 왔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에는 조합원들의 성향을 6단계를 분석해놓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회사살리기 비상대책위' 를 구성하게 하여 노사간의 갈등 관계를 노노간의 싸움으로 전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조합원 탈퇴 및 회사 퇴사 유도, 일정한 시기에 현재의 집행부를 몰아내고 어용집행부 구성에 대한 계획들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이처럼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세원테크는 수십, 수백 억의 돈을 들여서라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동지는 세원자본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가장 선두에서 투쟁했던 동지였다. 동지는 '02년 154일간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회사출입을 가로막는 회사 측에 맞서 정문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두과골이 함몰되고 안면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지는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고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사측은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성실한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았으며 마지못해 병원에 한 번 데려가주었고, 심지어는 "50만원이 없으니까 수술을 미루자.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동지는 구강암의 일종인 상악도 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실습생으로 세원물산에 입사하여 세원정공을 거쳐 세원테크에서 10여년을 바쳐 일했던 성실한 노동자였던 동지. 동지의 죽음은 사측의 잘못으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동지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하지 않고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세원테크 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김주익 (당시 40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3년	2월 2일	부산 출생
1981년	2월	태백기계공고 졸업
1982년	8월 1일	(주)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입사
1990년	8월	한진중공업노조 대의원, 문체부장
1992년	8월	한진중공업노조 수석부위원장
1993년	8월	한진중공업노조 부위원장 역임
1994년		한진중공업노조 사무국장 역임
1994년	7월	한진중공업 LNG 선상 파업투쟁으로 구속, 강제휴직
1995년	8월	한진중공업 원직복직, 산업안전보건위원
1996년	8월	한진중공업노조 대의원
1997년	8월	한진중공업노조 대의원
2000년	11월 5일	한진중공업 통합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당선
2002년	11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재당선(임기중)
2003년	10월 17일	고공크레인 농성 중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가 다니던 한진중공업은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직후인 '91년 노조활동을 문 제삼아 노조간부 12명에게 7천2백여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99년에는 한진건설과 합병한 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으며, 특히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진 건설분야 임원들이 노무팀을 맡게 되면서부터 노조를 노무부서의 하위부서로 사고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적대시하였다.

특히 '99년 이후 단기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02년에 다시 650명을 정리하고 하고, 138명을 교육발령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의 활동에 7억 4천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자행했다. 또한 동지를 비롯한 20명의 간부의 임금과 노동조합비를 가압류하고, 7명의 집마저 가압류했다. 그리고 조남호 회장은 '02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 회장일가는 주식배당금 78억원을 챙겨갔다. '02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고 해를 넘겨 '03년까지 넘어갔다.

이에 동지는 '03년 6월 11일 밤 현장에 있는 35m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농성은 129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사측은 동지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는데도 악랄한 노동탄압을 계속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7월 19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 주요현안과 임단협을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7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600여 조합원들은 크레인 밑에 수십 동의 천막을 치고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을 회피하는 한편, 10월에 들어서는 조합원을 이탈시키기 위한 악랄한 행동을 시작했다. 한진중공업은 10월 14일 85호기 크레인 밑 4도크에 있는 배를 폭력적으로 빼내고, 마산특수선지회 150명의 조합원에게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50억의 손배가압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결과 10월 17일 아침 조합원은 2백명으로 줄었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은 동지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하였고 동지는 “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한 간에 나의 주검이 있을 곳은 85호기 크레인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을 하였다.

이후 1천여명의 조합원이 다시 투쟁을 시작하였고 11월 15일 손배가압류 철회 및 이후 노조활동에 손배가압류 금지, 해고자 17명 복직,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 고용안정확약 등의 내용으로 노사합의가 됐다. 동지는 11월 17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솔밭산에 안장했다.

곽재규 (당시 48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5년	부산 초량 출생
1974년	금성고등학교 졸업
1975년	한진중공업 입사
1993년 9월 1일	교육선전차장
1994년 9월 1일	문화체육부장
1995년 9월 1일	탐재2팀 대의원
2000년 11월 1일	문화체육부장
2003년 10월 30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괴로워 하던 중 '03년 10월 30일 4도크 바닥에 스스로 몸을 던져 고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대해 절규했다. 동지는 고 김주익 지회장과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하며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다. 동지가 몸을 던진 4도크는 김주익 지회장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기 크레인 바로 밑에 있었다.

'91년 이후에 시작된 한진중공업의 노조탄압은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징계, 해고 등의 악랄한 탄압으로 지속되었고 이에 맞서 노조는 '03년 7월 22일 전면파업을 시작하였다.

한진중공업은 관리자를 동원해 10월 14일 동지가 몸을 던진 4도크에 있는 건조중인 배를 빼내었다.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하겠다는 한진중공업의 노동탄압은 파업중인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노동탄압이 결국 10월 17일 김주익 지회장, 10월 30일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동지의 죽음은 노조원에 대한 무분별한 가압류, 손배 등 가혹한 노동탄압을 자행한 한진재벌과 이러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방치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용석 (당시 31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72년	목포 산정동 출생 목포에서 산정초등 문태중 홍일고등학교 졸업
1991년	전남대 금속학과 입학
1998년 2월	전남대 금속학과 졸업
2000년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조사요원으로 입사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2003년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결성, 광주본부장 활동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2003년 10월 31일	오후 3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전남 목포에서 출생해 대학을 졸업하고 '00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02년 1월에 계약직이 되었다.

무엇보다 근로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고 일이 끝난 후에는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던 동지는 주변의 동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며 고통 받는 모습을 무수히 지켜봐야 했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병가가 없어 월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결근을 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동지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인간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은 사업비예산에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에 잡급으로 처리되었다. 비정규직은 '인간' 이 아닌 '재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처지는 동지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뚝뚝하게 고개를 들 수 없게 했고 공부방의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사람다운 삶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게 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동지는 계약해지 위협을 무릅쓰고 요지부동, 철옹성 처럼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자 정부청사로, 공단본부로 내달리면서 6개월 동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동지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자본의 논리로 무장하고 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무관심이었다.

동지는 파업을 앞두고 분신을 결단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깨어나 함께 하길 바라며.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 노동열사! 그 이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영원한 빛으로 남을 것이다.

이해남 (당시 41세)



천안 풍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2년	충남 대전 출생
2001년 5월	세원테크 입사
2001년 10월 16일	세원테크지회 결성 및 지회장 당선
2001년 12월 12일	충남지역 연대 총파업 이끌어 냄
2002년 1월 20일	12.12 총파업 건으로 구속
2002년 3월 21일	보석으로 출소
2002년 7월 14일	7월 8일 세원테크 공장 점거 투쟁 건으로 수배
2002년 12월 9일	공장점거, 2002년 입단투 등으로 구속
2003년 3월 18일	해고
2003년 4월 11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출소
2003년 9월 5일	고 이현중 열사 투쟁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
2003년 10월 23일	오후 8시 50분 경 분신
2003년 11월 17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 지회장이었던 동지는 파업도중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이현중 동지의 장례식이 60여일이 지나도록 치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 땅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 그리고 노조파괴자 3인에 대한 분노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산화해갔다.

세원테크 지회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노동조합을 힘들게 결성했으나 악질 기업주 김문기 회장은 수억원을 들여 용역깡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노조를 없애고자 수십억을 들여 노조 파괴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구사대와 공권력을 동원해 이현중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기에 이르렀다.

이후 세원테크 지회 노조는 이현중 동지의 장례식을 보장하라며 70여일 넘게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오히려 사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연행하고 간부 3명을 구속까지 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지는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대해 항거하기 위해 노동탄압이 없는 세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분신 산화해갔다.

다음은 동지가 분신하기 직전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이들 노조파괴자들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입니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여! 천하의 악질기업주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동지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들 반노동자적, 반인륜적인 이 나라의 쓰레기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일터, 그리고 동지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아쉽지만 뒤로 하고 해방된 세상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지켜봐주세요. 정말로 많이 고맙습니다. 김문기 같은 악질적인 기업주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동지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민주노조, 노동자세상, 결코 자본가들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배달호 열사, 이현중 열사, 김주익 열사의 한을 동지들이 풀어줘야 합니다.

동지들 날씨가 무척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끈질기게 싸워 이깁시다. 죄송합니다.

- 나그네 올림 김문기회장 집 앞에서 -

성기득 (당시 42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61년	출생
1980년	인제대 의대 입학
1981년	병영 집체 훈련 거부 중 미등록 제적
1986년 3월	전남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수석입학
1988년 5월	국어교육과 '참교육 쟁취 및 무능교수퇴진을 위한 자주 민주 통일 교육 실천대회' 투쟁위원장으로 9월말까지 113일간의 장기간 파업 농성
1988년 11월	순천대 '교육학부 쟁취 및 발령 적체 해소'를 위한 투쟁에 참여
1989년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역임 '전교조 결성 운동'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계승 투쟁' '이철규 학생 고문 살인 진상규명 투쟁'에 참여
1989년 6월	전대협 산하 남대협 통일선봉대장으로 통일운동 전개
1989년 8월	총학생회 부회장 역임. '집시법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공주교도소 등지에서 옥중 투쟁을 벌임
1991년 3월	국어교육과에 복학, 사범대 동아리 '비봉문화회' 조직
1992년 2월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2001년 9월	'전국 시국사건 관련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에 의해 개금여중 교사로 발령
2003년 12월 7일	사고로 입원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01년 9월 마흔 한살의 늦은 나이에 국어 교사가 된 동지는 '03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 학교가 된 부산시 진구 개금여중을 뒤로 하고 양산 솔밭산 공원 묘지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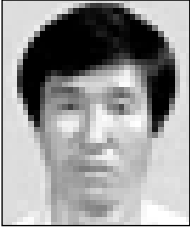
사건의 발단은 '02년 11월 20일 동지가 한 학생의 성적처리 문제로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3학년 학생이 학교의 성적관리규정을 무시한 잘못된 전례에 따라 성적을 부여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지가 주위 여러 학교와 교육청에 질의하여 학교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도록,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교육청 장학사는 학교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네가 교감이냐, 교장이냐, 교육청에 왜 전화를 걸어”라는 심한 비난을 했다. 2학년 부장교사는 동지의 목살을 잡고 사표를 쓰라는 등 협박까지 했다. 동지는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고가 있던 11월 28일, 교감이 화해자리를 마련한다는 회식 자리에조차 2학년 부장교사가 동지에게 “눈깔을 확 찢러 버린다” “죽여버린다”는 거친 말을 계속 했고, 결국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동지는 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구토 증세를 보이며 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로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갔으나,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뇌 탈출증, 심 정지'로 사망했다.

동지의 죽음은 교육청과 학교 관료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런 비민주적 교육행정은 또한 전교조에 대한 현장통제요, 억압이었다.

대학에 입학 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교단에 선 뒤에는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동지. 동지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박동진 (당시 42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2년 2월	충남 청양 출생
1987년 2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9년 2월	서울 동작구 의료보험조합 입사
1989년 5월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창립. 초대 법규부장으로 70일 파업 지도
1990년 2월	서울지역의보노조 사무국장
1992년	지부 투쟁으로 해고
1996년~1997년	사회보험노조 본조 상집위원으로 활동. 노사합의로 원직복직
1997년 12월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당선
2000년 7월 1일	마포건강보험공단 파업농성으로 구속
2001년 3월	석방
2001년 5월	사회보험 해복투 공단 앞 농성 및 현안발생지부 순회투쟁 시작
2001년 10월	비리 원흉 박태영 이사장 이임식 저지 투쟁
2001년 12월	해복투 순회투쟁 및 박태영 이임식 저지 건으로 수배
2004년 1월 10일	수배 중 충북 영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음
2004년 2월 13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서울지역의료보험노조 창립 후 법규부장,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열성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되기도 했던 동지는 복직 후에도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장을 역임하며 노조활동을 벌였다.

'00년 6월, 박태영 이사장이 부임하여 노동조합에 무쟁의선언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의 반발을 악용, 공권력투입을 요청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였으며 공단은 비리부패의 거대한 집단먹이사슬로 조직화되었다. 동지는 이러한 노조탄압에 반발하였고 9명의 동지들과 함께 해고갈날에 희생되었다.

이후 박태영의 노조말살 정책은 235명의 대량해고, 500여명의 대량징계, 수백명의 고소고발 남발, 노조원에 대한 무차별 원거리 전보, 노조통장 압류 등 끝이 없었다. 또한 노조를 무력화시킨 후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으며 부패와 불법으로 거둔 돈은 사적 경비로 쓰였음은 물론이었다. 이후 물품구매계약, 승진대가 금품수수료 당시 핵심요직의 임원, 간부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부패비리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박태영은 수사도 받지 않았다.

'01년 10월, 박태영은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직했다. 부패비리의 원흉이자 노조탄압 주범인 자의 전남도지사 출마를 인정할 수 없었던 동지는 박태영의 이임식을 저지하려 했고, 이 건으로 고발당한 동지는 긴긴 수배생활로 들어갔다.

해고된 후 40살 늦깎이로 시작한 동지의 신혼생활은 8개월만에 끝이 났다. 수배생활은 그 혼한 건강검진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고단한 수배생활과 출생도 보지 못한 아이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동지의 정신과 육체를 갇아먹고 있었다. 고통에 지쳐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이 사망하기 바로 한달 전이었다.

28세에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공단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과 해고투쟁으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지. 동지는 박태영을 정점으로 한 심복들이 부패비리로 챙긴 돈으로 기름진 배를 살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장기수배를 겪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열악한 건강관리로 고통을 받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박일수 (당시 50세)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에 안장

1954년 9월 3일	경주 출생
1963년	울산상업고등학교 중퇴
1996년 2월	현대중전기 선일기업 근무
2001년 6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건일산업 근무
2001년 1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현우기업 근무
2002년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터기업 입사 사내하청협의회(모임)인 '한마음회'에서 활동.
2003년 7월 22일	현대중공업 전 공장에 선전물 배포. 연월차, 퇴직금 등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업체에서 동료들과 투쟁을 전개함
2003년 12월	원청은 동지의 모든 전산자료를 말소시키고 강제 해고를 함
2004년 2월 1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 유서 남기고 분신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왔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고 노조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모든 사내복지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적용되어야 할 50% 가산금도, 연월차와 주차도 받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회사가 원한다면 퇴직금조차 없이 해고당해야 했다.

'03년 8월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으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업체폐업'을 통한 고용불안, 노동자간 갈등 유도 등 온갖 탄압과 해고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지는 '한마음'이라는 사내하청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며,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동료직원들의 임금착취 부분인 연월차,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 건을 맡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03년 8월쯤 이를 알게 된 원청이 탄압을 가해왔고, 원청이 인터기업 사장에게 동지를 해고할 것을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지는 나머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일괄 보내겠다고 하자, 인터기업 사장 박진용은 타협안으로 '임금체불액은 지불능력이 없어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원청에서 해고 압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일단 휴직처리를 하고 이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지는 탄압 사실과 각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했다. 또한 강제휴직기간 중에도 인터기업이랑 임금체불과 휴직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하청노동자서명을 조직,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활동가들을 만나 연대를 호소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등 동지의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된 바로 직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03년 12월, 원청은 해고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동지의 모든 전산자료를 말소시키고 강제 해고를 시켰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동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기득권 가진 놈들의 배를 불러주기 위해 재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오는 분노!"라고 외치며 2월 14일 산화해 갔던 것이다.

정상국 (당시 38세)



화 장

1966년 3월 12일	전남 장흥 출생
1987년~1989년	군복무
	부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3년 근무
	천안 피혁가공공장 1년 근무
2001년 6월	장흥교통(유) 입사
2002년 4월	장흥교통(유) 퇴사
2003년 10월	장흥교통(유) 재입사
2004년 5월 21일	군수면담을 요청하며 1차 분신자결 기도,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
2004년 5월 26일	오전 9시 40분경 근무 중 음독 자결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6년 3월 12일 장흥에서 태어났다. '89년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 대우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천안 피혁 가공공장에서 1년 근무하는 등 줄곧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다. 동지는 '01년 고향으로 돌아와 6월 장흥교통에 입사하였으나 10개월만에 퇴사하고 다시 '03년 10월에 재입사하였다. 장흥교통은 운전기사의 경우 종일근무로 월 23일 만근제도로 월급여 110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기아임금체계를 유지하여왔다. 또한 이마저 체불이 되어 노동자들이 '04년 1월 28일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해 봐라! 2월부터 급료도 지급하지 않을 테니 너희 노조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며 거의 깡패수준의 막가파식 탄압을 가해 조합원 3명은 결국 스스로 퇴직하고 14명의 조합원이 남아 버텨왔었다.

장흥교통은 적자 운운하면서 노동탄압을 자행해 오면서 군청지원 7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1년동안 1억 4천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했음이 노동조합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군소유의 버스를 부당대여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온갖 비리와 폭리로 돈을 챙기었다.

동지는 전원해고, 해고예고 등 막가파식 노동탄압과 관리감독 기관인 군청의 방관에 항의하여 5월 21일 “장흥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 군수를 직접 만나야만 한다”며 1차 분신을 시도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측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노조탄압의 강도를 더해 갔다. 또한 관리감독 관청인 장흥군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 여론만 살피고 있었다.

결국 동지는 5월 26일 회사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다음날인 5월 27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하였다. 사측은 마치 동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등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였다. 동지의 죽음 몇 달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는데 행정관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한 항의와 노조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김춘봉 (당시 50세)



화 장

- 1955년 경남 남해 출생
- 1980년 9월 코리아타코마(현 한진중공업) 입사
- 1984년 근무 중 산업재해
- 1985년 7월 산재 후유증으로 관리부서(자재담당)로 전근
- 2003년 4월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 2003년 5월 축탁직 재고용
- 2004년 12월 27일 한진중공업 마산 공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0년에 코리아타코마(현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오십이 될 때까지 24년간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노동을 하였다. 한진중공업은 IMF이후 구조조정바람으로 '02년 96명, '03년 10명을 희망 퇴직시켰다.

회사의 명퇴요구 속에서 불안에 떨던 동지는 산재를 당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산재보상보다는 명퇴를 하는 대신 비정규직 근무를 하도록 권하였다. 많은 갈등을 겪다가 회사관리자의 말만 믿고 산배보상을 포기하고 축탁근무 즉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동지가 일하던 부서를 외주로 돌리는 등 고용 안정은 그 어디에서도 담보되지 않았고 고용보장을 약속했던 관리자들이 회사 공금횡령으로 해고당한 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다. 결국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자 동지는 공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지의 죽음은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IMF 이후 정규직에서 하청 비정규직으로, 다시 재하청 비정규직으로 계속 내몰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은 비정규직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모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싸워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쫓아내겠지. 다시는 이런 비정규직이 없어야한다. 나 한사람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되면...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로 무섭다.'

-유서 중에서-

박상윤 (당시3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8년	서울 출생
1987년	6월항쟁 관련 시위로 구속
1988년	남북공동올림픽개최요구 시위로 구속
1992년	한국빠이콧트만년필 입사, 노민주 활동
1995년	대명정밀 입사
1996년	노동자생활문화공동체 '모듬살이' 회장
1996년	광명인쇄 입사, 인쇄노조 가입
1997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동부지구협 사무차장
1998년	민주노동당 가입, 당원번호 61번
1998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2000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2002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2004년 12월 30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8년생으로 37세의 짧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일찍이 청년노동자였던 '87년 20살 나이에 6월항쟁 관련 시위로 구속되면서 이후 단 한 번의 휴식도 없는 긴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88년 남북공동올림픽개최요구 시위로 두 번째 구속이 되었고, '92년부터는 한국빠이콧트만년필에 입사하여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95년 대명정밀에 입사하였고, '96년에는 노동자생활문화공동체 '모듬살이'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96년 광명인쇄에 입사하면서 인쇄노조에 가입하였고, '95년 민주노총의 건설과 '96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창립 직후인 '97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동부지구협 사무차장으로 활동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과 '97년 대선투쟁을 전개하였고, '98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00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으로서 서울지역 민주노조운동 조직과 투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동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6개 지구협의회 건설과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지원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였으며, '99년부터 본격화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통해 상용직, 재능교사, 학습지, 보험모집인, 서울대시설관리, 한국통신계약직, 방송사비정규, 동부시장,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덤프연대 등 수많은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헌신해왔다. '02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04년 12월 30일 운명하게 될 때까지 쉬없는 활동으로 인해 5년째 내리건강악화를 의미하는 빨간건강신호등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다. 가정에서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늘 식구들에게 미안해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운동에 헌신하던 동지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짊어진 천만근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숨긴 채, 동료와 후배들 가슴 속 티끌 같은 투쟁까지 밤을 새며 들어주던 미련하리만큼 살가운 사람이었다. 또한 싸움에 나서면 물러설 줄 몰랐고, 어느 때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먼저 고민했다. 제 몸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조직활동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 깃발 아래 묶어세웠고, 나태와 일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 멈출 줄 모르는 치열한 사람이었다.

정종태 (당시 41세)



화 장

1965년	출생
1991년	한양대 사학과 졸업
1999년	재능 입사
1999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조 최초 파업시 노조 4지부 쟁의부장
2000년	노조 4지부 조직국장
2001년	3기 위원장
2003년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초대 의장
2003년	민주노동당 성북갑지구당 운영위원
2005년 2월 10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한양대 재학시절 구학련 활동으로 학생운동을 하였다. 졸업 후 '99년 재능교육에 입사하였다. 그해 쟁의부장을 맡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로서는 최초의 노동조합(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을 주도하였다. 재능교사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최초의 도화선이 됐다. 독립사업자로 분류돼 4대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학습지교사들로 설립된 재능교육교사노조는 '00년 역시 비정규직노조로는 최초로 한달이 넘는 파업을 진행,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파업 이후, 회사는 파업 당시의 손해 배상액으로 노조 조합비와 노조 간부의 급여를 가압류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한층 더 강경해진 회사 측 태도에 노조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만 해도 4,700명이 넘는 조합원 숫자가 수백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가압류 때문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상당수 노조원들이 노조를 떠나가기도 했다.

동지는 '01년 3기 위원장에 당선돼 '03년 10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능교육교사노조를 지켰다. 사용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특수고용노조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3년여를 끌어온, 끝이 보이지 않는 임단협 교섭을 위해 삭발, 단식, 천막농성... 안해 본 것이 없었다. '02년 겨울, 동지는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차가운 천막 안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동지는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측의 탄압으로 힘든 투쟁을 전개하여야 했다. 또한 동지는 '03년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초대 의장을 맡아 전국비정규직연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 민주노동당 성북갑지구당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 동지가 '04년 8월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으나 한 번도 환한 표정을 잃지 않았고 또한 투병생활 속에서도 꼭 동지들의 곁으로 돌아가 활동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지는 '05년 2월 10일 오랜 투병생활을 뒤로하고 오열하는 동지들을 두고 못다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의 한을 남긴 채 떠나갔다.

“종래는 늘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잔뜩 걱정을 짊어지고 찾아오면, 병든 몸을 하고도 오히려 씩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걱정까지 덜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픈 사람 찾아갔다가 우리들이 되려 안심하고 돌아왔는걸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 챙기다, 그렇게 간 거죠.”

- 2월 11일 빈소찾은 애니메이션노조 유재은 위원장 인터뷰 중에서 -

이길상 (당시 39세)



화 장

- 1960년 10월 강원도 황지 출생
- 1978년 2월 춘천고 졸업
- 1979년 3월 경희대 사학과 입학
서양사상연구회 가입(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국에 실전을 결심하게 됨)
- 1980년 3월 경희대 학원민주화 투쟁에서 '조영식 총장 퇴진' 단식투쟁 벌임
- 5월 민주쟁취 교내시위 참가
- 11월 광주학살만행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 후 연행 당함
나흘간의 구속기간 중 심한 고문을 당함
- 1981년 1월 심한 감시 속에서도 후배들 세미나 지도 활동 진행
- 6월 학림사건이 발생하자 관련여부를 내사 당함
- 1982년 4월 '5월 시위' 설 주모자로 지목 받아 기관원에게 야산으로 끌려가 협박과 테러를 당함
- 5월 발병-이후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총 8회 치료 받음
사망 사흘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음
- 1998년 12월 7일 투신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9년도에 경희대 사학과에 입학, '서양사상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열정을 키워갔다.

대학 2학년 때인 '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직후인 '80년 11월경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민중항쟁 투쟁으로 계승하자" "군사정권 물러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교 곳곳에 살포하는 등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되어 4일정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목끼어 밟기' '입과 콧구멍에 물붓기' 등 심한 고문과 구타, 협박을 받았다.

그 후 심한 감시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 운동적 신념을 실천해가던 중 '82년도 후배들의 유인물 배포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아 다시 기관원에 의해 야산으로 끌려가 "너 학생운동하면 죽인다" "후배들에게 한번만 그런 일 시키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테러를 당하였다.

이후 동지는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 직전인 '98년 12월 7일까지 17년 동안 청량리정신병원에서 총 8차례의 입원치료를 하는 등 고문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투신운명하였다.

강연석 (당시 35세)



1964년 5월 22일	출생
1984년	배재대 물리학과 입학
1987년	배재대 애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5월	대전충남 애국학생투쟁연합공동의장
6월	6월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
12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투옥
1989년	군 입대 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이유로 투옥
1990년	공장 생활하며 대전민청 활동
1993년	대전민주청년회 회장
1998년 1월 7일	교통사고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광주민중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들어서 전두환정권이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자 잠시 유화정책을 쓰던 '84년에 동지는 배재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독재타도 민주수호의 범국민적 열기가 거셴던 '87년 동지는 배재대 애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과 대전충남 애국학생투쟁연합공동의장을 역임하며 6월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87년 12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군 입대 후에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이유로 다시 투옥되기도 하였다. 군대 제대 후 동지는 청년운동에 뜻을 두고 노동현장에 몸담으며 대전민청 활동을 시작하여 '93년에는 대전민주청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던 '98년 1월 7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하였다.

주명순 (당시 76세)



김포 공원묘지에 안장

- 1923년 12월 26일 출생
- 1935년 함경북도 회령군 벽성면 벽성초등학교 졸업
- 1937년~1945년 회령 유선탄광, 아오지 유암탄광에서 뚝탄분쇄노동자
- 1946년~1950년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조국강령 20개 해설원으로 활동
- 1951년~1958년 세계통신사 기자, 조국통일운동에 활동하다 구속, 3년 6개월 선고받음
- 1959년~1961년 최백근(사회당 조직위원회 조직부장) 선생과 함께 민족해방, 조국통일운동에 참여
- 1961년~1990년 평생 동지였던 고 박남업 선생과 결혼, '오작교' 사건으로 부군과 함께 구속(국가보안법), 각각 5년과 3년 6개월 옥고
- 1990년~1998년 양심수 석방과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
- 1996년~1997년 북녘큰물피해돕기 운동에 헌신
- 1998년 6월 13일 오전 8시 30분 수차례의 옥고로 인하여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23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한 동지는 해방 이전까지 회령 유선탄광, 아오지 유암탄광 등지에서 뚝탄분쇄노동자로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조국강령 20개 해설원으로 활동하였고, 세계통신사 기자로 근무하여 조국통일운동에 전념하다 구속되어 3년 6개월의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출소 이후 최백근 선생과 함께 활동하다, 오작교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두 번째 옥고를 치렀다. 계속하여 양심수 석방과 범민련 부의장으로 활동하다 세 번째 구속을 당한 후 '98년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명하였다.

계훈제 (당시 78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21년 12월 31일	평북 선천 부항 출생
1940년대	일제시기 학병을 거부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으로 위축된 운동진영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4.19시기에 학생운동의 대부로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1960년~1961년	교원노조 결성, 국학대 강사
1962년	함석헌 장준하 선생 등과 '자유언론수호협의회' 결성
1969년	삼선개헌반대투쟁위 상임운영위원
1970년~1979년	'씨울의 소리' 편집위원
1973년~1974년	구화고등학교 교장,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원
1975년	간급조치 9호 위반 투옥
1977년	민주주의국민연합 운영위원
1980년	'민주화의 봄' 시기 전국적 전개층적 열망을 묶어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내란음모죄로 수배, 2년여 도피생활
1982년	포고령 위반, 내란음모 사건 관련 투옥
1984년	민주통일국민회의 부의장
1985년	민통련 부의장
1986년	민통련 의장대행
1987년	6월항쟁 시기 민통련의장 대행으로 6.10 항쟁을 선언한 성공회 농성을 주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됨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
1989년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
1995년	고 장준하 선생 2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
1999년 3월 14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저항은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다” 선생의 삶은 그의 말처럼 저항으로 일관했다. 선생은 일본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 민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운동에 한 평생을 보냈다.

동지는 '21년 평안북도 선천군 심천면에서 농사꾼의 5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압록강을 넘나들던 독립군의 모습을 지켜보며 민족의 현실에 눈을 뜬 그는 임시정부로 갈 계획을 세우고 국경을 넘어 일본 헌병에 붙잡혀 지원병 훈련소로 압송됐다.

그 뒤 평양 근처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민족해방협동단' 이란 항일운동단체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했다.

'45년 해방되자 고 장준하선생의 권유로 백범 김구 선생 밑에서 일을 했다. 백범의 영향 아래 신탁통치 반대투쟁에 나섰다, 백범의 남북협상을 지지하며 식발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때는 '국대안 반대투쟁' 을 이끌었다.

동지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뒤 민주화운동의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한다. 3선개헌반대투쟁위 상임위원, 「사상계」 편집장, 민통련 부의장 등을 지내며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3차례나 투옥됐고, '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에 연루돼 1년3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그 후에도 민통련 의장, 전국연합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한반도의 혁명적 변화와 민주화를 위해 젊은 시절부터 평생동안 투쟁을 계속했다.

고 문익환 목사와 함께 재야의 상징으로 해방의 등불로서 역할을 하던 동지는 지난 '95년 고문 등으로 얻은 지병인 폐질환이 악화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도 나라를 먼저 걱정하던 선생은 병상에서 자서전 나의 투쟁, 나의 일생' 을 집필하기도 했으나 끝내 마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일생동안 단 한차례도 구두를 신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으며 항상 흰 고무신에 작업복 차림으로 민주화운동 현장을 누볐던 그의 옷차림이 말해주듯 동지는 저항정신과 청렴성, 도덕성의 상징이었다.

윤창녕 (당시 45세)



충북 옥천군 옥천가족묘지에 안장

1954년 5월	출생
1970년	대전역 부근에서 노점상 시작
1991년	대전역 지하도에서 노점상
1999년 7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동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구청 복도에서 분신으로 항거
1999년 7월 10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4년에 태어나 1급 장애인이라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70년 17세부터 대전역 지하상가 구석에서 허리띠와 라이터 등을 팔아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밝게 생을 살아왔다. '99년 7월 7일 구청에서 차별적인 표적 단속과 물품갈취,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인간적 모독을 하자 구청으로 찾아가 직원과 실경을 벌이던 중 비인간적인 발언을 듣고 분노해 구청 복도에서 분신하였다.

동지는 분신 이후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청은 무책임하게도 12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도록 방치했고, 도리어 동지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이후 한강성심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으나 구청의 늦장조치와 입원보증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7월 10일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장애인의 몸으로 평생 노점상을 해온 동지의 분신항거는 그동안 외면당하던 노점상들의 생존권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노점상들을 단결하게 하였다.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노점상들의 큰 외침으로 터져나와 대전노련을 거쳐 지금은 충청노련까지 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흥수 (당시 42세)



벽제 제1추모공원에 안장

1958년 5월 15일	서울 영등포 출생
1959년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음(지체장애 1급)
1987년~19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과정 동문회 '씩툼' 회장 역임
1988년	신망애재활원 건립 반대 사건 투쟁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 반대 조직위 점거 투쟁
1989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점거 단식농성
1989년~1992년	목공예공장 취업, 노동자 생활
1992년	정립회관 비리 관련 점거농성
1993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서울지부장 역임
1993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부회장 역임
1994년	최정환 열사(노점상으로 단속에 항의에 서초구청에서 분신) 투쟁
1994년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1995년	인천 아암도 투쟁
1995년~1996년	이덕인 열사(인천 아암도에서 의문사) 투쟁
1999년	장애인실업자연대 위원장 역임
1999년 7월 23일	지병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8년 5월 15일 영등포에서 태어났으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2세에 장애를 입고 줄곧 장애의 멍애를 짊어 지고 살아왔다. '87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과정 동문회 '씩툼' 화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운동에 투신하였다.

장애인운동의 태동기인 '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정태수 열사와는 어려운 시절 구두공장에도 함께 다니고, 이덕인 최정환 열사 투쟁과 청계천 노점싸움 등에 함께 하며 활동가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지는 수년간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01년 7월 23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김양무 (당시 50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0년 9월 21일	전남 남원 출생
1973년 6월 10일	유신헌법 철폐 투쟁으로 연행
1973년 7월 10일	강제입영
1978년 3월 1일	완도군 외중 교사
1982년 4월 10일	민족통일사상연구소 설립
1989년 9월	전민련 조국통일 중앙위원
1990년 9월	범민련 준비위 준비위원
1990년 11월	민자통 중앙회의 중앙위원
1993년 7월	범민련 준비위 정책위원장
1994년 7월 5일	범민련 광주·전남 결성사건으로 구속
1995년 11월 29일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사건으로 구속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1997년 7월 19일	이북 큰물피해돕기 사업으로 구속
1998년 8월	9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장
1998년 8월 19일	범민족대회 관련 구속
1998년 10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혈변증세를 보여 인양병원 이송 → 직장암 진단으로 구속집행정지 출소
1998년 11월 26일	전남대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1999년 6월 3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추진본부장 추대
1999년 8월 16일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고 향후 범투본 투쟁을 위해 명동성당 농성투쟁 돌입
1999년 10월 22일	암이 신체 각 부위에 전이된 상태로 비밀리에 병원에 입원 그러나 현 정권은 반인륜적, 반통일적 탄압으로 일관
2000년 1월 26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0년 남원에서 출생하여 한평생을 통일운동에 몸 바쳤다. 전북대 재학 시절 유신헌법에 항거하여 투쟁하던 중 연행되어 강제 입영되었고, 그 후 전남 완도군 외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82년 4월 10일 민족통일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광주자주화 투쟁 정신과 통일문제의 연결점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통일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았다. '87년 6월 항쟁 등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은 자주통일운동으로 승화되어 '90년대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동지는 '89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중앙위원과 '90년 범민련 준비위원,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영삼정권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해 분단체제의 기득권과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동지는 분단 통치기구인 안기부에 의해 무수한 감시와 위협, 고문에 시달렸다.

'97년 7월 10일 사상 초유의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북동포들의 소식을 접하고 '이북 큰물피해 돕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날조하려는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었다(안기부에서는 잠을 재우지 않는 조사와 가족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속에서 온갖 고문과 협박을 자행하였다).

동지는 이러한 투쟁속에서 직장암을 얻게 되었고 '98년 11월 26일 직장암 수술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4명(김동기, 이경찬, 이공순, 이재룡)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출소에 맞추어 후원회를 조직하고 광주에 거처를 마련하는데 앞장섰으며 2월 25일에는 광주에 '통일의 집'을 개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99년 범민족대회 남측본부 추진본부장으로 범민족대회 직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다 건강이 악화돼 '00년 1월 26일 운명하였다.

안상운 (당시 81세)



대전 시립공원묘지 안장

1921년	충북 괴산 출생 해방전후, 청년운동 (청년동맹)
1952년	한국전쟁 중 입산, 이현상부대 1대대장
1953년 말	검거 25년 복역
1983년	가출옥, 이후 침술로 생계유지 및 지역사업 민중당 고문(대전) 진보정치연합고문(대전), 민가협회원
1995년	중풍 발병
2001년 3월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21년 충북 괴산 태어났다. 해방전후 지역에서 청년동맹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전쟁 때 입산하여 이현상 부대 1대대장으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53년 말 검거되어 이후 25년 복역하다가 '83년 가출옥하였다.

이후 동지는 침술로 생계활동을 하면서 대전에서 활동하였다. 민중당 대전지역 고문, 진보정치연합 대전지역 고문 활동 등 진보정당운동에 큰 힘을 보태었다. 오랜 감옥생활의 후유증으로 '95년 중풍이 발병하여 고생하시다가 '01년 3월 운명하셨다.

김성원 (당시 36세)



진주시 나동 공원묘지에 안장

1965년 6월 22일	출생
1984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입학
1990년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역임
1991년 7월	구속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투쟁 당시 사천군 농민회 실무자로 일함
1994년	사천군 농민회 사무차장
1995년~1996년	사천군 농민회 사무국장
1997년~2000년	전농 경남도연맹 정책실장
2001년 4월 23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식민지 조국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반미 자주와 조국통일 투쟁의 이름 없는 전사가 되어 이 청춘 바치겠노라 동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해방 참세상 건설에 한 목숨 바치겠노라 동지는 언제나 다짐하곤 했습니다. 전사의 맹세를 지켰기에 동지는 독재 정권의 감옥에 갇혔고, 또한 농민 활동가로서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회의와 투쟁에 치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미래보다는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 자신의 안락보다는 민족의 통일을 더 염원한 사람, 돈과 권력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농민활동가로서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인 그가 누웠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광폭한 탄압 속에서 동지는 학생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으며, '90년 회장도 부회장도 끌려가버린 노태우 정권의 치하에서 동지는 권한대행으로서 끝까지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농민활동가로서의 삶을 선택한 동지는 도연맹 정책실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가진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땀든 몸을 이끌고 참가한 작년 동지의 마지막 상경투쟁에서 먹지 못해 초체한 모습으로 버스 뒤쪽에서 구도를 하면서도 괜찮다며 웃던 동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담담히 우리를 맞이하곤 긴박한 정세에 쉬고 있어 미안하다며 가열찬 투쟁을 부탁하던 동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성원동지! 그대는 이 땅의 아들이었고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마지막 만남 자리에서 동지는 말했지요. “삶은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어 먼저 갈 뿐”이라고. 남겨진 이들은 허망하고 안타까워 이렇게 눈물 흘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렵니다. 이 땅의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가야겠지요. 그것이 동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고 여깁니다.

김성원동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동지가 못다 이룬 그 모든 것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게 모두 맡기고 편히 쉬소서.

구룡이, 순복이가 기다리는 그 세상에서 다가올 민족해방, 통일조국, 농민해방의 참세상을 지켜보소서. 동지여! 편히 쉬소서!

- 조사 '김성원 동지를 가슴에 묻으며' 중에서 -

김남준 (당시 36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6년	출생
1992년	백기완대통령후보 여주연락소 사무장
1994년	민중정치연합 여주지부장
1995년	여주군의회 의원선거 출마
	여주 우리문화연구회 회장
1998년	국민승리21 여주연락소장
2002년 1월 18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여주지역에서 민중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 여주대표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민중후보로 출마하였다. 우리문화연구소와 민예총 여주지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천노동상담소 활동 중 운명하였다.

정태수 (당시 34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8년	제주 출생
1989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전산과 졸업
1989년~1991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씩툼' 동문회 연대사업부장
1991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조직부장
1993년~1998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조직국장
1995년 3월	최정환 열사 투쟁집행위원
5월	장애인자립생활추진위원회 조직부장
9월	인천아암도 생존권 투쟁 중 구속
12월	이덕인열사 투쟁집행위원
2001년	서울장애인연맹 조직국장
2001년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02년	서울장애인연맹 사무처장
2002년 3월 3일	'제1기 장애인 청년학교' 수료식 도중 과로로 사망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생애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당당히 투쟁한 투사의 삶이었다.

동지의 투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니던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정신력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심시간에 훈련생들에게 국민체조하기를 강요했는데 동지는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조직하여 국민체조시간을 없애버렸다.

또한 '씩툼동문회'에서 발행한 소식지를 복지관측에서 압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지에는 '복지관을 졸업한 학생들의 90%이상이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6개월 이상 실업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 이하의 교통비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는데 복지관은 서울시에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90%가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지는 이 사실을 밝히는 농성투쟁에도 결연히 참여하였다.

동지는 대학을 준비하던 중에도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정립회관 시설비리 투쟁에 참여하였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장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최정환 열사의 분신과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 투쟁에 헌신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연합회, 서울DPI활동, 그리고 청계천8가에서의 노점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청년학교 등 수많은 사업을 조직했고 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걷기대회를 매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동지는 장애인의 문제가 단순히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나 조직이기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세상에서 장애인이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껍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세상을 향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당당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최연진 (당시 43세)



- 1959년 충남 보령 미산면 천뱅이골 출생
미산초교, 서울한성여중, 배화여고 졸업
- 1981년 공주시대 인문계열 입학
서슬퍼런 군부의 '금강회' 조작 사건으로 재적
- 1983년 하반기 전두환정권의 유화정책으로 대학에서 제적생에 대한 복학권유와 함께
반성문을 요구하여 복학거부
- 1990년 '문화공간 우리사랑' 창립, 청소년 모임, 금강뽕물패, 시민연대운동 모태 만들
- 1991년 주부모임 '동그라미' 창립
- 1992년 환경모임인 '아름다운 마을' 창립회원
- 1993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
- 1994년 참교육학부모회 창립준비
- 1999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공주시부 창립
- 2001년 금강뽕물패 회장,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공주시부 사무국장
- 2002년 3월 21일 위암으로 투병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9년 충남 보령 미산면 천뱅이골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이후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81년 공주시대 인문계열에 입학하였다. 동지는 '금강회' 조직사건으로 제적을 당하였다. '83년 하반기 전두환정권의 유화정책으로 대학에서 제적생에 대한 복학권유와 함께 반성문을 요구하여 복학을 거부하였다.

'90년 '문화공간 우리사랑' 창립하여 청소년 운동과 시민연대운동을 전개하였다. '91년 주부모임 '동그라미' 와 '92년 환경모임인 '아름다운 마을' 창립하여 활동하면서 주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헌신하였다.

'94년 참교육학부모회 창립회원과 '99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공주시부 활동하던 중 '02년 3월 21일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운명하였다.

최옥란 (당시 36세)



화장 후 벽제 중앙추모공원에 안장

1966년	출생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 '올림터' 창립회원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
2001년 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2002년 3월 26일	심장마비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1급 장애인이었던 동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서 너무도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투쟁으로 이겨내고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정부가 동지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천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02년 기준) 이 돈은 동지의 한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저야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하기도 했는데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보호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동지는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되돌려 주기도 했다. 또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동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동지에게 9살 난 아이가 한명 있었다. 동지는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동지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동지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정열적으로 투쟁해 왔던 동지였지만, 가난으로 모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수급권자로 그리고 실업자로 살아야했던 동지는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다.

강구철 (당시 49세)



- 1954년 5월 25일 충북 옥천 출생
- 1973년 첫 10월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 1974년 민청학련사건 주범으로 구속, 징역 15년 언도
- 1978년 EYCD 창립주도
-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구속
- 19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간사
- 1984년 민청련 광주학살진상규명위원장
광주학살주범처단시위 주도로 구금
- 1985년 충남민주청년운동연합 창립주도, 지도위원 취임
충남민주운동청년협의회 창립, 사무국장(민통련 중앙위원) 취임
- 1986년 직선제개헌쟁취 국민대회 주도로 구속
- 1989년 중앙농촌선교개발원 총무, 한살림운동전개
- 1991년 강경대열사 살인만행 규탄투쟁으로 수배, 구속
- 1992년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로 개혁정치 실현에 앞장
대전민주시민회 창립 회장, 통합민주당 대전 동을 지구당 위원장
-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 2002년 3월 대덕구청장 입후보 준비 중 과한으로부터 피습, 왼쪽 눈 실명
- 2002년 4월 간암진단 투병
- 2002년 8월 3일 오후 8시 15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4년 5월 25일 충북옥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73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선 시위로 구속되었고,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5년을 언도받기도 하였다. 이후 동지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투쟁하여 왔다. '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서울의 봄을 무참히 짓밟힌 이후 '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간사와 '84년 민청련 광주학살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 '광주학살주범 처단' 시위주도로 구금되는 등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다. '85년 충남민주청년운동연합 창립을 주도하고, 지도위원으로서 지역운동을 하였다.

이후 충남민주운동청년협의회를 창립하여 사무국장을 맡았다. '86년 직선제개헌 쟁취 국민대회를 충남지역에서 주도하다가 구속, '91년 강경대열사 살인만행 규탄투쟁으로 수배, 구속 등 끊임없이 투쟁을 주도하였다. '92년 통합민주당 대전 동을 지구당 위원장과 '96년 15대 국회의원 입후보 하는 등 제도권 정치에 투신하였다. '02년 3월 대덕구청장 입후보 준비 중 과한으로 피습당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02년 4월 간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02년 8월 3일 운명하였다.

문재룡 (당시 63세)



화 장

- 1939년 10월 3일 전남 장흥 출생
- 1985년 신한민주당 도봉지구당 부위원장
- 1993년 1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가입
- 1994년 범민련 서울시연합 감사
- 1998년 6월 제9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추진본부 본부장
- 1998년 11월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 1999년 6월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 1999년 8월 15일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구속 방침 관련 명동성당 농성
- 1999년 12월 명동성당 농성 중 구속. 청주교도소 복역
- 2001년 3월 전국연합 서울연합 공동의장 옥중 선출
- 2001년 3월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옥중 선출
- 2001년 5월 4일 1년 6개월 형을 마치고 청주교도소에서 출소
- 2001년 3월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전국연합 서울연합 공동의장
- 2001년 7월 31일 6.15 공동선언실천 통일대행진단 서군 단장
- 2001년 8월 15일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
- 2001년 8월 21일 김포공항에서 연행
- 2001년 8월 23일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 회합·통신으로 구속
- 2001년 10월 18일 폐암말기 진단으로 구속형집행정지로 출소
- 2002년 8월 25일 오전 9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남녘땅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노동자로서, 통일운동가로서 살아왔다. 자기 노동에 충실함으로써 언제나 당당했으며 특히 가진 자들의 횡포나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하여는 오연한 자세로 압도해버렸던 동지는 식민지 땅 세상살이를 서러운 노동자로 출발하여 자랑스러운 통일애국지사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동지는 '90년대 이후 줄곧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당국에 의해 투옥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지난 '01년에도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으로 합법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동지는 어이없게도 정부당국의 정략적인 민간통일운동 탄압에 희생되어 구속되었다. 이 고초로 동지는 폐암이 악화되어 운명할 때까지 병마와 싸워야 했다.

동지는 죽는 날까지 통일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였고 몸을 사리지 않는 행동가, 조직에 충실한 운동가의 풍모를 보여주어 많은 동지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동지는 죽음을 앞두고 유해 가운데 가능한 부위는 필요한 동포에게 기증하고 나머지는 화장한 후 무덤도 만들지 말고 임진강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통일애국지사로서의 장엄한 삶을 마쳤다.

식민지 땅 세상살이를 서러운 노동자로 출발하시어 저 밀바닥 생활노동자로 일관하시다가 드디어 자랑스러운 통일노동자로 우뚝 선 문재룡 동지여!

민중의 바다에, 아니 바다 밑보다 더 낮은 곳에 늘 자리하시던 민족통일 민중사랑 문재룡 동지여!

당신 주먹으로 당신 가슴팍을 치며 간절히 호소하던 이 말씀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 내 땅을 점령해 들어와, 힘으로 내 땅을 갈라놓고 살육전을 벌인 다음, 힘으로 국방 자위권을 빼앗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이 땅을 지배해 버린 제국주의 아메리카입니다. 분단된 예속의 땅에서 노동자 농민은 저들의 수탈대상으로부터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내 조국에서 진정 노동해방을 원하신다면 진정 농민해방을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주통일에 떨쳐 나서야 한다 이말입니다. 분단 예속을 그대로 두고서 민중해방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자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노동자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절실히 이를 받아 안고 떨쳐나서야 합니다. 농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종렬 전국연합의장의 추모사 중에서-

박봉규 (당시 63세)



경기도 광주 교회묘지에 안장

1940년 6월 29일	전남 함평 손불면 복성리 출생
1941년	서울로 상경함. 자장면집 허드렛일부터 막노동일까지 안해본 일이 없음
1997년	58세의 늦은 나이로 노점 장사를 시작함
2002년 8월 21일	서울 중구청 단속에 의해 물건 압수당함
2002년 8월 23일	단속에 항의하러 갔다가 중구청 직원의 모욕적인 발언에 항의하며 분신
2002년 9월 6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외환위기 전까지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97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점상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평소 과묵하고 온순한 성격이었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힘든 내색이 없었다. 그런 동지가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방법을 택한 것은 청계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 서울시가 노점상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동지는 8월 한달 동안 3차례의 단속을 당했고 그때마다 구청직원과 용역반에게 판매물품을 압수당했다. 자식뻔도 안 되는 용역깡패들은 욕은 물론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단속에 걸려 물건을 찾을 때는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를 운반하는 데 다시 2~3만원이 들었다.

견디다 못한 동지는 8월 23일 오후 1시, 이명박 시장 앞으로 '서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등기로 부쳤다. 그리고 오후 2시, 용역깡패 20여명과 구청단속반 10여명, 총 30여명이 2차 단속을 나오고 또 다시 물품 전부를 빼앗기자 오후 3시 20분경 중구청장실에 찾아가 "왜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가"고 항의를 하였으며 중구청장실에서 "불법장사를 하면서 뭐가 잘못했다고 항의하는가"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스스로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구청직원들은 분신에 대한 처리를 방관 한 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동지는 면회 온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워 나의 한을 풀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지는 병상에서의 힘겨운 싸움 끝에 9월 6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동지의 죽음은 김대중 정권이 국내외 자본의 이해에 맞추어 추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도시빈민들은 실업·반실업의 고통으로부터 야기되는 삶의 불안정과 절대적·상대적 빈곤상태의 증가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가로정비 및 노상 적치물 관리'에 의한 단속방안을 강화하였다.

동지의 죽음은 이러한 상황들과 특히, 청계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강희철 (당시 41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2년 12월 19일	인천 출생
1989년	인천민주청년회 노동분과
1990년	인천민주노동청년회 조직국장
1991년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기획실장
1993년	통일을 여는 민주노동자회 조직위원장 노동자 통일대 '백두' 활동
1995년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조직강화특위 수도권 대표
1996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 사무처장
1998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본부장
1999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조직위원
2000년~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2003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2003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도중 뇌출혈로 입원
2003년 4월 13일	41세 나이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62년에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지역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쳤다. 또한 '00년부터는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정치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평생을 조국의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에 바쳐왔다.

'03년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뇌출혈로 입원한 동지는 미국에게 빼앗긴 주권회복과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그 길에서 동지와 함께 해온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 섞인 방문과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4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김정훈 (당시 34세)



부평 시립공원묘지에 안장

1970년	서울 출생
1989년	동인천 고등학교 졸업
1990년	시립인천대학교 영문과 입학,과대표
1991년	영어영문학과 문화부장
1992년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한미관계 연구회 회장
1993년	인문대 학생회장
1994년	시립인천대학교 부총학생회장
1995년	인부총련 사무국장
1997년	한총련 기획국장, 6월구속
1998년 8월	출소, 인천연대 남동남지부 사무국장
2000년	전국연합 정보통신부장
2001년	사람들넷 사무국장
2003년 5월 15일	신장염과 골수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90년 시립인천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면서 과대표와 문화부장을 맡으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92년 과학생회장, '93년 인문대 학생회장, '94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학원자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95 인부총련 사무국장, '97년 한총련 기획국장을 맡아 '96년 연세대 항쟁 이후 이적단체 올라미의 탄압속에서도 굳건히 한총련을 지켰다. '96년 6월 구속되어 '98년 8월 출소하였다. 이후 인천연대 남동지부 사무국장과 '00년 전국연합 정보통신부장을 맡으면서 민족민주진영의 정보화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제전범재판 소식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소식등 각종 소식을 많은 단체에 알리는 등 헌신적인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03년 신장염과 골수암으로 운명하였다.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집 「바보온달」을 2004년 5월 15일 발간하였다.

봄을 마감하려는 듯 내리는

늦은 봄비가 그치고 난 내일 아침이면

파랗게 펼쳐질 하늘

두눈 가득 들어올 터이니

그래, 남은 자 모두 일어나

맞으러 가자!

오동꽃 짙은 향내 퍼져가는 꿈같은 새날!

- 김국래(민주동문회 회장)의 추모사 '해밀의 기억' 중에서 -

김승훈 (당시 64세)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에 안장

1939년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
1962년 12월	사제서품
1962년 12월	신당동 천주교회 보좌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참여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
1977년 5월	동대문 천주교회 주임
1982년 9월	홍제동 천주교회 주임
1987년	고 박종철군 고문은폐소스 조작 사건 폭로
1988년 2월	왕십리 천주교회 주임
1996년 10월	시흥동 천주교회 주임
1998년 10월	고 최종길교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1998년 11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1999년 6월	'6월 민주항쟁 12주년 행사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00년 3월	4.13 총선연대 시민대표
2003년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장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지학순정의평화기금 부이사장
2003년 9월 2일	운명,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동지의 삶과 죽음

'62년 성직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동지는 평생을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고통받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한 길을 걸어왔다.

동지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에 참여하여 지학순 주교 석방을 위한 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전두환 군사독재에게 희생된 서울대생 고 박종철 군의 고문조작은폐사건을 폭로하여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다.

또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진상규명과 인혁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등 민주화의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했으며 이의에도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지의 손길이 뻗었다.

또한 북한동포돕기와 사제단대표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통일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동지는 65세의 나이로 이 땅의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고 운명하였다.

'진실이나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이 아닐까, 하고 지금도 생각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이 발족된 이래, 내가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쏟아온 지가 따져 보면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항상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의 하나인 <사목헌장>에서 말하듯이,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는 사랑'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너는 누구고 천주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어려움이 클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나의 그동안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한다.'

- 동지의 저서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에서 발췌 -

이경해 (당시 56세)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에 안장

1947년	전북 장수 출생
1974년	서울 농업대학교 졸업
1983년	장수군 낙우회 부회장
1987년	전북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1989년	전국 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1990년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 한국농어민신문사 초대 회장
1990년	스위스 제네바 UR반대 할복 자살기도
1991년	전라북도 도의원
1992년	중앙연수원 교수, 민주당 제14대 대통령선거대책 중앙위원
1994년	한국내외문제연구회 전북 사무국장
1995년	전북도의회 산업위원장, 농협중앙회 운영자문위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농어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0년	전라북도의회 외교활동운영 협의회장
2001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일본 도쿄 총리관저 항의 단식농성
2003년 3월	스위스제네바 WTO본부 앞 1인 단식농성
2003년 9월 10일	할복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47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동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영농현장에 뛰어들었고 그 후 평생을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해왔다.

동지는 지난 '90년 제2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를 정부가 막자 단식농성을 통해 행사 진행의 당위성과 대정부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또한 '94년 국회 앞에서 WTO 이행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홀로 17일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수입개방과 농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기 시작한 지난 '00년 12월, 전북도 도의원이었던 동지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주장하며 26일간의 단식농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지난 '90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 중이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반대하며 할복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후 13년이 흐른 '03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에서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라는 문구를 몸에 두르고 한달 가량 1인 단식농성을 벌였던 동지는 9월 10일, 머나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장 정문 앞에서 또 한번의 할복을 시도, 운명했다.

장광명 (당시 84세)



- 1920년 3월 2일 평북 구성군 출생
방현소학교 졸업
- 1937년 만주로 가 독학으로 소학교 교원 검정고시 합격
만주 통화성 유화현 삼원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
- 1945년 광복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옴
- 1945년 9월 민주청년동맹 구성
- 1946년 의주군 교육과장으로 열렬한 문맹퇴치운동 개시
- 1947년 평북인민위원회 교육부 간부과장
- 1948년 평양 교육간부학교 당 세포책임자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북인민위원회 전주지역 교육담당책
- 1951년 12월 5일 경북 상주에서 체포. 포로수용소에서 군법회의 회부
- 1952년 12월 20일 대구고등군법재판소에서 사형선고
- 1953년 4월 25일 국방장관 특사로 무기징역 감형
- 1960년 4.19이후 20년형으로 감형
- 1971년 20년 만기출소
- 1975년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감호소 감호처분
- 1983년 청주감호소 출소
- 2003년10월 27일 오전 8시 50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20년 3월 2일 평북 구성군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37년 만주에서 독학으로 소학교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만주 통화성 유화현 삼원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45년 해방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건국사업에 투신하였다.

'45년 9월 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하였고, '46년 의주군 교육과장으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47년 평북인민위원회 교육부 간부과장, 그리고 평양 교육간부학교 당 세포책임자를 맡았다.

한국전쟁 때 전북인민위원회 전주지역 교육담당책으로 내려왔으나, 전쟁상황의 급변으로 입산투쟁을 전개하다가 '51년 12월 경북 상주에 체포되었다.

'52년 12월 20일 대구고등군법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로 감형되었고, '60년 4.19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71년 20년 만기출소 하였으나, 곧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감호소 감호처분으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되었다.

'83년 청주감호소 출소 이후 그리던 고향과 통일을 보지 못하고 '03년 10월 27일 운명하였다.

제종철 (당시 35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68년 11월 20일	경남 진주 출생
19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폴란드어과 입학
1989년	총학생회 기획부장
1993년	경기인천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 연대사업위원장
1994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연대사업위원장
2001년	저소득 실직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무료교실 느티나무 운영위원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 부실장, 경기북부 여중생범대위 사무처장 의정부청년회 준비위원장, 의정부청년문화학교 인터넷교실 반장
2003년	건설노동자 및 저소득층 자녀 탁아방 교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교섭위원(미조직위원) 경기북부지역 일반노조(11월 18일 설립) 부위원장
2003년 11월 20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대학시절부터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던 동지는 대학 졸업 후에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청년단체를 만들고 일꾼들과 함께 노동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단체를 통한 열성 일꾼을 만들어 내고 지역을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농민, 노점상, 청년, 학생, 시민단체 등 의정부, 동두천, 구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

'02년 온 나라가 '월드컵 4강' 열기에 취해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에 침묵할 때, '의정부 청년회' 창립멤버로 활동하던 동지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언니들이 다니던 의정부여고 학생들과 함께 눈물의 촛불집회를 조직해 미국을 반대하고,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에 분노하며,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합성을 모으는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여중생의 부모님을 설득해 투쟁의 공간에 나서게 하는 등 동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이렇듯 짧은 생애를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우던 동지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03년 11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평동 미 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미군 무죄평결 1주년 기념 촛불집회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의정부역 철길 위에서였다.

경찰은 동지가 철길에 누워 있다 달려오던 열차에 치였다고 자살 또는 사고사로 결론 냈지만, 당시 동지가 많이 취하지 않았고, 열차 하체 바닥이 인체에 닿으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신이 훼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사고가 나기 30분 전쯤에 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한 점으로 미루어 동지의 죽음에 의문점이 남아 있다.

아! 제종철 동지여!
한 생을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민족의 참된 일꾼이여
시련의 고비마다 맑은 웃음지으며
새 길을 개척한 신념과 의리의 투사여
자주민주통일의 그 날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환하게 부활하리라!

- 마석 모란공원묘역에 새겨진 비문 -

권종대 (당시 68세)



경북 영덕군 영해읍의 선산에 안장

1936년 5월	경북 영덕 출생
1960년	재건국민운동, 농촌자원지도자 활동
1966년	영해제일고등공민학교 교사
1970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파견 일본 연수생
1971년	영덕 여자중학교 교사
1977년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북연합회 이사 안동회장, 전국부회장
1989년	전국농민운동연합 부의장 및 전농창립준비위원장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의장
1991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1992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의장
1993년	민주항쟁기념 국민위원회 창립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활동
200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지도위원 통일연대 고문
2004년 1월 4일	오전 4시 향년 67세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8년 한국가톨릭농민회 초대 안동교구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농민운동에 투신해 '86년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등을 거친 뒤, '90년 전농협과 전농련으로 분리돼 있던 농민운동 진영의 통합에 나서 전농을 결성했다. '90년부터 '93년까지는 전농 초대 및 2대 의장을 지내며 농산물 개방 반대 운동 등을 이끌었다.

동지는 '90년부터 '93년까지 전농 초대 및 2대 의장을 지내며 농산물 개방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79년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농민회 회장으로 재직시 감자농사 폐농으로 발단된 '안동농민회 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은 가톨릭농민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YH사건과 함께 전국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켜 부마항쟁과 10.26 박정희피살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다.

또한 '91년부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맡아 통일운동에도 헌신해왔다. '92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과 제3차 8.15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공안당국의 수배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등과 함께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세력의 결집에 나서기도 했다.

'93년에는 고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민주항쟁기념 국민위원회' 창립을 주도해, 5.18 진상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5.18광주민주화 항쟁과 6.10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국민연합에서 우르과이라운드에 관심이 없었을 당시 이의 중요성을 함께 일깨우고 농민의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국제적으로 투쟁하기도 하였다.

동지는 정치권의 유혹을 거절하고 시종 일관 '사회운동가'로서 전형적인 삶을 살았으며 가난한 삶이었지만 청명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고 이 땅의 민중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하였다.

김진균 (당시 67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37년 11월 20일	경남 진주 출생
1961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68년~198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사회학과 교수
1980년 7월 31일	서울대학교 교수 해직
1984년 8월 31일	복직
1984년 7월~1988년 7월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 1, 2대 회장
1988년 7월~1991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1990년~1995년	전노협 고문 및 전노협후원회 공동대표
1990년 1월~2002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창립, 소장
1994년 6월~1996년 11월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1994년~2002년 3월	지식인연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1995년	민주노총지도위원
1998년 11월~2002년 2월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004년 2월 14일	암으로 별세

동지의 삶과 죽음

‘행동하는 지성의 표본, 진보적 학술운동과 민주적 교수운동의 대부, 민중운동의 한복판에 선 민중의 벗’ 동지는 이렇게 불렸다.

동지의 학문적 관심은 민족적, 민중적 사회과학을 일구는 것이었다. 동지는 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개념을 버팀목으로 하여 비판적인 노동·조직·산업사회학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동지는 '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수난은 동지를 조직가·실천가로서 변모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82년 문을 연 개인연구실인 '상도연구실'은 산업사회연구회로 성장하며 당시 진보학술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진보적 교수운동과 학술운동의 큰 틀로 자리잡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의 창립과 발전에도 동지의 노고가 컸다.

동지는 전노협·민주노총·사회진보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민중연대 등의 고문 또는 대표로 일하며 민중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였다. 동지는 '80년대 이래 기층 민중운동단체들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였다.

동지는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담은 이들에게 부탁하며 먼 길을 떠났다.

반역의 서늘이 굉굉 열군 아랫목에서도 구들장을 깨안고 봄을 빛는 빠알간 한티 불꽃, 그것은 무엇이던가. 바로 김진균 교수가 아니던가. 그렇다.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피눈물이 속절 없이 자자드는 것 같아도 땅 속 깊이 여울지다가 마침내 거센 바다로 굽이쳐 간다는 그 피눈물 한방울은 또 누구던가. 바로 김진균교수가 아니던가. 그 바다의 바람을 깨트리고자 알알이 제 몸을 바쳐, 높고 낮은 데가 없는 큰그릇 한없이 커가는 그릇, 바라란 참말로 누구란 말이다. 바로 김교수가 아니던가.

- 추모집 '벗으로 스승으로'에서 발췌 -

정순덕 (당시 71세)



화장 후 파주 보광사에 위패

1933년 6월 20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매월리 출생
1950년	성석조와 결혼
1950년 9월	남편 찾아 지리산에 입산
1951년 2월	지리산 진양군 유격대에 편입
1952년 1월 18일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남(그 뒤 전사했음을 확인)
1953년 9월	노영호 부대에 편입, 덕유산으로 옮김
1963년 11월	입산 13년 되던 해 지리산 대원골에서 토벌대와 전투 중 다리 총상, 체포됨 (오른쪽 다리절단) 그 뒤 재판에 회부, 무기징역 선고, 대구, 공주, 대전교도소 등 23년 간 옥고
1985년 8월 15일	8·15 특사로 가석방, 음성 꽃동네로 들어감
1988년	자립하기 위해 꽃동네에서 나눔
1989년	부산에서 가족공장 등 노동에 종사
1990년	서울에 올라와 아이스크림 공장, 가구공장 등에서 노동
1992년	구로동에서 양복걸이 공장 등 여러 곳 옮기며 어렵게 살아감
1995년 8월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들어감
1999년 3월 20일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 받음
1999년 4월 6일	오랜 수면 상태에서 깨어남(왼쪽마비)
1999년 4월 30일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옮겨 한방치료를 받아 옴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요구 했으나 당국의 거부로 못 감
2001년 2월 6일	"전향 무효" 선언과 함께 2차 송환 촉구
2004년 3월 16일	전신반점, 고열 등 증상으로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옮김
2004년 4월 1일	오후 7시 15분, 통일조국 그 날을 보시지 못한 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33년 경남 산청에 태어난 동지는 '51년 2월 유격대원이었던 남편 성석조를 찾아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중 '63년 12월 입산 13년만에 지리산 내원골에서 최후의 여자 빨치산으로 체포되었다. 동지는 체포 당시 입은 총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 당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하였다.

출소 후 갖은 고생을 겪다가 비전향 장기수 생활터인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지냈으며, '99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이 마비되었고 그 후로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였다. 쓰러지기 전까지도 복에 간 비전향장기수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2차 송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04년 3월 16일 끝내 의식을 잃고 사투를 벌이던 중 4월 1일 운명하였다.

이영기 (당시 38세)



대구 현대공원묘지에 안장

1966년	출생
1988년	대구새로운청년회 준비위원
1992년~1994년	대구새로운청년회 회장, 대구경북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회장
1993년	한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 통일선봉대 동군 총대장
19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 4년 선고
1998년	출감
1999년~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
2002년	대구경북통일연대(준) 집행위원장
2003년	대경연합 의장, 범민련 대경연합 감사
2004년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의장 대구경북민중연대 공동대표 겸 상임집행위원장 대구경북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2004년 8월 3일	밤 11시 57분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66년 대구에서 출생한 동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과자나 실컷 먹어보라며 과자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채이고 얻어맞으며 굴러다니다 제법 대우받는 기술자가 된 동지가 식민지 땅 군사독재의 슬픈 노동시장에서 마침내 터득한 진리는 노동해방 민중해방은 자주 민주 통일세상이어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그리하여 고생 끝에 얻은 소시민적 안락의 기회도 접어버리고 대구에서 '새로운 청년회'를 조직하고 청년운동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연령으로 구분된 일반 청년이 아니라 노동 농민 여성 등 각 부문의 근로청년운동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였다.

이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부활코자 투쟁의 선두에 선 동지는 구국전위사건으로 4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갓 출옥한 처지였음에도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에서 횃불을 들었다. 그리고 6.15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연합의 최대현안 사업인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지역조직을 꾸리는데 그 누구보다 천신만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동지는 복잡한 정세를 명쾌하게 읊어내는 달변가는 아니었어도, 정치적 입장의 첨예한 대립을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논리정연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해야 할 일과 방향이 정해지면 불같이 자신을 던져 뚫어내는 개척자, 선두자였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족민주운동은 동지가 움직이는 만큼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

전진하여, 앞으로 앞으로만 전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조국 건설의 그날을 위해 멈출 줄 모르고 투쟁했던 동지. 동지는 불혹의 산수유, 거대한 불도저였다.

김남식 (당시 81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25년 4월 23일	충남 논산 출생
1965년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78년	통일원 상임연구위원
1981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1988년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995년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2000년	경남대북학대학원 초빙교수
2000년	통일뉴스 상임고문
2005년 1월 7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충남 논산에서 '25년 태어났다. 일제하 향리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해방 후에는 진보진영에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휴전 후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으며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통일부,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평화연구원 등에서 현대사와 통일 관련 연구활동을 했다. 이러한 과정은 그야말로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의 반복의 연속이었으며 결코 순탄한 생활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역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바르게 발전해 가리라는 확신 속에 항상 낙관주의적 삶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현대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동지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남로당 연구」(1984), 「남로당 연구 자료집」(1974), 「박헌영 노선 비판」(김남식·심지연 공저, 1986),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김남식·이정식·한홍구 공편, 1986) 등이 있으며, 그의 북한과 통일 관련 논문 등 다수가 있다. 특히 「남로당 연구」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 해방정국과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움직임이 학계에서 일기 시작했다. 국적 없는 학문이 아니라 국적 있는 학문, 즉 민족의 자주적 입장을 반영하는 사회과학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00년에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상임고문을 맡아 6.15남북공동선언이 열린 공간에서 통일뉴스를 통해 많은 논문과 칼럼 등을 기고했으며, 또한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수많은 강연을 다녔다. 술한 저술과 강연, 그리고 대담과 대화를 통해 일관되게 '민족주의'와 '민족 자주권'을 설파.옹호해 왔다. 6.15공동선언 이후 발표한 글과 강연록 등을 모아 「21세기 우리민족 이야기」(2004)를 펴냈다. '05년 1월 「21세기 우리민족 이야기」 일본어판 번역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신창균 (당시 98세)



충북 음성 선산에 안장

1908년	충북 영동 출생
1919년	12세의 나이로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경찰에 체포
1940년	중국으로 망명 이후 중경임시정부 마카오 연락책으로 독립운동
1945년	해방 직전 입국, 일제에 구속
1945년 8월 16일	해방 후 석방
1946년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1948년 4월	남북협상 한국독립당 8인 대표 일원으로 방북
1949년	백범 김구 임시정부 주석 국민장 장례 실무 총책임자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옥고
1961년	통일사회당 총무 및 정책심리의장
1988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고문
1990년	전국민주민족운동연합(전민련) 공동의장, 범민련 공동의장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범민족대회 대회장
2001년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금강산) 주석단 공동대표
2005년 3월 5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08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열두 살 때 3·1 운동에 참가하였다. 경찰 주재소를 파괴하였던 동지는 일본 헌병에 붙잡혔지만, 나이가 어려서 매만 맞고 풀려났다. 이때 동지의 내면에 뿌리내린 민족자존 의식이 한평생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40년 6월 중국으로 망명했다. 동지는 마카오에서 사업에 성공해 탄탄한 재력을 갖춘 뒤, 임시정부 마카오 연락책을 맡았다.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고, 중국의 일본군 동태를 보고했다.

해방직전 귀국하여 활동하던 동지는 일제에 구속되어 수감중 '85년 8월 16일 감옥을 나왔다. 해방 정국에서 동지는 '남북 통일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백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복 뒤 조선 최대의 성냥 회사를 경영해 남한에서 몇 손가락에 안에 꼽힐 정도로 부자였던 동지는 한국독립당(한독당)의 중앙집행위원 및 재정부장을 맡았다. '48년 4월 동지는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위해 백범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에 백범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에게 사업체를 빼앗기고 정치 활동이 묶이는 등 가시밭길을 걸었다. 동지는 평화통일정책에서 백범을 계승한 죽산 조봉암을 도와 진보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59년 7월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동지는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자 혁신계 인사로 분류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 동지는 반독재와 통일운동의 길을 걸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활동 등을 통해 각종 집회와 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의 맨 앞자리를 지켜왔고, '03년 12월 공개유언에서 "하루 빨리 통일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지는 '05년 3월 5일 통일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였다.(2005. 3. 6 한겨레 기사 발췌)

동지는 생전에 저서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을 1997년에 발간하였다.

II

열사·희생자 관련 논문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간 사람들_김학철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현황과 과제_이영재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현황과 과제_문종석
- 추모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_편집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간 사람들

- 의문사 가족들¹⁾의 투쟁역사 -

김학철²⁾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알아질 것이지만.

1) 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르기 위한 길에서 법정정 과정에는 “유가족 소속 유가족들”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1996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 가며 투쟁을 전개 해왔다. 법정정 이후부터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이하 ‘유가족대책위’)와 추모연대, 그리고 계승연대 소속단체들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문사 유가족들” 또는 “의문사 유가족” 등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입법을 위한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편의상 이 글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1988년 10월 17일 의문사 유가족협의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기독교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한 때부터 기술한다. 그 이전의 투쟁과 관련하여서는 김유진,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청산 운동의 동학-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3~5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 유가족대책위 간사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전 추모연대 진상규명위원장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같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³⁾

들어가며

가지 않은 길.
그랬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가지 않은 또 다른 길에 대해서도 미련과 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도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프로스트’가 말한 “노란 숲 속에 난 똑 같이 아름다운 두 갈래의 길”은 아니었다. 의문사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두 갈래 길 중에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서처럼 잇고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진상규명의 노정을 걸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⁴⁾ 위원장인 허영춘⁵⁾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3)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Lee Frost 1874~1963] 미국 시인.

4) 이하 ‘유가족대책위’로 표기함.

5) 허원근 일병 부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겸임.

“아들을 잃고 난 뒤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모두 저주스럽고 한스러우며 이웃보기가 부끄러웠다. 어린 아들 딸들을 볼 때도 무능한 아버지라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갑작스레 형과 오빠를 잃은 어린 아들딸들의 얼굴에 항상 슬픈 표정이 배인 것을 볼 때는, 무어라 할말을 잃고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돈이 만들어지면 주머니에 넣고 그냥 전국을 돌며 흑사나 하는 바람에서 당시 사병들을 찾아 봤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그냥 소득 없이 집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 못 먹는 술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다 깨어보면 옆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집사람을 볼 때는 할말이 없었다. 못 먹는 술을 억지로 먹다보니 위장병이 생겨났고 집사람은 뼈에 가죽을 두른 허수아비가 되어 갔다. 서로 마주 앉아도 할말이 없고 집안에 웃음을 잃고 사는 세월은 너무나 비참했다.

살아 있을 때 잘해줄걸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나머지 애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 표현을 할 수도 없었다. 원근이가 대학시절에 부산에서 떨어져 살면서도 동생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보내 주었는데, 제 형이 죽은 뒤에 그 신을 빨 때마다 흐느껴 울고 그 신이 다 달도록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본 하숙집 아주머니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족이 무엇이기여, 정이 무엇이기여 지금까지도 가슴 깊은 곳에서 몽쿨 하는 무엇이 솟아나오면 눈물이 흐르는지를 알 수 없다. 세월이 가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군가 말을 했다지만, 상급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자살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지는 이 비참함을 이 세상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느끼지 못할 일이다.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고 소리쳐 봐도 소용이 없겠지만, 아들의 시신 앞에서 하였던 ‘반드시 자살이라는 누명만은 벗겨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못하고 살아온 18년 세월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 약속 때문에 나는 1998년까지 아들이 유해가 안치되어 있던 춘천 공동묘지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었다. 그곳으로 찾아가면 아들의 유골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가져오면 묻고 잊어버리면서 편히 살 것 같아서였다. 사랑이 무엇이기여 약속이 무엇이기여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살아 왔던가. 왜 눈물은 마르지를 않는지. 남자가 왜 울어 하고 입술을 깨물어 보지만 눈물은 막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그동안 아들과의 약속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과는 달리 따듯한 표현 한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⁶⁾

또 다른 의문사 유가족 김을선⁷⁾님은 한 탄원서⁸⁾에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들의 다방면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사법당국에 이르기까지 진정서 제출만도 20여차례, ... 진정인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0년이 넘게 자식의 유골을 땅에 묻지 못하고 각계에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밝히려는 진정인 김을선은 백방으로 뛰어 다니다가 감옥에 갇혀 수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찰철창 신세를 밥 먹듯 하는 운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정인의 진실을 알리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명백한 진실이 밝혀져 죽임을 당한 자식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고 유골이라도 고이 묻어주며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고통 받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건의 재조사 명령만이라도 내려, 다시 사건을 재수사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개별사건 진상규명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1988년 10월 17일⁹⁾ 의문사 유가족협의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기독교회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집단적인 투쟁¹⁰⁾을 시작하지 정확히 12년 만인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¹¹⁾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¹²⁾가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6) 허영춘, 인물과 사상, 2002. 12 게재 글

7) 창원 대우중공업 노동자로 의문사한 정경식의 어머니, 의문사 진상규명이 안되면 일가족이 음독하겠다고 지금도 비상을 가지고 다닌다고 함.

8) 1996년 1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진 탄원서, 박원순,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1997년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1997, 30쪽

9) 10월 17일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문사”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날이다. 1969년 10월 17일 삼선개헌 확정일,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선포일.

10) NCC인권위 사무실에서 이일부터 1989년 2월 27일까지 135일간 농성을 함.

11) 이하 “의문사법”으로 표기함.

12) 이하 “위원회”로 표기함.

13) 이 글에 지난한 투쟁 과정을 다 담을 수는 없으므로 중요한 사항을 흐름에 따라 기술한다.

1. 가지 않은 길 – 입법을 위한 투쟁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한 운동의 양태는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 과정과 수단 등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며 진행되었다.

1-1. 제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의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전체 299의석 중 125석으로, 야당인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무소속 10석 등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의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제13대 국회는 1988년 6월 11일 청문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6월 27일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¹⁴⁾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¹⁵⁾, ‘양대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11월 3일

14) <http://www3.assembly.go.kr/file/2002000112000110203253.htm>, 이하 '5공 특위'라 표기함. 1988년 6월 21일 여·야의 김윤환·김원기·최형우·김용채의원과 186인으로부터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제142회국회(임시회) 제9차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위원수는 31인으로 하되 각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구성하였다.

이 특위는 1988년 7월 7일 제1차위원회를 연 이래 전직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한 1989년 12월 31일의 5공·광주특위연석회의까지 모두 36차의 위원회 전체회의 조사활동(5차의 전체회의현장조사활동별도)과 4개소위원회의 38차 조사활동 그리고 4개조사반의 22차 조사활동을 통하여 동특위조사대상 44건중 9월 해 재단의 설립배경 및 자금조성관련 비리(세세대육영회·세계대심장재단관련 비리) 대 양 사건(청교교육대의 인권비리) 실기업조사(조사대상: 국제그룹, 경남기업, 대한선주, 명성그룹, 일신제강, 공영토건) 관련관련비리조사(조사대상: 의문사, 10·27법난, 서울제일교회폭력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 관계기관 대책회의) 대통령 별 장(청남대 건립 및 대청담수문조작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의혹 조사) 전 두 환 전대통령 부모모 성역화비리 각 시도지사 공판내 대통령 전용시설 건립비리 전 두 환 전대통령 일가의 비리 및 재산 해외도피의혹 드 롱 항공기사건 공 프 장 인가과정의의혹 정 회 전대통령 서거직후 청와대 재산 행방의의혹 1980년 부정축재 환수재산 처리의혹 원전 11, 12호기 도입 및 수주관련의혹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 1980년 공직자 숙청 이상 20건(부산하이아트호텔 인수설, 명성사건 및 장영자어음사기 사건은 부실기업에 포함)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조사대상 44건중에는 포함 안된 기타사항으로 언론통폐합, 정치자금, 6·29선언 등에 대하여 증언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15) 이하 '광주특위'라 표기함. 1988년 6월 22일 제142회국회(임시회) 제3차국회운영위원회는 1988년 6월 21일 여(민주정의당), 야(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가 각각 발의한 5·18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폐기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특위는 특별위원수는 28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위원수는 각 교섭단체의의석비율로 구성기로 하였다. 이 조사특위는 위원회전체회의를 총 32회 열었으며 이중 17회가 청문회 방식이었다. 현장 검증소위원회는 총 6회, 한미관계소위원회는 총 4회, 그리고 제5공화국청산차원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출석증언형식인 5공, 5·18광주특위연석회의는 총 2회(청문회방식 1회) 또 총무처와 육군본부를 조사대상으로 한 자료 검증반 및 광주현장 조사반도 몇 차례 활동을 가졌다. 또한 이 특위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등 106인의 증인과 정상용 등 연 30인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들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증인들간의 증언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규하·전두환 전대통령 등 5·18 광주특위의 청문회증인출석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두차례(89.1.26, 89.2.22) 씌어나 불응 거부하였다.

부터는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1980년 이후의 언론통제 및 1980년 언론인해직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의정사상 최초로 열린 이 청문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문사유가족들은 10월 6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군대내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¹⁶⁾를 발족하였고, 10월 17일에는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유가족협의회’ (초대 회장 임분이¹⁷⁾)로 확대 개편하여 발족함과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한 집단적인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다음 해인 1989년 2월 27일까지 전개되었는데,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및 폭로대회’¹⁸⁾를 개최하였고, 정기국회가 열리자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다 전원 연행당하기도 하였으며¹⁹⁾, 전두환·이순자 구속 촉구 행진 후에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회’²⁰⁾,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회’²¹⁾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와 시위를 직접 개최한 이외에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고양되어 다양한 집회나 시위가 열렸는데, 거의 모든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여²²⁾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전투경찰과 대치하는 최전선에는 항상 의문사 유가족들이 있었다.²³⁾²⁴⁾

16) '군 의문사' 사건 유가족들이 의문사 유가족들의 조직적 출발점이 되었다.

17) 1987년 대선 당시 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사망한 정연관 상병 모친.

18) 1988년 10월 27일

19) 1988년 10월 29일

20) 1988년 11월 12일, 명동성당, 5백여 명 참가하여 촛불 행진과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 전개.

21) 1989년 2월 11일

22) 집회나 시위 이외에도 당시 빈번하게 열린 시국사법 재판에도 참여하였는데 1988년 11월 14일 '미대사관 사제 폭발물 투척사건' 재판 방청 도중 박선영(서울고대 재학 중 사망, 초기에는 의문사로 분류), 정연관 모친이 재판부에 항의하다 법정소란죄로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여, 20여명의 의문사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철야 항의농성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박선영, 정연관 모친은 1989년 2월 27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시국사법의 재판에 항의하다 스스로 시국사법이 되는 일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등의 문제와 1989년 2월 22일 5공 특위에서 의문사 사건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의문사 유가족들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기독교회관에서의 135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23) 농성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의문사 가족들이 농성에 합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직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1988년 11월 당시, 의문사 유가족들 35명이 농성에 참여하였고 회원 가입을 하였다.

24) 이렇게 전투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당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거나 하는 등으로 격리되었으나 형사 입건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88년 11월 16일에는 우중원, 김성수, 정경식, 이태춘(19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에서 최루탄 피격으로 사망, 한동안 의문사로 분류) 모친이 집사법 위반으로 각각 7~10일간 구류 즉결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1988년 12월 24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항의농성 진행하던 중에 이이동 부친 등이 경찰에 맞아 병원에 입원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안산, 광명, 안양경찰서에 부산 연행되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에 설치된 5공 특위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는데, 1989년 2월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특위에서 각 기관에 의문사 사건 수사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 하였고, 정연관 사건의 경우 ‘양대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조직적인 위증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였다.²⁵⁾ 우여곡절 끝에 5공 특위에서 의문사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일정이 잡혔으나,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TV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²⁶⁾ 이렇게 5공 특위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우 정권이 검찰을 통하여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 수감하는 선에서 5공청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으려하는 기류가 일어나자,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 해결없는 5공청산 기만이다’라는 구호아래 전민련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⁷⁾ 그러나 1989년 12월 31일 온 국민이 TV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전두환이 5공 특위²⁸⁾와 광주 특위²⁹⁾의 연석회의에 출석하여 1백25개 항목의 서면질문에 답변했으나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1980년 5월 22일 자위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거론하자 회의장 및 방청석이 극도로 소란한 가운데 회의진행이 곤란하여 이기택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전두환 출석이라는 모양 갖추기만 한 채 사실상 특위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월 3일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5공청산 작업의 종결을 선언했고, 1월 22일 청와대에서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삼당 합당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국회 5공 특위를 통해 이루려던 의문사 유가족들의

25) 2004년 7월 14일 위원회는, “1987년 12월 단순 군기관권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던 정연관 상병이 군부재자 투표시 여당지지 및 비밀투표 방해 등의 선거부정행위와 관련 야당 기표자 발생에 따른 구타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회 청문회과정에서도 헌병대 수사 내용대로 위증을 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6) 당시 5공 특위 이기택 위원장은 의문사 유가족 등의 이 같은 거부 의사에 대해, “그래도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속기록에 남게 되어 훗날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였다 한다.

27) 1989년 12월 11일 전민련에서 농성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농성 장소를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들에게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투쟁을 끝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인 1989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전두환 국회 증언, 정호용·이희성 공직 사퇴 등 11개항을 이행하는 선에서 5공청산을 합의하였다.

28) 제150회국회 임시회 중인 1990년 7월 5일 제38차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는 강신욱 위원(민주자유당, 조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특위조사결과보고서작성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여당인 민주자유당소속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 조사보고서를 이의 없이 특위안으로 채택하였다.

29) 이 특위는 여·야의 의견불일치로 특위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1992년 5월 29일 제13대국회 임기만으로 소멸되었다.

투쟁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³⁰⁾ 그러나 비록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겪으면서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주화운동 세력 내에서도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과, 의문사 유가족 등이 단순히 피해자의 차원을 벗어나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는 점이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김영삼 정권 시기의 진상규명 청원과 입법 준비

1-2-1. 진정과 청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김영삼 정권시기에 청원³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권을 압박하여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는데, 첫째,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하였던 것을 피부로 느껴왔던 경험에서 비롯된 직접적 요인이 하나 있었고³²⁾, 둘째, 김영삼 정권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색 단계에 있었던 요인³³⁾, 그리고 셋째 요인으로는 5공 특위에서의 진상

30) 국회 5공 특위에서 얻은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우선 5공화국 당시 발생한 신호수, 우종원, 김성수 등의 사건들과 허원근, 최우혁, 정연관, 김영권, 박필호, 박상구, 등의 군 의문사 사건, 김두환, 정성희, 최은순, 한영현, 한희철, 이윤성 등 녹화사업 관련 사건 기록들이 제출되었고, 정연관 사건 청문회에서는 허위 진술한 기록들이 남아 이후에 의문사진상규명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31)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는 것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권리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보장한다(헌 26).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123~126),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65~68),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32) 의문사 유가족들에 따르면 기독교회관에서 농성하던 당시, 5공 특위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상도 출신 유가족들은 김영삼 총재 집으로, 전라도 출신 유가족들은 김대중 총재 집으로 각각 나누어 들어갔는데, 한 쪽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에 대해 흔쾌히 수락하였으나, 다른 한 쪽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였다 한다. 그리고 유가협 건물 구입을 위하여 서화전을 열었는데 한쪽에서는 총재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다른 한 쪽에서는 완전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33) 김영삼 정권 초기 상당기간 동안 민주화운동 세력은 오랜 군사정권 시대를 벗어났으나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정권의 성격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며, 그러는 동안에 변변한 집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하였다.

규명 좌절로 겪은 후유증³⁴⁾으로 상당기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였던 관성적 요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순박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그 시도는 1993년 4월 13일 허원근 등 군의문사 사건 11건에 대한 진정서를 국방부 특감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3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기점으로 하여 의문사 전면재조사추구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1994년 11월 4일 의문사 진상재조사 추구를 위한 10만 여명³⁵⁾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³⁶⁾할 때까지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집회는 물론이고,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서명을 받는 등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교포들의 서명까지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19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에 허원근, 우종원, 정경식, 김성수 등 13건의 의문사를 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진정이나 청원도 정부와 정치권은 귀 기울여 주지는 않았다. 국방부 특감단에 제출하였던 진정은 관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진정은 허원근 사건에 대해서 자살로 보기 어렵기에 재조사하라고 육군본부에 이송하였다는 회신이 왔으나 그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으며, 국회에 전면재조사 추구를 위한 청원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채 1996년 5월 29일, 14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10만 여명의 서명 용지는 폐지공장으로 가고 말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이 진정 청원 과정을 주도하였던 허영춘님이 스스로 법의학 공부를 하고 5공 특위 과정에서 입수한 의문사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34) 5공 특위에서의 진상규명 좌절로 겪은 후유증은 의문사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가져 왔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쫓아 다녔으나 그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데다, 집단적인 투쟁을 장기간 계속하면서 집단적 자신감이 형성되었고,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고양기에 실시된 특위에서의 청문회는 의문사 유가족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던 것이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자 급격한 허탈감으로 작용되어, 1990년 11월 12일에는 이 이등 부친이 의문사 유가족들과, 대통령, 국회의장에게 각각 의문사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고, 1991년 3월 6일에는 최우혁 모친이 이들을 군대에 보내어 의문사 당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으로 실어증에 시달리다가 한강에 투신하여 운명하였다.

35) 거대한 조직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10만 여명의 서명을 일일이 받는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36) 청원 소개의원으로는 이부영 의원 외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1-2-2. 입법을 위한 준비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은 김영삼 정권 중반기까지는 진정과 청원 운동으로 전개되다가 김영삼 정권 후기인 1996년 하반기부터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³⁷⁾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을 재검토한 결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일은 정치 사회의 역관계뿐만 아니라 의문사를 야기한 법적·구조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이를 청산하는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려 하는 조급성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전개해야 하며, 아울러 단순한 구호 차원이나 감성적 차원에서 벗어나 논리적 토대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 하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3차례 정도의 학술회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론적 근거들을 확보하였다.

여기서는 학술회의 등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의문사 해결 방향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

1997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왔던 장기표³⁸⁾는 ‘포괄적 청산론’을 제안하였다.

“...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군사독재시절의 부정적 유산들에 매달려 민족사 전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미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사독재기간 탄압한 사람과 탄압당한 사람이 새로운 전진을 위해 화해할 필요가 있겠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을 구속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두 사람을 구속하는 일로 군사독재에 영합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37) 이 시기부터 1993년에 발족하여 그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합동추모제를 치르는 행사를 실무적으로 진행해 온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사업회 연대회’가 처음으로 상근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상근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가족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주체로서 의문사 유가족 등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38) 당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이 모든 것을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의 책임을 다 규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면 차라리 21세기로의 전진을 다짐하면서 군사독재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

따라서 본인은 시대적 과제와 정의구현의 차원에서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서 가해자를 사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

장기표의 이 같은 포괄적 청산론에 대해 그해 6월에 개최된 제2차 학술회의에서 박원순³⁹⁾ 등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박원순은 발제를 통해 ‘진상조사 최우선론’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포괄적 청산론’을 비판한다.

“지난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의문사는 뭐니뭐니해도 우선 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이다. 먼저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 명예의 회복, 배상과 가해자 처벌 등의 그 다음 단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음모나 보복에 의해 학살된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가해자 또는 국가에 대한 요구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을 가리는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가 가장 선결과제이다. 특히 의문사 사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의 혼미, 증인의 사거, 증거의 인멸 등에 의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들어진다. 이 모든 증거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천정배⁴⁰⁾도 포괄적 청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실현방법을 제시하였다.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인 청산’은 바

39) 당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40)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람직하지 않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진상조사를 담당할 주체(또는 기관)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진상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강제조사가 주어져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구인 또는 구속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이 기구는 첫째, 검찰 수사권에 필적하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기구의 협조요청에 반드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과정을 매 분기별 또는 월별 보고 등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⁴¹⁾

이렇게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논리적 근거들을 확보함과 아울러 1996년말부터 과거청산국민위⁴²⁾가 출범함에 따라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아들 등 사회지도층 병역비리를 항의하는 농성을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9월 1일에는 신한국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다 끌려 나오기도 하였다.

아래는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다.

- 항의서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에 있는 우리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사회지도층 자제들에 대한 병역면제의혹규탄과 강제징집 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학생들의 사인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41) 천정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1997년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1997, 91~92쪽

42)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의 2차 공판이 있던날 '5·18 완전 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발족하여 1997년 한 해 동안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대선 이후 가진 진로 논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추모연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소집이 되지 않다가 자연 소멸되어 버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등 정치권, 재벌 자체들에 대한 병역면제비리를 보며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돈과 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병역에까지 비리와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한 어느 누구도 사죄하고 책임지는 이가 없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더더욱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이 크다 하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태를 막는 길이다.

과거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과 군대 내에서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5·6공 치하에서 군대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안기부, 보안사 등에 의해 살해된 뒤 의문의 죽음으로 위장된 28명에 대한 진상규명도 실시하라. 이것은 문민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의 여망이다. 이것은 신한국당 총재이며 대통령인 김영삼씨도 야당총재시절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1백35일간의 장기농성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그리고 수차례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우리의 소망을 짓밟는 것과 동시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직접 신한국당사까지 항의방문을 오게 된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이회창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 신한국당은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3. 강제징집, 의문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을 즉각 실시하라!
4.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5.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합동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

1997. 9. 1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자 3당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화 요구를 진행하였다.⁴³⁾ 이와는 별도로 1997년도에 3차례에 걸쳐 학술회의에 참여하였던 25인의 인사들이 연명한 촉구서한도 발송하였다. 공약화 요구에 대해서 신한국당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하면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이 왔으며, 국민승리21에서는 공약에 반영시켰다.

1997년 12월 추모연대 송년 모임에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법제정을 1998년도 주요 사업으로 벌려 나간다는 기안을 발표하고 해를 마감하였다.

1-3. 김대중 정권 시기의 입법 투쟁

1-3-1. 1단계 투쟁 (1998. 4. 24 ~ 5. 30)

1998년도에 들어서서 법제정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한 해 동안 학술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해 나갔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여 더욱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자칫 김영삼 정권 시기에서의 청원처럼 휴식조각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에 법안 성안을 의뢰하여 국회에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로는 매일 법제정 캠페인을 진행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고, 2단계로는 주 1회 투쟁을 하되 의문사를 야기한 공안기관 해체 투쟁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3

43) 1997년 10월 14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새천년 민주당, 신한국당, 국민승리21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단계로는 법제정이 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준비 조직 단계를 충분히 가져 투쟁을 시작한 이후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예정대로 1단계 대국민캠페인은 진행되었다. 서울역 광장에 걸개그림과 열사, 의문사 대자보 등을 전시하고 영정 사진들을 깔아 놓고 마이크로 호소를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에서는 서명을 받아가며, 장대비가 억수처럼 퍼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웬만한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 할까하는 행사를 매일같이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 거점 투쟁 외에도 크고 작은 집회마다 찾아다니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기할 만한 일은 당시는 IMF 시기로 서울역 광장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이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 노숙자들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넣어 둔 지폐를 꺼내 모금함에 넣거나, 의문사 유가족들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하였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푼돈에 불과 했겠지만 노숙자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액수였다. 그리고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빠 지나가면서도 서명에 참여해 주거나 모금함에 돈을 넣는 반면에,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은 고개도 한 번 돌리지 않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 버리기 일수였다.

이러던 중인 1998년 5월 민변에 아래와 같은 골자로 법안 성안을 공식 요청하였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법안과, 진상규명 법안 [1]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포함한 과거 청산 전반을 다루는 방안, 2)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 중에서 검토하여 특검제 성격]

민변에서는 이 요청을 수락하여 7월 경 이상훈, 윤기원, 정태상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법안 성안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민변에서 진상규명 관련 방안을 검토한바, 과거청산 전반을 다루는 진상규명법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도 어렵다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성안하게 되었다.

1-3-2. 2단계 투쟁 (1998. 6. 1 ~ 10. 30)

1단계 투쟁 이후 곧바로 2단계 투쟁으로 돌입하였다. 주1회 금요일(고난일)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의문사를 야기한 국정원, 기무사, 대공분실 등에 항의 방문하는 투쟁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하였으며 운동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입체적인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2단계 캠페인은 예정보다 더 길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당초 준비하였던 대통령 면담을 통한 약속을 받는 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도 있었고, 법안 성안도 늦어진 이유도 있었다. 2단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계획하였던 대로 의문사를 야기한 공안기관들에 대한 항의방문 투쟁을 병행하였다. 먼저 국방부는 5월 25일에 갔다 왔고, 6월 12일에는 안기부 앞에서 항의방문 투쟁을 하였으며, 기무사 항의방문 투쟁도 6월 19일 진행하였다. 그런데 6월 26일 경찰청 항의방문 투쟁을 하다가 의문사 유가족 등 12명이 강제 연행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각 경찰서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다음 날 즉시에 회부되어 벌금 3만원씩을 납부한 뒤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하면 기관들에 대한 항의 방문 투쟁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투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기에 집회신고를 내고 7월 1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연일 계속 하였다. 날씨는 무더운데다, 소나기도 퍼 부었고, 경찰청장은 사과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집회방해만 하는 일이 반복되자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만 끝내길 원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게 되면 정말 향후 투쟁 자체가 위태로울 상황이었기에 청장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강행하기로 하였다. 언론에 취재를 요청하여 7월 10일 「“의문사 규명” 경찰청장 면담 집단 요구에 “신고 않고 시위하였다”...전원 즉시에 넘겨»라는 박스기사가 보도⁴⁴⁾되자 국면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당장 보안국장이

44) 서울신문, 1998.7.10, “유기협 ‘이유’ 있는 빗속 시위” 제하의 박스 기사

나타나서 자기가 면담하겠다는 것을 일언지하에 거부하자 7월 14일 경찰청장이 면담을 하겠다고 하여 항의집회를 중단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장, 보안국장, 그리고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구에 따라 6월 26일 연행 현장 책임자였던 서대문 경찰서장을 배석시켜 경찰청장의 사과와 서대문 서장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경찰청 항의 집회를 마감하였다. 이 일을 통해 의문사 유가족 등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노사정위원회 항의방문⁴⁵⁾을 하고 국회의원 초청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경, 이수인, 이길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여야 공동으로 의원입법하자는 것과 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바로 여야의원들 규합에 나서 국민의 장영달, 이길재, 천정배, 유선호, 한나라당 이부영, 이미경, 이수인, 이신범 의원이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등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⁴⁶⁾, 8월 3일 결성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여야의원 65명이 국회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회 특별위원은 국회의 장영달, 이길재, 천정배, 유선호, 김근태, 김영진, 김충조 의원 등 39명, 자민련 이규규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이미경, 이수인, 이신범, 김수한, 강삼재, 안상수의원 등 25명이었다.⁴⁷⁾

9월 1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1998년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2차 학술회의에서 민변에서 성안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과 민족민주유공자의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안이 발표되었고, 9월 14일 조계사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죽음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후 국회의의에 전달하였다. 다음 날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갖고 청원 소개의원 이길재 외 58인, 청원인 이창복 외 5만2천8백98인이 국회에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의죽음진상규명특별법 국회 청원을 하기에 이른다.

45) 1998년 7월 24일
46) 국민일보, 1998.7.30
47) 서울신문, 1998.9.16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은 유가협, 추모연대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당(국민회의)이 협력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⁸⁾ 그리고 10월 30일, 5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지에서 진행한 2단계 투쟁을 마무리 한다.

1-3-3. 3단계 투쟁 (1998.11.4~1999.12.30)

1998년 11월 4일 드디어 여의도에 천막을 쳤다. 천막농성을 감행하게된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짜여졌고 계획대로 실행되어온 점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확약⁴⁹⁾을 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천막 농성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살아 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어 간 뒤, 우리는 독재 정권과 주변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도 오로지 목숨을 바쳐야만 했던 그 염원이 옳았다는 신념으로,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살아왔다.

목숨을 잃은 가족들에게 독재 정권이 씌워 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가 살해하고 나서 자살로 은폐시킨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 간 가족들의 뜻을 깨닫고 자랑차게 민족민주운동을 해 나가는 투사가 되었다.

48) 한겨레, 1998.10.21

49) 대통령 면담을 통해 법제정 확약을 받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에는 6월경 면담을 하려 하였으나 차일피일 늦어져 10월에야 성사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5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내왔다.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유가족 회원들이 하나, 둘 세상을 하직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억울함과 분통한 심정으로 피울음을 삼켜야만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 통한의 세월 동안 싸워 왔던 '명예회복,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마지막 힘을 모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병들어 몸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유는,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이를 반드시 이뤄 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한 여름의 퇴락별을 고스란히 받으며, 집중 호우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목이 쉬도록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외쳐대었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서명하였고, 대통령도 법제정을 지시하였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법제정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 앞에 두 번 죄인이 되는 것에 다를 아니다.

우리는 법 제정이 될 때까지 국회 앞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시는 우리와 같은 부모들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998년 11월 4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일동

이 때까지만 해도 천막농성이 4백22일간이나 계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첫날에는 집권여당 앞인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앞에도 천막을 쳤다. 그런데 국회의원회 인권위원장의 부탁⁵⁰⁾으로 다음 날 국민은행 앞으로 천막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천

막농성 장소를 옮긴 것은 순진함에서 비롯된 실책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장소를 옮김으로 인해 천막농성이 장기간 지속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애매한 장소인 국민은행 앞으로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요구라는 상징성은 획득할 수 있었지만, 여야 어느 정당도 집중적인 압박을 하지 못해 그들을 풀어주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법제정에 대해 언급 하였고, 농성 이후에도 언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경주하지 않았다.⁵¹⁾ 한마디로 '령'이 서질 않은 것이다. 심지어 당직자 중에서는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하였다.

천막 농성 주체들은 농성 다음날인 11월 5일부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발단은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만나고 나서부터였다.

법제정 요구에 대해 “두 가지 법 모두 만들 수는 없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예회복법의 경우 그 대상자가 너무 많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곤란하다”는 요지로 답변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농성 대오는 술렁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는 두 가지 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서 해 왔는데,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날 이후에도 국회의원회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제각각 이 같은 말을 하고는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회복법만 만들겠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였다. 의문사 유가족들의 경우 두 가지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 하등 이의가 없었고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명예회복법에만 해당되는 유가족들 중에서는, 두 가지 법을 다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문사법 때문에 명예회복법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⁵²⁾ 의문사 유가족들에게 포기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다. 이 문제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유가족들의 천막농성투쟁을 담은

50) 집권여당인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 곤란하니까 장소를 마련해 줄테니 옮겨 달라.

51) 이는 공동여당이라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오랜 기간동안 야당으로 있다가 집권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적 당 운영 관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제15대 국회가 1996년 5월 개원하였고 15대 대통령이 1998년부터 임기 시작을 하여, 농성을 시작한 11월까지 집권여당이라는 변화된 상황으로의 당 체제 정비가 안되었다고 판단된다.

52)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였다.

장편 다큐멘터리 '민들레'⁵³⁾에도 이와 관련한 장면이 일부 나오는데, 농성 25일째인 11월 28일 농성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민들레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다.⁵⁴⁾

A: 우리 의문사가 아닌, 우리 가족들도 이제는 한 말씀씩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의문사 때문에 명예회복이 못 올라갔다, 또 같이 가자고 해 놓고 왜 명예회복만 던져 주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B: 우리가 성급하게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큼니다.

A: 누가 결정하자고 했나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먼 훗날에 잘못됐을 때,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했소.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농성 참석한 사람들은,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정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B: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A: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B: 양자택일을 하라고 받아들였어요.

...

A: ...지금 현실을 얘기하자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C: 의문사가 귀찮은 존재, 이런 존재로 말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의문사를 떨 것이냐,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 양론간에 말을 지금 한다는 것이 이게 시기상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회복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다 알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의문사로 죽은 사람들은 경찰이 연행해 가지고 고문해서 죽이고

갖다 버리고, 다 이런 문제들이예요. 안기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걸 발칵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며는 우리 의문사 가족들은 상당히 서글프죠,...

B: 제가 하는 말 잘들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이 유서에 제 한 몸이 죽어짐으로서 여러 사람이 살아가고, 조국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한다고 했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솔직히 ○○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나 혼자 나가요. 어디라도 가죠. 그러나 가가 죽은 유서에 남긴 것이 자기 하나만 위한 것은 아니예요. 공동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날 회의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성 자체가 와해되거나, 천막을 따로 치고 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열리는 회의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포기하지는 않되 법제정 우선권을 양보하기로 하였다.

국민회의는 12월 11일 의문사법은 제정하지 않고 '인권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명예회복법을 발의하였다. 해를 넘기고, 1999년이 왔다. 마지막 임시국회도 1월 7일 폐회되었지만 어느 법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던 차에 국방부 특조단에서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⁵⁵⁾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⁵⁶⁾와 연대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자체에서 마련 중인 법안에 반영하는 노력과 아울러 올바른 인권법 제정 투쟁을 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법무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 국무

55) 한겨레, 1999.2.2, "군내 의문사 이달 중순 재수사. 시민단체선 "특조단 조사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 "의문사가 일어난 해당 기관이 진상규명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의문사 접수 등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6) 1998년 9월 17일, 비민주적 인권법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는 투쟁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30여개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결성. 1999년 4월 29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까지 활동.

53) 최하동하·이경순, 1999, 다큐멘터리, 빨간눈사람, 1999년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

54) 화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A: 회의주재자, B: 의문사 아닌 유가족, C: 의문사 유가족으로 표기한다.

회의를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⁵⁷⁾을 내었고 3월 29일에는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삭발식⁵⁸⁾을 거행하였다. 아래는 성명의 일부이다.

「인권법」기만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국가인권기구에서의 의문사 진상 규명도 진상 규명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해 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노동운동 과정에서 기업주 등에 의해 살해된 경우 등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고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법안 제40조), 둘째로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증언, 자료제출 등 모든 조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법안 48조) 의문사 진상 규명뿐 아니라 일반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마음 먹은대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증인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제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과 추모연대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정부와 당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인권법을 통해 하고자 한다면 진상규명이 보장되도록 인권법 내에 별도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통해 하고자 한다면 당정이 이를 공표하고 조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음날인 3월 30일 인권단체들과 의문사 유가족 등은 기만적인 인권법 국무회의에서 통과 반대를 외치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경찰차에 실려 격리되기도 하였고, 3월 3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인권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권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10년이상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온 노력이 무위로 끝나버리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농성 중에 또 하나의 농성을 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아침에 국민회의 앞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기습적으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국민회의 당사를 점거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라며 단식농성을 감행하였다. 농성은 명예회복 유가족들의 농성 중단 종용으로 4월 8일까지 진행하다 종료하였다. 이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올바른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인권운동가 단식농성에도 일부 결합하였다.

1999년 내내 국회는 회기가 계속되었다. 이른바 방탄국회였다.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경식, 이신행, 서상목, 정형근 의원 등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99년에는 '서상목 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시국회가 계속 열렸지만 실제로 상임위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⁵⁹⁾

국민회의는 의문사법에 대해 계속 이렇다 할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6월 2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요구하는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을 또 한번 감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민회의는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이 나서서 의문사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6월 11일 국민회의에서 작성한 의문사법 시안⁶⁰⁾을 가지고 1차 법안검토 실무회

57) 1999년 3월 24일자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 회장 배은심, 의문사지회장 허영춘)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가인권기구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보완하던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58) 농성을 담은 다큐멘터리 '민들레'에도 이 장면이 담겨 있는데, 제작자는 제작일지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 "삭발식, 흐려진 뷰 파인더, 눈물로 찍어낸 화면을 관객들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날 삭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원근 부친, 신호수 부친, 최우혁 부친, 김성수 부친, 이덕인 부친, 박필호 부친, 그리고 정경식 모친이 많은 사람이 말리는 데에도 삭발을 감행하였다.

59) 이렇게 열린 열린 방탄국회였기에 의문사유가족 등은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가 생겨 한 편으로는 농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0) 이 시안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성안한 의문사법안, 그리고 인권법공대위 차원에서 조용한 변호사가 성안한 인권법안, 법무부가 작성한 인권법안을 기초로 하여 국민회의에서 시안을 만들었음.

의를 가졌다. 특별법 제정의 가닥이 잡히자 의문사유가족 등은 6월 12일 국민회의 점거농성을 풀었다. 6월 14일 이상수 의원 등과 2차 법안검토실무회의를 가졌고 차후에 다시 법안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 조속히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6월 24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기자회견 형태로 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법무부간의 당정협의를 하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제출에 대해 합의하고, 8월 2일 이상수 의원 외 1백57명이 공동여당 안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의문사 유가족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친 내용은 아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안 검토 실무회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내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의 대상을 의문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고문이나 실종 등의 문제까지 확대
- 2) 국제인권법에서의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 배제
- 3) 피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권
- 4) 증인 등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진상규명에 결정적 증언을 한 자에 대한 포상
- 5) 어떠한 경우라도 자수자가 처벌 받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자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함
- 6)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문사 사건 등이 발생되게 된 원인, 피해 사항,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원인, 국가의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등에 대한 권고

99년 7월 18일 향린교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의문사 유가족 등과 민간단체 인권법을 성안한 조용환 변호사, 민변에서 의문사법을 성안한 이상훈 변호사,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대표,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이창수대표, NCC,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활동가, 그리고 News+기자 등이 참석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조용환 변호사는 특별법이 안될 때 인권법안에 과거인권침해사례 규명내용을 담았었는데, 인권법과 과거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구별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모든 사건을 다루기는 불가능하고 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주화운동의 개념정리가 어색하다. 의문사지회에서 얘기하던 사건들이 다 포함될 것인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의문사를 배제시키는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청산의 전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고 은폐하도록 도와준 법, 제도, 정책 등을 밝히는 것일텐데, 후자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재발방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소홀하다.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는 권한, 직위가 필요하다.”

이상훈 변호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이다. 어느 부분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정책적인 부분이 정해져야 한다. 과거의 차원(처벌강조)/미래지향적인 차원(진상규명) 방향설정에 따라 법안의 틀이 변한다. 이 자리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법제정과정에서 42건중 공소시효에 맞추면 30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생각하였다. 만일 100건, 200에 이르면 그것은 위원회로는 불가능하다.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의 이배창 사건에는 한건으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수사반이 크게 만들어졌었다.”

권오현 대표는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명예회복, 과거청산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현재 크다. 자수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위상황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처벌은 중요하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는데 이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안된다. ‘민주화운동관련’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폭을 넓히자.”...

가장 큰 쟁점은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으로 한정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당초 민변의 이

상훈 변호사가 성안한 안에도 한정하지 않았었는데, 국민회의가 명예회복법과 연계시키면서 변질된 내용이었다. 그 때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는데 이 문제로 농성장 내에서도 침례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대다수는 민주화운동관련을 삭제하자는 입장⁶¹⁾이었고, 의문사 이외의 유가족, 특히 지도부의 경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가협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열사들 문제로 싸워 왔는데 확대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 문제를 반영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시 인혁당사건 대책위와 연계하여 10월 초 김형태 변호사가 국민회의 발의안을 수정한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성안하였다. 조사대상 범위를 「“생명권 침해사건”이라 함은 1960. 4. 19. 부터 1999. 12. 31. 까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으로서 ‘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을 말한다.」로 확대하고 공소시효 적용배제, 증인 보호 및 정보제공자 포상, 권고 사항 등을 보완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 법안과 대체 하여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1월 18일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명의로 청원하게 되었다.⁶²⁾

의문사법은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통과하였다. 이상수 의원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사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안기부나 기무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개정하자”⁶³⁾는 말을 하여 법안이 상당히 후퇴되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화하고 12월 28일 명예회복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천막농성을 한지 4백2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12월 30일 농성 해단식을 하면서 법 제정 투쟁의 대 단원을 마감하였다.⁶⁴⁾

61) 이러한 입장은 조용환 외에도, 이상훈, 서준식, 박노현, 김형태, 문정현 등이 같은 입장이었음.

62) 허영춘 위원장은 유가협 명의로 청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의문사지회의 명의로 청원하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 더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역량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명예회복 관련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다가 자칫 해를 또다시 남기게 된다면, 가족이나 불편한 관계가 견집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63) 이상수 의원은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에도 인사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을 거듭 하였다.

〈표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비교⁶⁵⁾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법안명칭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안)	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목적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의문사한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 등 생명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해 국민이 생명권을 침해 당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의문사”라 함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질서의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

64) 법제정 투쟁, 그리고 농성을 시작하고부터 연일 3당을 돌면서 법제정 촉구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23일부터는 올바른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매주 금, 토요일 10월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가극단 ‘금강’, ‘우리나라’ 등이 출연하여 법제정을 위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도 하였고, 법제정 말기에는 광고투쟁을 벌여 한겨레신문에 하단 통광고를 5회 연속 게재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1999,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0」 참조.

65) 법안 내용에 있어서 각 법안이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 비교표에서는 중요 사항만 비교하였다.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면 같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람.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정의	는 경우를 말함	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며, “의문사”라 함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함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며 “의문사”라 함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하고, “생명권 침해사건”이라 함은 1960. 4. 19.부터 1999. 12. 31. 까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으로서 ‘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을 말함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조사대상기간	1948.8.15 이후	기간 설정 안됨	1960.4.19~1999.12.31	1969.8.7 이후
조사기간	원칙적으로 2년, 이후 매 3월마다 대통령에 사유를 보고후 연장가능	최장 9월	최장 2년 6월	최장 9월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공소시효	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정지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	의문사 사건, 실종의 조사 결과 공권력의 위법한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의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이 법 발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
조사권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	진술서 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진술청취권, 감정 의뢰권, 관계자료 등 제출요구권, 실지조사권등을 가지며, 거부된 경우	좌동 (다만 검사를 검찰총장으로함)	영장신청권 삭제되고 동행명령으로 대치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	검사에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증인보호	조사기간동안 전항의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제공자도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좌 항 이외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그 진술이나 증거 또는 자료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의문사 등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의문사 등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증거제공자포상	의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없음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 사면 건의권	좌 동 (다만 사면 건의권 없음)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보고서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좌항 내용 이외에,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 2.피해자의 피해상황 3.의문사 등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4.의문사 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또는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6.의문사 등 사건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7.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8.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보고서는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③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보고서			<p>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p> <p>1. 의문사 등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의문사 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p> <p>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상임위원 수	9인 위원 전원	5인	5인	3인
벌칙	수사협조요청 거부시 징역5년이 하, 출석 및 진술 거부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출석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자료제출, 실지조사 거부 등 천만원이하 과태료	좌 동	전부 과태료

2. 또 하나의 투쟁

2-1. 진상규명 준비

의문사 유가족들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약한 조사권한⁶⁶⁾과 지극히 한정된 조사기간⁶⁷⁾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법으로 과연 20~30년이 경과된 사건들, 그리고 국가공권력이 자행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법이든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문사법은 입법의지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법이었다. 그것은 “마지못해 법을 만들어주는 하지만, 하는 시늉만 내다 끝내라”는 메시지였다. 그렇다고 의문사 유가족 등으로서는 이 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00년 2월 10일 의문사 유가족, 추모연대, 관련자 등 의문사 진상규명 관계자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예비 민간 조사관을 사전에 조직하여 진상규명 훈련과정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관련단체에 예비 조사관 파견 요청을 하였지만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다. 이는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할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 단체에서 중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을 영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조사관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해 나갔다. 훈련 방식은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제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과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진행한 내부 워크숍을 먼저 살펴보면 2000년 2월 17일 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를 한국인권재단 조용환 변호사에게, 3월 4일 법의학에 대해 서울대법학교실의 이윤성 교수로부터, 3월 13일 위원회의 운영과 수사 기법 등에 대해서 양인석 변호사(옷로비사건특검보)로부터, 4월 1일 법의학에 대해 추가로 서울대법학교실 이윤성교수로부터, 5월 19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인권운동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으로부터, 5월 23일 반민특위와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대한매일 김삼용 주필에게, 5월 24

66) 위 <표2>에서처럼 의문사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요건 즉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구인,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67)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가능

일 참고인, 피의자 심문 요령에 대해 사법연수원생에게 각각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수사 기법, 심문 요령, 주야네 보고서, 테오반 보벤 보고서 등을 자체 교육하였다.

사건 분석은 매일 2~3건씩을 정하여 자료 분석을 하고 오후 5시부터는 가족 동료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⁶⁸⁾ 이 분석 과정을 통해 4월 11일~12일 양일간 수련회를 가져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 접수 사건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⁶⁹⁾ 의문사 유가족 등은 사건 진정을 나누어서 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의문사위가 출범하자마자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이 무더기로 접수되면 그 운영 자체가 뒤죽박죽 엉켜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처음 진행되는 사건들은 가해기관과의 직·간접적인 치열한 힘겨루기가 될 것이며 여론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기에, 준비된 사건을 진정하여 기선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셋째, 의문사위 활동 기간으로 보면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 대상사건으로 집계된 44건을 한다 해도 한달에 5건 정도씩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몇 건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초 접수사건 이외의 사건들을 연말에 집단 진정하여 법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판단에서였다.⁷⁰⁾ 이 최초접수 사건 선정은 이후에도 몇 차례 수련회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종길, 김두황, 이이동, 정경식, 신호수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⁷¹⁾

2-2.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과정도 입법과정만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시행령 준비를 법안을 성안하였던 민변의 이상훈 변호사, 그리고 인권법안을 입안한 조용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2월부터 해 나갔다. 당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

항은 첫째, 가능한 한 조사 범위 확대⁷²⁾, 둘째, 조사 권한 보완⁷³⁾, 셋째, 위원장 위상을 장관급으로 하는 것⁷⁴⁾, 넷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액수로 하는 것⁷⁵⁾, 다섯째, 참고인 등 소재 미 확인시 조사기간 정지 필요⁷⁶⁾, 여섯째, 보고서 조항 미진 사항 보완⁷⁷⁾, 일곱째, 조사가 가능한 기구와 인원 및 직급 등⁷⁸⁾이었다.

의문사법 시행일이 2000년 5월 16일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성한 행정지원단과 몇 차례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때면 동상이몽이었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의문사위를 관할하는 시민사회비서실을 접촉하고 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행정지원단에서 기안한 의문사위 조직체계는 1국, 2과, 4팀으로 총원 19명이었고, 총무

72) 군의문사 사건들이나 인혁당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시행령 안으로 「업무등」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범주 안에 그 사인 자체는 명백하다하더라도 그 사인으로 이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공권력의 고문에 의한 조작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민주화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의문의 죽음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위 3월 17일 제2차 전원회의 회의자료

73)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등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권한 보완, 「조사의 방법」 합당한 이유 없이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의뢰하여 압수 수색할 수 있다.」위 회의자료

74) 국정원 등 피진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위상이 낮으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임. 위 회의자료

75) 보상금액 1억원 한도내에서 정함.

76) 「조사의 기간」 1. 참고인, 피진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참고인, 피진정인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 다시 조사를 재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위 회의자료

77) 「제17조(보고등) 1. 위원회는 매 사건 조사 종료시 15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서는 공표 하여야 한다. 이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의 ①②③④⑤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2. 위원회는 전체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서는 공표 하여야 한다.

3.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다음 -

①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
 ② 피해자의 피해 상황
 ③ 의문사 등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④ 의문사 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또는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⑤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⑥ 의문사 등 사건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⑦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⑧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에의 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5. 위원회에서 다룰 대상이 아닌 유사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위 회의자료

78) 4개의 조사소위원회와 대외협력실을 두어 조사 중심의 위원회기구 구성. 그리고 조사관 수는 사건 수 대비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20명 정도 요구되고, 피 진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직급을 가능한 높여야 함.

68) 미 발간 문서, 2000년 3월 17일 의문사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 회의자료와 5월 20일 제3차 전원회의 자료.

69) 10년 넘게 지상규명을 고대해 왔던 유가족들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의문사유가족들은 대의에 따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뒤로 하였다.

70) 위 제2차 전원회의 회의 자료

71) 이 사건들은 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사관 교육이 끝난 이후인 2000년 11월 23일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 48건을 12월 28일 집단 진정하게 된다.

과가 서무팀과 운영팀으로 11명, 조사과는 2개팀 7명으로 되어 있었다. 조사과에서 과장을 빼면 1개 팀당 3명씩의 조사관들이 배치되는 체계였다. 어찌 보면 이렇게 조직체계를 구성 하겠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문제였다. 법에 주어진 권한이나 기간으로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사 사건 진정만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뒤 관계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조사 범위나 권한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제처 담당 직원과 대화할 때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수궁하였는데, 막상 행정지원단은 요지부동이었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문제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⁷⁹⁾와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 여겼기에 장관급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50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위원회 사무실도 직원 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툭툭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작은 평수를 구하여 위원회 출범 이후 조사실 등의 부족으로 두고두고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행정지원단과 시행령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 시행일을 넘기게 되자, 행자부에 최후통첩을 하고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올바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가닥을 잡게 되었다.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은 조사관 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50명으로 출발하였다가 부족하면 이후에 충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⁸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6월 30일 시행령 안이 합의되어 7월 10일 공포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령 제정에만 있지 않았다. 년 초부터 위원 추천과 이를 맡아 달라고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하였지만 선뜻 이를 수락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렵게 수락을 받은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청와대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사흘간동안 벌인 끝에

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설기관이나 위원회는 9개월짜리 한시기구임

80) 그는 서면으로도 이를 약속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원회 출범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위원 내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위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의문사위 출범은 10월 17일에야 할 수 있었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이어지는 법개정 투쟁

3-1. 제1기 위원회, 닳은 올랐으나...

닳은 올랐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배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위원회 출범을 지켜봤다. 위원회 구성과 교육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2001년도부터나 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민간합동기구였기에 모든 것이 실험이었다. 더욱이 과거에 쫓고 쫓기던 관계였던 민주화운동 경력자들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들이 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야 하는 기구⁸¹⁾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는 민간 출신이건 파견 공무원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 해 보는 경험이었다. 서로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생소했고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잠복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힘의 대결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제일 먼저 드러난 대립은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였다. 파견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²⁾ 반면에 민간출신 조사관들은 가능한 확대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사건 결정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위원회는 조사관들에게 보고

81) 이와 관련하여 2000.12.1자 국민일보 '여의나루'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한 지붕 두 가족' 의문사규명위 제하의 기사에서 "10여년전 극과 극의 위치에서 수배자와 수사관으로 맞붙었던 '왕년의 맞수'가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한 민·관 조사관으로서 앞으로 같이 활동한다. 1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관 합동 조사관들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인적구성이 돼 있다. 조사관 49명 중 민간 출신 조사관 2명은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동, 인권 등 사회운동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고, 파견 공무원 조사관 27명은 경찰, 군, 국정원, 검찰 등에서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82)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해석 또는 범주의 문제가 포함된 지침서 성격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라는 글을 당시 김형태 1상임위원이 작성하였는데, 당시 허명환 행정과장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파견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일도 있었다.

서에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판단은 위원회에서 한다고 지시하였다.

두 번째 논란은 사건 조사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파견 공무원들은 익숙한 관성⁸³⁾ 대로 사인만 조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간 조사관들은 의문사 사건의 성격상 사건의 배경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대립되었다. 이 문제도 상당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다. 파견 조사관 중에는 배경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였다.⁸⁴⁾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배경조사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고 나서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 조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조사역량이나 열의와 연관된 문제였다.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길게는 10개월 가까이 훈련을 쌓았지만 실전 경험이 아니었기에 적지 않은 경우 실제 조사에서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였다.⁸⁵⁾ 반면에 실전 경험이 많은 파견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경우 몸을 던져 진상규명에 매진하려 하지 않았다. 의문사 사건들 중 그나마 준비를 하였던 최초 진정사건들도 대부분 성과가 들어나지 않고 있었다.⁸⁶⁾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다. 공조직의 특성도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운영과 관련하여 폐쇄성이 곳곳에서 나타났다.⁸⁷⁾ 의문사 유가족 등에게 사건 진척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⁸⁸⁾, 비상임위원들에게까지 주요 정보를 차단하고 사

건기록 열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⁸⁹⁾ 아울러 위원회 상임단⁹⁰⁾에서는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법에 명시된 의문사로 인용되기 위한 요건⁹¹⁾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와,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여부 중 한 가지, 특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여부는 조사를 깊숙이 해서 사인의 실체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반면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관련성이 없으면 기각하자는 기류였다.⁹²⁾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다소 기각결정의 시기만 늦추었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였다. 위원회 상임단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주어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사건 처리를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⁹³⁾ 이렇게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자 의문사 유가족 등은 원인을 위원회에 돌리기 전에 민간조사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7월 20일 전원회의를 소집⁹⁴⁾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9인위원회⁹⁵⁾를 구성하여 조사관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과장단⁹⁶⁾에 대해 2개월가량 여러 각도에서 평가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과장 2인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위원회에서 소환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러한 결론을 9월 27일 상임단에 요청하였는데, 상임단은 이를 거부하고 9월 29일 조사3과장과 특별조사과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

83)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체관계만 조사하지 배경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84) 단적인 예로 강제징집 되어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들에 대해 파견 공무원들 중에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일이 2001년 11월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2001.11.31 보도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 내부갈등 심화, 「이달 초 열린 조사3과 회의에서 과거 운동권 학생들의 프락치 활용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녹화사업"에 대해, 김학철 3과장이 당시의 사회·정치상황 전반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방침을 밝히는데 대해 기관파견 조사관들이 "사망 전후의 행적과 사인 등만 규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5)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합리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권한 등의 부족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거나, 자신의 조사 역량 부족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짓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별다른 의심 없이 맞다고 생각하였으며, 진술들 중 다수결에 따라 결론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정연관 사건을 담당하였던 민간조사관의 경우, "100명을 조사해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당시 현병대 조사내용과 같이 단순 구타사망이라 진술하는 데 그게 진실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되었으나, 2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기 위원회 조사시 단순구타라 진술하였던 핵심 관계자들 모두가 단순구타가 아니라 군부재지투표와 관련하여 구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86) 이는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로서 파견공무원들의 경우 친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된 조사에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이가 조사 진척상황을 파견 기관에 보고하다가 적발되어 복귀되는 일도 있었다.

87) 파견공무원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파견 공무원 외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공무원이 있는데, 당시 행정과장이 위원회 운영 기류에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여 2001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사무국장이 행정과장의 인사배신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88) 2001년 6월 4일 의문사 유가족 등은 종로경찰서 기지실에서 의문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6월 9일까지 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였다.

89) 위원회 초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무척 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임단이 비상임을 소외시키는 일이 많아, 위원회 회의에서 대개의 경우 상임단과 비상임단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하였다.

90) 위원회에서 상임활동을 하는 위원장, 제1, 제2 상임위원

91) 이 문제는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입법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살이던 타살이던 죽음의 실제 관계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의문사 유가족들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까지도 내내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였다.

92) 이 문제가 표면화 된 때는 2001년 7월 12일 열린 고정희 사건 중간 설명회에서였다.

93) 의문사법은 2001년 6월 28일 1차 개정이 있었는데,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자를 위원회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상임단의 흐름은 더 이상의 개정은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임단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 출신인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은 법개정을 하지 않고 기간 내에 끝내자는 입장인 반면에, 공무원 신분인 제2상임위원의 경우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94) 민간 조사관들은 이날 전원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여러 방법으로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다.

95) 의문사 유가족 3인, 단체 3인, 민간조사관 3인으로 구성

96) 민간에서 참여한 조사과장 3인과 팀장 1인

다.⁹⁷⁾ 그러자 특별조사과에서 당장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민간조사관 3명이 의문사 유가족 등이 불신하고 소환요구한 사람을 과장으로 발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무국장, 상임위원, 위원장을 면담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특별조사과장으로 있다가 전보조치 된 조사3과장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연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위원회의 전격적인 조치에 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꾸려 대응하였다. 이들은 10월 11일 단체 대표들과 함께 위원회 상임단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만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10월 16일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않고, 단체 대표들만 위원회 상임단과 만나 다시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원 출근하게 하고 나서 서서히 문제를 풀어가자는 얘기였다. 10월 17~8일 다시 위원회와 논의를 한 끝에 '선 정상화 후 처리' 방침을 합의하였다. 유가족들은 민간 조사관들에게 "일단 출근해서 일하고, 모든 그 후에도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나서서 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민간조사관들을 설득하였다. 민간조사관들 복귀 후 위원회는 10월 26일 비대위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1. 유가족·관련단체와의 정례회의 요구에 대하여 : 상임위원 주재 사건점검회의에 유가족 참석 허용. 필요시 정책간담회 개최. 2.과장단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및 강화 요구에 대하여 : 7월 말 유가족의 의견을 9월 말 인사에 이미 반영했으므로 조사기관과 구체적인 비위사실 여부 등을 감안, 특별한 인사조치는 없음

이러한 파동을 겪고 나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 등이 굽히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조사관들에게 사건 종결을 독려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을 우려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조사3과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강제징집 녹화사업 배경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였

97) 상임단이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이유는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청대로 과장 2명을 해임시키게 될 때, 파견 공무원 등이 조직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반발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조사3과장과 유가족들이 신임하고 있는 특별조사과장을 맞바꾸어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조사 3과에서 진상규명하고 있는 사건들 상당수가 초기부터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왔던 유가족들의 사건이었고, 특별조사과 사건들은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규 사건들이었다.

다.⁹⁸⁾ 그러나 공무원 파견 조사관은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11월 3일, 법개정 추진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던 차에 조사3과장을 비롯한 홍보·대협 분야 민간전문위원 4인이 사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⁹⁹⁾ 조사3과장은 20여 쪽 분량의 사직서를 통해 위원회 활동 기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였다. 그 골자는 유가족들을 단순한 민원인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동반자로 대해서 진상규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납득과 함께 감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줄 것, 사건을 적당히 종결지으려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진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쫓는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 의문사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을 위시한 국민과 함께 해 나가위해서는 대외협력·홍보팀을 더 강화시켜야 함에도 축소시키는 데 대한 부당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위원장은 <디지털 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기관들의 비협조를 자꾸 드러내고 있는데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은 위원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협조 않는 기관이 없다는 얘길 할 수 있다.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최종길 교수 사건은 거의 결론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밝혀질 수 없다. 피상적으로 협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각 기관도 과거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의 분노를 샀다. 이에 비대위는 29일 위원회 상임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계좌추적권 및 강제소환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법 개정, 위원회 조사관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 등을 요구했으나 상임단은 조사시한을 불과 5개월 남기고 법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하였다.¹⁰⁰⁾

이어서 12월 16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 대담 중에 위원장은 '녹화사업'을 북한의 선전 공세에 빨갇게 물든 학생들을 잡아다가 민주체제에 순응을 시키는 '정훈교육'이라는 말을

98) 2001.10.22자 한겨레신문은 「위원회에 진정된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개별사건의 규명이 시급한데다, 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99) 11월 19, 20일

100) 국민일보, 2001.11.30

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월 17일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의문사 진상규명 의지 없는 위원장 즉각 퇴진, 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의문사법 개정, 의문사 사건 조기종결 시정 및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12월 22일 상임단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비상임 위원인 안병욱, 이석영, 백승헌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며 다음과 같이 사퇴의 변을 발표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며〉

우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유가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어나 책임 소재를 떠나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소임은 과거 독재권력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또 그 희생으로 누구보다 큰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을 비롯한 생전의 친지들에게 화해와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위원회가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설립 의미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이 보여준 것은 일상적인 민원처리 기관으로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한계이자 또한 우리 사회의 한계이기도 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에 있습니다. 진실이나 진상규명도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화해가 이루어질 때 지난 한 시대의 불행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나 단편적인 국면에 매몰되어 왜 사실이 필요하고, 왜 진실이 의미 있는지 하는 점에 깊은 성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뇌함이 없이 민원처리의 무미건조한 단순성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죽음을 취급은 의문도 풀지 못하고 진정한 화해도 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심하게 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위원회가 해온 그동안의 활동을 비판하고 항의하면서 제기한 사항들은 그들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들은 비록 위원회가 관제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그동안의 경과로 미루어 분명합니다.

설령 현안을 몇 가지 보완책으로 설득하고 타협안을 마련해서 모면해 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점들을 잠시 미루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구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도 의문사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위원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미봉적인 활동을 지속해 가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무엇보다 위원회 설립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지금 필요한 일은 현 위원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회의 활동의 올바른 재정립을 위해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을 저희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서는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겸허한 뜻으로 사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원장과 백승헌 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들은 ‘기간연장을 포함한 법개정, 위원회 활동 기조를 바꾸기 위한 상임단 재편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요청 등’의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대위는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 실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상임위원단 재편의 구체적 일정 마련, 관련기관의 비협조사례 공개 등을 위원회 측에 촉구하고 농성을 해산하였다. 2002년 1월 15일 위원회 상임단은 위원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다.¹⁰¹⁾

101) 안병욱 위원 등 비상임위원 3인의 사퇴서는 즉각 반려되었다. 가리고 상임단의 사퇴서가 한동안 수리되지 않자 2002년 3월 5일 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본인의 거취에 청와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다음 주에는 출근해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보내었고, 3월 11일 위원회로 출근하여 3월 20일 위원장과 1상임위원의 사퇴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보았다.

의문사법은 2월 28일 권한 강화는 되지 않은 채, 조사기간만 9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 조항을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2. 2기 위원회와 의문사 유가족 등의 투쟁

3-2-1. 3차 법개정 노숙농성

4월 18일 한상범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아 제1기 후반부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월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건 설명회를 자주 가졌고, 정례 기자 브리핑, 기관 비협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정하게 경주하는 등 1기 전반부 위원회에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유가족 등은 1기 위원회 후반부¹⁰²⁾ 동안 위원회와 대립되는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 중간설명회에서 확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1기 위원회 전반부 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신임 상임위원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와 더불어 1기 때부터 조사활동을 벌여 온 조사관들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조사 막바지에 담당 조사관 및 담당 과장들과 일정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사건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는 한편 법개정을 다시 준비해 갔다. 8월 30일에는 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갖고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2차 법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창복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특별검사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은 제1기 위원회 종료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2) 2002년 9월 16일까지

의문사 유가족 등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9월 16부터 10월 9일까지 법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사 앞과 국회 앞 1인 시위 전개하였고, 10월 10일부터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¹⁰³⁾ 당시는 대선 직전이었는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첫날부터 과잉진압을 하기 시작하였다. 농성 선포를 하고 천막을 치려는 순간 경찰들이 무차별하게 달려들어 농성자들을 전경차로 연행하였다. 몇 시간동안 전경차 안에 갇혀 있다가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서 풀어주었는데, 빼앗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구타를 자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연행을 피한 의문사 유가족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좌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도 강제 연행하여 다른 곳에서 풀어 주었다. 한나라당사 앞으로 다시 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다가 또다시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독산동 근처에다 한 사람씩 떨어뜨려 주었으나 다시 한나라당사 앞으로 집결하여 아무 것도 깔지 못하고, 아무것도 덮지 못한 채 앉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농성이 끝나는 11월 14일까지 지속되었다.¹⁰⁴⁾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 때까지 수많은 농성을 해 왔지만 그 당시처럼 힘들게 농성한 적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예년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어 연로한 의문사 유가족들이 무척 고통을 당하였다. 3차 법개정은 대선 정국의 틈새를 파고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각 방송국마다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가 토론에 나서기 전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 의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어 의문사법은 개정될 수 있었다.

당시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 개정의 핵심 사항을 권한 강화, 기간 연장, 범위 확대로 잡아 투쟁을 하였지만 기간 1년 연장과 자료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과 통화기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마무리 되었다. 의문

103) 위원회는 7월 26일 위원회 회의에서 「기간연장에 분명히 반대하고 유가족의 법개정 추진은 위원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여 3차 법개정은 위원회의 협조 없이 의문사 유가족 등의 힘겨운 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104) 농성 과정에서 경찰은 농성 장소에 물을 뿌려 앉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자전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을 연행하기도 하였고, 집회 신고를 내고 준비를 하다가 연행 당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연인원 98명이 불법 연행 당함

사법이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대로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의문사 유가족 등은 농성을 해산하기에 앞서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법개정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다.

농성을 종료한 뒤 의문사 유가족 등은 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25일까지 노숙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경찰청 앞 일인시위를 전개한 끝에 영등포경찰서장의 사과와 함께 농성 물품 훼손 등 피해 보상을 받았다.

3-2-2. 제2기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의 진통

법개정 과정에서 전직 민간 조사관들은 스스로 1기 위원회 활동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평가 작업은 법개정 이후까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스스로 대오를 정비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전직 민간 조사관들에게 1기 위원회 조사 과정을 겪어 보니까 조사관들 중에 조사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 모두 다 2기 위원회 조사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전해 놓고 있었다. 전직 민간조사관들은 결국 스스로 정돈하지 못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에게 선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뒤 추기로 예비조사관을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위원회 공채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나서 전직 조사관들이 선발된 예비조사관들을 교육 훈련시켰다.

한 편으로 위원장이 의문사 유가족에게 사무국장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국장 후보를 단체들에 추천 요청을 하여 민주노총에서 사무국장 후보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전직 조사관들은 평가 작업을 통하여 1기 위원회 활동에서 문제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조건인 내용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2기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사무국장 후보에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려 하였다. 사무국장 후보는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그 당시까지 위원회 구성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과장 등의 인선 문제와 위원회의 조직체계 문제였다. 그런데 조사관 공채 과정에서 예비조사관 2인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과장 자리를 다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3년 5월 24일에 열린 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들¹⁰⁵⁾을 두고 전직 조사관들과 예비조사관들은 제2기 위원회의 기초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고, 전원 진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문사 유가족 등에게 위원회와 정면 대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결국에는 민간조사관 조직이 와해되기에 이르렀고, 민간조사관들 모임의 지도부는 위원회에 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국장 후보도 위원회 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과도한 역할 규정에 따른 엄청난 상처를 민간조사관들 스스로는 물론 의문사 유가족 등을 위시하여 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입게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의문사 유가족 등은 상당기간 동안 위원회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차 법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3-2-3. 계속 이어지는 법개정 투쟁

의문사 유가족 등은 2003년 5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가진 이래 민변에 의뢰하여 개정안을 성안하였다.¹⁰⁶⁾ 개정안은 권한 강화는 물론, 군 의문사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였다.¹⁰⁷⁾ 당초 성안한 개정안은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하여 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 법제실에서 대폭 수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11월 22일 오세훈 의원 등 61명이 발의하여 11월 24일 법사위에 회부 되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세 차례 개정하는 동안 법사위에서 다루었던 의문사법을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며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반려하였다.

12월 26일 국회의장이 다시 의문사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나 법사위는 12월 31일

105) 제1기 후반부 상임위원이 “의문사위를 유가족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

106) 민변에서는 정지석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성안

107) 4차 의문사법 법개정투쟁 농성은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기왕에 의문사법개정투쟁을 추진해 온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진상규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군의문사 전반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향후 진상규명 방향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범주를 넘어 인권침해에 의한 희생일반, 즉 과거청산의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개정투쟁 농성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와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중의 하나인 군사상자유가족연대가 공동농성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농성을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모두가 함께 하려 하였으나 군가협에서는 군의문사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세 단체 연대투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다시 반려해 버렸다. 12월 26일부터 의문사 유가족 등은 군의문사 가족단체인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회원들과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였다. 3차 개정 때는 대선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총선 전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다. 2004년 1월 8일까지 농성을 진행하다 일시 중단한 뒤 1월 28일 농성을 다시 재개하면서 한나라당 점거농성과 노숙농성을 병행하기로 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은 한나라당사로 들어갔다.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작은 현수막을 펼쳐놓고 농성을 시작한지 1시간이 채 안되어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었다.

의문사법안은 2월 19일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운영위 간사)가 합의하여 법사위에서 처리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하였는데, 국회의장은 또다시 법사위에서 반려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넘기지 않고 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빨리 넘기라며 2월 21일과 22일 국회의장 공판 앞 일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장은 2월 24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기간 6개월 연장하는 안으로 직권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⁸⁾ 그런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였는지 다음날인 2월 25일 여야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기간 1년 연장으로 조정하여 직권 상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논의 끝에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단순한 기간연장으로 그치는 개정은 거부하며 적어도 군 의문사를 포함하는 범위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¹⁰⁹⁾ 그 뒤 2월 28일 범위확대와 기간연장 수정발의안을 추진하기로 양당 총무 및 원내대표와 합의하여 이를 추진¹¹⁰⁾ 하였으나 3월 10일 탄핵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법개정을 포기하고 노숙농성을 57일만에 중단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개정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 9일 시신기증과 장기

기증서 서약식을 위원회에서 갖게 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이 시신기증과 장기기증 서약을 한 이유는 비록 사랑하는 혈육은 의문사로 잃게 되었지만 사경을 헤매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하는 심정에서였고, 의문사를 줄이게 위해서는 법의학 발전이 필수적인데, 해부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하여 법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여, 위원회에서는 사인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2004년 ‘사인확인기관의 설립·육성에관한법률안’을 여당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청하였다.¹¹¹⁾

3-2-4. 과거청산법 제정 투쟁

의문사유가족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법개정에 착수하였다. 목표는 제17대 국회 첫 번째로 통과 법률이었다. 지난 16대 말에 추진하였던 4차 법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하였고 원희룡 의원실에서 움직여서 한나라당의원만 92명이 발의안에 서명하여 발의하였다.¹¹²⁾ 의문사법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발의한다고 하자 열린우리당에서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¹¹³⁾ 이제는 원내 제1당이 되었는데 의문사법개정안처럼 중요한 개혁입법을 한나라당 발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원희룡 의원이 맡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양당이 별도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도 같은 내용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조사 범위를 조작간첩 사건이나 KAL858기 김현희 사건 등과 같이 조작사건까지 확대하도록 요구 하였고, 조사 기산시점도 정부수립

108)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계속 거부하여 표류되던 의문사법개정안을 직권상정 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였다.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개정안 자체를 조사기간만 6개월을 정하여 직권상정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권한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심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109) 의문사유가족들이 직권상정안을 실제로 거부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진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다 그만큼 험난한 투쟁을 감수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범위확대와 권한강화라는 개정방향과 대의가 있었기도 하지만, 의문사위에 단순히 조사기간만 1년을 더 부여한다고 하여 진상규명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경험에서 나온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10) 이 수정발의안 준비는 반나절만에 이뤄졌는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하였고, 여야 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았음

111) 2005년 1월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112)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은 개정의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문사위의 존속 만료기간이 다가올에 따라 기급적 그 전에 개정안을 통과 시켜서 진상규명을 중단없이 이어 나가게 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논의하여 원희룡 의원이 한나라당 중심으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의 법개정 추진은 어느 때와는 달리 진행되었다. 의문사유가족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대표발의 의원이 스스로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의원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희룡 의원이 직접 뛰어 다녀서 발의의원 서명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발의에 참여 하였다가 의문사위에서 ‘장기수 선생 의문사 인정사건’ 이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이를 돌연 취소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각인씩이 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였고, 의문사 위 활동 종료일인 2005년 6월 30일 발의 하였다.

113)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함.

이후인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명칭도 ‘의문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¹¹⁴⁾ 그러던 중 의문사위에서의 장기수 옥중사망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보수세력의 총 공세가 계속되었고, ‘제17대 국회 첫 통과 법률’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그렇게 될 듯이 진행되어 갔던 법 개정은 상당히 주춤거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여기에 한 몫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시한 과거청산의 큰 틀을 마련할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¹¹⁵⁾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제의는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이나, 친일진상규명과 관련한 보수여론에서 밀리게 되면 17대 국회의 개혁은 실종된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과거청산운동¹¹⁶⁾을 해오던 운동진영들은 법안의 통합과 운동전선의 단일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3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비위(이하 범국민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범국민위원회 준비위는 결성후 내부 논의를 거쳐 통합 과거청산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통합법제정투쟁¹¹⁷⁾을 중심과제로 하여 각각의 과거청산 운동 단위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범국민위가 출범하고 통합법안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까지 의문사진상규명 운동은 전반적인 과거청산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114) 이로서 거의 과거청산법의 모습을 갖춘 법안이 만들어졌다. ‘의문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애초에 유시민 의원실에서 추진하다가 법안을 심의하게 될 행사위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원혜영 의원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115) ‘대통령, 과거사 규명특위 설치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민족 친일 행위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행위 등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YTN 2004-08-15]

116) 기왕의 과거청산운동은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추진되어 왔다. 일제하 친일행위 및 강제동원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 정부수립이후 의문사건으로 통칭되는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 등임

117) 통합법 추진은 과거청산범국민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기에는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범국민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큰 틀에서 묶여야 하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과 조사관들을 충족할 수 없기에 하나의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가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은 따로 분리되었고, 의문사건과 민간인학살이 합쳐져서 과거청산법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상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동당도 이를 더 원칙적으로 만든 법안인 진상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2004년 10월 21일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행사위에서 한나라당 불참 속에 심의하여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가 한나라당이 참여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합의하여 이른바 ‘박기춘 의원안’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2004년 막바지인 12월 31일까지 직권상정 논란을 거치다 한나라당이 의장석 접거로 인해 2005년 2월 국회로 이관되었다.

의해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진 최초의 위원회로서 조사결과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법제정과 4차에 걸친 법 개정투쟁 과정은 다양한 내용의 과거청산법 제개정 투쟁의 모델로 기능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이끌었던 유가족 이하 운동주체들은 통합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고 범국민위를 결성하는 과정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글을 마치며

진상규명 과거청산 투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을 세 차례나 개정하였지만 6개월짜리 두 번과 1년짜리 기간연장 한 번뿐이었다. 그래서 의문사 유가족 등은 연례행사 처럼 해마다 겨울이 되면 여의도 국회 앞으로가서 법개정 노숙농성을 해야만 하였다.¹¹⁸⁾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의문사 사건들.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밝히려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의문사 유가족들의 십여년에 걸친 투쟁에 마지못해 법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는 법은 아니었다. 권한도 미약하고, 기간도 극히 짧은 위원회로 만들어 조사 하는 시늉만 내라 한 것이다.

국가는, 그리고 입법부는 왜 진상규명, 과거청산을 회피해야 했을까. 그것은 의문사 사건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죽음과 은폐라는 의혹 차원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이를 가로막을 힘이 있는 위치에 앉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은 어찌 보면 이들과의 싸움이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의 검은 머리가 이제는 백발이 다 되었다. 이제 그만 길을 그만 걷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들은 진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찾기 위하여 오늘도

118) 2005년 2월 현재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 노상에서 천막도 치지 못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내일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갈 것이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산맥인 허영춘 님이 지난 제4차 법개정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로 이 글을 마친다.

다시 풍찬노숙을 시작하며¹¹⁹⁾

작년에 왔던 자리 다시 또 들어와서
국회를 바라보니 눈물이 치솟는데
애간장이 썩는 물은 눈물되어 흘러간다.
내 아들 죽인 놈을 다 잡아 가두는 판에
조사기간 만료되어 다시금 원점이네
이렇게도 진실찾기 어렵게 해야하나

악법도 법이라면 이 나라 어디갈꼬
사리사욕 눈이 멀어 갖은 악행 저지르며
선량한 국민들의 눈물을 자아내나
수백수천 군대가서 죽어간 원혼들을
언제나 법 만들어 그 원을 풀어줄까
기막힌 한을 품고 이십년을 살아왔네
내 아들 죽인 놈들이 나머지 죽여주라
세상살기 내사 싫고 한을 풀들 무엇하랴
썩어빠진 이 군대는 언제나 바로잡아
마음놓고 군대가고 마음놓고 세상살까
수만명 유족들이 모두 다 잠을 깨어
이 군대를 응징해라 집에서들 무엇하나

119) 한겨레, 2004.01.08

여의도 칼바람이 등줄기 파고드네
언제나 다시 볼까 한 서린 이내인생
진상규명 하자는데 어느 누가 가로막아
의문사법 표류하나 한번 아닌 두 번이나
법사위 회의장에 벽에 붙은 글좀보소
분명코 생명중시 법들이 아니드냐
천상천하 오직 하나 생명은 무시되고
행자부가 소관임네 행자위로 보낸다네
갈길없는 의문사법 어디로 가라하나
야속하고 야속하다 법사위원들 야속하다.

여의도 칼바람이 이렇게도 모질텐가
옷깃에 스며드는 찬바람이 속살파고
이 한몸 죽어지면 모두 잊고 가련만도
박복한 이내 육신 죽지 못해 여기서서
국회를 바라보며 피눈물 쏟고있네
진정 신이 있다면은 어서 빨리 날 데려가
보고픈 내 아들 만나볼라네

〈의문사 유가족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년표〉 - 1987년 이전 투쟁 생략

-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 이후 고문살인 규탄 집회 등을 하며 6월 항쟁시까지 전두환 정권 퇴진 투쟁 전개
- 1987년 2월 20일 서울대생 김용권 카츄샤 근무중 변사체로 발견
- 1987년 7월 13일 김상원 의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농성을 6일간 김상원 가족들 벌임

- 1987년 8월 5일 문영수 의문사 진상추구를 위한 가족들 항의 농성 전개
- 1987년 9월 8일 서울대 최우혁 군복무 중 분사체로 발견
- 1987년 12월 4일 정연관 상병 폭행치사
- 1988년 3월 9일 대원전기 오범근 노동자 음독사
- 1988년 5월 13일 고정희 강남성모병원에서 분사체로 발견
- 1988년 6월 6일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씨 폭행치사
- 1988년 8월 1일 동국대 박종근 방위근무 중 분사체로 발견
- 1988년 8월 25일 고정희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전국에서 의문사 유가족 25명 참석)
- 1988년 10월 6일 군대내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백주년 기념관)
- 1988년 10월 13일 동국대 박종근 의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기독교회관)
- 1988년 10월 17일 의문사 유가족협의회(회장 임분이) 발족식과 의문사 진상규명 장 기능성 돌입 (1988년 10월 17일~1989년 2월 27일까지 135일간 전개)
- 1988년 10월 27일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및 폭로대회 개최
- 1988년 10월 29일 농성 유가족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다 전원 연행
- 1988년 11월 12일 전·이 구속 촉구 행진후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회
- 1988년 11월 16일 국회 5공특위에 의문사문제 촉구
- 1988년 12월 3일 공화당사 항의농성, '삼청교육대 및 의문사 보고대회'에서 사례 발표
- 1988년 12월 7일 마산 대우중공업 정경식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 1988년 12월 14일 전두환 구속 촉구투쟁 전개(백담사 입구에서)
- 1988년 12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항의농성 진행, 김종태모친 이이동부친 병원에 입원 나머지 회원들은 안산, 광명, 안양경찰서에 분산 연행됨

- 1989년 2월 11일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회' 개최
- 1989년 2월 27일 135일간의 의문사 장기농성을 끝냄. 박선영, 정연관 모친 8월 실행 선고받음
- 1989년 5월 10일 조선대 이철규 학생 분사체로 발견
- 1989년 5월 24일 정경식 모친 구속자 석방을 위한 농성 전개
이철규 사인진상규명 투쟁과 5, 18투쟁 연일 계속, 회원들 3~5일씩 단식농성 돌입
- 1989년 7월 5일 마산 정경식 모친 법정소란으로 20일간 감치처분을 받음
- 1989년 7월 17일 정경식 모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 명목으로 마산교도소에 수감
- 1989년 7월 26일 정연관 모친 순천교도소에서 출감, 박선영 모친 홍성교도소에서 출감
- 1989년 8월 5일 '5공, 6공하에 피살된 희생자 위령제' 고려대에서 개최(200여명 참가)
- 1989년 8월 15일 중앙대 이내창 총학생회장 거문도에서 분사체로 발견
- 1989년 12월 11일 '의문사 해결없는 5공청산 기만이다' 라는 구호아래 전민련에서 농성 전개
- 1990년 10월 17일 김상원 사건 민사 재정심판에서 국가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 1990년 11월 12일 이이동 부친 의문사 진상규명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
- 1991년 3월 6일 최우혁 모친 한강에 투신
- 1991년 4월 27일 한겨레사회연구원 김영환 분사체로 발견
- 1991년 5월 6일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안양병원에서 분사체로 발견
- 1992년 12월 18일 전남대 문승필 철로변에서 분사체로 발견
- 1993년 1월 14일 권두영 선생 서울구치소에서 분사체로 발견
- 1993년 4월 13일 군의문사 11인에 대한 진정서 제출(국방부 특감단)
- 1993년 5월부터 의문사 전면재조사추구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 전개, 전국을 순회하여 서명 조직화

- 1994년 10월 21일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국회 및 민자당사 집회
- 1994년 10월 25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 당 대표 및 의원들 서명운동 전개
- 1994년 11월 4일 의문사 진상재조사 촉구를 위한 10만 여명의 국회청원서 제출
- 1995년 11월 22일 노태우 특별대우 반대 서울구치소 항의방문
- 1995년 11월 28일 인천 아암도 이덕인 장애인 노점상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
- 1995년 하반기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허원근, 우종원 등 10여건의 의문사진정
- 1995년 12월 5일 국회 및 신한국당사 항의시위, 최규하 집앞 항의시위
- 1996년 12월 16일 5·18 완전 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발족
- 1997년 3월 6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97년도 제1차 학술회의 개최
- 1997년 6월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97년도 제2차 학술회의 개최
- 1997년 8월 28일 이회창 후보 아들 등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항의농성(명동성당) ~9월 1일
- 1997년 9월 1일 이회창 후보 아들 등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항의시위와 점거농성 (신한국당)
- 1997년 9월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97년도 제3차 학술회의 개최
- 1997년 10월 14일 대통령 후보 3인에 대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
-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노태우씨, 특별사면 석방 저지투쟁(안양교도소)
- 1997년 12월 추모연대 송년 모임에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법제정을 98년도 주요 사업으로 벌려 나갈 것을 기안 발표
- 1998년 4월 2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서울역) 10월 30일까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국민캠페인 진행

- 1998년 5월 민변에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법안과 진상규명 1)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포함한 과거 청산 전반을 다루는 방안 2)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 중에서 검토하여 특검제 성격으로 법안 작성 요청. 민변에서 이상훈, 윤기원, 정태상 변호사가 법안 작성
- 1998년 5월 22일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제1차 학술회의 개최
- 1998년 5월 25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국방부 항의 방문
- 1998년 6월 12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국정원 항의방문
- 1998년 6월 19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기무사 항의 방문
- 1998년 6월 26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 - 강제연행 당함
- 1998년 7월 1~13일 강제연행에 대한 경찰청 항의 집회
- 1998년 7월 14일 경찰청장으로부터 강제 연행에 대한 사과 받음
- 1998년 7월 24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국회귀빈식)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노사정위원회 항의방문
- 1998년 8월 3일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향린교회)
- 1998년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2차 학술회의에서 두 가지 법 시안 발표(기독교회관)
- 1998년 9월 1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민대토론회(조계사)
- 1998년 9월 15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국회)
- 1998년 9월 15일 여야 의원 58명과 대국민캠페인 1차 서명인 52898이 국회에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청원
- 1998년 10월 20일 유가협, 추모연대 대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 약속

- 받음
- 1998년 10월 30일 서울역에서 시작한 대국민 캠페인 1, 2단계 투쟁을 정리
- 1998년 11월 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
- 1998년 11월 21일 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 1998년 12월 11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인권법’에 반영토록하겠다 함.
- 1999년 2월 1일 국방부 특조단 의문사 조사 거부 성명 발표
- 1999년 2월 24일 법 제정 중간보고대회(국회 헌정기념관)
- 1999년 1월 5일 새해를 맞아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1999년 3월 24일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명 발표
- 1999년 3월 26일 인권법 규탄집회
- 1999년 3월 29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유가족 7인 삭발식-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1999년 3월 30일 인권법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집회
- 1999년 3월 31일 인권법저지 관련 기자회견
- 1999년 4월 6~8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 당사 농성(단식)
- 1999년 4월 7~13일 올바른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인권운동가 단식농성(명동성당) 참여
- 1999년 4월 12일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1999년 5월 14일 국회의 열린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유선호, 이상수, 임채정, 이길재의원 참석(국회 귀빈식당)
- 1999년 6월 2~12일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요구하며 국회의 당사에서 농성

- 1999년 6월 23일 국회의 이상수 의원과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거침
- 1999년 6월 24일 국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상수 의원 기자간담회 형태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
- 1999년 7월 7일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 천막 방문
- 1999년 7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자민련 법무부간의 당정협의,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국회제출에 대한 합의 도출
- 1999년 7월 19일 ‘올바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향린교회)
- 1999년 7월 23일 올바른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매주 금, 토요일 10월까지 진행
- 1999년 8월 2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국회의, 자민련 공동여당안으로 발의
- 1999년 8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법안심사제 2소위원회로 회부
- 1999년 8월 25일 국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이길재,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이수인, 이석현의원 등)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1999년 11월 4일 천막농성 1주년 맞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 1999년 11월 5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1999년 11월 18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여당안)에 대한 보완 청원
- 1999년 11월 27일 두 가지 법을 포함한 개혁입법 촉구 제1차 범국민행동 집회 공동 개최
- 1999년 12월 1일 두 가지 법을 포함한 개혁입법 촉구 제2차 범국민행동 집회 공동 개최
- 1999년 12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통과
- 1999년 12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1999년 12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99년 12월 30일 천막농성 해단식
- 2000년 1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공포
- 2000년 2월 10일 유가족, 추모연대, 관련자 등 의문사 진상규명 관계자 전원회의를 통해 민간 조사관 조직기로 결의
- 2000년 5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일
- 2000년 5월 23~26일 올바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 2000년 6월 30일 시행령 안 합의
- 2000년 7월 4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00년 7월 11일 시행령 공포
- 2000년 8월 22일 위원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개원촉구 기자회견(국회앞)
- 2000년 8월 29~31일 위원 선임 관련 청와대 앞 항의 피켓팅
-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2000년 11월 23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 후 최종길, 김주황, 이이동, 정정식, 신호수 사건 진정서 제출
- 2000년 12월 28일 탑골공원에서 해원 상생제 거행한 후 48건의 의문사 사건 진정서 제출
- 2001년 5월 20일 의문사진상규명 홍보를 위한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산자여, 말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 2001년 6월 4일 계승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의문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2001년 6월 4~9일 위원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인시위
- 2001년 6월 28일 김천역 광장에서 ‘박영두 의문사 사건 가해자 규탄대회’ 및 대구 법원 김천지원 항의방문-당시 폭행치사 교도관 파면 촉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민주당 이종걸의원 발의, 조사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권)

- 2001년 7월 4일 박영두 사건관련 법무부 앞 항의 집회
- 2001년 7월 22일 박영두 사건 관련 청송2교도소 및 김천지원 2차 항의방문
- 2001년 7월 24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1차 개정안 기간 6개월 연장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01년 8월 9일 박영두 사건 관련 김천역 항의 집회, 김천지원 3차 항의 방문
- 2001년 9월 5~7일 김준배 사건 정윤기 검사 소환을 위한 영월 지청 항의방문
- 2001년 9월 20일 김준배 사건 정윤기 검사 소환을 위한 영월 지청 2차 항의방문
-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총 83건 조사 개시 결정
- 2001년 3월 21일 양심선언·제보자찾기 서울역 앞 캠페인, 의문사법개정 서명운~5월 19일 동 함께 전개
- 2001년 3월 29일 남아공 파즐란데라 위원과의 간담회와 토론회(카톨릭회관 강당)
- 2001년 5월 20일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 ‘산자여 말하라’ 개최(세종문화회관)
- 2001년 6월 1차 법개정 - 기간 연장 및 과태료부과권만 확보
- 2001년 6월 28일, 위원회 박영두 사건 결과 발표에 따른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7월 4일, 20일, 은폐 조작자 항의방문(김천, 청송교도소), 대책마련 촉구하며 8월 9일 법무부 항의방문
- 2001년 9월 4일, 위원회 김준배 사건 중간발표에 따른 경찰청, 담당검사(영월지청) 5~7일, 8일, 항의방문, 규탄집회(종로), 경찰청장 면담 등 12일, 20일
- 2001년 12월 14일 실지조사 거부하고 녹화사업·마파람·921민간인사찰한 기무사 항의방문
- 2001년 12월 17일 양승규위원장 퇴진과 위원회 개혁을 요구하며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1주일 농성(9월~12월: 위원회 쇄신을 위한 활동 전개해왔음) ~28일
- 2002년 2월 28일 2차 법개정 - 기간 6개월 연장 및 진상규명불능 판단 조항 신설

- 2002년 7월 10일, 위원회 김준배사건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종로성당), 15~16일 사건담당 검사 항의방문(영월지청)
- 2002년 8월 14, 실지조사 거부하는 국방부 항의방문 27일
- 2002년 8월 16일 위원회 출석요청 거부하는 전두환·노태우집 항의방문
- 2002년 8월 21일 기무사 항의방문
- 2002년 8월 30일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국회 도서관 강당>
- 2002년 8월 31일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국회 앞)
- 2002년 9월 4일 위원회 출석요청 거부하는 전두환·노태우집 2차 항의방문
- 2002년 9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한 종료에 따른 기자회견
- 2002년 9월 16일 법개정 촉구하며 한나라당사 앞, 국회 앞 1인 시위 전개 ~10월 9일
- 2002년 10월 10일 의문사법 개정 촉구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경찰에 의해 7차례 ~11월 15일 불법 연행당함
- 2002년 11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3차 개정안 기간 1년 연장과 즉시 자료제출하도록 함과 아울러 통신사실내역제출요구권 신설조항 국회 본회의 통과, 농성 중단
- 2002년 12월 9일 노숙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의 과잉 진압 항의 경찰청 앞 ~2003년 1월 25일 항의시위, 영등포경찰서장의 사과와 피해 보상으로 중단
- 2003년 4월 30일 상임위원으로 공무원 임명 반대 청와대 앞 일인시위 ~6월 30일
- 2003년 5월 6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개정 방향 공청회
- 2003년 10월 17일 위원회 출범 기념일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감사패 전달
- 2003년 11월 22일 오세훈 의원 등 61명 발의
- 2003년 11월 24일 법사위에 회부

- 2003년 12월 5일 법 제정 당시부터 3차례 개정하는 동안 소관상임위였던 법사위에서 소관이 아니라며 국회의장에게 반려
- 2003년 12월 9일 의문사 유가족들 시신기증과장기기증서 서약식
- 2003년 12월 26일 한나라당사 앞 4차 법개정 노숙농성 시작,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재회부
- 2003년 12월 31일 법사위에서 재 반려하여 소관상임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운영위로 회부
- 2004년 1월 8일 노숙농성 일시중단
- 2004년 1월 28일 4차 법개정 촉구 한나라당 점거농성 및 2차 노숙농성 시작
- 2004년 2월 19일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운영위 간사)가 합의하여 법사위에서 처리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함
- 2004년 2월 21일 국회의장 공관 앞 일인시위 ~22일
- 2004년 2월 24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의제 상정 기간 6개월 연장 직권 상정기로 합의
- 2004년 2월 25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의제 상정 기간 1년 연장으로 조정하여 직권 상정기로 합의
- 2004년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단순한 기간연장 개정은 거부한다는 서한 전달
- 2004년 2월 28일 범위확대와 기간연장 수정발의안 추진기로 합의
- 2004년 3월 10일 탄핵정국 돌입함에 따라 법개정 포기하고 노숙농성 57일만에 중단함
- 2004년 6월 10일 기무사 항의집회
- 2004년 6월 25일 국정원 의문사 진상규명 비협조에 대한 항의집회 국정원 앞에서 가짐
- 2004년 6월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종료
- 2004년 6월 30일 원희룡 의원 등 94명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4차 개정

안 발의 현재 행자위 계류 중에 있으며,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준비 중에 있음

-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제출
- 2004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안인 이른바 '박기춘 의원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현황과 과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중심으로 -

이영재 |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회자되는 '민주주의'에는 피와 눈물로 짜놓은 현대사의 비극이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본권과 참정권 확립이라는 교과서적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총칼로 짓이겨진 기본권은 먼지 묻은 헌법의 조문이었을 뿐이었고, 사사오입, 체육관 선거로 얼룩진 참정권은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보여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생때 같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죽지 못해 살아오신 어머니들의 절규와 최루탄에, 몽둥이에 쓰러져간 동료들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던 이들의 절절한 사연들을 엮어 놓을 때에야 비로소 설명 가능하다.

지난 2000년부터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온갖 폭압 속에서도 '민주화'라는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열정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평가가 진행되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 사건이다. 하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민주주의는 스산한 가을비 속에서도 여전히 길거리의 노숙농성에서 백발 성성한 노구

의 탄식과 회한의 목소리로 다시 외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historical rectification) 작업의 출발은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었다. 두 번째로는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부 집권 중 자행된 반민주행위와 부정선거,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가 있었다. 세 번째 사례로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제기되었던 일제 식민지유산 청산요구가 있었다(정호기, 2004; 240-242). 이 세 번의 과거청산은 온전한 의미의 과거청산 작업은 아니었다. 이 작업들은 과거청산의 명목하에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진행되었거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하여 좌절되어야 했다. 일제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요구는 굴욕적 협상¹⁾으로 인하여 진척될 수 없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본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거청산 작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를 들 수 있다. 과거청산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보상' (배상), '기념사업'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때, 17년에 걸친 5·18 과거청산 요구는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일부의 진상 공개, 관련 희생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²⁾, 기념사업 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중한 성과³⁾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과거청산 작업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다. 그렇다고, 후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나찌청산 작업을 비롯하여 (군부)권위주의 통치 또는 파시즘적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이나 전쟁, 인종학살과 같은 비극적 경험을 갖는 국가들이 공히 경험했던 보편적 문제이다. 하지만 그 양태와 결과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와 차이를 보였다. 과거청산 작업을 통해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적 규범으로 승화시켜 국가발전 및 국민통합의 공공선(common good)으로 삼은 긍정적 사례(프랑스, 독일, 대만, 남아공 등)가 있는 반면, 과거 권위주의의 잔당들에 의한 지속적 저항으로 국가가 양분되다시피 하여 과거청산은 커녕 퇴행적 경로를 밟고 있는 국가(필리핀, 태국 등)들이 있다(이내영, 박은홍 2004. 참조).

각각의 사례들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은 해당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과거청산이 활용되거나 사회적 평가를, 또는 희생과 피해에 대한 응징이라는 관점으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Hayner, 2002).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과거청산의 실패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좌절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청산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거시 규범적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들에 대한 과거청산 요구가 본격화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 처리과정이 종결되는 1997년 전후였다. 그 중에서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과거청산 작업이 제한적 사건과 시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그 대상과 시기, 범위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청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주화보상법을 중심으로 과거청산 작업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의 현황에 주목하였다. 신청인들의 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동안 민주화보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심의 현황 및 보상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관련사항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 자체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이하 계승연대)가 민주화보상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2004년 6월까지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현황을

1) 그동안 외부무가 1963년 3월 5일 작성하여 2급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던 '일반청구권문제 문서'에 따르면, 피징용자수는 노무자66만7684명, 군인·군속 36만5000명 등 103만 2684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생존자 1명당 200달러, 사망자 1명당 1,650달러, 부상자 1명당 2,000달러 등 총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1년 5월 21일-72년 3월 20일 징용, 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 보상신청만을 받아 사망자 8522명에 대해 1인당 그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이 청구권 문제는 강압적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이나 일본침략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 성격이 아닌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분리,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의 상호청산으로 규정되고 말았다(국민일보, 2005. 1. 18.일자).

2)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 작업은 1990. 8. 6. 민자당이 단독처리한 광주보상법에 근거하였다. 물론, 전두환 정권 당시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금전적 지원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는 1995. 12. 21. 제정된 5·18특별법 제6조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상(補償)'이라는 용어 대신 의도적으로 '배상(賠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배상'을 강조한 이유는 보상이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한다면, 배상은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위를 전제하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재, 2004: 17.) 참조. 특히, 보상과 배상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한 논의는 (박원순, 2001)을 참조.

3) 5·18 과거청산 작업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민주법치국가의 원리를 확증하였다는 점이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관행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선고96도3376, 중)."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제도적 평가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명예롭지도, 수월하지도 않았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 (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은 1997년 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이래 유가협과 추모연대를 주축으로 한 422일간의 노숙농성과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법 제정 당시 추모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시금석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군사독재 정권들에 의해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다른 강권 수단에 의해 민주주의가 일시 사라지거나 기형화되기는 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발전,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은 데에는 민족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 가며 투쟁하였고,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거나, 인신의 구속과 수배를 당하는 범법자가 되었으며, 직장 과 학교에서 쫓겨나 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십 수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의 전문에 있는 저항권적 함의의 법적 정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강경선, 2003). 이렇게 볼 경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했던 사법적 재판과정에서도 끝내 법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저항권의 함의를 내포한 법이 민주화보상법이다. 현재도 엄존하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염두에 둔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보상하는 작업 자체가 저항권을 용인하지 않고는 법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2. 민주화 보상법의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과정

정부차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은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 출발은 1997년 초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진행과 ‘5·18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의 제정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법정에서 가려진 직후 민주화 보상법의 법제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3월 6일 성공회 성당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이하 추모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과거청산 과제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6월과 9월에 걸쳐 열렸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학술활동을 통한 사회 공론화 작업과 함께 제반 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모연대는 97년 송년모임에서 98년 차기 사업의 중심으로 법제정 활동을 결의하게 된다.

98년, 법제화를 위한 실천노력의 최대 집중시기!

1998년 4월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일요일만을 제외하고 약 7개월 동안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신범 의원 외 27명의 공동발의로 1972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의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을 위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이 7월 30일 발의되었다. 같은 해, 8월 향린교회에서는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9월 1일 2차 학술회의를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등 두 가지 법률 시안이 발

표 되었다. 보름 뒤인 9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있었다. 그 후 법제정의 진척이 없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11월 4일부터 여의도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하게 된다. 무려 422 일간의 여의도 농성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99년, 법제정의 기나긴 기다림과 성과

1999년 들어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특별법 제정 중간 보고대회 및 범국민추모사업회 설립 명회를 개최하고, 민족민주 진영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대국회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던 중 5월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민회의측의 수정안(정부부처의 반대로 법안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유공자부분을 제외한 5. 18 특별법 수준의 법안으로 재추진)이 제시되었고, 유가협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7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유선호 의원의 91명의 국민회의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은 1999년의 막바지인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0일 유가협은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법 개정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기는 1969년 8월 7일로 규정되었고, 종기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본 법 제2조에서 정한 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각기 3

인 추천으로 9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관련자 유족의 해당여부, 보상금 지급 등의 심의 의결과 명예회복, 추모단체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보상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태일 열사건과 같이 유신시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신청접수는 2차 접수를 2001년 12월 말까지로 정하였고, 조사 및 심의는 지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접수건의 폭주와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기간 안에 심의 완료되지 못하고 일부 신청사건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1990년 민자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던 광주보상법을 모태로 하여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법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 한정된 기간,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광주민주화운동과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사안들은 1969년부터 약 30년의 세월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통일운동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였던 사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보상의 형평성 문제, 명예회복의 실질적 조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비상임 구조로 운영되면서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시행 3년이 지나서야 가능하였다.

2000년 법제정과 더불어 관련 5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를 결성하였다. 법제정 과정 당시 유가족과 추모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에 비하면 참여 단위의 폭이 넓어졌다. 계승연대는 법 시행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후 지루하게 공전되던 개정안이 16대 국회 막바지인 2004년 3월 2일에서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련자 증서교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말소, 불이익 행위 금지 등 명예회복 조치를 명시하였고, 그 동안 수 차례 문제가 되었던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보완하도록 하였으

며, 추가신청을 2004년 12월까지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법개정은 민주화운동대상자의 확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진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말았다.⁴⁾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관련 부처들의 비협조와 이견 등으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3. 민주화 보상법의 과거청산적 함의

1) 시기, 대상 및 개념의 포괄성

민주화보상법은 '민주주의 발전' 과 '국민화합' 이라는 공익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민주화보상법은 그 시기와 대상, 개념정의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

제2조(정의) 중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강조는 인용자).

시행령 제2조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들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법의 2차 개정안이 이호웅 의원 외 10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발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4년 3월 2일 국회에서 명예회복조치 신설, 보상 기준 개선, 신청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불철저한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명예회복 대상자에 오랜기간 민주화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온 분들이 배제되어 있는 점,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가 미비한 점, 그리고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합리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2004. 9. 20.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안 중)”

한국 사회의 기존 과거청산 작업이 ‘일제하 반민족행위’, ‘이승만 정권 집권시 부정’, ‘제주4·3’, ‘5·18 광주’, ‘거창’ 등 일정한 시기와 대상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민주화 보상법은 제2조에서 보듯이 1969년 8월 7일⁵⁾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학생, 노동, 교육, 재야, 언론, 농민, 빈민, 통일운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가히 국가폭력에 의한 일방적 피해를 제외한 한국 사회 과거청산의 시기와 대상을 대부분 포괄하는 수준이다.

시기와 대상의 포괄성은 당연히 민주화보상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 등 핵심개념의 광범위한 함축으로 이어진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는 항거대상을 ‘권위주의 정권’ 이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 (authoritarian regime)에 의한 통치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잔재에 의한 통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문민정부 등장이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한 노수석(1996), 권희정(1996), 류재율(1997), 김준배(1997) 열사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의 기여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확립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 기본권에서부터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화보상법은 협소한 의미의 민주화운동, 즉 군부독재에 항거한 학생 또는 재야인사들의 투쟁이라는 통념을 넘어서는 포괄적 함의의 개념 규정력을 갖는다.

이에 더해 항거의 규정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2조가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 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현행법의 규정은 실질적 차원의 민주화운동,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전개된 부문운동까지 포괄할

5) 시기의 규정이 1969년 8월 7일 이후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행법상 시기의 의미는 제6차 헌법개정인 3선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날짜이다. 종기에 대해서는 ① 현행 헌법개정시점(1987년 10월 29일), ② 문민정부 이전까지(1992년 2월) ③ 국민의 정부 수립이전(1998년 2월), ④ 본 법의 제정이전까지(2000년 1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종기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상수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두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종기를 두면 특정시기나 특정정부를 특별한 의미로 평가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정하자, 이런 의도에서 시기와 종기를 뺐다(이상수, 제206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1999. 8. 9.)”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수 있는 개념적 포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 내재된 이념적 갈등

이처럼 민주화보상법은 시기, 대상, 개념에 있어 민주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긍정성을 갖는 반면, 구조적 차원의 한계 또한 내재하고 있다. 우선, 민주화보상법이라는 특별법이 우리 헌법의 저항권을 암묵적 용인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저항권을 용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둔 것도 아니고, 민주화보상법 내에 어떠한 특별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공법, 긴급조치 등 유신이후 폐기된 법안 이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유죄판결을 특별재심 등 사법적 번복 과정 없이 인정하는데서 오는 법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리상의 충돌이 민주화보상법의 외재적 한계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주화보상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에 발생하는 이념적 대립은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입법취지를 위협할 수준의 내재적 한계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⁶⁾는 그 자체의 함의만으로도 법리적, 이념적 대립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가 귀결되어야 할 민주헌정질서의 범주까지 침범하는 실로 막강한 규정력을 행사하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극명한 이념대립 상황에서 기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적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작용하는 헌법 외재적 체제이데올로기인 반공산주의(또는 반사회주의)를 지칭하게 된다.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한 심의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평가의 잣대는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⁷⁾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사안의 주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제2조의 해석이 확장된다. 여기에 더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시장경제⁸⁾로 보는 견해까지 덧붙여진다면 가히 그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은 무한정 확장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전문⁹⁾과 헌법 제4조¹⁰⁾에 등장한다. 반면, 권위주의적 통치가 자행되던 시기,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원용된다.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고금수수), 6조(잡입, 탈출), 7조(찬양·고무 등), 8조(회합·통신 등)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민주화운동 해당성 여부 심의에 있어 당연히 충돌이 예견되는 개념이다.

얼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소위 남파간첩이었던 변형만 등의 사건에 대해 두 위원회가 동일한 민주화보상법 제2조의 정의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심지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제1기, 제2기의 결론이 달랐다. 의문사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하다 숨진 남파간첩 변형만씨 등 2명에 대해 “사회보호법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의문사 판단 대상에 올랐던 남파간첩 박용서씨 등 3명은 “강제전향과정에서 고문당해 숨졌지만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

7) 지난 7월 12일 권경석 의원 외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화보상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하여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린 것임.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향후 이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8)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1952년 사회주의국가당(SRP) 및 1956년 독일공산당(KDP) 판결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행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석을 거의 따르고 있다. 하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을 정치질서 차원에서 해석하는데 반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라고 하는 요소를 덧붙였다(국순옥, 1994. 참조).

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10)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

6)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한정합헌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수호해야 할 최고가치로서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의 배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그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뼈대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59-64쪽).

러나 제2기 의문사위는 박씨 등이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판단, 1기 결정을 뒤집고 의문사로 인정했다(『국민일보』 2004. 7. 8.일자)

또한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2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송한 변형만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문화일보』, 2004. 7. 7.일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5·18이전 민민운동	측면	5·18이후 민민운동
자유주의적 운동	총체적 성격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
장기집권군부독재	투쟁대상의 재인식	독점자본의 이해에 밀착되어 있는 파쇼적 억압기구
미국 : 민주화운동에 우호적인 혈맹		광주학살을 방조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 (반미주의)
지식인, 학생, 양심적 정치인 등 범재야 중심	투쟁주체의 재인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민중주체주의)
비합법적 전위조직을 제외하고서는 문재의식 부재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지도하는 전위세력 필요(혁명적 전위주의)

〈 표-1 〉 5·18 이전과 이후 민민운동의 변화 (김윤철, 2004 : 101)

〈표-1〉에서 보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의 양상이 투쟁 대상과 주체를 재인식하고 발전해 감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한층 더 중요해 졌다.¹¹⁾ 국가범죄 및 가해자측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비판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반공주의나 색깔론으로 축소된다. 민주화보상법

11)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2002년, 제17집)에서는 과거청산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평가가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 중 민주화보상위원회의 활동 중 주요한 한계로 지적한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위원회 활동의 부재'였다. "아직 민주화보상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 아니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임무가 부여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그러나 위원회는 적극적인 사회 공론화를 오히려 기피하였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심의를 둘러싸고 신청인과 반대측에 있는 관련기관들의 항의 및 압력에서 위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467-468쪽)"

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인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관련한 이념적 대립은 입법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념적 차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명예회복 및 보상 업무의 종결 이후에도 민주화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한 보훈사업이나,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여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념적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3) 진상규명의 한계

과거청산 작업은 진상규명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을 검토해 보면 진상규명을 핵심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표-2〉에서 보듯이 '제주4·3사건'과 '의문사위원회' 정도만 진상규명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총괄적 진상규명은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관련사건	5·18	거창사건	제주 4·3사건	의문사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또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 명예회복 ■ 관련자, 유족 결정 및 지원 ■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유족 결정 ■ 명예회복 ■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 명예회복 ■ 진상보고서 작성, 사료관 조성 ■ 기념사업 ■ 정부의 입장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 대상 자의 선정 및 조사 (진상규명) ■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유족 결정 ■ 피해보상 ■ 명예회복 ■ 기념사업 ■ 관련단체지원

〈 표-2 〉 현재 진행중인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의 주요 기능 또는 업무 (정호기, 2004: 245)

5·18 역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보고서가 제출된 적은 없다.¹²⁾ 민주화보상위

12) 2004년 10월 3일 대법원에서 5·18 관련 재판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5·18 관련 진상규명 작업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과 관련해서는 5·18 사료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가 있다.

원회의 진상규명 관련 조사권한은 유명무실하다.¹³⁾ 심의 자료는 신청인이 구비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과거청산적 성격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정 당시부터 불완전한 과거청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의 대부분이 '보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오히려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법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진상규명 없이 진행되는 민주화운동과 금전적 보상의 치환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된 가치들을 궁극적으로 파편화 시킨다. 애초 보상의 제기는 유족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유족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최우선 요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희생된 죽음에 대한 공적인 평가였다. 보상 우선주의는 과거의 국가범죄 및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부정권들이 활용했던 방식이다.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된 보상을 선택하였다.¹⁴⁾ 이후 대부분의 과거청산 작업이 광주보상법을 근간으로 하여 졸속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을 통한 사회적 재평가가 아니라 개별보상을 우선시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민주화보상법 역시 광주보상법을 상당부분 원용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광주보상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5·18은 '5·18 특별법' 제6조를 통하여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한 정당한 배상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지만, 민주화보상법을 비롯한 다른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은 이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¹⁵⁾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어야 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한 시혜적 조치¹⁶⁾ 차원의 보상 개념으로 전도되고 말았다.

한국 사회 과거청산 작업은 단적으로 말해 진상규명과 금전적 보상을 맞바꾼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화보상법이 갖는 진상규명의 무력함은 신청인의 입증 책임으로 돌려졌다. 신청인들이 입증해야 할 판결문, 수용증명서 등의 서류들은 접근성에 있어 개별 신청인보다 오히려 정부차원의 업무협조가 가능한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용이하다. 사회에 공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인혁당'¹⁷⁾이나 '자주대오'¹⁸⁾, 소위 말하는 활동가 조직, 간첩단 사건 등의 경우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들의 조작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적절한 진상조사가 없을 경우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판결문이 심의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과 단체들의 법제정 요구를 2년여 미루다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민주화보상법은 정치적 타협으로 일관된 졸속입법이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⁹⁾

특히, 신청인들의 항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들이 구속과정에서 압수되었거나 수배 중 증거인멸을 위하여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당시 재판부 또는 검찰, 경찰의 수사자료를 폭 넓게 활용하지 않고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기소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생략된 자료, 아니면 과장되거나 조작된 유죄판결 내용이 평가의 주요 근거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²⁰⁾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

13) 민주화보상법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는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강제력은 두지 않았다.

14) 전두환 정권은 5·18을 '폭도의 사주와 선동에 대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빚어진 사고'로 정형화하고 1980년 6월 6일 위로금 명목으로 즉각적인 보상조치를 취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8월 6일 민자당이 단독처리한 광주보상법을 통하여 진상규명 없는 보상을 서둘러 시행하였다(이영재, 2004: 75). 하지만 결국 전·노씨는 1995년 12월 제정된 '5·18 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 이후 1997년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15) 1990년 광주보상법의 제정 당시 평민당은 '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 해직교수들은 '5·18광주민중항쟁피해자의 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을 제안함으로써 '보상'이 아닌 '배상'을 분명히 제안하였으나 민자당의 단독처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당시에는 이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6) 민주화보상법 제1조(제정목적)에 보면,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로 되어 있다. 제6조(보상원칙)은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생활지원금) ①항은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7)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인혁당재건위사건자료집」 참조.

1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허루소식」 중 제2면, "이적단체조직 이제 그만!"(1998, 11. 11.일자) 참조.

19) 이재승 교수는 민주화보상법에 대하여 "국가범죄를 국가범죄로 다루지 않고 '민주화운동'이라는 논공행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자 모습을 분식해버리고, 국가책임을 광범위하게 완화시키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적 심사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 대표적 사례라고(2004: 46)" 평한다.

20) 청계피복노조 아프리카점거농성사건, 3당 합당(민자당) 반대시위 사건, KBS별관 점거농성사건, 한준수 전연기군수 양심선언 사건,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 김기설 사망사건, 동일방직 노조사건, 오송회사건, 전교조 결성관련 해직 사건, 5·3 동의대 사건(대한변협, 「인권보고서」, 2002:496-499쪽) 외 민주주의학생연맹 사건 등 이적단체 관련 사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의위원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 평가노력 덕분이기도 하다.²¹⁾ 하지만 중국에는 진상규명의 강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성향 등을 문제삼아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소지들이 잔존해 있다.

4. 현황과 과제 :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를 중심으로

1)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현황

이하에서 구체적인 현황의 통계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하여 공개된 2004. 6. 15.(제109차 본위원회 심의)까지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각 시도에서 1차 조사 기간 중에 있는 3차 접수 신청건들과 2004년 12월 31일 접수 마감된 제4차 신청건은 제외하고, 2004년 6월 15일까지 심의된 1, 2차 신청사안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통계의 항목을 조작하여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 등으로 신청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인정 및 기각의 구체적 사례들을 인용하지는 못하고 있다.²²⁾

민주화심의위원회는 법 제정 후 2차례의 신청접수를 받았고, 2004. 3. 2. 법 개정 후 3차(2004. 7. 1.~8. 31.), 4차(2004. 10. 1.~12. 31.) 신청접수를 받았다. 1차 접수기간(2000. 8. 21.~10. 20.) 동안 보상 909건, 명예회복 7,530건 등 총 8,440건이 접수되었다. 2차 접수(2001. 10. 1.~12. 31.)를 통하여 보상 386건, 명예회복 1,981건 등 총 2,367건이 접수되었다. 2차 신청까지 신청건수는 총 10,807건이 접수되었다. 제3차 접수기간 동안에는 보상 124건, 명예회복 596건 등 총 720건(명예회복 596건, 보상 124건)이 접수되었다.

21)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2년 전교조 및 동의대 관련 사안의 심의에 불복,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12·12 쿠데타 변론을 맡았던 헌법 소속 위원에 대해 계승연대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퇴요구가 있는 등 운영상의 파행이 있기도 하였다. 2003년 1월에는 감상근위원장이 법개정 지연과 위원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하였다. 제2기 변정수 위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기각 결정에 대한 항의농성 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심의위원에 대한 사퇴요구와 같은 불협화음 없이 정상적으로 심의가 지속되는 등 위원회가 상당부분 운용의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2)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2002년, 제17집)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평가"(pp.458-478)에는 신청사안들에 대한 직업 별 구성, 사건연도별 분류, 시대별 학생구속자와 신청인 비교, 연도별 학생구속자, 적용법을 조문별 구속노동자 등으로 체계화된 자료들이 제시된 바 있다.

제4차 접수에는 총 463건(명예회복 343건, 보상 120건)이 접수되었다.

제1차, 제2차 접수를 통하여 총 접수된 10,807건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은 1,295건이다. 그 중 사망 신청건은 281건, 상이 신청건은 1,014건이었다. 명예회복 신청은 총 9,512건으로 유죄판결 5,724건, 해직 3,393건, 학사징계 395건이었다.

(2004. 6. 15.기준)

청구내역 심사결과	계	보상금 지급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신청건수(A)	10,807	1,295	281	1,014	9,512	5,724	3,393	395
심의실적(B)	7,852	926	176	750	6,926	4,081	2,497	348
처리율(B/A, %)	72.7	71.5			72.8			
인 용(C)	6,328	460	85	375	5,868	3,760	1,892	216
인용율(C/B, %)	80.6	49.7			84.7			
기 각(D)	1,524	466	91	375	1,058	321	605	132
기각율(D/B, %)	19.4	50.3			15.3			

〈 표-3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현황

2004년 6월 중순까지 심의 현황을 보면 1, 2차 총 10,807건 중 7,852건이 처리되어 72.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접수가 개시된 이래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 약 27% 신청사안들이 심의대기중인 상태이다. 〈표-3〉에 따르면, 72.7%의 심의현황 중 '인용'(인정)은 6,328건(80.6%), 기각은 1,524건(19.4%)으로 나타난다. 이 중 '사망', '상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각율은 인용 460건, 기각 466건으로 50.3%의 기각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명예회복 신청건들은 인용율(84.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기 위원회와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2기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사망 신청건을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1기에는 사망관련 52건이 인용되었고, 57건이 기각되었다. 2기에서는 33건이 인용되고, 34건이 기각되었다. 추모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범국민추모제에 모셔지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 중 총 177분이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하였다. 의문사 사안을 제외하고 현행 법적 요건에 비추어 심의통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당수 사안들이 제1기에 심의되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사망 신청건에 대한 기

각율이 예상보다 높았다. 특히 인정사안 중에는 기여도를 별도로 산정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사 망		상 이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급대상(A)	4602	2,146	85	9,996	3751	2,150
지급의결(B)	3081	6,224	69	8,161	239	8,063
2002년도	77	6,301	48	5,347	29	954
2003년도 (3회, 4·8·12월)	149 (20)	5,354 458	7 (12)	818 409	142 (8)	4,536 49
2004년도 (2회, 1·3월)	82 (11)	3,934 177	14 (1)	1,519 68	68 (10)	2,415 109
지급실적(C)	274	15,813	67	7,978	207	7,835
미지급(D=B-C)	34	411	2	183	32	228
추가결정대상(E=A-B)	152	5,922	16	1,835	136	4,087

〈 표 -4 〉 보상액 결정 및 지급현황

※ ()는 보상결정자중 재심신청 결정자임

〈 표-4 〉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보상금 지급 대상은 85건이었고, 보상총액은 99억 9천 6백만원이 지급예정 금액이다. 이중 보상지급은 67건으로 79억 7천 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후로 지급이 연기된 경우가 16건,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결정이 보류된 경우가 2건이다.

2)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 후 사망의 인과성 여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안의 심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추모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범국민추모제에 모셔지는 소위 ‘열사’로 불리는 분들의 신청사안 중 약 절반 가까이가 민

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사망 및 상이 사건의 경우 현행 요건에 따를 경우 관련성 입증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사건들은 병원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질병 발생의 원인, 후유증, 상이 정도 등의 입증이 용이한 반면, 그 이전 사건들의 경우 병원기록이 소멸된 관계로 관련성 입증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병원진료 기록의 존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0년을 넘지 않는다. 또한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동네 개인병원, 약국,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하였거나 치료를 해주었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진료기록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소견서조차 구비할 수 없다. 현재는 이 문제를 신청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향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의 경우 민주화보상법의 관련자 요건 중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의문사위원회가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하는 진상규명의 과제가 있다면,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경우 관련자의 사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그나마 입증이 용이한 편이다. 또 관련자가 수배 중이었거나 공권력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그렇다. 하지만 추모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질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장해분과위원회의 인과성 인정률은 극히 낮은 추세이다. 문제는 장해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곧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시행령 제3조).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본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영역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여 총9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심의권한을 갖는 본위원회가 사망 및 상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위원회가 시대적, 사건별 맥락 등을 고려하여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재판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

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 시대적, 상황적 정황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정신분열증 관련 신청사안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과 정신분열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영남지역 모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식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고, 같은 해 6월 시위 중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 1990년 3월 3당 합당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해 지명수배된 김씨는 검거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무렵 말수가 줄고 어지럼증과 두통,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맞아 다친 사실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만 정신분열증은 민주화운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시위에서 대열의 맨 앞에 섰던 원고는 구타나 체포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90년 초에는 지명수배돼 상당기간 집에도 못 들어가는 등 불안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4년 9월 7일 18:58 기사). 사법 재판부가 오히려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소견과 달리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²³⁾

또, 최근 과로사 판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최은배 판사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했지만 근로환경이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혼자 일을 떠맡아 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했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지자 활성화해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4. 11. 11.).

23) 상이 및 질병 유무, 그 상이 및 질병과 민주화운동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판단이 지나치게 과거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고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를 한 경우 등은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제3조는 질병에 관하여는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도 그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없도록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정태상, 2004, 25-26쪽).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피로감에 시달렸던 부산구덕고등학교 신모 교사의 사례는 이와 대비된다. 신교사는 '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응급처방만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교육민주화 활동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구속과정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쓰러져 구속적부심으로 출소하기까지 하였다. 출소 후에도 교육민주화 운동을 지속하던 신교사는 위암으로 쓰러져 입원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다.²⁴⁾ 교육민주화운동의 탄압과 해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암으로 사망한 이 사건은 장애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²⁵⁾ 2003년 9월 29일 유가협, 추모연대 등은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신교사건과 류재을, 권희정, 장재을 사건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농성을 전개하였다.²⁶⁾ 이 사건은 신청인의 재심 청구 후 본위원회에서 기여도 10%를 적용하여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 심의의 중요성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는 정부에 의한 제도적 평가 이전부터 각 추모사업회별로, 또는 주변 지인들 위주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민족민주열사들의 경우 살아생전 활동할 당시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에 더해 추모사업의 과정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권위주의적 통치와의 투쟁을 촉발시켰다. 전태일 열사가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노동기본권 확립의 기폭제 역할로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던 사례와 같이, 민족민주열사들은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 국면마다 죽음 이후에도 수치로 환산할 수 없

24)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장 이상석씨는 "신교사가 제때 치료를 받았다더라면 이렇게 중증인 암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교조 김현준 사무처장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장기간의 단식이나 밤샘농성 등으로 소화기 계통의 장애와 요통·신경통·폐질환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무처장은 이어 "많은 전교조 교사들은 특히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난 아픔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빼앗긴 교단을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약"이라고 말했다(국제신문, 1991. 2. 7.일자). 부산 구덕고 재자들이 중심이 된 '신용길선생추모사업회'는 올해로 13주기 추모제 행사를 가졌다.

25) "신용길 열사는 전교조 활동 중 구속 단식농성을 벌이다 부산구치소로 넘겨진 이후 위궤양이 악화돼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음에도 날마다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던 중 위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입원하여 위암선고를 받고 운영하셨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암의 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였다(추모연대 명의의 2003. 9. 8. 민주화보상위원회 계시판 글 중)."

26)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열사농성단 명의의 2003. 9. 29. 민주화보상위원회 계시판 "유가족 및 추모사업회 명예회복위원회 농성 돌입" 글 참조.

는 기여를 하였다.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역할 또는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 요건의 최소주의적 해석만을 고집할 경우, 민족민주열사들의 생전 활동과 추모사업 등을 통하여 형성되어온 민주화의 사회적 '기억' 양식들이 파편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민주화운동의 가치들과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배치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 규범적으로 정착한 '타당성'의 영역과 실정법적 제도화라는 '사실성'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민주화운동이 갖는 사회규범적 가치를 침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4차 신청접수를 마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회차가 더해 갈수록 접수건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신청대상자들이 1차 접수기간에 대거 접수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²⁷⁾ 약 30년에 걸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 70년대부터 구속된 학생구속자수가 14,118명인데 실제 제2차 신청접수까지 신청한 수는 3,760건으로 약 29%의 신청비율에 머물고 있다(「인권보고서」, 2002, 460쪽). 신청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던 제4차 신청접수까지 진행되는 마당에 신청기간이 짧았다거나 홍보부족이라는 기술적 문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신청인들의 불만의 표시이자, 무언의 항의라고 보여진다. 향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사회적 평가 속에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길 기대한다. 시대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필연적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졸속입법에 따른 한계들이 최

27) 1969년-1980년 동안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등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이 6,664명(민가협, "2003년도 인권실태조사보고서", 23쪽 참조), 5공화국 집권 7년 동안 시국관련 구속자수가 4,700여명, 6공화국 집권 전반기인 90년까지 4,176명(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90, 54쪽), 91년 1,630명, 김영삼 정부 집권 중반부인 96년까지 구속자수가 2,856명(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96, 26쪽) 등 대략 1969년-1996년까지 시국사건관련 구속자수만 2만 여명을 상회한다. 제3차 신청접수까지 11,527건이 접수되었다. 시국관련구속자수에 민주화보상법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망' 및 '상이', '학사징계', '해직자' 등을 더할 경우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수가 기신청자의 2-3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민주화보상법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강제징집, 취업거부, 구금(기소유예), 수배 등의 사례를 더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심의는 실제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자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기념사업 등 각종 후속작업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화되고,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과거청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참고자료 -

강경선, 2003,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4호)
국순옥, 199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8호)
김윤철, 2004, "5월운동과 민족민주운동", 「5·18연구: 회고와 전망」(5·18 연구소 주관 24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박원순, 2001, "5·18 특별법의 재정과 법적 청산",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 민주항쟁사」
이내영, 박은홍 공저, 2004,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아연출판부)
이영재, 2004, "5·18 사법적 처리의 의의와 과제", 「5·18연구: 회고와 전망」(5·18 연구소 주관 24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이재승, 2004, "과거청산과 정의"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민주인사초청 특별토론회, 2004, 10, 15.)
정태상, 2004, "민주화명예회복법 시행 4주년의 성과와 한계", 「민주화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004. 6. 21.) 자료집」(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관)
정호기, 2004, "한국 과거청산의 성과와 전망: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통권 69호, 겨울호), 역사비평사
Priscilla B. Hayner, 2002, *Unspeakable Truth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대법원, 「5·18관련 판결문」(선고96도337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1989년~2002년)
민가협, 2003, 「인권실태조사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1998. 11. 11, 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인혁당재건위자료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외 24인 발의, 2004. 7.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호용 의원 외 107인 발의, 2004. 9. 20.)
제206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1999. 8. 9.) 회의록
「국제신문」(1991. 2. 7. 일자)
「국민일보」(2004. 7. 8. 일자, 2005. 1. 18. 일자)
「문화일보」(2004.. 7. 7. 일자)
「연합뉴스」(2004. 9. 7. 일자, 11. 11. 일자) <http://www.yonhapnews.co.kr>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사이버광장 2003. 9. 8., 9. 29. 게시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현황과 과제

— 희생자중심사업에 관하여 —

문종석 | 푸른시민연대 대표

I 머리말

한국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이고, 비타협적인 저항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의 하나로 지난한 군사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둔 채 현재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권력의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으로 여전히 과거사의 한 부분들은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미 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과 80년대의 민주화운동세력 중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해 현재 정부와 집권당의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들이 명예회복을 통해 세상에 그 진실을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들이 기억되고, 축적되고, 계승되기 보다는 정치적 도구 등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보존하고, 재해석하여 이를

후대에 전하려는 노력들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성의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미완성의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잊혀져가고 있는 지난 과정에 대한 보존과 기념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면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우리에게 미진한 진실규명과 기억과 기념이라는 한계와 과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미진한 진실규명은 현재 '과거사청산'이라는 이슈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커다란 화두로 진행되고 있고,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의 통과와 규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출범 그리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 조성이라는 현실적 추진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그중 기념사업 부분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II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현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지난 1999년 7월 9일 국민회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04인의 발의와 1998년 7월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9인의 발의로 제출되었던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법을 1999년 1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양안이 절충되어 단일 안이 된 후 1999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법은 그 후 2000년 1월 12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되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의 탄생은 가까이는 1년여 동안 어려운 천막생활을 거친 유가협 및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고 멀리는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 법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이 법에 기초하여, 현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작업들, 기념사업 및 묘역 조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활동

- 1998. 4. 24~10. 30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
- 1998. 11. 4~ 유가협, 추모연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앞 천막 농성 돌입.
- 1999. 12.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00. 3.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회의’(유가협,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9개 단체)를 한우리교회에서 갖고 ‘(가칭)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민간위원회’ 건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함.
- 2000. 3. 21 제 단체 집행책임자회의를 갖고 ‘(가칭)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결성에 합의하고, 4월 6일 발족하기로 함.
- 2000. 4. 6 2차 대표자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가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00년 4월에 출범하여 그동안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활동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을 감시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위한 실질적인 민간단위의 활동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 ‘과거사청산’에 관한 법 개정 작업등에 적극 개입하여 이를 대중운동화 시켜내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작업 현황

- 1999. 12.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결
- 2000. 04. 2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설치
- 2000. 07. 1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시행
- 2000. 08. 0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2002. 08. 20 [제2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구성
- 2004. 03. 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공포

2000. 04. 2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심의작업은 총 129차에 걸친 심의작업을 끝내놓은 상황이다.

(116차 결과)

총 회차	총상정건	명예회복	보상	사망	기각	재심사	보류
116차	8,614	5,995	397	87	1,556	337	242

현재 심의위원회는 제4차 명예회복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보상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참조>

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명예회복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받아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로 설립되어 제1기 박형규이사장이 사임하고 이후 함세웅 이사장이 임명되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결정한 10대 기념사업중 민주묘역사업을 제외한 9대 사업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사업의 유형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
1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추모공원)	묘역 조성(분묘 혹은 납골 형태의 묘지, 각종 기념조형물 등)
2	민주공원	민주화운동 기념관 민주주의센터 민주화운동자료관(Archives) 민주주의연구소
3	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 역사정리	육성자료, 기록자료, 민주화운동 단체, 사건, 인명 사전, 시기별 자료총서, 부문별 자료총서, 해외 민주화운동자료총서
4	민주화운동사적(지) 발굴,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기념조형물 설치구상	민주화 사적(지) 개발, 민주거리 조성(전태일로, 남산 안기부터에서 서울시청까지의 민주로), 주제 중심의 민주화사적지 조성
5	6.10 항쟁 국가기념일 제정	6.10 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위한 노력
6	민주주의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출판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물 제작과 영상물 아카이브 설치, 비디오 교육자료 제작, 만화·신문 제작
7	민주화운동 정신 선양 사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행사(예: '민주백일장', '민주회화전', OO민주화운동 가상체험 대회OO등), 민주주의 학술논문상 제정, 한국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지원, 민주화운동 체험수기 공모 및 시상
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기술의 교과서화 및 기존 역사기술 정정 작업	초·중등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재기술, 정부 공식 기록에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의 재기술
9	전시회, 추모제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기획행사들	시기별 기획전시(5.18, 6.10 등), 주제 및 부문별 기획전(노동열사 기념제, 역대 시위 문화제, 해외 민주열사 기념제, 그림으로 보는 민주화운동전 등), 문화제(민주영화제, 공장의 불빛 재현 등), 추모제, 기념 뱃지, 그림, 초상화 등 자료제작 및 전시 판매
10	다양한 민주주의사회교육(민주시민교육) 및 국제연대 활동	각 범주집단별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체험 교육(사적지 순례 등), 국제연대활동(민주화운동 국제 확산 프로그램, 민주화운동의 국제 교류사업, 아시아 민주화운동 지원활동, 아시아지역 민주화운동 감시단 및 봉사단 구성, 아시아 지역 민주화운동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아시아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계획, 2001.5,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특히 민주화운동사료 수집 및 분류, 열람 사업과 교육, 연구, 출판, 기념사업행사등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 2004.7,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등〉을 수립하여 기념관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조성 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기념묘역과 기념관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현물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시-공간적 체험과 기억, 탐험을 유도한다. 따라서 기념묘역과 기념관의 조성은 추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취지와 목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확장하는 실제적 소통매체이자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체험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묘역 조성 사업은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10대 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기념하는 행위는 곧 민주화 열망과 부단한 현실적 노력들을 화석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 그 자체를 추상적 단위로 설정하게 될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수많은 민주화운동 실천가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행적과 살아 생전의 노력들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공간을 넘어 영속적인 민주화운동의 그 운동성을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파급될 구체적인 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그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하며 열사들의 영웅적 인상을 후세에 남기려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행위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은 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한 희생자 묘역 사업의 조성은 ▶죽은 자(민주열사/과거)와 산 자(민중/현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민주화운동에 대해 탐험하고 그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자연의 활용 ▶건축, 조경 등 인위적 접근에서 부활과 상생 그리고 영원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념물의 조성 ▶마지막으로 첨예한 쟁점이면서 동시에 가

장 중요한 새로운 장묘문화의 선도적 도입과 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민주열사와 민주 운동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과거의 재해석을 통해 자유와 평화·진리의 탐구라는, 현재와 미래로 확장된 민주주의 가치 체험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의 공간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계획, 2001. 5,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조성사업은 위에서 인용한 글과 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정되어 초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관련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2항제46호, 제7호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제5조(위원회기능)제1항제3호, 제4호(法 제4조 제7호관련)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제1항제4호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등의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1년 6월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팀에 의해 제출된 “민주묘역조성 후보지 인문학적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산17-1번지 일원(약27,000평)
- 기 간 : 2002. 6~2005. 12(3년 6월)
- 사업비 : 약 497억원(국비)
- 내 용 : 묘역, 위령봉안소, 추모관, 주차장 등 8,000평 내외
- 서울시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 설치
 - 서울시 환경관리실장 소속으로 설치(행자부승인, 2002. 6. 11)
 -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공포(2000. 7. 25)
 - 2002. 4. 25 민주공원 사업부지 확정
 - 2002. 5. 20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구역 제외결정
 - 2002. 7. 25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2. 10 서울시 조례 개정, 공원 녹지과 안에 ‘민주공원추진반’ 설치
 - 2004. 5. 7 안장방식 평장으로 확정(36차 기념분과위)
 - 2004. 6. 2 안장대상 120기 확정(기념분과위 37차 회의)

한편 관련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공원건립추진위”를 2001년 9월에 발족하여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다.

- 2001. 9. 4 민주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
- 2001. 12. 13 고건 서울시장 면담, 남산 요구
- 2002. 1. 31~2. 8 민주공원 건립 후보지 확정 쟁취농성
- 2003. 2. 27 강북구청 방문, 구청장(김현풍)에게 사업협력 요청
- 2003. 4. 9 지원단에서 민주공원 사업 관련단체 초청 간담회

- 2003. 7. 23 민주공원 안장방식 토론회
- 2003. 8. 5 강북구청장(김현풍) 기념분과위원 면담, 사업 촉구
- 2003. 9. 3 지역주민 및 단체대표 초청 설명회(반대 측 실력 행사로 무산)
- 2003. 10. 8 강북구청장 면담(지원단, 000사무처), 사업 촉구
- 2003. 11. 14 공청회 개최 무산(반대주민 및 단체 단상 점거)
- 2003. 11. 25 강북도봉지역 유선TV 큐릭스 방송 토론회
- 2004. 5. 24 KBS1 열린채널 “북한산을 지키는 수유리 사람들” 방영
- 2004. 7. 2 KBS1 열린채널 “민주공원, 우리의 약속입니다!” 방영
- 2004. 7. 12 오영식 의원 면담, 협력 촉구
- 2004. 8. 16 국무총리(이해찬) 면담, 대책 사업 추진 요청
- 2004. 8. 30 열린우리당 의장(이부영) 면담, 협조요청

그러나 묘역조성사업은 현재 표면상 지자체와 지역토호세력,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최근 사업부지 인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주공원유치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주민 설득 및 동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Ⅲ 기념사업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나름대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명예회복이 되었거나, 기 밝혀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사업인 “민주공원 추진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의심되는 현실이고, 사업부지의 자치단체와 지역토호세력 및 일부 지역주민으로 표현되는 반대세력에 부딪쳐 자칫 좌초할 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실규명이라는 급박한 현재적 요구와 이를 해결하고 기념이라는 국민적 동의과정을 밟아야하는 사회적 환경 및 주체들의 역량의 한계가 대표적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후퇴, 역사의 후퇴를 막는다는 데 있다.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화운동을 ‘역사’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박제(剝製)화된 역사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현재화(現在化) 하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먼저 민주화운동이 역사가 되기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노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계획, 2001.5>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중 특히 희생자와 관련된 부분은 기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치유하고 넘어야 할 상처의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태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축적되기 보다는 소모되고, 이용되는 부분만이 강조되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세대로 연결해야하는 기억의 고리가 단절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진상규명이라는 현실적 쟁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추진되어야하는 당면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추진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과 역량이 배치되어야 한다.

향후 기념사업 방안

■ 희생자 추모사업

- 범국민열사추모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 해원제
- 상황극
- 추모 노래제, 문화제

○ 희생 장소나 상징 장소에 민간이 주도하는 소형 기념시설 설치추진

- 특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추모인들이 직접 자연스러운 추모공간을 만들어내어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 필요(예 : 흑석동 故정은임 MBC아나운서 사고 장소 참조).



■ 연구·출판사업

-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희생자(열사)들이 미친 영향을 학문적으로 연구 필요
 - 관련 논문 지원이나 단행본 출판 지원
- 민주화운동 시기에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민의 지점들을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저작물 제작
 - 소설, 만화, 회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 활동 지원 및 출간

■ 기금 및 장학사업

-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금을 확보 운영
 - 민주화운동 보상이나 지인들의 모금을 통한 기금 확보
 - 소외계층 지원 및 다양한 소 기금

IV 기념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민주공원 유치 사업의 다양성 개발 및 추진

- 현재 민주공원 유치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세력과 지역토호세력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계획적인 반대 작업이다.
- 한편으로는 민주공원 사업의 정당성과 내용을 치밀하게 알리고 설득하지 못한 내부적 한계도 원인으로 기인한다.
-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좌초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공원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념사업 전반에 큰 위기로 표출될 것이고 나아가서 진상규명이라는 정치적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이에 기념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민주공원유치사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특히 문화, 예술계의 역량에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화이벤트 및 열사(희생자)들 갖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들을 다양한 언어로 생성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특히 민주공원이 지역에 유치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기대효과와 측면도 세밀히 연구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 기념사업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주체는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가족, 추모연대, 민주공원추진위원회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이 주체들은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을 고려할 때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꼭 필요한 문제이다.
- 기념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 네트워크는 공통점이나 각자의 장점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 이러한 네트워크는 중복사업의 방지, 예산문제, 프로그램의 현실성 문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추모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열사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에 임하자 –

편집부

I 왜곡된 추모사업 형태 비판

1. 추모사업회 활동의 왜곡된 인식 하나

추모사업회 활동은 열사들의 기일에 추모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전부이다.

1년에 한 번씩은 열사들의 기일이 돌아온다. 추모사업회는 이 때 추모제를 치르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때가 가까워지면 추모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예산은 얼마나 들것이며,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음식 등의 준비물은 얼마나 준비할 것인가, 묘소 참배만 할 것인가, 추모제도 함께 치를 것인가. 참석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고민을 한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해가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서 나중에는 끼리만의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힘들게 진행한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추모제를 치르고 이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돌아가 음식을 먹으며 일상의 얘기를 나눈다. 돌아갈 때에는 열사와의 의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한 번 와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일조차도 잊혀지는 경우도 많다.

2. 추모사업회 활동의 왜곡된 인식 둘

극단적인 경우, 외향상 나타나는 추모사업회의 창립 목적은 거창하지만 실상 본질에 있어서는 추모사업회 성원들이 자기 위안을 갖고자 만드는 경우가 많다. 추모사업회를 만드는 초기부터 다른 열사들은 추모사업회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 주위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추모사업회를 만들기도 한다. 또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가 1년을 주기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떼 넘겨 버리고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추모사업회마저 졸업해 버린다. 이런 경우는 열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추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자기 만족적이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동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 추모사업회의 초기에는 대단한 의욕을 갖고 시작하다가 성원들이 점차 사회에 편입되면서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적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위축되고 친목 모임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자족적인 모임은 사업의 확장 기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신규 회원이 확충되지 않고 점차 위축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경우는 추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추모사업회 회원들간의 문제로 그 힘을 소진하여 버리고 결국에는 와해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3. 추모사업회 활동의 왜곡된 인식 셋

추모사업회 활동을 종파적 이해관계로 인식한다.

이 경우는 열사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패권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부터 이러한 생각으로 추모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열사들을 부지불식중에 소유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정치적 집단의 참여를 차단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심화되면 열사의 성격 자체가 왜곡되어 버려 대중들로부터 외면 당해 소수만의 열사로 국한되어 버린다. 반대의 경우, 열사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와 성격이 다르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류가 의도적으로 함께 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힘 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학생 열

사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러한 경우로 인해 학우 대중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 종파적 이해 관계의 또 다른 모습은 가족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말로는 모두의 열사라고 하지만 실상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마피아식의 Family를 구성한다. 그리고 달팽이처럼 열사의 권위라는 박제화 된 껍질 속으로 움추러 든다. 이런 경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쇠하고 고루함으로 말미암아 대중 속에서의 열사정신 구현, 투쟁 속에서의 열사정신 구현을 이루어 내기 어렵게 되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어 결국에는 열사 정신을 왜곡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II 추모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1. 추모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추모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추모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된다.

열사들은 안으로 소속 조직의 성원들을, 밖으로는 계급·계층과, 조국과 민족을 절절히 사랑하였기에 자기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들이다. 열사들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왜곡된 시대에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의 전형이다. 따라서 처음의 주체는 열사들을 가장 잘 알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 추모사업을 시작하지만 당연히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한총련, 노동조합, 민주노총, 각급 단위조직, 애국세력, 나아가 국민들 모두를 주체로 만들어 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인류가 그 정신을 따르고 기리도록 하여야 한다. 열사들의 숭고한 삶은 일례로 체계바라의 삶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2. 바람직한 추모사업의 성격과 방향은 무엇인가

‘열사들을 숭모하고 따른다.’ 다시 말해 열사들이 이루고자 한 것을 살아 남은 자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루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 성격과 방향이 모두 들어 있다.

우선 추모사업회 성원들부터 열사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 배우고 이루고자 한 것을 실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열사·희생자들은 한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분들이다. 이 아름다운 삶을 자신의 삶으로 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열사의 분신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추모사업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열사들의 삶의 궤적과 이루고자 한 바를 감동으로 전하여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열사정신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두에게 열사들의 동지라는 벅찬 감동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여야 한다. 느끼지 못하여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가슴으로 전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 알려 내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모제 등의 특정 시기에 국한한다면 그 사람들을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만들뿐이다. 다시 말해 열사들의 삶을 산 자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하여야 모두를 주체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셋째, 추모사업은 운동적 성격을 띄고 추모사업회는 가장 헌신적인 운동체가 되어야 한다. 열사는 목숨까지 기꺼이 조국과 민족의 제단에 바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면서 회피하거나 후일담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 투쟁의 정점에 열사들이 있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져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그 뜻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산 자들의 임무이다. 열사들은 개인의 일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다. 집단과 계급, 민중 모두의 일로 산화하셨다. 그 유업을 산 자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헌신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열사들이 이루고자 한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원 자주화 투쟁 중에 산화하셨다면 추모사업회는 학원 자주화를 하루 속히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중심 사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문에 의해 산화하셨다면 안기부, 치안본부 등의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투쟁과 반고문, 인권 투쟁을 중심 사업으로 두어야 한다.

3. 추모사업회의 조직적 방향에 대하여

추모사업회는 추모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추모사업회가 추모사업이라는 운동체로서의 성격을 포기하고 회원 관리라는 친목체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조직에서 회원간의 친목은 필수적이며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추모사업회는 단순히 제사만 치르는 조직이 아니다. 추모제라는 것도 제사의 형식을 빌려 와 열사들을 기리고 따르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추모사업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의 모임체가 아니라 가장 현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투쟁하는 투쟁체 이어야 한다. 이 추모사업회의 조직적 방향은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앞서 추모사업의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 것처럼 추모사업을 보다 대중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단위에 하나의 국(열사국)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급 단위는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여 일상적인 추모사업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열사국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이전 단계로서 각 부문, 지역에서 가장 헌신적인 투쟁체로 위치하는 것이다. '열사들의 직계 동기와 후배들은 역시 다르다' 는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각급 조직들을 견인해 내어야 한다.

Ⅲ 결론을 대신하며

편협적인 종파성을 띄지도 않으며, 스스로 설정해 놓은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내부의 문제로 허덕이지도 않으며, 일회적인 추모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자족해 하지도 않으며, 열사들의 이름으로, 열사들의 분신이 되어, 열사들이 이루고자 한 것을 확산하여 실현시키는 운동체. 이것이 바로 추모사업의 본질이며 추모사업회의 바람직한 전형이다.

이 운동체는 투쟁을 떠나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그것은 인간을 해방시켜 주고 찬연한 아름다움으로 덮이게 만든다. 이 투쟁은 냉혹하지도, 권위적이지도 않으며 차갑지도 않다. 왜냐하면 열사 정신의 정수인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민중과 함께 하며 투쟁하기 때문이다.



-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대학 재학 중 군입대 했다가 사망한 경우(강제징집 녹화사업 등)는 '군경' 으로 분류함

2005. 3 현재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사회	장기수	군경	합계	
이산가족	1958					변동진 권태하		2	
	1959				조봉암	장현수 황익수		3	
	1960					진두용 이병진		2	
	소계				1	6		7	
	1961				조용수	최백근 최근우 정순종		4	
	1963					황대성 김성재 박성용 김성국		4	
	1965					박재복 박인택 리창욱 최옥철		4	
	1968					권대성		1	
	1969				김종태 윤상수 이문규 김질락 권재혁	정태묵 손순남 이상섭 최충천 최한무 하상혁 황대연		12	
	1970	전태일			이상배	권오금 이재순		4	
1971	김진수			양상석 김창수	김대석		4		
1972					고봉을 이연송 한태갑 한현수		4		
1973				최종길 이강복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6		
1974					김태원 박윤엽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명원 최석기 박용서		8		
1975		김상진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우흥선 장석구 장준하	신춘복 하아침 배동영 이석희	15		
1976		심오석			공재용 김용철 손윤규 박운서 김규호 최한석 기세일		8		
1977				조민기	김경익 김홍지 백갑기 안준호 정영훈		6		
1978		정법영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손순영		5		
1979	김경숙				송순희 임홍규 우인명		4		
소계	3	3			22	61		89	
박	1980	김종태 안종필	김의기		임기윤	김규창 김승윤 김용성 변형만 노천도 유재인 김규찬		11	
	1981		김태훈 최종철		전정배 이재문 신항식	최점수	6		
	1982		노진수		문영수		정성희 이진태	4	
	1983		황정하		정은복	신창길	이운성 김두황 한영현 최은순 한화철	8	
	1984	박종만			박영두		허원근 임용준	4	
	1985	홍기일	기 혁 우중원 송광영			이용운 황필구		6	
	1986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김세진 이재호 이득수 박해정 이경환 김상수 진성일	오한섭		김상원 전재권 강상철 장이기	강동창	16	
	1987	이순덕 표정두 황보영국 정경식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용수 심재환	박종철 박선영 이재용 이한열 박태영		이태춘 채광석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34	
	소계	21	20	1		13	16	18	89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사회	장기수	군경	합계		
남	1988	이대건 김장수 오범근 최윤범 정용훈 문용섭 문승면 성원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순	유병진 권현정 조성만 최덕수 안치중 배래전 박인순	김길호		유진근 고정희 정성규 신영일	공인두 박철출 윤기남	박종근 우인수 양명진	29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중하 이재호 임태남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정성용 이재식	함석현 장중훈	이상용 조용순		22	
	1990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대욱 최 동 박성호 황태조 오원석	김용갑 신장호 정성묵 김수경 김진홍 심광보 김기훈 최응현 김학수		이원기	김병구 조영래 김병곤 박인기	정대철 김병인	박성은	25	
	1991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처칠 권미경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규정 김철수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탁은주			이정순 정상순 김기설 김영환 양용찬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송중호 남현진 손석용	30	
	1992	박복실 박태순 임희진 최성근 이광웅	이상렬 박현민		김선호	최성묵 오원진 윤재영	박판수 김대봉 이태영	정도준	15	
	소계	46	31	1	4	18	13	8	121	
	남	1993	정은갑 채희돈 정영삼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길옥화 박성호	이경동 한상용 박기호 진광수	김영자		황인철 성순희 지학순	이래선 현승중 권두영		24
		1994	김성운 김상옥 최성묵 김낙성 임종호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김남주 문인환 이오순 이범영	박광삼	14	
		1995	양봉수 박삼훈 이민호 서전근 조수원	육지희 장현구		최정환 이덕인	박학채 양주석	정중서 강철순	오원택	14
		1996	김시자 김왕찬 유구영 오용철 박문곤	노수석 진철원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김하영 정인택 이상희		신연숙	김말룡 권운상	김도한 문한영	19	
1997		홍장길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이형관	최종진 지용진	민병일 박순덕		권양섭 진태윤	11		
소계		29	21	5	5	11	10	1	82	
남		1998	최대림 최명아 신길수 조현식	이길삼 최신애			강연석	주명순 금재성	9	
		1999	정성범 김윤수 배동복 이상관 최경철 박용순			윤창병 박홍수	계훈제 김중배		10	
		2000	최진욱 김명환				김양무		3	
		2001	이옥순 김순조 안동근 이동현 남광균			김성원		김영수 이상필 안상운	9	
	2002	김기욱 한경석 천덕명 유순조			정태수 최옥관 박봉규	김남준 문재룡 강구철 최연진		11		
	소계	21	2	1	5	8	5		42	
	남	2003	배달호 임영덕 이성경 이상도 박상준 최복남 김병진 이현중 김주의 객재규 이문식 이해남 성기득 권오복 송석창			이경해	강희철 김정훈 김승훈 제중철	김태수 황여태 장광명	23	
		2004	박동진 박말수 정상규 김준룡 박상운				권중대 김진균 이영기	정순덕	9	
		2005	정중태				김남식 신창균		3	
		소계	21		1		9	4		35
연도 미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김도한 배 영 리연송 변영민 공규민 임형민 손기철 육연우 김국호 탁기섭 유중흠		15	
소계						15		15		
합계	141	77	9	14	82	130	27	480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2005. 3 현재

	자 살					단식	타살	이문의 죽음	옥사	사법사형	병사	사고사	
	분신	합복	투신	음독	목매								
이재민(전)전	1958							변동건 권태하					
	1959							장현수 황익수	조봉암				
	1960							진두용 이병진					
	소계							6	1				
	1961							최백근 최근우 정순종	조용수				
	1963							황대성 김성재 박성용 김성국					
	1965							박재복 박인택 리창욱 최옥철					
	1968							권대성					
	1969							정태목 손순남 이상선 최중천 최한우 하상혁 황대연	김중태 윤상수 이문규 김질락 권재혁				
	1970	전태일						권오금 이재순		이상배			
박정희(전)전	1971						김진수 앙상석 김창수	김대석					
	1972						고봉을 이연송 한태갑 한현수						
	1973						최종길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이강복					
	1974						김태원 박윤엽 배학수 윤종하 이종근 현명원 최석기 박용서						
	1975		김상진				장준하	신준복 하아청 배동영 이석희 장석구	김용원 도예중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우흥선				
	1976						심오석 손윤규	공재용 김윤철 박운서 김규호 최한석 기세일					
	1977						김경익 김홍직 백갑기 안준호 정영훈		조민기				
	1978						정범영	박장대 이훈동 탁해설 손순영					
	1979			김경숙				송순희 임창규 우인명					
	소계	1	1	1			1	7	62	14	2		
전근아(전)전	1980	김중태		김의기				임기윤 김용성 변형만	김규창 김승운 노천도 유재인 김규찬		안종필		
	1981			김태훈				전정배 이재문	최집수	신항식	최종철		
	1982							문영수 정성희 노진수 이진래					
	1983			황정하				이운성 김두환 한영현 최은순 한희철 정은복	신창길				
	1984	박종만						허원근 박영두 임용준					
	1985	홍기일 송광영			기 혁			우중원	이용운 황필규				
	1986	변형진 김세진 이재호 이등수 진성일 강상철		박해정 이경환	오한섭		장이기	김상원 신호수 김성수	강동창		전재권		
	1987	표정두 황보영국 이석구 김수배 박용수 박태영		김성애		박선영 장재원	박종철 이한결 이석규 이태춘	정경식 최우혁 노철송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심재환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이순덕	채광석 이재용 김현욱 유인식 이대용 박용선	
	소계	17		6	2	2		5	32	14	1	4	6

	자 살					단식	타살	이문의 죽음	옥사	사법사형	병사	사고사		
	분신	합복	투신	음독	목매									
남(전)전	1988	이대건 김장수 최윤범 정용훈 성원희 이문철 최덕수 박래전	조성만	양영진			김길호	오병근 문용섭 배중순 우인수 박중근 고정희 안치용 박인수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문승면 유병진 신영일 권현정 유진곤	송철순 정성규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강현중 김중하 남태원 이재석						이상남 최성조 정상률	이상률 조용순		함석헌	조정식		
	1990	이영일 최태욱 최 등 박성호 원태조 심광보					김수경 최응현 김병규	정성목 이원기	김용갑 박성은 김진홍	정대철 김영인	오원석 김기훈 조영래 김병곤 박인기 김학수	배주영 강민호 신장호		
	1991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김영규 천세용 박승희 김철수 이정순 정성순 손석용 김기설 양용찬					권미경		강경대 김귀정	박창수 송중호 남현진 김영환 문승필 탁은주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김봉환 신용길	유재관 김치철 고재욱 류정하	
	1992								김선호	박태순 정도준	김대봉 이태영		임희진 박복실 이상렬 박현민 이광용 최성근 최성목 오원진 윤재영 박판수	
	소계	36	1	5	1	2		6	24	12		24	10	
	김(전)전	1993	이경동 한상용					길옥화			권두영	이래선 현승중	황인철 성순희 김영자 정운갑 조경현 고정자 박미경 임혜란 채희돈 정영부 정영상 지학순	서영호 김주리 최 웅 박성호 박기호 진광수
		1994	최성목					김성윤	임종호			박광삼	김상옥 김낙성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이창환 신근수 김순복 손구용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장현구 최정환						조수원		이덕인	장종서 강철순	박헌재 옥지희 양주석	오원택 이민호
		1996	김시자 진철원 황혜인 오영권					이상희		권희정	신연숙 노수석	박동학 정인택	김도한	유구영 오영철 김양찬 김말룡 김하영 권운상 문한영
1997		한상근					홍장길			류재을 김준배 민병일 박순덕		이형관 최중진 권양섭 진태운	지용진	
소계		13		2	2	2	1	6	4	6		32	14	
전(전)전		1998	최대림					신길수			이길상 주영순	금재성	최영아 최신애	조현식 강연석
		1999	윤창녕 박용순					이상관					정성범 김윤수 계훈제 박홍수	배동복 김종배 최경철
		2000											김양무 김명환	최진욱
		2001										김영수 이상필	김성원 이옥순 안동근 이동현 남광근 안상운	김순조
	2002	천덕명 박봉규										문재룡 김기욱 한경석 유순조 정태수 최옥란 김남준 강구철 최연진		
	소계	5					2		2	3		23	7	
	남(전)전	2003	배달호 이용석 이해남	이경해	곽재규	박성준	김주익 송석창				제중철	김태수 황여태	임영덕 이성경 강희철 김정훈 김승훈 김병민 이현중 서기득 장광영	이성도 최복남 권오복
		2004	박일수			정상국	김준봉 박상윤						권중대 김진균 이영기 박동진 정순덕	
		2005											정중태 김남식 신창균	
		소계	4	1	1	2	4			1	2		17	3
연도 미상												권상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김도환 배 영 리연송 변영민 공규민 임환민 손기철 옥영우 김국호 탁기섭 유중출		
소계											15			
합계	76	3	15	7	12	1	18	70	120	16	102	40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사회	군경	장기수
분신	45	21		4	5	1	
합복		2	1				
투신	4	8			2	1	
음독	4	2	1				
목매	8	1		1	1	1	
단식		1					
타살	4	6	1	5	2		
의문의 죽음	10	15		1	16	23	5
옥사					2		118
사법사형					16		
병사	41	11	3	3	35		7
사고사	25	10	3		3	1	

- 분신 중에는 분신 후 투신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옥사에는 전향과정에서 지조를 지키다 살해된 경우가 많이 있고, 감옥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운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의문사는 모두 타살의 범주에 속하나 살해자가 은폐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병사에는 자연사 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V 참고문헌

- 의문사 및 과거청산 관련 학술지 및 논문 목록
- 열사·희생자 자료집 목록

학술지 목록

- 「과거청산 (座談)」이덕우 外著 2003 人權과正義 : 통권321호 (2003. 5) pp.6-27 대한변호사협회
-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철호 2003 憲法學研究 제9권 제2호 (2003. 8) pp.149-175 한국헌법학회
- 「과거청산을 위한 위원회조직의 기능성 및 한계」 韓尙熙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85-110 법과사회 이론학회
- 「과거청산의 의의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崔光濬 2003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慶熙法學研究所 제38권 제1호 (2003. 10) pp.163-205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慶熙法學研究所
-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과 성격」 金永秀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41-60 법과사회 이론학회
-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 죽음과 화선에 대한 예의」 문부식 2001 당대비평 제5권 제3호 통권16호 (2001 가을) pp.192-220 (주)도서출판 삼인
- 「반민특위 재판되나, 의문사규명활동의 종말」 김삼웅 2002 殉國 통권140호 (2002. 9) pp.10-15 殉國先烈遺族會
- 「의문사 발생의 역사와 배경」 洪錫律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17-37 법과사회 이론학회
- 「의문사 발생의 역사와 배경 <討論文>」 全宰鎬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38-40 법과사회 이론학회
- 「의문사(疑問死)진상규명운동의 전개와 과제」 김유진 2002 인권과평화 제3권 제1호 (2002. 12) pp.53-77 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터
-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와 과제」 이기훈 2002 내일을 여는 역사 제9호 (2002. 여름) pp.210-224 서해문집
- 「의문사문제와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책임」 金昌祿 1999 法學研究 48(1999.12) pp.55-65 釜山大學校法科大學法學研究所
- 「의문사와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 안병욱 2001 역사와현실 39(2001.3) pp.1-21 한국역사연구회
-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한계와 전망 : 17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 박래군 2003 민주법학 통권24호 (2003. 8) pp.63-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 朴濬徹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65-81 법과사회 이론학회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 <討論文>」 林相赫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82-83 법과사회 이론학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위원회 방식의 문제점 <討論文>」 申宇澈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111-118 법과사회 이론학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상 임무와 권한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任相赫 2001 법과사회 제20호 (2001 상반기) pp.271-28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우리의 과제」 梁承圭 2001 법과사회 제21호 (2001 하반기) pp.9-15 법과사회 이론학회
- 「진실, 그리고 반성과 화해의 용기」 황인성 2001 당대비평 제5권 제3호 통권16호 (2001 가을) pp.174-191 (주)도서출판 삼인

학위 논문

-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 비교」 이은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3 석사
-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청산운동의 동학 :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중심으로」 김유진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대상자	제 목	종 류	저 자	출판사	출판일	보관처
80년대	민중의길	사진집	박용수	분도출판사	1989-07-20	추모연대
강경대	십년 그대는 강이 되고 우리는 수백만의 강경대가 되어 산을 이루니...	추모자료집	고 강경대열사 10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고 강경대열사 10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2001-04-26	추모연대
강민호	고 강민호 열사 추모집	추모집	고 강민호열사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고 강민호열사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1990-00-00	추모연대
강상철	강열사의 투혼이여 조국통일의 불길로 타오르라!	추모자료집	목포전문대 총학생회	목포전문대 총학생회	1988-06-00	추모연대
권미경	나는 너의 그림자 되고, 너는 나의 거울이 되어	추모자료집 추모모임	고무노동자 권미경열사 추모모임	고무노동자 권미경열사 추모모임	1992-12-00	추모연대
권운상	권운상 요셉의 민주화 운동	자료집	조연행		2000-00-00	추모연대
권운상	옥비라지일기	단행본	조연행	백산서당	2002-10-20	추모연대
권희정	기억해야 할 그 이름 권희정	단행본	권희정추모사업회	권희정추모사업회	1997-00-00	추모연대
권희정	권희정열사 3주기 기념책	자료집	권희정추모사업회	권희정추모사업회		
기 혁	기혁투사 추모집	추모자료집	고 기혁투사 추모사업회	고 기혁투사 추모사업회	1997-01-15	추모연대
김경숙	시대의 불꽃5 김경숙	단행본	박영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추모연대
김공림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단행본	김공림 추모집 편찬위원회	장백	1990-06-30	추모연대
김귀정	민중사랑의 정신으로 부활하는 김귀정	추모자료집	제26대 민족성대 총학생회	제26대 민족성대 총학생회	1994-05-17	추모연대
김기설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대필	자료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추모연대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					
김기훈	애국학생 고 김기훈 열사 추모제	추모자료집	역사교육과 학생회	역사교육과 학생회	1999-09-15	추모연대
김낙성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추모자료집	김낙성동지 추모사업위원회	한국통신노동조합	1996-04-00	추모연대
김남주	내가 만난 김남주	단행본	황서영외	이름	2000-05-01	
김남주	김남주 평전	단행본	강대석	한얼미디어	2004-02-27	
김두항	김두항 추모사업회 자료집	추모자료집	김두항 추모사업회	김두항 추모사업회	2004-06-20	추모연대
김말룡	고 김말룡 선생 추모기념 자료집	추모자료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997-10-00	추모연대
김병곤	내 청춘 조국에 바쳐	추모자료집	전국청년단체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 김병곤추모사업 소위원회	전국청년단체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 김병곤추모사업 소위원회	1991-12-08	추모연대
김상옥	굽히지 않는 대나무로 살아	단행본	고 김상옥 추모위원회	고 김상옥 추모위원회	1995-02-19	추모연대
김상진	김상진의 삶과 죽음 긴 겨울 얼음 뚫고	단행본	김상진기념사업회	녹두	1995-04-01	추모연대
김상진	시대의 불꽃4 김상진	단행본	김남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추모연대
김세진	벗이여 해방이 온다	추모제자료집	고 김세진이재호열사	고 김세진이재호열사	1999-05-00	추모연대
이재호		복사본	12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12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김수경	저 별판 가득 고개 드는 들꽃처럼	추모집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	새론불	1993-06-10	추모연대
김시자	산자여 따르라	추모자료집	전력노조 김시자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전력노조 김시자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7-01-00	추모연대
김양무	빙점의 사랑	단행본	양은찬(김양무 부인)	지주민보	2000-08-10	
김영균	행복해야 돼, 이쁜 꿈 께 -김영균 열사의 삶과 투쟁을 가리며-	단행본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2001-05-01	추모연대
김윤기	부활하라 열사에, 펼쳐일어나라 동지여	추모자료집	김윤기열사 기념사업회	김윤기열사 기념사업회	미상	추모연대
김의기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추모자료집	김의기열사 제12주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김의기열사 제12주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2-05-28	추모연대
김정훈	바보온달	추모집	시립인천대 총동문회 외 1	시립인천대 외 5	2004-05-15	추모연대
김종배	늦은나를 질책할수 있다면	추모집	노동운동가 김종배 추모사업회	노동운동가 김종배 추모사업회	2002-00-00	추모연대

열사·희생자 자료집 목록

대상자	제목	종류	저자	출판사	출판일	보관처
김종수	한송이 흰 국화꽃을 열사의 영전에 바칩니다	추모집	김종수 노동해방열사 추모사업회	김종수 노동해방열사 추모사업회	1997-05-04	추모연대
김종태	영원하노동자 김종태	열사추모집 복사본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1982-06-00	추모연대
김종하, 강한중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고 강현중, 김종하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2-08-13	추모연대
김주열	시대의 불꽃7 김주열	단행본	전성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김준배	김준배열사 추모자료집	자료집				
김진균	벗으로 스승으로, 김진균 선생을 기리며	단행본	김진균기념사업회	문학과지하사	2005-02-03	추모연대
김진수	시대의 불꽃3 김진수	단행본	김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12-28	
김철수	참교육의 불꽃으로	추모집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2-05-20	추모연대
남태현	민족, 민주교육의 선봉 남태현 추모사업회 총림총회	총회자료집	남태현 열사 추모사업회	남태현 열사 추모사업회	1989-12-02	추모연대
노수석	고 노수석4기 추모제	추모자료집	고 노수석열사 4주기 추모 공동기획단	고 노수석열사 4주기 추모 공동기획단	2000-03-00	추모연대
문승필	문승필	자료복사	미상	미상	미상	추모연대
문익환	통일은 뚝터	단행본	김지형외	지성사	1994-07-01	
문익환	통일 할아범지 문익환	단행본	김남일의	사계절	2002-10-29	
문익환	문익환평전	단행본	김형수	실천문학사	2004-03-30	
민주열사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단행본	유가협·추모연대		1992-6-13	추모연대
민주열사	살아서 만나리라!	단행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 추모제준비위원회		1990-6-10	추모연대
민주열사	살아서 만나리라!	단행본	유가협·추모연대		1997-11-15	추모연대
민주열사	민주열사 추모시집-조국의 푸른 꽃밭이여	단행본	강은교외	해성	1991-06-10	
박동학	학원자주회의 불꽃 애국학생 박동학열사	추모자료집	학원자주회의 불꽃 박동학 열사 추모사업회(건)	학원자주회의 불꽃 박동학 열사 추모사업회(건)	1996-07-21	추모연대
박래전	박래전열사 10주기 유월제	추모자료집	박래전열사 10주기 유월제 준비위원회	박래전열사 10주기 유월제 준비위원회	1998-06-01	추모연대
박래전	바람일수는 없다	단행본	문재호	박래전 기념사업회	1998-06-01	추모연대
박미경	그 고운 노릇소리 우리 가슴에 남아	추모집	박미경선생 추모사업회	박미경선생 추모사업회	1994-06-24	추모연대
박선영	저는 열네살 선영이에요	단행본	박선영 남태현 열사 추모사업회	살아보이는 창	2001-05-25	추모연대
박승희	창립총회자료집	추모사업회 자료집	박승희 추모사업회	박승희 추모사업회	1998-05-09	추모연대
박영진	동지여 끝까지 투쟁하라	추모자료집	박영진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박영진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86-10-00	추모연대
박영진	돌아보면 그가 있다	단행본	김명운	박영진추모사업회		
박영진	끝까지 투쟁하라 -불꽃처럼 살다간 박영진의 생애-	단행본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박영진추모사업회	1996-09-21	
박영진	시대의 불꽃9 박영진	단행본	이인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박종만	가난보다 동료의 고통이 건디기 어려웠던 사람	추모자료집	윤수노보		1987-00-00	추모연대
박종철	철아, 이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단행본	박정기	개마서원	1997-11-29	추모연대
박종철	국민의제 형성에서 탐사보도의 역할 - 박종철 사건을 중심으로 -	학회지	이경숙, 심재철	한국언론학회, 43권, 3호	1999-01-00	
박종철	MBC 특집극 '순수청년 박종철'	방송극	mbc	mbc	2002-06-24	
박종철	박종철평전	단행본	최인호,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1998-06-10	추모연대
박종철	시대의 불꽃 11 박종철	단행본	김윤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12-30	

대상자	제목	종류	저자	출판사	출판일	보관처
박태순	고 박태순	추모자료집	노동운동가 고 박태순동지 제1주기 추모제	노동운동가 고 박태순동지 제1주기 추모제	2003-08-24	추모연대
박태영	지난겨울의 죽창가	단행본	고 박태영열사 추모문집	목포대총학생회	1990-04-12	추모연대 편집위원회의 1곳
박태영	지난겨울의 죽창가(30분)	추모비디오	박태영열사 추모사업회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1998-01-00	
박현민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 건설일꾼	추모자료집	기독교학생회	기독교학생회	1995-05-26	추모연대 학원자주 애국 학생
배달호	배달호열사 투쟁자료집	추모자료집	김찬근	배달호열사정신개승사업회	2004-01-09	추모연대
배주영	그 숨결 남아 아직 청송골은 푸르는데	단행본	배주영 선생 추모사업회	푸른나무	1991-02-05	
부울지역인	열사는 말한다	평전	김동수	전망	2005-01-31	추모연대
서영호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추모자료집	양봉수열사 추모사업회	양봉수열사 추모사업회	1997-06-13	추모연대
성원희	시대의 불꽃6 성원희	단행본	유영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추모연대
손석용	얌은뱅이 민들레	추모사업회자료집	반미조국 통일 손석용열사 7주기 추모제 준비위	반미조국 통일 손석용열사 7주기 추모제 준비위	1998-00-00	추모연대
송광영	그대 그리던 해방의 아침은 끝내 오리라	추모자료집	송광영 천세용열사 연대추모사업회	송광영 천세용열사 연대추모사업회	1999-10-18	추모연대
신건수	고 신건수(분도)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복사본	서울대학교 기톨릭 대학생 연합회	서울대학교 기톨릭 대학생 연합회	1994-06-19	추모연대
신용길	우리 아직 당신의 두눈을 묻지 아니 하였습니다	단행본	전교조 부산지부 교육문제청탁회	해성	1992-03-05	추모연대
신장호	고 신장호 열사자료집	추모자료집	신장호열사 추모사업회	신장호열사추모사업회	1997-03-24	추모연대
심광보	참세상 밝히는 불꽃이 되어	추모자료집	고 심광보열사 추모사업회	고 심광보열사 추모사업회	1992-08-00	추모연대
심재환	고 심재환열사 추모집	자료집	심재환 친구들		2001-12-15	추모연대
양봉수	우리달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추모집	양봉수열사 추모사업회	양봉수열사 추모사업회	1997-06-13	추모연대
양영진	영진아, 부활이대!	추모자료집복사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총학생회	1988-10-16	추모연대
양용찬	우리의 사랑은 창 끝에 싹고	단행본	제주사랑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시월	1995-11-07	추모연대
오성문	나는 기업이 행복했네	단행본	오성문을 그리는 사람들	오성문을 그리는 사람들	1997-02-02	
오원택	고 오원택열사 5주기 추모제 자료집	추모제 자료집	손종국 퇴진을 위한 민족경기 투쟁본부	손종국 퇴진을 위한 민족경기 투쟁본부	2000-00-00	추모연대
원지레이온	얼룩진 원지레이온 이력서	단행본	박인도	원지레이온대책위	1994-05-18	
원지레이온	전사	단행본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1998-11-05	
유병진	고 유병진열사 유고집	유고집	고유병진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고유병진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0-03-25	추모연대
유창훈	꿈결처럼 무성한 사람	단행본	허덕범	산업재해노동자협회	2001-06-11	
육지희	추모자료집	추모제 자료집	육지희 동지 추모사업회(준)		1999-00-00	추모연대
윤상원	시대의 불꽃8 윤상원	단행본	윤동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2-29	추모연대
의문사	다시는 돌이킬수 없어 아픈 의문사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단행본	이철호	푸른세상	2002-09-08	추모연대
의문사	누가 이들을 죽게했는가	단행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진원	1997-09-01	추모연대
의문사 (국·영문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4권)	백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	2003-02-12	추모연대
의문사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3권)	백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12-06	추모연대
이경동	민들레의 투혼으로	추모자료집	이경동열사 추모사업회 건설준비위원회의 2곳	이경동열사 추모사업회 건설준비위원회의 2곳	1993-09-20	추모연대
이내창	의문의 죽음 그리고 10년	의문사보도자료집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1999-00-00	추모연대
이범영	10년 청년지도자 고 이범영 10주기 추모문집	단행본	청년지도자 고 이범영 10주기 추모문집편집위원회	청년지도자 고 이범영 기념사업회	2004-08-10	

열사·희생자 자료집 목록

대상자	제 목	종 류	저 자	출판사	출판일	보관처
이상남	앞서서 나가니 신자에 따르라	추모자료집	전국금속산업연맹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연맹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1998-12-00	추모연대
이수병	암장	단행본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지리산	1992-00-00	
이영일	고 이영일 열사 추모3주기 자료집	추모자료집	(주)세일중공업 노동조합	(주)세일중공업 노동조합	1993-05-00	추모연대
이용석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노동열사 정신계승 투쟁자료집	단행본	이용석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이용석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	2004-10-04	
이재식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고 이재식열사 전국빈민장 장례위원회			추모연대
이철규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애국학생이철규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1990-05-06	추모연대
이철규	여기 멈추지 않는 불명의 심장이어	사진집	이철규열사추모사업외외 2곳	광민사	1992-05-00	
이철규	PD수첩					
이철규	MBC 스페셜					
이한열	이한열, 유월하늘의 함성이어	단행본	이한열추모사업회	학민사	1989-11-24	추모연대
이형관	푸른바다 전대기련의 영원한 벗 이형관 동지의 스물다섯해 이야기	단행본	박광우	이형관 추모사업회 / 전국대학생신문기자연합	1998-09-20	추모연대
인혁당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단행본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림사		
장재완	제5주기 추모제1 계승대회	추모제자료집	장재완 양영진 추모사업회(준)	장재완 양영진 추모사업회(준)	1992-03-27	추모연대
장준하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단행본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나남	1995-01-01	
장준하	재아의 빛 장준하	단행본	박경수	해돋이	1995-12-01	
장준하	장준하(민족주의자의길)	단행본	박경수	돌베개	2003-08-05	
장준하	장준하(민주주의 등불)	단행본	김민수	사계절	2001-07-15	
장준하	애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10차 장정 완수 기념 백서	단행본	이부영	장준하기념사업회	2004-12-16	추모연대
장준하	광복50년과 장준하	추모문집	장준하선생 20주기 추모사업회	장준하선생 20주기 추모사업회	1995-08-08	
장현구	장현구 열사 4주기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애국경원 16대 총학생회	애국경원대 16대 총학생회	1999-00-00	추모연대
전태일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고회를 기념하여	단행본				
전태일	시대의 불꽃! 전태일	단행본	김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12-28	
전태일	전태일평전	단행본	조영래	돌베개	2001-02-01	
전태일	전태일 (청년 노동자)	단행본	위기철	사계절	1996-08-01	
전태일	전태일	단행본	조영래	돌베개	1983-06-01	
전태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단행본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돌베개	1983-06-01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			1995-11-13	
전태일	「A Single Spark」 - The Biography of Chun Tae-il -	영역단행본	조영래/전순옥 영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03-00	
정행구	친구여 너의 웃음은 소중한 희망이었다	단행본	정행구열사 10주기 추모사업준비위의 2곳	연합기획	2004-11-15	
제종철	어느 혁명기의 초상	평전	제종철 평전 제작위원회	민중의소리	2003-01-22	추모연대
조경천	해고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추모문집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1998-00-00	추모연대
조석만	조성만 열사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학생회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학생회	1999-05-18	추모연대
조영래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단행본	조영래변호사추모모임	창작과비평	1996-0101	
조영래	인권변호사 조영래	단행본	박상률	사계절	1999-04-30	
조영래	조영래	단행본	박상률	사계절	200-07-08	

대상자	제 목	종 류	저 자	출판사	출판일	보관처
조정식	다시 태어나 노동해방의 한길로	추모집	동부지역 산재대책 및 조정식 동지 추모사업준비위	동부지역 산재대책 및 조정식 동지 추모사업준비위	1989-07-03	추모연대
조정식	열사의 뜻은 언제나 우리곁에	추모자료집	조정식 열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외 3곳	조정식 열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외 3곳	1994-10-12	추모연대
자용진	녹두꽃으로 피어나리	단행본	농민의 벗 자용진동지 1주기 추모사업 준비위원회	짜임	1998-02-22	추모연대
지학순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		1995-03-01	추모연대
지학순	빛이 되어라	단행본	이둔명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	1995-03-01	
지학순	빛이 되라 (25분)	추모비디오			1996-02-00	
지학순	그이는 나무를 심었다	단행본	지학순평화기금	공동선	2000-12-20	
진상일	그대의 피흘림은	추모제자료집	고 진상일 열사 추모위원회	고 진상일 열사 추모위원회	1988-11-02	추모연대
진철원	진철원 열사 3주기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애국경원 15대 총학생회	애국경원 15대 총학생회	1999-04-00	추모연대
채광석	그사람, 채광석	추모식 자료	작가회의 청년위 / 노문연 / 서노문협	작가회의 청년위 / 노문연 / 서노문협	1992-07-14	추모연대
천세용	노동해방,민중해방의 투사 천세용 열사 제1주기 추모자료집	추모자료집	천세용열사추모사업회	천세용열사추모사업회	1992-04-27	추모연대
천세용	천세용-91년 5월 3일, 불꽃으로 지다	단행본	오삼동우회	오삼동우회	2001-05-01	
최 응	함께하는 최 응	추모집	미상	미상	1997-10-26	추모연대
최덕수	80년 빛고을의 함성으로 90년 결전의 5월을	추모자료집	민중해방의 불꽃 청년단국 제6대 총학생회 학술부	민중해방의 불꽃 청년단국 제6대 총학생회 학술부	1990-05-16	추모연대
최동	최동열사 추모제 자료집	추모자료집	제49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제49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1995-00-00	추모연대
최명아	아직도 생생한 너를 기리며	추모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명아(마리아)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명아(마리아)추모사업회	2001-02-18	추모연대
최명아	사라지는것은 없다	단행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푸른나무	1998-09-23	추모연대
최윤범	열사정신 계승하여 불꽃처럼 투쟁하자	추모자료집	김종태, 최윤범, 김윤기열사 추모사업회	김종태, 최윤범, 김윤기열사 추모사업회	1990-04-02	추모연대
최종길	전 중앙정보부원의 양심선언 산지여 말하라 나의형 최종길 교수는 이렇게 죽었다	단행본	최종선	공동선	2001-03-12	
최종길	시대의 불꽃2 최종길	단행본	김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12-28	
최종길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료집	자료집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1900-04-08	
한상근	애국학생 한상근	추모자료집	한상근추모사업회	한상근추모사업회	1999-00-00	추모연대
한상용	종이학을 다시 접으며	추모집	한상용열사 추모사업 준비모임	한상용열사 추모사업 준비모임	1993-00-00	추모연대
한일권	한일권선생추모사업회발족식	자료집	한일권선생추모사업회	한일권선생추모사업회	2000-04-17	추모연대
함석헌	다시 그리워지는 함석헌 선생님	단행본		한길사	2001-04-21	
함석헌	민족의 큰 사상이 함석헌 선생	단행본		한길사	2001-04-21	
황인철	「무죄다」 라는 말 한마디	추모문집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문학과 지성사	1995-01-20	
황혜인	헤인이를 보내며...	추모자료집	민중성대 제8대 물리학과 학생회	민중성대 제8대 물리학과 학생회	1996-05-15	추모연대
김상진, 김태훈	김상진,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추모자료집	서울대 민주열사 추모사업위원회	거름	1984-11-30	
김상진, 김태훈	- 4인 열사추모집 -					
황정하, 한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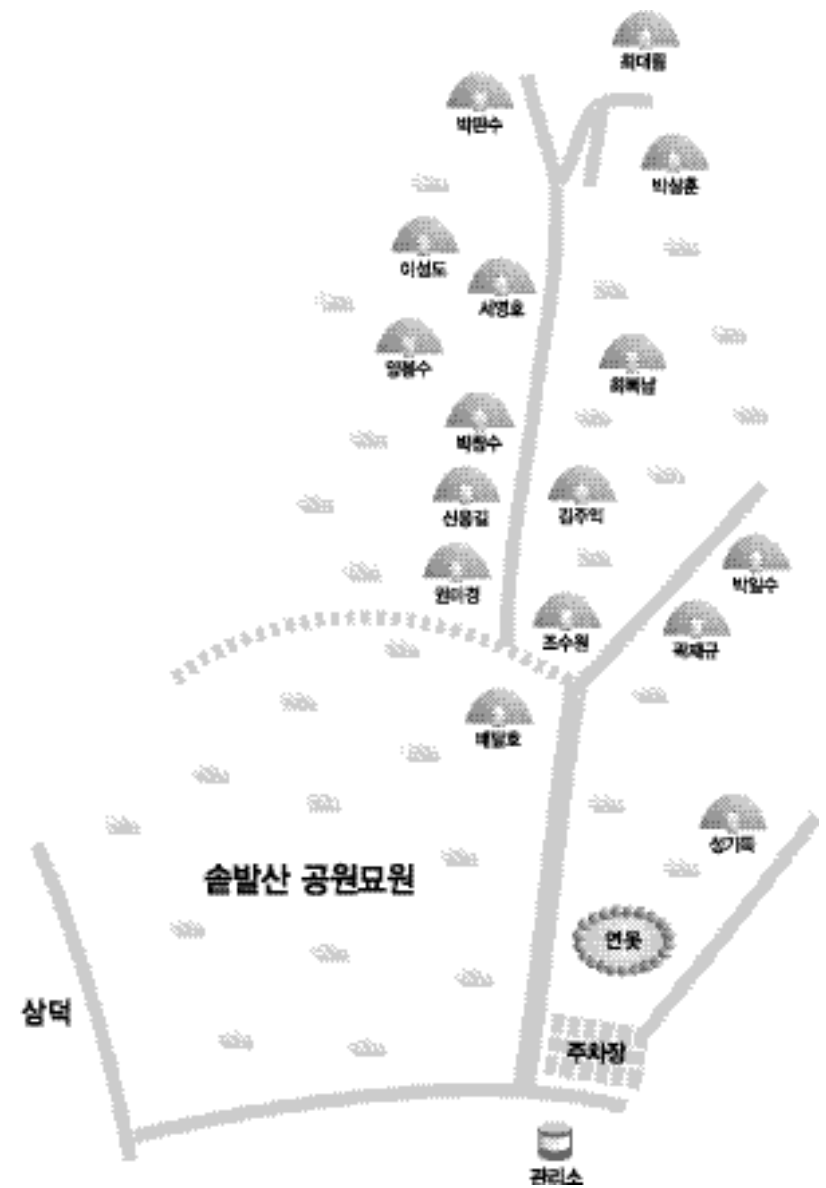
* 수록기준
- 열사·희생자 본인 글 제외
- 열사·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단행본 및 기타 수록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 안내도

찾아가는 길 문의
 부산경남울산 정신계승사업회_051-637-7468
 솔밭산 묘역 관리소_051-505-5343

V 열사묘역도

- 양산 솔밭산 공원묘역 안내도
-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 천안 풍산 공원묘역 안내도
- 대구 현대1공원묘역 안내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 시간은 버스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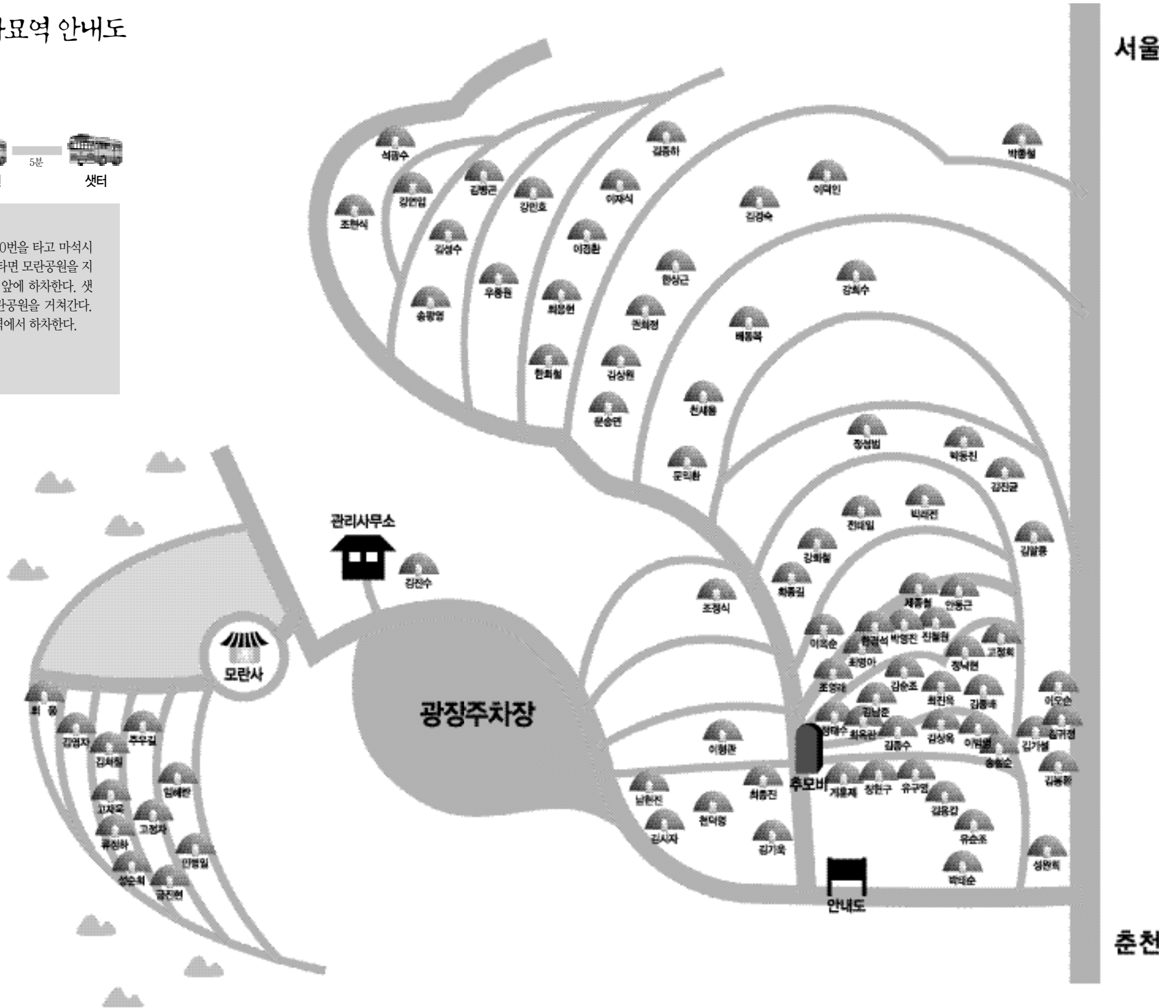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청량리 시장이나 청량리역에서 30번이나 좌석 330번을 타고 마석 시내에 도착,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셋터가는 버스를 타면 모란공원을 지나간다. 또는 좌석 1330번을 타면 모란공원 바로 앞에 하차한다. 셋터에서 마석이나 서울로 나오는 버스를 타도 모란공원을 거쳐간다. 기차의 경우엔 청량리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마석역에서 하차한다.

문의

관리사무소_031-594-6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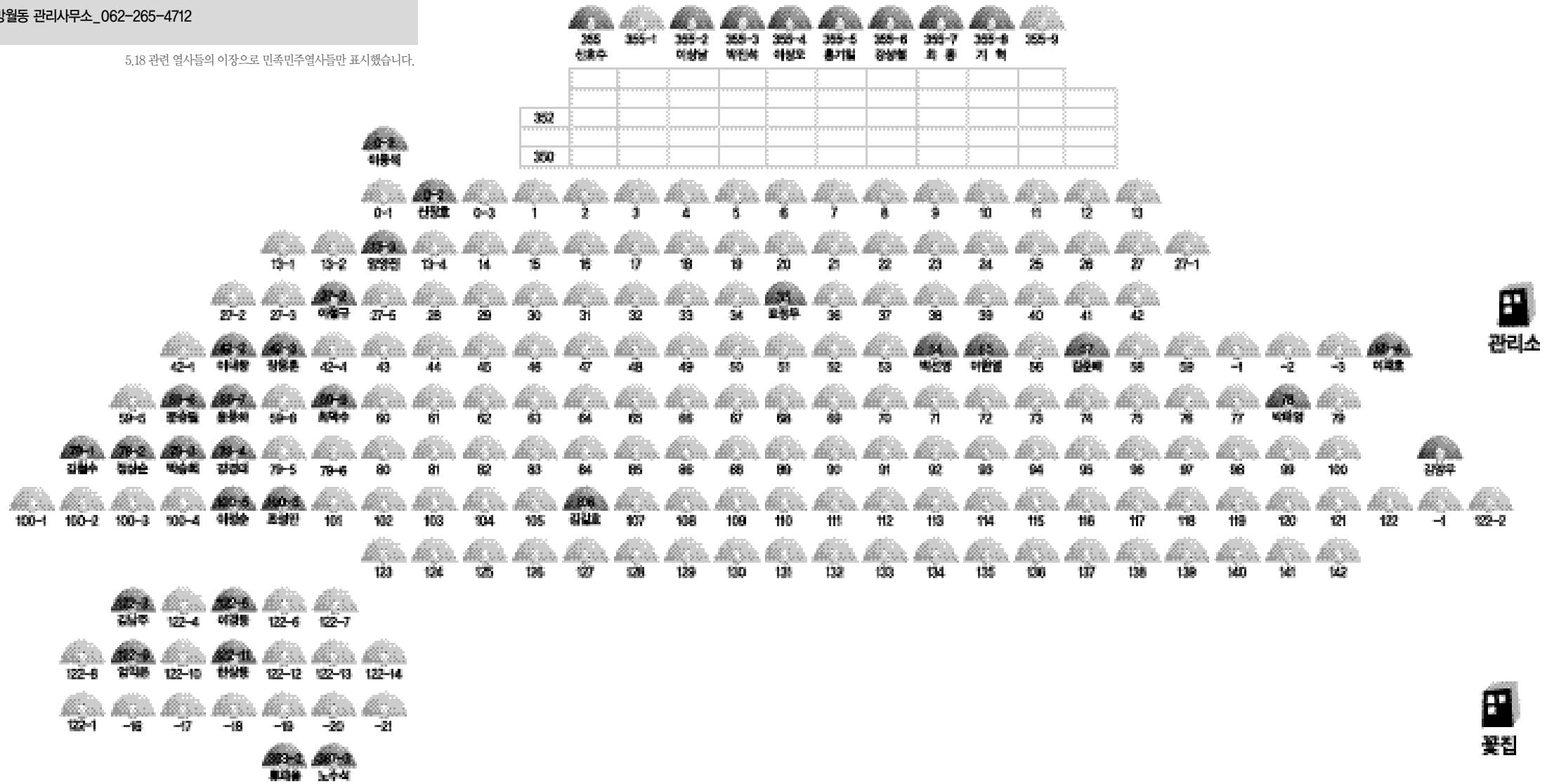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안내도

찾아가는 길

1. 직접 차를 몰고 갈 때_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둘다 동광주 I.C.로 진입하여 톨게이트를 벗어나면서 좌회전(담양방면)한 후 도로안내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2. 광주 시내에서 갈 때_ 시내버스 518번 한개 노선뿐이다. 시내중요경유지 점은 충장파출소 앞→게임극장 앞→광고 앞→서방시장→두암시외버스터미널 앞→문화동→농수산물시장→망월동

망월동 관리사무소_062-265-4712

5,18 관련 열사들의 이장으로 민족민주열사들만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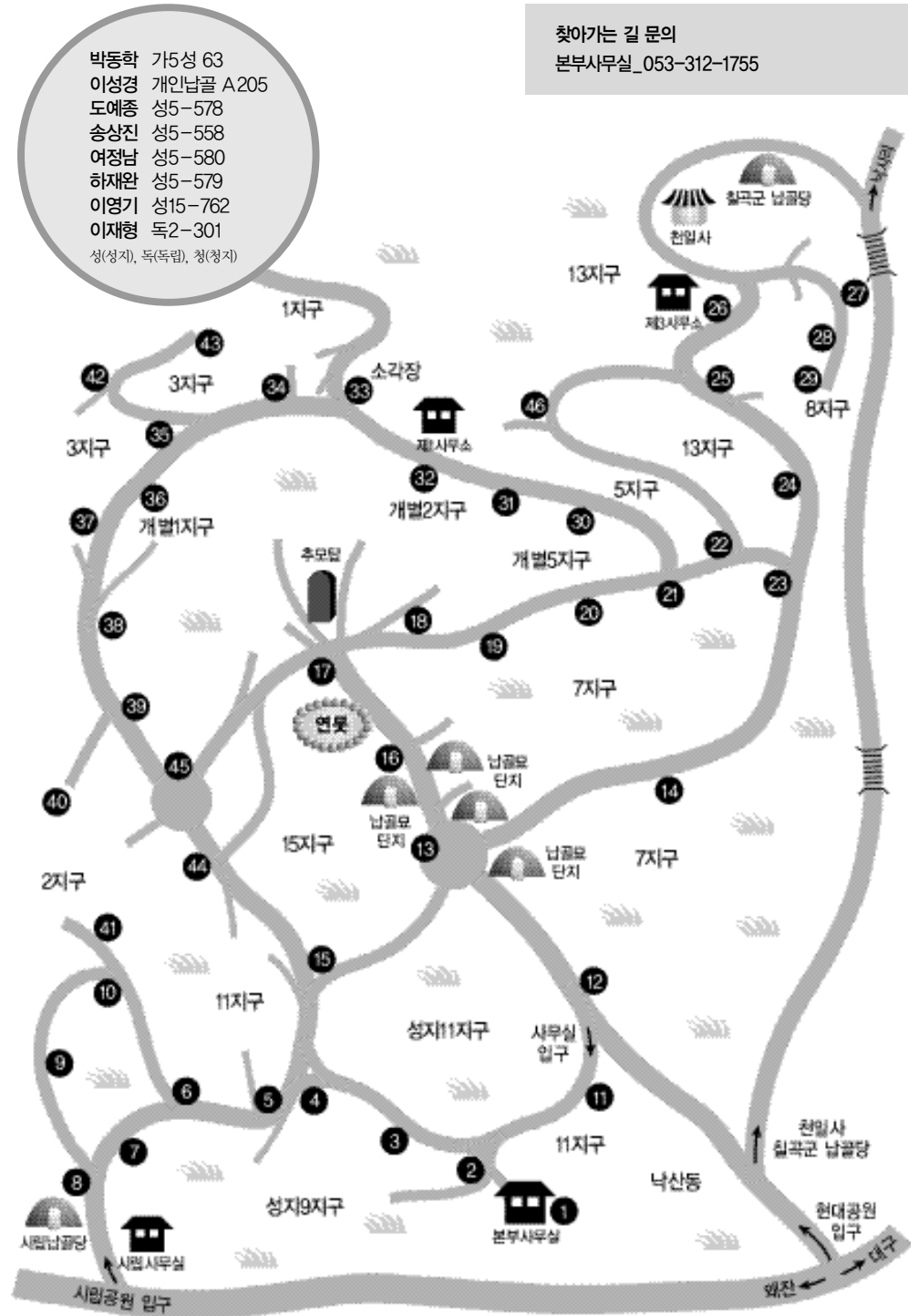
천안 풍산 공원묘역 안내도

찾아가는 길 문의
 풍산 공원묘역 관리소_02-585-1401~3



대구 현대1공원묘역 안내도

찾아가는 길 문의
 본부사무실_053-312-1755



회원단체 주소록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385-233 4층
T. 02-716-7565, 7586 F. 02-716-7566
www.yolsa.org / yolsa75@jinbo.net

수도권지역

강경대추모사업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본관 601호
02-300-1654 / [redacted]
www.memorial.or.kr

강민호를기억하는사람들의모임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96-3 민족빌딩 7층
02-2279-4391 / http://cafe.daum.net/inyeon

경원열사추모연대 (송광영·천세용·정현구·진철원·이상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원대학교 학생회관내
http://cafe.daum.net/kycy
http://cafe.daum.net/53family (천세용추모)
http://cafe.daum.net/85917 (송광영추모)

계훈재추모모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37-60 수복빌딩 2층 인간해방실천협의회
[redacted]

고재욱·류정하추모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84 17/3
[redacted] / www.shingulove.com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성신여대 학생회관 211호
www.danbi.org / [redacted]

김경숙추모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8-2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0505-533-3838 / www.kwnnet.org

김귀정추모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204
[redacted] / www.nui.or.kr [redacted]

김기철추모모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
[redacted]

김두환추모사업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94-7
[redacted]

김병근기념사업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51-12 영일빌딩 201호
(사) 시민정보미디어센터
02-711-1450

김삼진기념사업회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433-5
[redacted] / www.gimsangjin.jinbo.net

김세진·이재호기념사업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7-14 춘사빌딩 7층 법무법인 산하
02-582-1888 / http://cafe.empas.com/mem0428

김순조추모사업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17 2층
[redacted] / [redacted]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388-1 한일병원노동조합
T. 02-901-3209 / F. 901-3482
[redacted]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85번지 7호 2층
02-747-0921 / [redacted]
http://goryeo.org [redacted]

김윤기기념사업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139번지 1층
[redacted]
www.kumd.or.kr / [redacted]

김이기·김상옥·이윤경추모사업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108-6
[redacted] / family.sogang.ac.kr/~chumo

김중배추모사업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8층 정책연구원자료실
http://jongbae.labordata.org

김중수추모사업회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7-57
[redacted]

김중하·강현중·최응추모사업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2-3 무지개빌딩 312호 세대전설
[redacted]

김주리추모모임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575-23 종로빌딩 5층
(통일을 여는 민주노동자회 032-505-6374)

김치철추모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03-2 홍성연수노동조합
[redacted]

남태현·박선영추모사업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육대학교 학생회관2층
[redacted] / http://chusa.nazzang.net

남현진추모모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흥2동 한신프라자 620호
011-410-9416

노수석추모사업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142-28 지하층 틈새호프
[redacted] http://nosuseok.cyworld.com

박래전기념사업회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3층
02-820-0970
http://dongwha.jinbo.net / [redacted]

박순덕추모모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853 권흥빌딩 2층 전국철거민연합 내
T. 02-833-5563 / F. 02-832-5513
http://poverty.jinbo.net/main/main.html

박영진추모사업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314-1 극동상가 4층 412호
T. 02-868-3097 / F. 868-4578
www.samchang.or.kr/man_park
[redacted]

박중철기념사업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47-11 샤프빌딩 2층 나라법령정보통신(주)
02-576-8620

박태순추모사업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철도해복투
http://cafe.daum.net/bagthruth / [redacted]

박현민추모모임
http://parkhyunmin.ssusca.or.kr

배동복추모모임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7-55 영창약기노조
032-570-1265

산업재해열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4 대현빌딩 1층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T. 02-868-2379, 861-2379 / F. 867-8230
http://sanjae.jinbo.net / [redacted]

신길수정학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2층 공공연맹 내
T.02-4977-888 / F.02-4970-444

신장호추모사업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5 동서대학교 학생회관내 총학생회
http://cafe.daum.net/shinjangho
www.janho.net / [redacted]

우종원·조정식·조경천추모모임
인천시 부평구 심정1동 295-3 성동빌딩3층
011-449-4888

원태조·박석호추모사업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1 거성빌딩 301호 민주노동총경기남
부지협협의회
[redacted]

유구영추모사업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32 세릉빌딩 2층 민주노동 서울본부
http://sutc.jinbo.net [redacted]

유재관추모사업회
인천시 부평구 심정1동 294-1 오뚜기수퍼 2층 우리시민센터 내
[redacted]

이내창추모사업회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1차 아파트 504동 801호
[redacted] / http://naechang.cafe24.com

이덕인추모모임
인천시 남구 주안6동 879-1 프로미술학원 2층
인천민중연합 032-421-3353

이문철추모사업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6-50
[redacted]

이범영기념사업회
서울시 영등포동 영등포동 6가 145 열린우리당시민사회국
[redacted]

이수병기념사업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5-98 경희대민주동문회 내
T. 02-960-5650 / F. 02-960-8879
www.khimindong.or.kr / [redacted]

이옥순추모모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28-5 동양빌딩 3층 반미여성회

이윤성추모모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24 4층 성균관대 민동
www.leeyoonsung.com / 02-3672-2005

이재식추모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승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전국노점상연합회 내
T. 02-2232-0685 / F. 2232-0687 / http://www.nojum.org

이종대추모사업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02-801-4804~5

이한열추모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4-38 이한열기념관
T. 02-336-2951 / F. 335-1360

이형관추모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5-11 2층 유뉴스
T. 02-335-7912 / F. 02-323-1562 / www.unip.pe.kr

장준하기념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빌딩아파트 705호
02-782-0963 / http://peacewave.or.kr

전태일기념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131-106 3층
www.juntaeil.com / juntaeil@juntaeil.com
T. 02-3672-4138 / F. 3672-4139

정성범추모사업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923호
www.hero-sb.org / [redacted]

정태수추모사업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4층 새날도서관 내
[redacted] http://www.taesoo.or.kr

조성만추모모임, 천주교열사합동추모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내
02-747-4130

조현식추모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7-27 경기광주일용노동조합
031-765-4955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충무빌딩 313호
T. 02-2266-7001 / F. 2269-2932 / http://www.justice.or.kr

제중철추모사업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05-29
031-848-5611

최명아추모사업회
인천시 서구 신현동 주공아파트 28-406
[redacted] / http://www.samchang.or.kr/man_choi

최옥만추모사업회(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9-4 대보빌라 101호
http://www.okran.jinbo.net [redacted]

최은순추모모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중앙신도회관 4층
[redacted] / http://cafe.daum.net/dongak

최우혁추모모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아파트 104- 2101
[redacted]

최응현·한영현추모사업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5-1 한양대등문회관 412호 한양청년동문회 내
02-2295-9176 / www.youngnyang.or.kr

최종길교수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위원회
서울시 성북구 정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광택 [redacted] / http://humankorea.or.kr

최진욱 추모
서울시 마포구 연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501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02-3270-9474
http://www.nhiu.or.kr/Main/etc/bunhyang/bunhyang.php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1 5층
T. 02-2679-8201 F. 02-679-8328
www.moon.or.kr / [redacted]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

정법영추모사업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8-4 청주도시산업선교회
043-271-6412

최덕수추모사업회
충남 천안시 쌍용동 청솔아파트 207동 901호
www.duksu.org

광주전남지역

강상철추모사업회(준)
전남 목포시 삼학동 1391-1 한남빌딩 2층
061-272-4268

김양무정신계승광주전남사업회
광주시 북구 유동 107-8 3층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광주시 동구 궁동 7-7 이화빌딩 503호
062-236-2759
http://cafe.daum.net

김철수열사추모사업회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19 2층
http://cafe.daum.net/cholsusarang

류재을추모사업회(준)
광주시 동구 산수2동 440-9 303호
http://cafe.daum.net/saramdle

문승필추모사업회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학생회관 4층 422호 YMCA

박승희추모사업회
광주시 북구 신안동 477-7 3층
T. 062-527-2777 / F. 062-527-5734
http://cafe.daum.net/cosmos91

박태영추모사업준비위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00-2
http://cafe.daum.net/gmlqkdneh

오영권추모사업회(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 1동 717-24 101호
http://cafe.daum.net/ohchumo

이경동 · 한상윤추모사업회
광주시 북구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 학생회관2층
http://cafe.daum.net/chumosaup

이철규추모사업회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 27 조선대학교 동창회관 5층
T. 062-232-5809 / F. 062-228-0199
www.cleartruth.or.kr

표정두추모사업회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입산리 1구 311
http://honam-higi.net

전북지역

전북노동열사추모사업회
전북 덕진구 우아동 3가 748-24
063-244-8147 / http://chonbuk.nodong.net

박복실추모사업회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235-1 익산노동자의 집
063-852-6949 F 063-843-3330 nogib.inp.or.kr

대구경북지역

김수경추모사업회
대구시 중구 남산3동 613-30 석초빌딩 3층
053-425-8420 / http://cafe.daum.net/90cham

김영균추모사업회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자활후원기관
http://www.namhemin.org

김하영추모사업회
경북 영천시 야사동 202-9 우영빌라 202호
http://ineye.com.net.kr

박동희추모사업회
대구시 중구 서내동 65-2 2층
http://10sa.org

박미경추모사업회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233-3 전교조 대구지부
053-746-0451

배주영추모사업회
경북 안동시 천리동 212-5 3층 전교조 경북지부
T. 054-857-7367 / F. 857-7368
http://kb.ktu.or.kr

손석웅추모사업회
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131-10 2층
http://cafe.daum.net/sonchusa

부산경남울산지역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4층
051-637-7468
http://fighting.jinbo.net

김순복 · 손구영추모모임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338-8 농민의 집 3층 전농 경남도연맹
T. 055-761-7557 / F. 055-761-6739

대우조선노동조합
(이석규, 이상모, 박진석, 박삼훈, 최대림 추모)
경남 거제시 장승포 우체국 사서함 6호 대우조선노동조합 문화체육부
T. 055-680-6611 / F. 055-682-2001

한진중공업노동조합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T. 051-416-1297 / F. 051-412-0504

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준)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13
051-802-8966
http://binmin.jinbo.net/bmpif/top.html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금속노조 경남지부 (준)두산중공업지회
T. 055-278-8612 / F. 055-278-8560

서영호 · 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내
052-289-9265 / http://remember.liso.net

신용길추모사업회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516-1 3/2
http://my.netian.com/mdrmdr

조수원추모사업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5 대우정밀 노동조합
T. 051-509-2360 / F. 051-508-6195

진성일추모사업회
부산시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제2학관 302호
051-620-4691
http://mindong.or.kr/jsi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T. 052-230-5091 / F. 052-233-8221

양영진 · 장재완추모사업회
부산대 민주동의회

제주지역

김완찬추모모임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643-1 한국통신노동조합제주지방본부
064-725-4220

양완찬추모사업회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3-52 진광교
064-711-4204

민주노총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1층 노동운동역사정립 및 열사정신계승 특별위원회
T. 02-2670-0236 / F. 02-2635-1134
www.nodong.org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 금성빌딩 3층
T. 02-704-6150 / F. 02-704-6156 / www.nadrk.org

민주주의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1-7동광빌딩 2층
T. 02-2299-3200 / F. 02-2281-21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4층
T. 02-675-6181 / F. 02-675-6184 / http://eduhope.net

전국사회보힘노조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501호
02-3270-9474
http://www.nhiu.or.kr/Main/etc/bunhyang/bunhyang.php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T. 02-2631-1948 / F. 02-2631-1949

한 시대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민족민주 열사, 희생자들은 한분 한분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함께 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 발간된 '살아서 만나리라' 이후 그동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열사들의 항거투쟁을 접하며, 그러한 고민들은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민주열사, 희생자들 희생과 노력에 의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절차적 민주화는 이루어 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열사들의 항거에서 보듯 각 부문들의 민주화는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은 과정이며, 아직도 위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족민주 열사, 희생자들의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아쉬움은 열사사업, 추모사업을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과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회복, 보상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4년여의 조사를 통해서도 아직도 대다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시 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청산의 큰 대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폭압기구에 의해 희생된 열사·희생자들의 죽음이 만천하에 명명백백 드러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죽음에 대해서 조차 차별을 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명예회복과 보상이 되었으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조차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관련 자료의 공개가 무

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집을 준비하며 열사, 희생자들에 대한 호칭을 '동지'로 통일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열사들의 뜻이 미완의 과제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의미와 열사들의 희생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야할 과제임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열사, 희생자들의 삶과 투쟁을 각 정권별 총론 형태의 사회배경과 정부정책등의 통치내용과 시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맞게 정권별로 열사들의 삶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문별 열사들의 삶을 나열하기 보다, 열사들의 활동과 역사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시기를 휴전 직후로 확장하였다. 그동안 박정희 정권 시기로 규정된 것들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로 넓힌 것입니다. 역사는 단절되어 발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53년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역사의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이루고자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신 유가협 어머니님, 아버님들과 사회 각 부문에서 열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자료집을 바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정치적 죽음인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2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발간팀
노승헌, 배병국, 윤선희, 이형숙, 장현일, 정경원, 정윤희, 한현우

강구철 274	김영자 120	박일수 238	이덕인 140	정태수 268
강연석 250	김왕찬 56	박현재 138	이동현 196	제종철 290
강희철 280	김윤수 174	박홍수 258	이민호 48	조경천 16
계훈제 254	김정훈 282	배달호 206	이범영 132	조수원 52
고정자 18	김종배 182	배동복 176	이상관 178	조현식 170
곽재규 228	김주리 24	서영호 22	이상희 100	주명순 252
권두영 112	김주익 226	서전근 50	이성경 210	지용진 152
권양섭 154	김준배 106	성기득 234	이성도 214	지학순 116
권오복 212	김진균 294	성순희 118	이영기 298	진광수 68
권운상 148	김춘봉 242	손구용 128	이오순 124	진철원 86
권종대 292	김하영 98	송석창 222	이옥순 188	진태윤 156
권희정 88	남평균 192	신건수 76	이용석 230	채희돈 10
길옥화 28	노수석 84	신길수 168	이창환 74	천덕명 204
김기욱 200	류재을 104	신연숙 142	이해남 232	최 옹 30
김낙성 40	문익환 122	신창균 302	이현중 224	최경철 180
김남식 300	문재룡 276	안동근 194	이형관 108	최대림 164
김남주 130	문한영 144	안상운 262	임영덕 208	최명아 166
김남준 266	민병일 150	양봉수 44	임종호 42	최복남 218
김말룡 146	박기호 66	양주석 136	임혜란 26	최성묵 38
김명한 184	박동진 236	오영권 92	장광명 288	최신애 110
김병진 220	박동학 94	오용철 60	장현구 82	최연진 270
김상욱 36	박문곤 62	오원택 78	정상국 240	최옥란 272
김성원 264	박미경 20	유구영 58	정성범 172	최정환 134
김성운 34	박봉규 278	유순조 198	정순덕 296	최진욱 186
김순복 126	박삼훈 46	육지희 80	정영부 14	한경석 202
김순조 190	박상운 244	윤창녕 256	정영상 12	한상근 102
김승훈 284	박상준 216	이경동 70	정운갑 8	한상용 72
김시자 54	박성호 32	이경해 286	정인택 96	홍장길 64
김양무 260	박순덕 158	이길상 248	정종태 246	황인철 114
				황혜인 90

끝내 살리라 ②

발행처 : 민족민주열사·희생자(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행일 : 2005년 3월 25일

주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기념)단체연대회의**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385-233번지 4층
전화 02-716-7565,7586 팩스 02-716-7566
www.yolsa.org / yolsa75@jinbo.net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3/1 한울삼
전화 02-764-1684 팩스 02-743-2835
www.ugh.or.kr / ugh1684@hanafo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2층
전화 02-2670-9100 팩스 02-2635-1134
www.nodong.org

디자인 : ANND